

발간 등록 번호

대구교육 2020-128

미래를 배운다 \*  
함께 성장한다

## 2020학년도 대입전형 면접후기 자료집

(Ⅱ. 수도권 & 대구·경북외 지역)



대구광역시교육청



## II. 수도권&대구경북의 지역

( 71개 대 181학과 )

면접전략 A to Z	1
대학별 면접유형 분류	11
GIST	15
기초교육학부	
KAIST	16
기초학부	
POSTECH	17
단일학과	
UNIST	24
이공계열	
가천대학교	25
경영학부	
컴퓨터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강원대학교	28
경영회계학부	
건국대학교	29
문화콘텐츠학과	
의생명공학과	
경인교육대학교	31
초등교육과	
경희대학교	32
Hospitality경영학부	
국제학과	
생체이공학과	
언론정보학과	
의예과	
전자공학과	
치의예과	
고려대학교	42
간호학과	
경영대학	
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기계공학부	
독어독문학과	
물리학과	
바이오의공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생명과학부	
서어서문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심리학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컴퓨터학과	
한국사학과	
행정학과	

고려대학교(세종)	79
스포츠과학전공	
공주대학교	80
교육학과	
광운대학교	82
경영학과	
국민대학교	83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군산대학교	84
해양생명의학전공	
극동대학교	85
항공운항학과	
나사렛대학교	86
특수교육과	
남서울대학교	87
멀티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	
대전대학교	88
한의예과	
동국대학교	89
의예과	
한의예과	
동덕여자대학교	91
사회복지학과	
동명대학교	92
군사학과	
동아대학교	93
패션디자인학과	
명지대학교	94
건축학부	
수학과	
아랍지역학과	
융합전공학과	
정치외교학과	
컴퓨터공학과	
백석대학교	100
특수교육학과	
부경대학교	101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수해양산업교육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중국학과	
행정학과	
환경대기과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108
간호학과	
부산교육대학교	109
초등교육과	
부천대학교	110
항공서비스과	
상명대학교	111
디자인학부	

서울가톨릭대학교	112
사회복지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3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서울교육대학교	114
초등교육	
서울대학교	116
경제학부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기계항공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독어교육과	
불어불문학과	
사회교육과	
수리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언론정보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의예과	
인문광역	
전기정보공학부	
정치외교학부	
치의학과	
통계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161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경제학부	
공간정보공학과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전공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전공	
물리학과	
생명과학-빅데이터분석학전공	
철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원예학과	
서울여자대학교	174
수학과	
일어일문학과	
서울예술대학교	176
광고창작전공	
서원대학교	177
항공서비스학과	
선문대학교	178
환경생명화학공학과	
성균관대학교	179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세명대학교	181
항공서비스학과	

<b>세종대학교</b>	<b>182</b>
전자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b>수원대학교</b>	<b>184</b>
건축도시부동산학과	
<b>송실대학교</b>	<b>185</b>
글로벌미디어학부	
전기공학부	
<b>신한대학교</b>	<b>187</b>
국제어학과	
유아교육과	
<b>아주대학교</b>	<b>189</b>
건설시스템학과	
건축학과	
경제학과	
미디어학과	
정치외교학과	
<b>연세대학교</b>	<b>194</b>
간호학과	
경영학과	
교육학부	
언더우드학부(공학)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언론홍보영상학부	
영어영문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천문우주학과	
철학과	
<b>연세대학교(원주)</b>	<b>206</b>
물리치료학과	
<b>우송대학교</b>	<b>207</b>
글로벌아동교육학과	
외식조리학과	
<b>울산대학교</b>	<b>209</b>
의예과	
전기전자공학과	
<b>원광대학교</b>	<b>216</b>
의예과	
<b>육군사관학교</b>	<b>217</b>
육군사관학교	
<b>이화여자대학교</b>	<b>221</b>
경제학과	
국제사무학과	
식품공학과	
중어중문학과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b>인제대학교</b>	<b>226</b>
의용공학과	
<b>인천대학교</b>	<b>227</b>
생명과학과	
전기공학과	

<b>인하대학교</b>	<b>229</b>
경영학과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중국학과	
화학공학과	
<b>전남대학교(여수)</b>	<b>233</b>
수산생명의학과	
<b>제주대학교</b>	<b>234</b>
수산생명의학과	
<b>중원대학교</b>	<b>235</b>
항공운항학과	
<b>진주교육대학교</b>	<b>236</b>
초등교육과	
<b>청주교육대학교</b>	<b>238</b>
초등교육학과	
<b>청주대학교</b>	<b>239</b>
항공운항학과	
<b>총신대학교</b>	<b>240</b>
역사교육과	
<b>충남대학교</b>	<b>241</b>
경제학과	
자유전공학부	
<b>충북대학교</b>	<b>243</b>
의예과	
<b>한국교원대학교</b>	<b>244</b>
유아교육과	
중국어교육과	
<b>한국교통대학교</b>	<b>247</b>
철도경영물류컴퓨터학부	
항공서비스학과	
<b>한국외국어대학교</b>	<b>250</b>
러시아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수학과	
융합일본지역학과	
중국어외교통상학과	
<b>한서대학교</b>	<b>255</b>
항공관광학과	
항공운항과	
<b>호서대학교</b>	<b>258</b>
항공서비스학과	
환경공학과	
<b>홍익대학교</b>	<b>260</b>
게임그래픽디자인학과(세종)	
디자인학부	

**\*올해 각 대학의 면접\*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동  
이 있으니, 각 대학의 입  
학처 사이트를 통해 정확  
히 확인 후 대비하시기 바  
랍니다.

## 대입 합격을 결정하는 면접전략의 A to Z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종 관문인 '면접'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면접은 수험생의 말을 통해 '생각'과 '태도', '학업 역량' 등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학생선발 방법이다. 따라서 지원자에게는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또 다른 장점과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누군가는 면접을 '10분의 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대학들은 심층면접이나 구술면접의 형태가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 속 사실을 확인하고, 활동의 동기와 과정, 진로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면접은 그때그때마다, 대학마다, 학과마다, 면접관마다 다른 게 사실이다. 게다가 면접관의 주관적인 질문내지 추가질문 또한 각양각색이다. 이런 상황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해법은 간단한 법이다. 학생들은 기본에 충실한 면접을 준비하면 된다.

본 자료집은 면접이 마지막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중요함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게 되었다.

### I. 면접의 종류 및 평가 내용

면접은 종류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다양하다. 면접의 종류는 실시 방식에 따라 크게 개인 면접, 집단(토론) 면접, 제시문(발표) 면접, 다중 미니 면접, 합숙 면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슷한 형식의 면접이더라도 대학별로 사용하는 면접의 명칭은 다양하다.

#### 1. 개인 면접 : 일반적인 면접의 형태이다.

방식	- 다(多)대일(一) (면접관 2~3명, 응시자 1명) 면접 - 면접관이 응시자의 특성, 응답 내용 및 반응에 따라 질문
평가역량	-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인성, 사회성 등
시간	- 10~15분

#### 2. 집단(토론) 면접 : 주로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활용하는 면접의 형태이다.

방식	- 다(多)대다(多) (면접관 2~3명, 응시자 3~5명) - 공통 주제를 제시한 후 응시자의 특성, 응답 내용 및 반응 파악
평가역량	-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인성, 사회성 등
시간	- 과제 준비 시간: 10~30분 - 토론 시간: 20~30분

### 3. 제시문(발표) 면접

방식	- 다대일(면접관 2~3명, 응시자 1명)면접 - 제시문을 제시한 후 응시자의 특성, 응답 내용 및 반응 파악
평가역량	-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인성, 사회성 등
시간	- 과제 확인 및 답변 준비 시간: 10~50분 내외 - 발표 시간: 5~20분 내외

### 4. 다중 미니 면접 (MMI, Multiple Mini Interview) : 주로 의과대에서 활용하는 면접의 형태이다.

- 다대일(면접관 2~3명, 응시자 1명)을 통해 응시자를 심층적으로 파악
-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5~6회 진행(면접 1회당 10분 내외 진행)

## II. 면접 평가자는 누구일까?

면접은 누군가가 면접 대상자인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평가한 점수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므로 평가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파악하여 면접에 임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자는 누구일까? 보통 평가자를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데 입학사정관은 크게 전임 입학사정관과 위촉(교수) 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임 입학사정관은 평소 입학처에서 입학사정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위촉(교수) 입학사정관은 평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 기간에 입학사정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서류 평가와 면접에는 대부분 위촉(교수)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하며, 주로 지원하는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 임할 때 지원하는 전공을 미리 조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정적인 학생들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수들의 사진, 연구 분야 및 주제, 발표 논문, 가르치는 과목을 미리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 III. 면접 질문 예시

면접 질문의 종류는 크게 학생이 제출한 서류 관련 질문, 지원 전공 관련 질문, 인성 관련 질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출 서류 관련 질문은 꼼꼼히 자신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점검한 후 예상 문제 및 답변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지원 전공 관련 질문은 평소 전공과 연계된 책·논문·신문 기사·영상 찾아보기나 현장 및 전문가 탐방 등을 통해 전공을 이해하며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1. 제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예시

####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문

- 지각이 0번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장래 희망이 ○○○에서 ○○○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년별 장래 희망이 모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꿈이 PD(진로)임에도 사회학과(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탐구 대회에서 실험으로 상을 받았는데, 무엇에 대한 실험이었나요? 실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 교내 융합과학 탐구 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STEAM이 무엇인가요?

- <물리>가 1~2등급인데 기계와 가장 관련이 많은 물리 공식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 학생부상 성적이 점점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등학교 때 가장 잘한 과목과 못한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책을 읽었네요. ○○○ 책의 내용과 본인의 소감에 대해 말해 볼까요?

#### ■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 ○○○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 본인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의 성적에 변화가 있었나요?
- ○○ 활동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학생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 자신을 소개(자랑)해 보세요.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세요.
- ○○○ 대학에 지원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 우리 대학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 보세요.
-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말해 보세요.
- 앞으로 3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말해 보세요.
-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 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세요.

## 2. 지원 전공(전공 지식, 시사) 관련 질문

-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 부전공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 ○○ 과목이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알고 있나요?
- 대학 진학 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졸업 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 전공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말해 보세요.
- 합격한다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보세요.
- 세계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대학이나 학자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과 관련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게임 이론에 대해 말해 볼래요?
- 프리즈너스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을 비교해 보세요.
- 인간이 질병에 감염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보세요
-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3. 인성 관련 질문

- 학생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 중에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 자신의 생활신조나 신념을 말해 보세요.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말해 보세요.
-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

#### 4. 학교별 실제 면접 내용 사례

##### ■ ○○대

- 많은 국가들에서 불평등이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이나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하시오.
- 세계의 인구 이동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유들로 발생한다. 최근 전쟁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백 만 명의 국외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 우버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

##### ■ ○○교대

- ○○대학교는 내년부터 성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성적장학금 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적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폭로하는 웹 사이트이다. 지난 2010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기록이나 외교문서를 폭로하여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다. 이러한 위키리크스의 활동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 ○○대

- 의과대학 신입생 중 2명을 선발하여 해외유명대학교 탐방의 기회를 준다. 학생회에서 선발고사를 통해 남녀 각각 1명씩 참가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본인은 선발고사 2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별 학생이 성적 1등으로 선발되어 탐방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친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친구가 학교 단톡방에 관련 내용을 올렸더니 남녀 편 가르기 양상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지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인가?
- 요즘 남녀 편 가르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과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얘기해 보라.
- 3학년 때 또래조정 상담자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 중에서 지원자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 지원자가 실천한 봉사활동 중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라.
- 고교 재학 중 지원자가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서 의미가 깊었던 교내활동은 무엇인가?
- 자기소개서에서 지원동기와 진로목표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본 학과에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 ☺ Tip

-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질문은 대부분 시사성 있는 사건과 관련된다. 평소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시사성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주제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토론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면, 토론의 주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토론 주제는 대부분 시의적절한 주제이므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자.
- 시사성 있는 주제를 찾았으면, 교과서에서 이와 관련성 있는 단원을 찾아 서로 연결시키고, 해당 단원의 학습활동 문제를 풀어보자. 학습활동 문제가 면접 질문 유형과 놀랍도록 유사



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친구들과 토론 주제를 정하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서로 토론하는 면접 연습을 하자.
- 시간이 날 때마다 면접을 대비한 답변 연습을 실전처럼 하자.

## IV. 면접 실전 준비 및 답변 전략

### 1. 사전 준비 전략

- 기출문제(동일 또는 유사 전공 관련 타 대학 자료 모두)를 분석한다.
- 예상 문제(학생부, 자소서, 전공, 시사) 및 답안 작성을 한다.
- 지원 전공 관련 교과목 및 전공 관련 공부를 한다.
-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5회 이상)을 체험해 본다.

### 2. 답변 태도 및 방법

- 면접관을 똑바로 바라본다.
- 결론을 먼저 말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부연 설명을 한다.
- 답변은 질문의 의도에 맞도록 1~2분 내외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한다.
- 구체적(사례나 일화, 경험 등)이며 깊이 있는 답변을 한다.
- 유행어 및 은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겸손하며 당당한 자세로 말한다.
- 자신의 전공에 열정과 애정을 보인다.

### 3. 난처한 질문 시 대처 방법

- 질문에 대해 답을 모르거나 충분히 생각해도 잘 모르는 경우 "면접관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솔하게 말하면 된다.
- 정답은 알지만 긴장해서 몸이 굳어 버린 경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다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차분한 태도로 답변한다.
- 질문의 핵심을 알 수 없을 때나 묻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까?"라고 물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답변한다.

### 4. 기타 유의 사항

- 면접을 잘 준비하고 제대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의 사항을 잘 지켜 면접에서 피해를 입거나 감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면접 시간에 늦지 않는다.
- 문을 열 때 반드시 노크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장신구 착용, 신발 끌기, 구두 굽 소리 등).
-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은 감점 대상이다.
- 다리를 벌리거나 떠는 등 산만한 태도는 금물이다.
- 머리를 자주 긁적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 (집단·토론 면접 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단순히 외워 온 암기식 답변은 피한다.

## V. 면접 진행 절차 및 유의 사항

면접의 종류에 따라 진행 절차와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진행 절차별 내용과 준비 사항을 미리 숙지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면접에 임할 수 있다.

### 1. 진행 절차

#### ■ 제시문이 없는 경우

대기 및 호명→면접장 입실→질문 및 답변→퇴실

#### ■ 제시문이 있는 경우

대기 및 호명→면접 준비실에서 제시문 확인 및 면접 준비→면접장 입실→질문 및 답변→퇴실

### 2. 진행 절차별 유의 사항

#### ■ 대기 및 호명

- 면접시험은 이미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된다.
- 조용한 태도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 차례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 번 복장을 살핀다.
- 먼저 강의실이나 강당 등 정해진 장소에 응시자 전원이 모여 있다가 진행 상황과 감독관의 호명에 따라 조를 이루거나 개별적으로 이동해 면접실 앞으로 옮긴다.

#### ■ 면접 준비실(제시문 면접)

- 제시문과 질문을 정확히 분석한다.
- 정확히 아는 제시문 중심으로 답변 내용을 작성한다. 모르는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아는 문제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 후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도록 하자.
-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 순서와 순서별 핵심 내용을 작성한다.
- 핵심 내용 아래에 세부 근거나 부연 답변을 작성한다.

#### ■ 면접장 입실

- 가볍게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 문을 닫고 면접관을 향해 똑바로 서서 가볍게 목례한다.
- 엉덩이를 위자에 붙이고 앉으며, 두 손은 양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다.
- 다리는 벌리거나 꼬지 말고 곧게 펴서 앉는다.
- 정면을 응시하다가 질문이 시작되면 면접위원의 눈을 단정하게 응시한다.

#### ■ 질문 및 답변

- 면접위원의 질문은 끝까지 귀담아 듣는다.
-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한 번쯤 다시 물어보아도 좋다.
- 질문이 끝난 후 생각을 가다듬은 뒤 조리 있게 답변을 시작하도록 한다.
-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는 안 되며, 특히 목소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자.
- 적절하면서도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 면접장 퇴실

- 끝까지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했다고 해서 고개를 푹 숙이거나 인상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끝났다는 지시가 있으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침착하게 퇴실한다.
- 면접 평가는 나가는 순간에서도 진행 되고 있음을 유의한다.

## VI. 시기별 면접 준비 방법

면접은 단시간에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유념하여 현재의 상황을 면접 상황과 연계하여 대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신의 전공이 완전하게 정해지고 난 뒤, 그리고 면접 직전에 해야 할 준비 내용을 구분해서 연습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준비가 될 것이다.

### 1. 평상시 준비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화법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말하기 능력이 높아야 면접고사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노력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들은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들이므로 평소에 유념해서 잘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말을 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날 문득 조리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평소에 자신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학급 회의나 수업 시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에도 가능하다면 자신의 의견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한 후 이야기하는 습관을 지니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냥 순간적인 기분이나 단순한 추측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더욱이 이를 입에 올리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머릿속에 보석보다 빛나는 생각이 떠올라도 이를 논리화시키지 못하면 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마디 툭 던지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가 하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면접에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술 공부와 병행하는 것도 좋다.

#### ■ 정확한 표현법을 익히자.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해서 다르고 ‘아’해서 다르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말 한마디에도 그 내용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법에 맞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등 표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장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끔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맴도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면접고사는 생각 자체보다는 생각을 표현한 언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자.

**■ 발성 및 발음 연습을 하라.**

발성 및 발음 연습도 필요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녹음시켜 자신의 성량, 발음, 속도, 어조 등을 점검해 보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내용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잘잘못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 자연스러운 몸짓 언어를 익히자.**

자연스러운 몸짓 언어는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고 효율적인 의사 전달에도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연습해 둘 필요가 있다. 부자연스럽거나 불량한 몸짓 언어를 지닌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좋은 감정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험생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와 몸짓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세는 똑바른지, 말할 때 표정은 어떤지, 시선처리나 손짓은 어색하지 않은지 하는 점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연스러운 몸짓을 익히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거울 대신에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주제별 토론을 가져라.**

면접 준비 방식 중에 토론만큼 유익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사고력의 발달은 물론 조리 있는 표현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다. 면접고사나 논술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논제로 삼아 토론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1-3분 정도의 스피치(짧은 말하기) 연습을 하라.**

면접고사에서 나옴직한 문제에 1-3분 정도 답하는 스피치 연습을 하도록 한다. 면접고사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치르게 되므로 상당히 긴 편이다. 3분 정도 말하는 내용을 원고지에 옮기면 1,200자 정도의 분량이 된다. 논술 답안의 분량과 맞먹을 정도의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00자 원고지 2매-4매 정도의 분량의 답변을 글로 쓴 뒤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 보도록 한다. 이것이 숙달되면 그 다음에는 개요만 간단하게 작성한 후 개요에 살을 붙여 가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되면 개요 없이 말하는 훈련을 쌓도록 한다. 모의 면접고사 훈련을 해 보는 셈이다.

**■ 다수의 청자를 앞에 놓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평소에 집안 식구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집안 식구들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녹음기와 거울 등을 사용해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녹음하도록 한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말하는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고 녹음된 내용을 틀어놓고 자신의 음성, 어조, 발표 내용을 검토한 후 잘못된 점을 수정하여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도록 한다. 이러한 훈련은 면접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 전공 선택 후 준비**

면접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질의와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도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하다. 앞의 기본 연습과는 달리 실제 면접고사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 자기 자신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연습을 하라.**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문은 수험생 자신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수험생의 기본 소양을 묻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험생 자신을 소개하라는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에는 자신의 신상이나 성격의 장단점, 경력, 이력, 가족관계, 주변 환경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관한 소개를 3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약해 두고 자주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 소개서를 미리 작성하여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면접고사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미리 자기 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학과에 따라서는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회에 뚜렷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워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 ■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라.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념, 연혁, 특성 등을 조사하여 인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노력은 수험생 자신이 대학을 선택할 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접고사에서도 도움이 된다. 수험생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열의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면접시험에서 지원 대학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이 곧잘 나온다. 또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는 경우라도 자신의 꿈과 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대학의 지원 동기와 연관 지어 답변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는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 ■ 자신이 선택한 학부(학과)의 특성을 파악하라.

수험생이 지원할 학부(학과)의 특성, 교과 과정, 취업 및 진로 현황 등의 학과 정보를 수집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학생 자신의 특성(능력, 성격,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에 관한 질문은 면접고사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세부 학문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도 필요하다. 전공 영역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습은 전공교과 적성을 묻는 질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개론서, 원론 등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시사 상식에 관한 정보를 넓혀라.

수험생은 시사 상식을 넓히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면접고사에서 시사 상식을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해 정리하여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지원 대학이나 학과와 관련된 시사 뉴스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스크랩해 두어야 할 것이다.

#### ■ 신문 읽는 습관을 들여라.

신문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신문을 읽으면 시사 상식 능력이 저절로 향상된다. 사설(社說)을 읽는 것도 좋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칼럼 등을 읽는 것도 좋다. 이때 무조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견해나 입장이 타당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평소 신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3. 직전 준비

면접고사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눈앞에 닥친 면접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금 참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면접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기본 소양에 관한 답변 내용이나 면접고사에 나갈 차비를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교과 적성에 관해서는 그간 준비해왔던 자료를 한번 읽어보거나 지원 대학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가볍게 점검한다. 교과 적성에 관한 준비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시험 바로 전날에는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복이나 준비물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 전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기본 소양 영역 점검

- 생활신조, 좌우명, 존경하는 인물
-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의 시사 문제에 대해 알아두자.
- 고등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학교명과 학교장명, 교풍, 특색, 교훈, 교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친구 관계, 특별 활동(소속, 활동 상황), 잘하는 학과목, 부진한 과목, 출결 상황, 대학에 진학한 선배 현황에 대해 알아두자.
- 지원 대학과 관련하여 교육 이념, 건학 정신, 교육 방침, 교풍, 지망 대학 출신 각계 저명인사, 지원 동기(이유), 해당 대학과 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 4. 면접 당일 점검 사항

-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다.
-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한다.
- 단정한 옷차림(대학별 면접 복장 안내문 참고)을 준비한다.
- 자신이 제출한 서류(학생부, 자소서, 기타) 최종본을 읽고 숙지해서 간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면접도 대입에서 합격, 불합격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준비 및 유의사항을 잘 점검하여 후회 없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자.

#### ※ 참고자료

1. 장광원 외3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의 모든 것. 북캠퍼스. 2017.
2.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자료집-면접 지도편. 2017.

## [부록] 대학별 면접 유형 분류

2020대입 서울권15개 / 대경권13개				면접 유형					질문 유형					
대학명	전형명	전형 분류	수능 최저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 문 기반	토론	다중 미니	서류 확인	시사 상식	인성 가치 관	동기 학업	전공 소양	심층 질문
DGIST	학교장추천	학종	무	서			토		확		인	동	전	심
DGIST	일반	학종	무	서			토		확		인	동	전	심
DGIST	고른기회	학종	무	서			토		확		인	동	전	심
DGIST	특기자	학종	무	서			토		확		인	동	전	심
경북대	모바일 과학인재	학종	무	서		제			확			동	전	심
경북대	학생부종합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경운대	일반전형1	교과	유/무		단						인	동	전	
경운대	일반전형2	교과	유/무		단						인	동	전	
경운대	지역인재 전형	교과	유/무		단						인	동	전	
경운대	학생부종합	학종	유/무	서	단				확		인	동	전	
경운대	체육실적	실기	무		단						인	동	전	
경일대	면접전형	교과	유/무		단					시	인		전	
경일대	지역인재 면접전형	교과	유/무		단					시	인		전	
경일대	학생부종합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경일대	성인 학습자전형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경일대	특성화고졸 재직자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계명대	학생부종합	학종	무	서					확	시	인	동	전	
계명대	학생부교과 (의예과)	교과	유					다			인	동	전	
금오 공대	만학도전형	교과	무		단						인	동	전	
금오 공대	kit인재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금오 공대	지역인재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금오 공대	특성화고졸 재직자	교과	무		단						인	동	전	
대구가 톨릭대	DCU자기 추천	교과	무			제			확		인	동	전	
대구가 톨릭대	성소자추천	교과	무			제			확		인	동	전	
대구가 톨릭대	가톨릭지도 자추천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대구가 톨릭대	지역교과우 수자 (의예과)	교과	유			제		다	확		인	동	전	
대구 교대	학생부종합	학종	무	서		제		다	확		인	동	전	심

2020대입 서울권15개 / 대경권13개				면접 유형					질문 유형					
대학명	전형명	전형 분류	수능 최저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 문 기반	토론	다중 미니	서류 확인	시사 상식	인성 가치 관	동기 학업	전공 소양	심층 질문
대구대	학생부종합 (면접)	학종	무	서					확	시		동	전	
대구대	장애인 등 대상자	학종	무	서					확	시		동	전	
대구 한의대	학생부교과 (면접)	교과	유/무		단					시	인	동	전	
안동대	일반학생 (사범대)	교과	유		단						인	동	전	
안동대	지역인재 (사범대)	교과	유		단						인	동	전	
안동대	ANU 미래인재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안동대	사회적 배려자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안동대	농어촌학생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영남대	창의인재	교과	유		단						인	동		
영남대	잠재능력 우수자	학종	무	서	단				확		인	동	전	
영남대	사회기여 및 배려자	학종	무	서	단				확		인	동	전	
영남대	특성화고졸 재직자	학종	무	서	단				확		인	동	전	
영남대	기회균형	학종	무	서	단				확		인	동	전	
영남대	육군 군장학생 (군사학과)	기타	유		단		토				인	동	전	
포항 공대	일반	학종	무	서							인	동	전	심
포항 공대	창의IT인재	학종	무	서			토				인	동	전	심
포항 공대	고른기회 (저소득층)	학종	무	서							인	동	전	심
건국대	KU 자기추천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건국대	사회통합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건국대	고른기회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학종	무	서	단				확	시	인	동	전	
경희대	고른기회 I	학종	무	서	단				확		인	동	전	
경희대	실기우수 (체육)	실기	무		단						인	동	전	
고려대	일반	학종	유	서		제			확					심
고려대	학교추천 I (인문)	학종	유	서			토		확					심
고려대	학교추천 I (자연)	학종	유	서		제			확					심



2020대입 서울권15개 / 대경권13개				면접 유형					질문 유형					
대학명	전형명	전형 분류	수능 최저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 문 기반	토론	다중 미니	서류 확인	시사 상식	인성 가치 관	동기 학업	전공 소양	심층 질문
고려대	학교추천Ⅱ	학종	유	서		제			확					심
고려대	사회공헌자 Ⅰ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사회공헌자 Ⅱ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특기- 인문계열	실기	무	서		제			확		인	동	전	
고려대	특기- 자연계열	실기	무	서		제			확		인	동	전	
고려대	특기- 체육교육과	실기	무	서		제			확		인	동	전	
고려대	농어촌학생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사회배려자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특수교육 대상자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특성화고교 졸업자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특성화고졸 재직자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고려대	사이버국방	학종	유	서		제			확		인	동	전	
동국대	DoDream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동국대	불교추천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동국대	고른기회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서강대	면접 미 실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서울대	일반	학종	무			제							전	심
서울대	일반 (의,치,수)	학종	무	서				다	확		인	동	전	심
서울 시립대	학생부종합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서울 시립대	고른기회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서울 시립대	사회공헌 통합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서울 시립대	실기 (산업디자인)	실기	무			제							전	
성균 관대	학종 (학과모집) 해당학과	학종	무	서					확		인			
숙명 여대	숙명인재Ⅱ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심
숙명 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심

2020대입 서울권15개 / 대경권13개				면접 유형					질문 유형					
대학명	전형명	전형 분류	수능 최저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 문 기반	토론	다중 미니	서류 확인	시사 상식	인성 가치 관	동기 학업	전공 소양	심층 질문
숙명 여대	예능창의인재 (체육교육/시 각영상디자인)	실기	무	서					확		인	동	전	
연세대	면접형	학종	무			제				시				심
연세대	활동우수형	학종	무	서		제			확		인	동	전	심
연세대	국제형	학종	무											
연세대	기회균형	학종	무	서		제			확		인	동	전	심
연세대	어문학인재	실기	무			제							전	심
연세대	과학인재	실기	무			제							전	심
연세대	국제인재	실기	무		단								전	심
연세대	체육인재	실기	무		단						인	동	전	
연세대	연세한마음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이화 여대	고교추천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이화 여대	과학특기자	실기	무		단								전	심
이화 여대	어학특기자	실기	무		단								전	심
이화 여대	국제학 특기자	실기	무		단								전	심
이화 여대	예체능서류	실기	유	서					확		인	동	전	
중앙대	면접 미 실시													
한국 외대	학생부종합 (일반)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한국 외대	고른기회 I	학종	무	서					확		인	동	전	
한국 외대	외국어 특기자	실기	무	서	단				확		인	동	전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실기	무			제							전	심
한양대	글로벌인재	실기	무		단						인	동	전	
한양대	연기특기자	실기	무		단							동	전	
홍익대	미술우수자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홍익대	농어촌 (미술계열)	학종	유	서					확		인	동	전	

**\*올해 각 대학의 면접\***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동이 있으니, 각 대학의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b>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GIST 기초교육학부]</b>					
<b>대 학 / 학 과</b>	GIST	<b>전 형 명</b>	학교장 추천		
<b>면 접 시 간</b>	20분	<b>면 접 유 형</b>	서류 기반  ★	단문 통  	제시문 기반  ★
			집단 토론	다중 미니	
<b>면 접 절 차</b>	수학, 과학 관련 문제 풀이 후 면접 실시				
<b>면 접 특 징</b>	◆ 15분 수학, 과학 문제 풀이				
<b>[유의사항]</b>	◆ 5분 역량 평가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 수학, 과학 문제 풀이					
Q :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 저의 장점은 하나의 일에 매진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수학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전날 서버 제작에 몰두하였는데 처음 접하는 서버 제작이어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참고하여 새벽까지 몰두하며 서버 제작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서버를 제작하였고, 수학페스티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하나의 일에만 시선을 집중시켜 다른 일을 잘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하나의 일에 매진한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A : 저는 하나의 일에만 매진하는 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을 할 때 늘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것처럼 오일러 공식과 극 좌표계를 결합하기도 하고, 게임-새틀리 알고리즘처럼 경제 분야와 프로그래밍 분야를 함께 생각한 것처럼요.					
Q : 학창 시절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친구가 있나요?					
A : 제가 눈이 안 좋은 편이었었는데 학창 시절 저와 비슷하게 눈이 안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동정감이 생기게 되고 평소 생활하면서 힘든 점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Q : 과제 활동을 하면 다른 친구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A : 수학페스티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고리즘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이 동아리 부원마다 달랐고 서로의 의견만을 내었습니다. 이에 저는 동아리장으로서는 토론을 중재하고 부서원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여 갈등을 조절하였습니다.					
<b>[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b>					
◆ 기출 문제를 통해 어떤 유형으로 수학, 과학 문제가 출제되는지 사전 파악					
◆ 생활기록부 및 자소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한 후 면접 준비					

대 학 / 학 과	KAIST	전 형 명	학교장추천 전형				
면 접 시 간	학업역량: 20분[면접위원 2명] 학업역량 외: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학업역량면접 준비(40분) → 학업역량면접(20분) → 학업역량 외 면접 준비(15분) → 학업역량 외 면접(15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역량면접 경우, 문항별로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면서 풀이한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li> <li>◆ 풀이 도중에 사용된 개념을 질문하기도 해서 개념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li> <li>◆ 자신이 했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니 명확히 기억하고 거짓 기재는 없어야 함</li> <li>◆ 학업역량 외에 특정 상황을 주고 해결하는 문제해결식의 제시문 면접이 또 하나 존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div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10px;"> <p>■ [제시문 면접] 생략</p> <p>수학 - 물리(선택) 문제는 카이스트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p> <p>■ 동아리에 어떤 사람이 특정 동아리 활동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기를 바라며 돈을 기부했고, 6개의 동아리가 있을 경우 , 각 동아리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자기주장</p> <p>■ [질문] 최소 두 동아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예산 편성 방안 3가지?</p> <p>A.</p> <p>■ [추가질문] 3가지 방식 중 특정 방식일 때는 불만이 있는 동아리가 발생할 것인데 이 때 대처는?</p> <p>A.</p> <p>■ [추가질문] 동아리들의 주장을 떠나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방안은?</p> </div>							
<p><b>Q : 자소서를 보니 협력 탐구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진 듯 한데 리더 한 명이 이끄는 방식과 모두가 같은 비중으로 참여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좋다 생각하는가요?</b></p> <p>A : 제가 탐구한 분야에서는 개개인의 역량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이끄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p> <p><b>Q : 천동설 모형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나요?</b></p> <p>A : 설명을 하였으나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느낌을 받음</p> <p><b>Q : 자신의 장단점은?</b></p> <p>A : 장점은 끈기이고, 단점은 현재 역량으로 힘든 것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점입니다.</p> <p><b>Q : 카이스트에서 학생을 뽑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b></p> <p>A : 지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있습니다.</p>							
<b>[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대답 의도가 명확히 전달 안 될 수도 있음.</li> <li>◆ 자소서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어야 하며 명확히 기억을 떠올려 가야함.</li> </ul>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포스텍 단일학과]

대 학 / 학 과	포스텍 단일학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제시문+문제 해결(17분)/문제 풀이(사고력평가)+학교생활기록부(잠재력평가)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17분 동안 주어진 문제 풀이를 준비한 후 면접실로 들어가서 해당 문제 풀이를 진행함. 이후 시간이 좀 남는데(사고력평가랑 잠재력평가 시간을 나눈 듯함), 그 시간 동안 생기부를 보면서 잠재력평가를 진행함.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1번. 두 자동차가 1km 떨어져있다.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향해 초속 50m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두 차의 간격은 반드시 50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두 자동차가 가장 빨리 서로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2번. 지름이 40km인 섬을 628개의 드론이 둘러싸고 있다(원순열 할 때 그거).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의 고도는 4.9km이다. 드론의 속력은 시속 60km이다. 모든 드론이 섬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날아가려고 한다. 이때 드론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a. 산과의 거리, 드론간의 간격은 반드시 0.1km 이내이다.

b. 드론은 고도변경과 전후좌우이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 때, 모든 드론이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근삿값 허용)

1번: 우선 두 자동차의 속력이 같기에 한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도착하더라도 다른 자동차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두 자동차가 동시에 빨리 들어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았다. 두 자동차의 중간지점에 반지름의 길이가 25m인 원을 그린다. 각 지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린다. 이 상태로 움직인다면 원위의 점이 아닌 경우엔 두 차의 간격이 50m이상이고, 두 차의 속력이 같기에 원 위의 점에서 두 차의 간격은 원의 지름인 50m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 이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A :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했습니다. 검증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A : 음... 방정식을 푼다거나?(좀 당황함)

Q : 방정식? 무슨 방정식?

A : 음...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의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많이 당황함)

Q : (웃으시면서)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 좋아 다음 문제는? (대충 반응 보니 정답까진 아니더라도 괜찮은 답이라고 생각하신 듯.)

2번: 이건... 맨 처음에 한 답은, 일단 답을 잘못함. 1번문제랑 연계가 되는 문제였는데, 이걸 놓치고 그냥 적당히 산술기하로 풀어버렸음. 풀이과정에서 1번 문제에 비해 교수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으시기에 살짝 걱정함.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드론들을 짝지어서 고도들을 다르게 설정한 뒤 이동하는 방식. 드론들을 짝지을 때 몇 개의 드론을 묶어야 할

지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사용함. 참 멍청하게도 이러면서 좀 잘 풀었다고 생각했음.

**Q : 흠... 지금 드론들의 고도를 다 다르게 설정하고 이동한 것?**

A : 다는 아닙니다. 일단 그룹을 만든 뒤 그 그룹간의 고도를 다르게 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Q : 그러면 맨 마지막 그룹의 드론은 상당히 높은 고도를 움직여야 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A : 비효율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도를 같게 하라는 걸 암시하신 듯)**

A : 그러면 마주보는 드론들은 같은 고도에서 움직이도록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Q : 모든 드론이 같이 도착하는 건 어떤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시점에서 답답하셨을 듯)**

A : 아 그러면 마주보는 묶음이 같은 고도로 설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못 알아들었음.)

**Q : 아니 모든 드론이 다 같은 고도로..... (1번 문제를 풀 때 내가 내 입으로 두 자동차가 같이 와야 한다고 했는데, 당사자라는 놈이 이려고 있다 보니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거다.)**

A : (눈치 참)아 그러면 1번 문제를 활용해서, 반지름이 10km인 원을 중앙에 설정한 뒤, 이렇게...(중략). 문제는 1번에선 접선 활용했는데, 여기서 접선으로 안하고 그냥 중심을 향해서 직진하는 방식을 함. 이러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 (그래도 좀 만족하셨는지 표정 더 밝게)음 그래.....근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속으로 접선 생각하셨을 듯)**

A : (다행히 접선 바로 깨달았음)아 그리고 접선....(중략)

**Q : 좋아. 다른 방법은?**

A : 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원 답을 낼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으라 하니 미칠 노릇이었음)

**Q : 시간? 3분 남았으니 생각해봐^^**

A : (약 15초 정도 생각하는 척 몇 때린 뒤) 후우...모르겠음.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집중이 풀려서 그냥 놓아버린 듯... 실수함.)

**Q : 잠재력 평가를 해 볼게요~가장 자신 있는 과목?**

A : 수학, 물리 과목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수학은 진짜 자신 있어서였고, 물리는 잘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대답)

**Q : 음... 그래. 대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

A : 일단 일반고를 다니면서 참 고등학교에선 공학을 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공과대학은 공학 분야에서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Q : 아 그래 고맙네. 포공에서 뭘 전공하고 싶음?**

A : 생명과학, 그리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Q :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두 과목인데 그 이유라도?**

A : 자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 때 DGIST 교수님과 인터뷰하고 2학년 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 두 개를 묶을 수 있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Q : 그리고 동아리 한 거 없나요?**

A : 했음. 뭐 이런 거 이런 거 했습니다. 활동 중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Q : 그건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냐 그르냐를 이론적으로 따지기 보단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우선 실험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해결되었습니다.

**Q : 수고했습니다. 이제 가 봐도 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면접 가기 전에 수험표랑 학생증 꼭 챙겨가세요. 저 수험표 안 들고 가서 귀찮게 유웨이에서 수험번호 찾아야 했어요. 그나마 이걸 괜찮은데 학생증 없으면 답 없어요.
- ◆ 잘한 점이라면 문제 풀이 자체를 잘한 듯? 근데 솔직히 다른 기출에 비해 쉬운 편이라 다른 애들도 다 잘했을까봐 걱정임. 그리고 다른 걸로는 되게 당당하게 함. 경대치대 최저를 맞춰서 부담이 없었기 때문인지, 웃으면서 당당하게 또 박또박 말했음.
- ◆ 아쉬운 점이라면 말을 너무 길게 함. 모의면접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타고난 본성인지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짐. 그래서 잠재력 평가가 아쉬움. 그 외에도 몇 개 있긴 한데 이걸 카이스트 떨어지고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서 생긴 일이라 굳이 적진 않겠음.
- ◆ 일단 수험표랑 학생증 챙겨야함. 포항공대 면접 올 때는 그냥 생기부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음. 교수님들 눈치를 보니 자소서를 대충 보시고 면접보시는 것 같았음. 계기가 자소서에 적혀 있는데 굳이 그걸 여쭙시는 걸 보면... 아니면 진짜인지 궁금하셨을 수도? 그리고 대학에서 뭘 하고 싶은지, 공학을 배우고자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공학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 다른 대학에서 물어볼만 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답할 거 만들고 가는 게 좋을 듯.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여쭙실 거를 대비해서 말 생각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하심. 이것도 만들면 좋을 듯.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대 학 / 학 과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전 형 명	창의IT인재전형				
면 접 시 간	잠재력 15분[면접위원 2명] 창의력 25분 풀이, 15분 발표 [면접위원 2명] 그룹 60분 풀이, 15분 발표 [면접위원 4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	
면 접 절 차	1일 : 잠재력평가면접(학생부,자소서기반) → 창의력평가면접(제시문) 2일 : 그룹 면접(제시문 토의)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1박 2일로 진행, 숙소는 포스텍에서 제공. ◆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학생을 쏘아붙이기보단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 초콜릿, 과자, 물, 음료수, 굴 등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따로 먹을 것을 챙길 필요 없음.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1박 2일 동안 치른 면접 중 잠재력 평가 면접의 내용입니다.)

**Q : 생기부에 활동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컴퓨터와 IT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A : 네. 꿈이 게임 프로그래머이다 보니 그쪽으로도 흥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Q : 그러면 무학과로 입학해서 컴퓨터공학과로 진학할 만도 한데 꼭 창의IT융합공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원동기를 다른 내용과 함께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포스텍은 특히 '왜 이 학과에 와야하는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 : 단순히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보단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여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해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울러 창공과 PGS 프로그램(창의인문융합)에서는 입학한 신입생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게임 개발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외에도 과학, 문학, 음악, 영상 미디어 등 관심사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에 큰 뿌리가 될 대학교 4학년을 다양한 관심사 중 하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고, 이를 위해 창공과의 PGS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 네 좋습니다. 보면 뭐 사교육을 하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 공부했다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A : 아 제가 사실 초등 땐 게임만 하다가 중1때부터 포스텍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학원을 다녔는데 친구들과 진도를 맞춰서 공부한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느리면 친구들에게 피해가 되고, 제가 빨라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받아 공부한다는 것도 싫어서 과외도 그만 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혼자 깊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선생님들한테 여쭙보면서 하자'라며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33

**Q : 아무리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처럼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을 거고, 그래도 스스로 확신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A : 사실 중학생 때 성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 시험마다 공부 방법을 바꾸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어는 시간을 줄이자, 수학은 오답노트를 쓰자. 이런 식으로요.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여쭙 봤습니다. 계속 오르는 성적을 보며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고등학생 때도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Q : 그렇네요. 충분히 실득은 되겠네요. 하지만 그렇긴 해도 고등학교 성적이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제가 성적이 가장 높았던 1학년 때는 제가 하는 활동들이 단조로웠습니다. 주변에서 '야 너 컴퓨터 쪽 간다매? 그럼 이런 활동 해 보는 거 어때?' 라고 찾아주는 것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들고, 여러 활동들을 해가면서 흥미가 생겼고, 스스로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 과학, 문학,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분야로 넓고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고, 점차 성적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활동들을 하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에 그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Q : 하하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었군요, 좋습니다.**

**Q : 보면 교육과정 내에서 국한되지 않고 더 찾아보고 그랬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찾아봤나요?**

A : (잠시 생각하다가) 물리 시간에 송전에 관해 배울 때 변압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알아봤었습니다. 전력 공식인  $P = VI$ 와 옴의 법칙인  $V = IR$  공식이 변압기에서 서로 맞물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하나가 맞으면 반대편이 안 맞는 것 같고... 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Q : 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건 대충 넘어가도 좋아요.**

A : 네. 그래서 이해 안 된 그 부분을 찾고자 위키백과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논문도 찾아보면서 되게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사실 좀 허무하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다루는 문제를 풀이하는 글이었는데요, 거기서 코일의 감은 수에 따라 전체 저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요. 코일의 감은 수가 어떻게 저항에 관여하는지 궁금해서 또 막 찾아보다가 그 공식을 찾았습니다. 되게 복잡한 식이었는데 그걸 보고 코일 감은 수에 비례해서 코일의 저항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전체 도선의 저항이 달라져서  $P=VI$ 와  $V=IR$ 이 동시에 변압기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음...어...더 있는데 또 말씀드릴까요?

**Q : 아 괜찮습니다. 아까 문학에도 관심이 많다 했는데 혹시 시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A : 문태준 시인의...아 죄송합니다 정확한 시집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름이 되게 길거든요.

**Q : 아 괜찮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A : 네. 그 시집에 실린 시들이 엄청 섬세하거든요. 그리고 비유를 정말 잘 해요. 무더운 여름날에 시골에서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랫감들을 보고 '무더운 여름이 줄 위에 걸려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런 사물을 보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게 문학이지 했죠(다 같이 웃음). 제가 원래 고정관념 깨는 새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Q :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금 본인의 상황을 표현할 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약간 면접을 준비하면서 설렌다거나 또 두렵다거나 혹은 면접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가 있을까요?**

A : (많이 생각하다가) 음...죄송합니다, 그런 시는 안 떠오르는데요. 대신 제가 옛날에 쓴 시 중에 기억나는 구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에 쓴 시인데요. '달력마저 빨갛게 물들인 그들의 피를 기억해 주길.' 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음...제가 쓴 시 중에서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문구입니다.

**Q : 좋네요. (15분이 지났음을 알리는 노크소리)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대기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A : 올,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수험표와 신분증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고, 명찰을 받습니다.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을 위해 명찰에는 오로지 본인의 사진과 X-C-01, Y-C-11 등 면접 순서만 기재되어있고, 이름과 학교 등 이외의 개인정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창의IT인재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대강당 옆 건물의 중강당에 모여 대기하다가 면접이 진행될 C5(창공과 전용) 건물로 이동합니다. 이곳 강의실에 가지고 온 짐을 모두 두고 옆 학생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대기실에서는 읽을거리, 먹을 것, 아날로그시계 등은 소지해도 되지만 전자기기, 필기도구는 금지합니다. 대기실 내에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하고, 필기도구를 금지하는 이유도 일체의 의사 교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때 올해 나온 과학잡지 '뉴턴' 전권과 가장 흥미롭게 읽은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을 들고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또한 본래 강의실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칠판에 있는 빔프로젝터에서는 면접 순서가 적혀있었고, 그 아래 탁자에는 물, 초콜릿, 과자, 음료수, 꿀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양도 많았고, 혹여나 과자가 다 떨어지면 금방금방 새로 가져다주셨기에 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샌드위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았기에 따로 간식거리를 챙겨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는 정말 엄청난 듯 맛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잠을 깨기 위해 꿀을 계속 먹었고, 제 면접 차례가 가까워지면 초콜릿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잠재력평가면접은 15분 동안 진행하는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면접을 떠올리면 됩니다. 창의력평가면접은 사전에 문제를 받고 25분 동안 생각한 후 15분 동안 교수님들과 본인이 떠올린 답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는 면접입니다. 올해 창의력평가면접의 질문은 '인공지능이 편한 것도 좋지만 너무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라' 이었습니다. 저는 과의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분업으로 생각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교수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시험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중심으로 더 확장하여 제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지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꾸미려 하지 않고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첫째 날 면접이 끝나면 **다 같이** 포스텍 국제관에서 저녁 만찬을 먹습니다. 저희는 중식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때는 캠퍼스 투어를 마친 부모님들과 창공과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친한 선배가 있어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테이블이 딱딱했다는 것은 아니고, 면접 이외의 행동과 말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2인 1실로 방을 보낼 방을 배정받습니다. 배정 방법은 이름순으로 2명씩 묶는 것 같았습니다. 방은 일반적인 호텔방이었고, TV, 냉장고 등이 있었습니다. 침대는 하나여서 남자 둘이서 한 침대를 쓰며 유대감을 다지라는 포스텍의 배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방을 쓴 친구는 과고 친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갠스레 그 친구와 거리가 멀게 느껴졌지만 노래방과 게임을 좋아한다는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의사소통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기실에서만 적용되고 당연히 대기실 밖에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아까 만난 친한 선배가 치킨 사 주겠다고 숙소 로비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다음날 면접 때 혹시나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도 그런 저를 이해해주시고 입학해서 엄청나게 먹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진행되는 그룹 면접은 4~5명에서 한 팀이 되어 주어진 문제를 60분 동안 토의하고, 15분 동안 발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약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기획해보아라'였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주문한 방법대로 농산물을 재배해 공급하는 '스쿨팜'을 기획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회사의 목표는 뚜렷이 보이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질문에도 저희가 열심히 답변했지만 계속 허점을 짚으시며 추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실했던 점도 있지만 이전의 면접들에서 느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면접 잘 봤냐고 물어보면 저는 재밌게 놀다 왔다고 합니다. 저보다 많이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대답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계속 주시는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포스텍 창공과 면접은 준비할 수 없는 면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십니다. 배경지식이 많은지, 여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약간 참고하여 현재와 미래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직한 모습에서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평소 애정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UNIST 이공계열]

대 학 / 학 과	UNIST 이공계열	전 형 명	일반 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 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복도에서 제시문 10분 동안 풀기→ 제시문 설명 → 학생부 면접(자연스럽게 이어짐)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면접실 내부 분위기가 생각보다 고풍스러워서 당황했음. ◆ 교수님들 본인의 관심 있는 부분을 꼭 집어서 질문. 자기 전공에 대해 깊이 알고 가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div><div><input type="checkbox"/> [지문]</div><div><input type="checkbox"/> [질문]</div><div><input type="checkbox"/> [추가질문]</div></div></div>							
Q : 그럼 1번부터 천천히 얘기해 볼래요?							
A :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초점을 낮추어 기근과 이산화 탄소간의 관계를 설명함.							
Q : 음... 천체 물리학을 좋아하네요? 혹시 읽은 책 중에 ‘엘러전트 유니버스’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간략히 설명해볼래요?							
A : ‘엘러전트(elegant)유니버스’ 제목에 대한 내 생각을 풀이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최종이론, 끈 이론이라 설명함.							
Q : 천체물리학이 2가지 트랙이 있는데.. (방정식 or 관측/실험) 어떤 쪽으로 하고 싶으세요?							
A : 방정식(설명하며 슈뢰딩거 방정식 언급)							
Q : 어, 이건 그냥 질문인데, 혹시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파장의 제곱?(다른 교수님: 진폭의 제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에 대해 혹시 아는 것이 있나요?(이때 교수님 약간 신나 보이셨음.)							
A :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며 불확정성의 원리와 연결시켜 설명함.							
Q : UNIST에 와본 적 있어요?							
A : 아뇨, 저는 울산도 처음이고 유니스트도 처음입니다.(웃음)							
Q : 본인이 생각하는 UNIST의 장단점은?							
A : (대답함) (똑똑똑)							
Q : 아, 시간이 다 되었나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준비해간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내가 물리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어필할 기회가 없었음.							
◆ 평소에 양자역학에 대해 책을 읽어 놓아서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꼬리질문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 대답할 수 있었다. (사실 슈뢰딩거 방정식이 뭔지 정확히 몰랐음)							
◆ 확실히 이과 교수님 특성인 자기 관심 분야를 재미있어한다는 게 느껴졌음. 자기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 교수님들 기에 놀리지 말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자기 소신껏 답하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가천대 경영학부]

대 학 / 학 과	가천대 경영학과	전 형 명	가천 바람개비1 전형(학종)				
면 접 시 간	10분~12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30분전 입실가능-신분증확인 후 대기(앞사람 면접 중일 경우 복도에 나가서 대기함)-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3명의 교수님들이 역할을 정한 느낌(웃으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 나를 쳐다도 안보는 분, 나한테 눈에서 레이저 나오시는 분) ◆ 핸드폰 전원 끄기(모든 학교 공통)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자기소개해 주세요.</b> A :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욕심쟁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간 생략)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급을 이끌어가고 다양한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여러 과정 중 하나였던 리더십캠프에서 만난 멘토가 저에게 '넌 특정문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조원들과 협력하여 해결안을 도출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타인이보는 저의 모습이 장점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한 결과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경영컨설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경영컨설턴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 가천대학교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 : 2학년 때 어디 아팠나요?</b> A : 네, 2학년 학기 초에 수술을 2번 하였고 이후에 계속 통원 치료를 다녔기에 질병 조퇴, 결석이 꽤 있습니다.							
<b>Q :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 많던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b> A : 저는 조건부 현 상황 유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략~ 지급 기간과 금액을 늘린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							
<b>Q : 윤리적 경영컨설턴트가 무엇인가? ( 자기 소개할 때 언급했음)</b> A : 제품 생산 관리 마케팅 등 기업의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b>Q : (포리질문) 왜 윤리적 측면이 대두되는 것 같나요?</b> A : 실제 모 항공사, 인플루언서의 쇼핑몰과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였고 시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 졌다, 그렇게 소비자들은 단순 제품뿐만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생산과정, 또 그 기업의 소유주의 윤리성까지 집중하게 된 것 같다.							
<b>Q : 실부실장을 많이 했는데 어려웠던 점은?</b> A : 1학년 때 실장과 부실장을 한 경험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중학교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모인다. 그렇기에 학기초반 각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아이들과 단합하여 학급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개개인과 상담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친구들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해갔다.							
<b>Q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b> A : 8,6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8,350원입니다. 긴장한 나머지 헛갈렸습니다. 하하(교수님께서 웃으며 괜찮다고 8,350원 맞다고 해 주심.)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구체적인 자신의 생각이 궁금하신 것 같음. ◆ 당부하고 싶은 점은 답변을 달달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답변에 자신만의 가치가 담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함. 또한 나를 쳐다 보지 않는 분이 있거나, 나를 너무 쳐다 본다고 해서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골고루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가천대 컴퓨터공학과]

대 학 / 학 과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전 형 명	가천바람개비1 전형				
면 접 시 간	대략1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문공통	제시문기반	집단토론	다중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차례가 되면 입장 → 면접 종료 후 바로 퇴실						
면 접 특 징	◆ 블라인드 면접						
[유의 사항]	◆ 서류기반 면접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공통 2번 3번)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학과 지원동기와 학과를 위해 학업에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나요?							
A : 준비한 학과 지원동기를 말한 후 많이 노력한 과목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Q : 학과를 위해서 했던 대회, 동아리활동이나 학과에 관련해서 읽은 책이 있나요?							
A :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한 후, 읽은 책과 배운 점을 답변 했습니다.(자율동아리 활동 자세하게 물어봄)							
Q : 생기부에 기초C언어와 파이썬을 학습하고 독학했다고 되어있 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했나요?							
A : 어떻게 배우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답변 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특정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습니다.							
A : 동아리부원과 상의해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Q : 학생은 고등학교 초기에 목표가 뭐였어요?							
A : 컴퓨터 관련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Q : 컴퓨터공학에서 학업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유와 답변 했습니다.							
Q : 컴퓨터공학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나요?							
A : 정보보안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Q : 정보보안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A : 사전에 공부한 것을 답변 했습니다.							
Q : 노인복지센터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간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A : 가게 된 동기와 어려웠던 점 등을 답변 했습니다.							
Q : 많은 활동을 했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특정 대회에서 배운 것, 했던 것을 답변 했습니다.							
Q : 생기부에 인성이 가장 바른 학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기재되어 있을까요?							
A :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답변 드렸습니다.							
Q : 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꼬리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 전공에 대한 기본기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 실수도 끝까지 말고 대처하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대 학 / 학 과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전 형 명	학석사 통합 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대기 → 앞사람 진행하는데 대기 장소 옮김 → 입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면접 ◆ 초반에 긴장 풀어주는 질문 / 분위기 좋음( 농담)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화공생명공학과 지원 동기는?</p> <p>Q : 발명아이디어 수상경력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p> <p>Q : 생기부에 SSB 장치를 이용해 실험했는데, 이 장치는 무엇인가?</p> <p>Q : 봉사시간이 많던데 주로 무슨 봉사를 했나?</p> <p>Q : ‘화학교과서는 살아있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대해 설명해 보자.</p> <p>A : 화학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정리해주셨던 책이다.</p> <p>Q : 그러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학 개념은 무엇인가?</p> <p>A : 가장 좋아하는 개념은 산화, 환원이다. 이유는 실험할 때도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매력적이어서이다.</p> <p>Q : 자소서에서 나일론 합성실험에 실패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p>Q : 나일론 합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p> <p>A : 두 용액의 계면에서 일어난다.</p> <p>Q : 나일론 합성실험 할 때 어떤 용액이 위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가?</p> <p>A :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왜 위에 있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축합이 된다.</p> <p>Q : 만약에 책상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가?</p> <p>A : 그렇다.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보존이 된다.</p> <p>Q : 열에너지로 빠져나갈 텐데?</p> <p>A : 열손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보존이 되는 것이다.</p> <p>Q : 열손실이 생겨도 보존이 되는가?</p> <p>A : 아니다. 열에너지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보존이 안 된다.</p> <p>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아스피린 합성실험 별로 안 좋아함. 생기부, 자소서 숙지 필수.</p> <p>◆ 답변이 생각나지 않으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모르는 건은 모른다고 할 것.</p> <p>◆ 작년에 물어보았던 거 그대로 물어 봤음. 작년 면접후기 찾아보는 게 좋음.</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강원대 경영회계학부]

대 학 / 학 과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전 형 명	미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5분~2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 후 입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성격의 장단점과 함께 자기소개하기</b></p> <p><b>Q : 강원대 경영, 회계학부를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b></p> <p><b>Q : 군대와 경영의 관계</b></p> <p><b>Q :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군대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견</b></p> <p>A : 3년 내내 꿈이 군인이라 면접관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심. 그래서 진로가 군인이 되어 효율적인 군 경영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하니 꼬리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 군사학개론을 읽으며 접했던 군경영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현재 군대 경영 체계인 탑-다운 경영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반박을 당함. 그래서 우선 잘못을 인정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붙여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언젠가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함.</p> <p><b>Q : 3학년 때 외부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b></p> <p>A : 사실 외부 봉사는 시간 상 여유도 없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함. 여기에다가 동아리 활동과 각종 대회를 언급하며 바쁨을 어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1차 합격을 목표로 했다고 말함. 그러니까 면접관이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순 없죠 ~”라고 말함.</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p>A : 맨 처음에는 정말 이 학교에 오고 싶었음을 어필하였고 그 후에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포부로 마무리 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강원대 경영회계학부는 1차에서 2배수를 뽑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꼼꼼하게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를 읽어보시고 인상 깊으신 부분은 체크해 놓는 것 같으므로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고 자문자답을 많이 해 볼 것 ◆ 꼬리질문이 많은 편이니까 주의해두길 바라며 학교 내에 이벤트나 유학, 활동 등을 미리 파악해두길 바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대 학 / 학 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전 형 명	사회통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고사실 앞으로 이동→10분 정도 대기 후 앞사람 면접 끝나자마자 바로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자소서에 충실한 면접 질문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독일 마을을 방문해 분석하고 한국만의 로컬리티를 살린 문화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쓰여 있는데 독일 마을에서 발견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p> <p>Q : 따로 생각해둔 한국만의 문화마을 콘텐츠가 있다면?</p> <p>Q : 독일과 유럽 전쟁사에 관심이 많다고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p> <p>A : &lt;세계를 읽다, 독일&gt;이라는 책에서 독일인의 언어 사용에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전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이후 소인수 수업에서 유럽 전쟁사에 대해 배우며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 방면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p> <p>Q :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국제문제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학생은 학생의 콘텐츠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p> <p>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필자는 다른 학교에 합격하여 면접 준비를 깊게 하지 않아 꼬리질문에서 당황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고서를 쓰고 참여한 활동만 자소서에 언급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음. 면접에 충실히 대비하고 자신이 진정성 있게 참여한 활동이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p> <p>◆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은 없었음. 모든 면접 질문 내용이 자소서와 생기부 활동(교과세특)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자소서에 어필한 내용이라면 꼭 자신이 쓴 내용을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숙지하길 바람.</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건국대 의생명공학과]

대 학 / 학 과		건국대 의생명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문공통	제시문기반	집단토론	다중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고사장 앞에서 제시문 9분 동안 보게 하고 앞사람 면접 끝나자마자 바로 응시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연구원을 희망하시는데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b></p> <p>A : 본 대학의 '세포신호전달연구실'에서 세포와 세포 간의 물질 또는 신호 전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신경과 관련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p> <p><b>Q : 위 연구실은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학생의 진로와 다르지 않나요?</b></p> <p>A : 식물을 연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간의 관계에 대한 저의 식견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p> <p><b>Q : 창의적 질문상은 어떤 상입니까?</b></p> <p>A : 수업을 듣는 중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저의 배경지식과 그 정보를 함께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창의적이라 판단되어 받은 상입니다.</p> <p><b>Q : 창의탐구한마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b></p> <p>A :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창의적인 답을 하는 대회입니다. 1학년 때는 수납 및 장난감 기능을 하는 가구를...</p> <p><b>Q : 그러면 생명과학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어떤 것을 했나요?</b></p> <p>A : 저는 탐구논문발표한마당에 참여하며 1학년 때는 시판 살균제와 천연 살균제의 살균력 비교, 2학년 때는 유충을...</p> <p><b>Q : 위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b></p> <p>A : 유충을 이용한 플라스틱 분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유충의 성장 정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것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p> <p><b>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b></p> <p>A : 학교에 HLCC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LCC 간단 설명). 저는 이 대학교 교수님께 생명과학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붙는다면 직접 그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제시문 면접이라서 겁먹는 친구들 많을 텐데 작년 기출을 토대로 내용을 파악하여 너무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어차피 기출에 나온 문제 다시는 안 나옴)</p> <p>◆ 제시문 면접 9분이 주어질 때 찬/반 입장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반박질문을 하였을 때를 대비한 추가 근거도 한꺼번에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수월하다고 판단.</p> <p>◆ 자기소개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필자의 경우 진로를 바꿔서 바꾼 이유를 꼭 외워야 한다고 생각함.</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경인교대 초등교육과]

대 학 / 학 과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전 형 명	학생부 종합 교직인적성 전형				
면 접 시 간	개별 10분 / 집단 35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문토론	제시문기반	집단토론	다중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후, 개별 → 집단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들어가자마자 대화 금지, 자료 보기 금지						
	◆ 분위기 완전 조용하고 엄숙함						
	◆ 화장실을 수험번호 차례대로 줄 서서 감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자소서) 맞춤형 공부법은 학생이 만든 단어인가요?							
A : 네							
Q : 맞춤형 공부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찾아줄 건가요?							
A : 융합수업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연구하고 시도하면서, 매 수업마다 배운 내용을 체크할 것입니다.							
Q :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도울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A :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Q : 자소서에 'OOO'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이름이죠?							
A : 앗,, 네							
Q : 이런 건 가명으로 쓰는 게 좋아요.							
A : 알겠습니다.							
Q : 청어람 체인지상[청어람(靑於藍) 체인지(體仁智)] 이것은 어떤 상이죠?							
Q : 모범상은 어떻게 수상하였나요?							
Q : 학술제에서 어떤 주제로 연구하였나요?							
Q : 교육 동아리에서 수업 시연을 했는데 학생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 [지문] 노동 연령 기준 향상에 의한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방안 3가지씩 발표하기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집단면접(특히 경인교대)는 조원이 누군가에 따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모의 연습해 보는 게 좋음. 본인은 다양한 사람들과 20번 정도 하였지만 그래도 경인 면접 때 처음 해 보는 방식으로 토의가 진행되었음.							
◆ 자소서, 생기부 사실 확인 기반 면접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경희대 Hospitality 경영학부]

대 학 / 학 과	경희대 Hospitality 경영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면 접 시 간	8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고사장 앞에서 제시문 8분 동안 보게 하고 앞사람 면접 끝나자마자 바로 응시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지원동기→제시문→생기부 기반 질문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윤리적 소비와 경제적 소비 중 어떤 소비 형태를 지향하는가?

■ [질문] 어떤 소비 형태를 지향합니까?

A. 저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제적 소비를 비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 소비는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지 못했을 경우, 경제적 소비를 지향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질문]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윤리적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하는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무모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뭔가요?

A : 네, 저는 호텔 내에서 이루어지는 MICE 산업에 관심이 있어 경희대학교 Hospitality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던 저는 세계지리 수업시간에 MICE 산업을 배우고 기업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한 MICE 산업을 공부하며 우리나라 MICE 산업을 전문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MICE 전문가가 되고 싶어 경희대학교 Hospitality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죠?

A : MICE 산업의 대규모성은 기업이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 주었는데, 저는 원래 기업이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미래에는 사회적 가치를 뛰어넘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MICE 산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MICE 산업이 뭘니까?

A : 네, MICE 산업은 M, I, C, E인 네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은 meeting, I는 incentive, C는 convention, E는 exhibition & events의 약자입니다.

Q : 학생은 네 분야 중에서 컨벤션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겁니까?

A : 처음에는 컨벤션에 주목했고, 지금은 포상관광 분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컨벤션은 규모가 크고, 주제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갔습니다. 포상관광은 호텔 내에서 이루어지는 MICE 산업에 주목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MICE 산업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전시켜 추가하는 방향으로 '호텔 내 MICE 산업'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Q : 그럼 MICE 산업을 기획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A : (핵심 질문. 충분히 준비했으나 당황함. 말 더듬음.) 네, 저는 호텔 내 MICE 산업과 협동조합을 연결지어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파는 기념품 샵과 '호캉스'에 초점을 맞춘 호텔 서비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지역 여행사의 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구상해보았습니다.

**Q : 학생은 외부 봉사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유가 뭐니까?**

A : 네, 사실 교과 과제, 내신, 대회 등을 모두 준비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년간 부실장, 부실장, 실장으로 활동하며 저희 반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3년 모두 봉사부문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Q :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10초 안으로요.**

A : 꼭 경희대학교 Hospitality 경영학부에 입학해 우리나라 MICE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1차에 합격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입학사정관으로 보이는 분은 나긋나긋하게 질문하심.
- ◆ 면접고사장 안에 책상이 있음. 책상 위에 면접고사장 앞에서 봤던 제시문이 붙여져 있음. 제시문을 외울 필요는 없음.
- ◆ 제시문 난이도는 해마다 상이한 것 같음. (작년에는 정치, 경제 문제 올해는 가벼운 소비 윤리 문제가 출제됨)
- ◆ 경희대학교는 해마다 찬/반 입장 정리 문제를 출제했으나 올해는 조금 달랐음. 찬/반 입장 정리 시 반드시 면접관께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등의 질문을 함. 따라서 주어진 8분 안에 자신의 입장 선택, 근거 마련, 반대 입장 진술(~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박에 대한 반박(하지만 ~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을 준비해야 함.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함.
- ◆ 경희대학교에서 제작한 면접 준비 영상에 따르면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반드시 묻는 것처럼 나와 있어 첫 질문인 자기소개로 임팩트를 주려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소개를 묻지 않았음. 이런 변수를 고려해 인상에 남을 만한 여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 면접 시간은 공식적으로 10분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짧게 느껴짐(6~8분 정도).
- ◆ 전반적으로 압박질문보다는 '해야 할 질문'을 하시는 편이었음. 성적 관련 질문은 하지 않으셨음.
-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이라고 했지만 면접에서는 마치 자소서를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듯한 질문을 하셨음.
- ◆ 자신이 정말 잘 준비했고, '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실제 면접장에서는 답변이 잘 안 나올 수 있음.
- ◆ 자신이 준비한 질문이지만 질문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면 당황할 수 있음. 질문의 요지를 찾아 자신이 준비한 대답을 하는 연습이 필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경희대 국제학과]

대 학 / 학 과	경희대 국제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후 자기 번호가 불리면 면접고사장 앞에서 제시문 10분 동안 보고 앞사람 면접 끝나면 바로 응시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소비자1 : 공정무역, 친환경 제품과 같은 제품을 구입하고 주변사람에게 이러한 소비행위를 권유하는 소비자  
 소비자2 :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합리적인 소비자

### ■ [질문] 위 두 소비자 중 본인이 지지하는 소비행위를 하는 소비자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세요.

A. 저는 소비자1의 소비행위를 지지함.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음. 첫째,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약간의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 살아가는 약자들의 삶과 지구의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행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함. 둘째, 만족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함. 저의 경우에는 최소의 가격으로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지구적 공동체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1의 소비행위를 지지함.

### ■ [추가질문] 소비자1의 소비행위를 지지할 때 불필요한 돈을 더 지불하는 소비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잘 기억 안 남.

### Q :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하고 현재는 국제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연결해서 언급함. (꿈을 바꾸게 된 이유도 함께 말함)

### Q :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생기부에 약자와 봉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적혀있는데 약자와 봉사를 위한다면 국제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는 선교사나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본인도 그러한 길로 갈 의향이 있는가?

A : 약자들의 권리와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목표를 이루기에 그 길이 더 적합하다면 그러한 길로 갈 의향은 있으나 현재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의 목표를 이루기에 국제공무원이라는 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학과를 지원함.

### Q : 외부 봉사활동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A : 동아리에서 '봉사반' 활동을 했던 것을 연관 지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제시함.

### Q :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가?

A : '리처드 홀브룩'이라는 미국 국적의 외교관을 존경함. 그 이유는 그 분 또한 재직기간동안 세계에 존재하는 난민과 같은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임.

### Q :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 말함.)

A : 경희대학교 인재상에 대해 언급하며 고등학교 기간 동안 그에 적합한 학생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점과 경희대학교에 합격한다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말함.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제시문 기술은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냥 특정 문제에 대해 한반을 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정도만 하면 충분함. 그리고 제시문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주는데 생각보다 길어서 크게 조급할 필요는 없음.
- ◆ 지원동기,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함.
- ◆ 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면접분위기도 좋으니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대 학 / 학 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전 형 명	네오르네상스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면접장 앞에서 스톱워치로 8분 시간제서 제시문 읽고 입장 정리, 면접장 들어가서 제시문 면접 본 후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진행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면접(준비시간 8분)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특징에 소개하는 글

■ [질문] 본인은 합리적 소비자와 윤리적 소비자 중 누구를 더 지지하나요?

A. 합리적 소비자를 더 지지함(근거를 바탕으로 대답한 내용 생략)

■ [추가질문] 합리적 소비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은가?

A. 합리적 소비라고 해서 비윤리적인 것은 아님, 윤리성을 추구하면서도 합리적 가격을 갖춘 상품을 만들 수 있음.

■ 그러면 본인이 말한 윤리성을 추구하면서도 합리적인 상품의 예가 있는가? 그러면 둘이 충돌하지 않는가? 어떻게 실현하나?

A.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짐) 예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가에서 기업에 지원금으로 도움을 주고 언론이 홍보를 해준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함.

Q : 본인의 진로는 무엇이고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A : 진로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음. (자기소개하라고 안하셔서 자기소개 준비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함) 발표나 이야기하는 소통을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론정보학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함.

Q : 최저임금 관련 논문을 읽고 분석하고 자율심화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 그냥 활동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깨달은 거 위주로 이야기함.

Q : 1학년 사회 시간에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관련된 보고서를 썼는데 본인은 폐지 입장이었나요? 어떤 활동이었나요?

A : 1학년 사회 세특 내용이라 거의 기억이 안 났음, 혹시나 해서 국가보안법 개념만 알고 갔는데 질문 들어왔을 때 최대한 기억 떠올려서 답함, 법안의 의미 말하고 시행의 장점과 폐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입장 밝힘, (당황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세 조로 나뉘었는데 우리조의 맨 끝이어서 교수님들이 지치신 것 같기도 했음. 그리고 학생들이 대기실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더 떨렸음.
- ◆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최대한 긴장하지 않는 것. 교수님이 긴장 풀라고 말씀해주시고 친절하셨는데도 너무 떨려서 더듬거렸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음.
- ◆ 자소서나 학생부 내용 숙지 필수.
- ◆ 자소서나 생기부 읽다보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을 절대로 그렇지 않음. 영어말하기 발표할 때 머리가 아니라 입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됨. 꼭 연습 많이 하길!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경희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경희대 의예과	전 형 명	네오르네상스전형				
면 접 시 간	제시문 기반 면접 - 13분 서류 기반 면접 - 13분 [면접위원 각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질 문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제시문 기반-서류 기반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기반 면접 후 휴식 없이 바로 서류 기반 면접 ◆ 서류 기반 면접 때 특이한 질문을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1) 자신의 과오로 인해 채장암 말기로 암이 발전한 환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하시오. (제시문 거의 A4용지 2/3장 정도 분량으로 길었음)</div> <div>(2) 환자의 눈병을 표와 제시문을 토대로 비감염성으로 진단할지 감염성으로 진단할지 선택하시오.</div> <div>■ [질문] (1) 자신의 과오로 인해 채장암 말기로 암이 발전한 환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하시오.</div> <div>A. 알릴 것이다. 물론 환자가 이전에 앓은 만성병을 완치하여 환자가 많아져서 의료진으로서 얻은 명예나 커리어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갈등을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환자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어떤 보상을 해드려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실 것 압니다.”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하고,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이지만,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나 수술비를 모두 환복해 드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장암 치료에는 무엇보다도 환자-의사간의 유대감이 중요하므로 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으신 상태라면, 제가 아는 가장 책임감 있고 실력있는 동료 의사가 저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설득하고 환자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등등 약 2분 분량으로)</div> <div>■ [추가질문] 환자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게 되면 심적인 충격을 받고,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은가?</div> <div>A. 네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후 심리치료나 호스피스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반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읽는 경험이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환자(이반일리치)는 주위 어떤 사람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채로, 아무에게도 죽음에 대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를 읽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위로를 받으며 죽음을 맞는 것도 인생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div>							
<div>Q : 수능 수학 잘 쳤는가?</div> <div>A : 네, 잘 쳤습니다. (혹시 점수를 말하면 안 될까봐 밝히지 않음)</div> <div>Q : 자신이 인턴인데, 회식에 나가기에 몸이 피곤한 상황이라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div> <div>A : 얼마나 피곤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피곤한 상황에서 회식에 참석해서 내일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갈 정도라면 양해를 구하고 다음번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공식적인 관계도 중요하나, 팀의 결속력이나 단합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div> <div>Q : 친구나 이성친구와의 갈등이 있었는가?</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파이팅! 제시문 면접을 확실히 준비해요! (1. 편협한 주장 펼치지 않기, 2. 제시문 꼼꼼하게 분석한 티내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경희대 치의예과]

대 학 / 학 과	경희대 치의예과	전 형 명	네오르네상스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 인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제시문 기반 면접 후 방 이동해서 시작함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블라인드 면접 ◆ 가번호 있음 ◆ 제시문 방과 인성면접 방 사이 거리 매우 가까움. 이동 후 바로 면접 시작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 '사람은 죽으면서 돈과 명예 등 많은 것을 남기지만 그 중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 남기는 그 무엇이다'라는 솔로 건처럼 제 장점인 긍정적 사고, 끈기, 정교한 손재주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치과의사가 되어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열정적인 학생입니다.							
<b>Q : 자기소개서에 보니 4D프린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치의학에서 4D프린팅이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b>							
A : 음 우선 3D프린팅과 4D프린팅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4D프린팅은 자가변형, 자가조립될 수 있는 재료를 3D프린팅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치의학 분야에서는 3D프린팅이 임플란트 식립 시 정확한 식립을 위해 수술용 가이드를 출력 한다거나, 크라운이나 브릿지와 같은 치아 보철물을 정확히 프린팅한다거나 가장 대표적으로는 투명교정장치를 만들 기 위해 특수 플라스틱을 프린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D프린팅은 3D프린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현재 치의 학에서 3D프린팅이 활발히 쓰이고 있어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구강내의 습기나 온도에 맞 춰 변화하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거나 4D프린팅으로 만든 의료용 부목처럼 교정할 때 구강 외 장치를 프린팅 하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Q : 책 중에 전공 관련 책 하나와 비전공 관련 책 하나를 소개해주세요.</b>							
A : (생명공학윤리 책을 비전공책으로 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혹시 생명공학은 비전공 관련 책인가요?							
<b>Q : 음. 전공 관련 책이겠죠?</b>							
A : 그러면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b>Q : 네. 편히 생각하세요~ (교수님 두 분이서 농담 삼아 요새 애들은 전공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비전공 물으면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식의 말을 작게 주고받으심)</b>							
A : (생각 후에)전공 관련 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내 입 속 미생물 이야기'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침이 혈액에서 필터링 된 것이기 때문에 침 속 당 수치와 혈당수치가 비례한다는 점, 초기질병진단에는 피보다 침이 더 신 빙성이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치아 표면이 단단하기에 미생물과 음식물이 영겨있는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데, 그 바이오필름이 많아지거나 잇몸틈새로 들어가면 구강질환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래서 칫솔질을 하여 바이오필름 을 줄인다는 것 등의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답변시간이 다 됐을까봐 눈치 봤음)							
<b>Q : (고덕고덕하며 더 얘기해보라는 식으로 표정지어주심)</b>							
A : 거기선 임플란트가 왜 자연치아를 따라갈 수 없는지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연치아는 임플란트와 달리 치주인대가 없는데, 이 치주인대가 저작활동을 할 때 쿠션기능을 해주고 콜라겐으로 형성되어 세균방어막역할을 해주기에 오히려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잇몸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비전공관련 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목 기억 안남)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한창 약간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을 때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나사 직원인 줄 알았던 이모를 찾아 미국에 갔는데 알고 보니 나사 매점의 핫도그 판매직							

원이었던 이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모는 생각 외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삶도 생각보다 살만하다는 내용의 조언을 해주는 책이었는데요, 읽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제시문 면접 후에 바로 인성면접 시작이라 떨렸는데 너무 분위기가 편안해서 놀랐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웃어주실 것 같은 분위기였다.
- ◆ 자기소개는 준비 안 해도 될 줄 알았지만 준비를 꼭 해야 했다.
- ◆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끊는다고 하시긴 했지만 웬만해서 안 끊으신다.
- ◆ 내가 하는 말에 오~ 그렇군요~ 같은 호응을 너무 잘해주시고 아이컨택도 두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엄청 해주신다.
- ◆ 인성면접은 확실히 MMI보다 비중이 적은 것이 느껴졌다. MMI 준비를 확실히 엄청 해야 하고 인성면접은 약간 비중을 적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 ◆ 질문은 예상 질문 안에서 다 나온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간호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간호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학교추천Ⅱ				
면 접 시 간	4:45분~4:5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질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제시문 21분 동안 보고 메모 → 면접 대기실 대기 → 면접 → 귀가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질문을 먼저 질문함 ◆ 복장을 단정히, 교복 안 됨 ◆ 전자기기 및 아날로그시계 소지하면 안 됨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가) DNA와 RNA로 단백질 합성

(나) 계급이란?

(다) 수소원자의 전자전이

(마) 소리의 파장

(라)는 뭐였는지 까먹음

## ■ [질문1] 지문 (가)~(마)의 공통점은?

A1 저는 (가)~(마)의 공통점이 '구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DNA와 RNA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DNA는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 RNA에 유전정보를 전달하고 RNA는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DNA는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계급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계급이란 사회적으로 부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지문에서 예시로 노동자와 자본가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는 부의 정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한 것입니다. (다)는 수소원자의 전자 전이에 관한 지문입니다. 여기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에 따라 첫 번째 들뜬상태, 두 번째 들뜬상태 등으로 양자화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에 따라 들뜬상태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마)는 소리의 파장에 관한 지문입니다. 소리는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같아 밀도가 다른 부분이 생기는데 이때 밀한 곳을 밀, 소한 곳을 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밀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 [질문2] 질문1에서 나온 공통점이 과학현상에 쓰인 예시?

A2 저는 생명과학분야에서 생물을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섭취하고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 ■ [질문3] 지문(가)가 (나)~(마)와 차이점은?

A3 저는 지문(가)의 차이점이 '바뀔 수 없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에서 DNA는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서로 바뀔 수 없죠. 하지만 (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부의 정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다)에서 수소 전자의 들뜬상태의 종류는 받은 에너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에서 밀과 소는 입자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 고등학교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 공감과 관련된 동아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하게 된 배경, 활동내용, 느낀점)

## Q : 존경하는 인물은?

A : 저는 이국종 교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쓴 책 내용 언급하면서 이유 설명)

## Q : 간호학과에 언제부터 오고 싶었는가?

A : (간호학과 지원동기 구체적으로 말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제시문을 먼저 물어보니까 대답을 꼼꼼히 준비할 것.
- ◆ 제시문이 생각보다 쉬우니까 기출만 연습 몇 번 하면 됨.

대 학 / 학 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학교추천표				
면 접 시 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론	다 중 미
			★		★		
면 접 절 차	강당에서 대기→다른 건물로 이동→제시문 푸는 장소로 이동-다시 다른 층으로 이동→면접장 입실→지하로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학추2 전형이 이제 제시문과 서류를 한 번에 같이 보는 겁니다. ◆ 대기중에 시간이 12분 연기되었다고 전해짐. 이 때문에 면접 시작할 때,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 한분은 완전 웃어주시고 한분은 완전 정색하셨습니다.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div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10px;"> <p>■ [지문] 유교,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사회 변동과 사회적 불평등</p> <p>■ [질문]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p> <p>A. 마지막 문제할 때 “이것을 한국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진로와 연결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한 번도 안쳐다보던 정색하시던 면접관 분이 절 자세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기부 질문 갔습니다.</p> <p>■ [추가질문] 없었습니다.</p> </div>							
<p><b>Q : 진로가 조금 변했는데 현재 가장 하고 싶은 것과 경영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연결해서 말해 볼래요?</b></p> <p>A : 고등학교 3년 생활동안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 :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b></p> <p>A : 네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젊은 청년층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나 임금에 불만을 가지고 기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p> <p><b>Q :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나요?</b></p> <p>A : 경영학과에서 인적자원관리론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p> <p><b>Q :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무엇을 하고 싶나요?</b></p> <p>A : (질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p> <p><b>Q : 아니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이나 그러한 것 말하는 겁니다.</b></p> <p>A : 아 저는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와 산업구조를 비교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인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열린 생태계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차이와 경영방식의 차이점을 일본의 강소기업에 가서 배워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한국의 중소기업에 적용해보며 미래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p>							
<b>[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b>							
◆ 제시문 말할 때, 너무 긴장해서 경직된 표정으로 답변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나와 후회는 없으나 평소 자신 있던 태도에서 점수를 따지 못했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습니다. 생기부의 세세한 내용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경제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경제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학교추천표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		
면 접 절 차	제시문 준비시간 21분 → 제시문 답변 4분 → 서류면접 3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임 ◆ 제시문 답변 시 메모지 보면서 할 수 있음 ◆ 면접 끝나면 먼저 귀가 가능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전반적인 제시문 주제: 4차 산업혁명

제시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초연결 사회 good

(나): 과학기술 지상주의 경계해야

(다): 증기 기관차의 등장에 따른 과잉 규제

(라):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

■ [질문]

A.

■ [추가질문]

A.

Q : 제시문 (나) 관점에서 (가)를 비판해 보시오.

A : 제시문 (나) 관점에서 볼 때 (가)는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하고 과학기술의 한계나 위험성은 간과하는 등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Q : (다)와 비슷한 현대사회 예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A : 카카오택시나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기존 택시업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신 등으로 저항하자 검찰이 타다 대표를 기소하는 등 규제벽에 가로막혀 기업의 혁신이 제약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했던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업계의 저항에 대해서는 기존업계와 새로운 업계의 공동 이익 추구를 통해(예를 들면 카카오택시에 기존 택시를 활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Q : (가)~(라)를 종합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A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인데 이에 맞춰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취업 교육을 활성화하면 실업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확실히 하면서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Q : 학과에 필요한 자질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A : 저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경제학에서 표나 그래프, 수식을 분석할 수 있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국민경제에서 소수자나 약자까지 고려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둘 중에 본인에게 무엇이 더 있다고 생각하나?

A : 둘 모두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접하고 소비하면서 따뜻한 가슴을 가지려 했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표나 그래프, 사회현상을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Q : 학교생활 중에 실현한 사례를 들면?**

A : 청소년 참여예산에 참여하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동물까지 생각하는 따뜻한 가슴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한 소음 감소로 시민들의 편리함까지 생각한 이성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희 사업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Q :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사업 선정 이후에도 뉴스기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결과 이 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감소 효과가 좋다는 분들도 분명 계셨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할 말은 다하고 나오자!
- ◆ 자신감 있게 면접관 눈을 응시해가며 답변하자!
- ◆ 잘 모르는 내용 답변했다가 꼬리질문에 발목 잡히지 말자!

## 2020학년도 면접 전형 후기[고려대 교육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교육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학교추천표				
면 접 시 간	6~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제시문 풀이(21분)→면접장으로 이동→3분 대기(이때 제시문 풀이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구상)→면접: 제시문 문제를 1~4번까지 4분 이내로 정리해서 구술(시간 분배는 알아서 해야 함) → 서류 기반 질문						
면 접 특 징[유의사항]	◆ 면접장에 들어갈 때 무조건 웃으면서 들어가야 함. ◆ 면접관이 말할 때 답변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안 됨. 최대한 시선 맞추기(면접관의 미간과 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처리하면 좋음)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곧 업로드 될 것 같음.
- [추가질문] 제시문이 쉬워서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는 답변만 하지 않으면 추가 질문 없음. 한다고 해도 지문자체가 쉽기 때문에 꼬리 질문도 당연히 쉬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

Q : 독서토론 동아리 날개의 독서활동에 대해 물어봄.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을 읽고 친권에 대해 토론했다고 했는데 지원자는 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뭔가요?

A : 저는 친권의 축소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입니다.

Q : 자유학년제가 뭔가요?

A :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학년제의 개념을 말하면 됨.

Q : 자유학년제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A :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서 기초학력의 개념을 단순히 과목별 점수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중학교 1학년 동안 직업탐색과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를 말해보라.

A :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 말하려고 하는데 면접 시간 끝)

## [본인이 생각하는 합격한 주요 요인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면접관은 매우 피곤하다. 무조건 두괄식으로 말하길...! (사실 이게 제일 중요\*\*)
- ◆ 되도록 어... 음... 이런 추임새는 빼라.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해보일 수 있다. 이런 추임새가 이미 습관화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짜 제발 하지마라.
- ◆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1차에서 붙어서 2차에 면접을 보러 간 학생들의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으면 솔직하게 이해 못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보다는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 생각을 하고 ~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질문하신 부분은 미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처럼 최대한 도움을 이끌어내자. (나는 이런 부분에 미숙해서 서울대에 불합격했지만, 서울대일수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음. 당황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형 명	학생부 종합(학교추천Ⅱ)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 준비실 → 제시문 공개 & 메모지 필기 → 면접 → 개별 귀가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는 가져간 종이 자료 열람 가능 ◆ 충전기, 유/무선 이어폰, 노트북, 휴대폰 등등 전자기기 모두 제출 후 면접 후에 받을 수 있음. ◆ 7분 간격으로 순서에 따라 조별 순서대로 이동 > 구간별 안내위원 안내에 따라 이동함. ◆ 준비실에서부터는 자료 열람 불가함. ◆ 제시문 동시 공개 후 21분간 메모 가능. 문제는 파일로 코팅 처리되어있으며 문제지에는 필기 불가. 제공되는 메모지에만 필기 가능. 메모지는 여분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뒷면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 제공되는 펜이 있으나 개별 필기구 사용도 가능. ◆ 면접실 책상에 문제지 준비되어 있으며, 따로 면접관이 문제를 각각 묻지 않고 지원자에게 순서대로 바로 답변하게 함. 메모 내용을 보면서 답변할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div> <div>(가)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 무생물과도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div> <div>(나) 정보 기술의 발달이 항상 인간에게 유익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학자</div> <div>(다) 기차, 철도의 발명에 대해 기존의 마차 관련 노동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대해 철도 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두는 정책을 마련했으나,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문제 발생</div> <div>▣ [질문]</div> <div>Q. (가) 지문을 (나) 학자의 견해에서 비판하시오.</div> <div>Q. (다) 지문과 비슷한 현대 사회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시오.</div> <div>Q.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div> <div>▣ [추가질문]</div> <div>Q.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을 두 가지 말해 보시오.</div> <div>Q. 그 자질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꼬리 질문)</div>							
<div>Q : (가) 지문을 (나) 학자의 견해에서 비판하시오.</div> <div>A : (나) 학자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세상 만물들의 가치를 모두 생산성과 효율성에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 지문을 비판할 것. 기술 발달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탓에 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술의 적용이 선행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인문학적 가치가 파괴될 것임을 강조했음.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 인본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들었음.</div> <div>Q : (다) 지문과 비슷한 현대 사회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시오.</div> <div>A : 독자들의 선호 알고리즘에 맞춘 작품을 생산해내는 로봇 작가 기술의 발명에 따라 기존의 작가들이 본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례를 들었음. 로봇 작가를 아주 반대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온 출판 업계와 작가들에게 발전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그러면서도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div>							

로봇 작가에 의해 출판된 책을 철저히 구분하고 일반 작가들의 사고 속에서 탄생한 작품만이 가지는 가치를 강조한 홍보 방식을 내세움. 인간의 머리에서 탄생한 작품만이 가지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독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근거로 함께 강조하였음.

**Q :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A : 기술이 신체적인 편안함은 제공할 수 있어도 인간의 내적인 성장과 깊은 사유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만큼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 산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함. 이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전략의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함.

**Q :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을 두 가지 말해 보시오.**

A : 과거의 사례를 늘 배우는 자세로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함과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력. 흔히 국어국문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정도에서 그치는 학문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국어국문학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Q : 그 자질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꼬리 질문)**

A : 후자의 자질에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한 듯. 자소서 4번 문항에 넣은 내용이었음. 국어국문학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는 과학 과목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를 쓴 경험을 이야기함. 탄소를 주제로 잡은 뒤, 자료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국어사전에서 탄소라는 단어에 한탄하고 읊소한다는 뜻을 발견하고,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 시를 쓴 경험을 자소서보다 더 자세하게 말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제시문 면접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 짧은 시간 동안 제시문의 핵심 단어와 요지를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곧장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접 직전에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접해두는 것이 중요할 듯.
- ◆ 제시문 자체는 몇몇 주제가 반복해서 나옴. 주제에 대한 감을 잡아두고, 핵심 단어를 뽑아내는 연습과 메모와 답변 시간을 각각 재어보면서 연습을 꾸준히 할 것.
- ◆ 50분 전부터 우양 교양관 입장이 가능했음. 40분 전에 갔으나 줄이 아주 길었음. 급하게 가지 말고 여유 있게 갈 것.
- ◆ 학과별로 재학생들이 응원 나와 주시는 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식 받고 가기. '내년엔 저분들의 후배가 되고 말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하게 되어서 좋았음.
- ◆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기, 후회 없도록 신중히 답변하기. 본인의 경우, 면접 대기 시간도 길었고 기타 요인들로 인해 면접 직전까지는 긴장하지 않았으나, 막상 답변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허둥거렸던 것 같음. 정신 너무 없어도 면접관님들 질문 주의 깊게 듣고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할 것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음.)
- ◆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면접관님들의 표정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대답할 것.
- ◆ 제시문 질문 외의 공통 질문 면접은 생기부나 자소서 내용은 거의 묻지 않는 듯함. 그냥 평소에 틈틈이 봐두면 괜찮을 듯.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기계공학부]

대 학 / 학 과	고려대 기계공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준비시간: 14분 면접시간: 3분(제시문)/4분(학생부)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면 접 절 차	1. 대강당에 조별로 집합(입구에서 조, 가번호 부여) 2. 순서가 되면 면접 준비실로 이동(가번호와 면접순서 무관) 3. 면접 준비실에서 14분간 문제 풀이 후 면접실에서 약 5분간 대기 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전자기기 제출, 아날로그시계도 제출해야 됨 ◆ 물도 없음 ◆ 면접관 두 분 계심 ◆ 1번부터 3번까지 알아서 3분 내외로 설명하면 됨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자연계열 일요일 오후: 확산, 퍼짐, 전파, 규칙과 불규칙

■ [질문] 1. 제시문 (가)~(라)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십시오.

2. '문제1'에서 답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와 제시문 (다), (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3. '문제2'의 제시문 (가), (나)에서 답한 개념과 유사한 현상을 찾고 그 예를 이야기하십시오.

A. 1번-전파. (가)에서는 공기 분자의 진동에 따라 소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는 파스칼 삼각형으로 윗 행의 두 수의 합이 아래의 수를 결정하는 규칙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며 파스칼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조직으로 침투하여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병원체가 이동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가), (나)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이나 매개체에 영향을 주며 퍼져나가는 간접적인 형태의 전파입니다. (가)에서는 공기분자가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공기 분자를 진동시킴으로써 소리가 전파되고 (나)에서는 수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전달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다), (라)는 각각 암세포와 병원체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전파입니다.

3번-공연장에서의 파도타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소문이 퍼져나가는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질문] 소문은 퍼져나가면서 변하는데 (나)의 규칙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 학생부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자가 꿈인데 진로 선택의 이유가 있나요?

A : 대학 뉴스레터 찾아보다가 소형 민간 항공기 개발 소식을 접하고 흥미를 느꼈다고 함. 빠른 이동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육로를 대체가능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동하는 것에 쓰이는 등 활용방향이 무궁무진하고 인류를 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형 민간 항공기 개발 연구를 꿈꾸게 되었다고 함.

Q : 항공우주공학과 관련해서 한 활동이 있나요?

A : 2학년 CLE활동에서 CAD를 이용해 설계한 경험을 말함. '활동 소개-역할-어려움-느낀점과 변화'의 순서로 답함.

**Q : 그 활동에서 어려움이 없었나요?**

A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이 생각과 다르게 나와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함. 또 아두이노 코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남.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전 학년도와는 달리 제시문의 수가 4개로 줄었고 문항 수도 3개로 줄었음. 시간도 20분 내외에서 14분으로 줄었지만 충분함.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5분 정도 대기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생각정리하면 될 듯.
- ◆ 대강당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중간 자리에 앉으면 이동하기 힘들.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가는 것을 추천.  
(나중에 화장실 가려면 조교와 동행해야 함)
- ◆ 다른 대학은 간식도 주고 물이라도 주는데 아무것도 안 줌. 5배수여서 그런 듯. 밥 먹고 가는 것 추천.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기계공학부]

대 학 / 학 과	고려대 기계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학교추천Ⅱ)				
면 접 시 간	21(제시문 해결)+7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제시문→면접→퇴장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사람이 굉장히 많음. 길 잃지 않도록 조심할 것. ◆ 고려대랑 가까운 지하철역이 2개 있는데, 면접 보는 곳을 확인하고 가까운 역에 내려야 시간과 체력을 절약할 수 있음.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 (가) DNA는 명령을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DNA가 전사과정을 거쳐 RNA가 되며, RNA가 번역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명령을 수행한다.
- (나) 산업화 이후 계급은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뉘었으며, 이 두 계급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 (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n=1,2,3,\dots$ 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간은 없다.
- (라) 자연에서는 아날로그신호인 반면,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디지털신호로 0,1로 구분됨.
- (마) 종파인 소리는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있음. 수면이 낮은 물병에 입김을 불면 낮은 소리, 수면이 높은 물병에 입김을 불면 높은 소리가 남.

## ■ [질문] (가)~(마)에서 공통적으로 연상한 개념?

- A. 불연속을 떠올림. (가)의 경우 각 단계가 불연속적임. 예로 DNA면서 동시에 RNA일 수 없고, RNA면서 동시에 단백질일 수 없음. (나)의 경우 제시문에서 두 계급이 완전히 구별된다고 함. (다)의 경우  $n$ 은 자연수만 가능하고 중간은 없음. 1.5나 2.5 이런 거 안 됨. (라)의 경우 0과 1만 가능하고 0.2나 0.8 이런 거 안 됨. 중간이 없음. (마)의 경우 1/4파장의 홀수배에 해당하는 파장의 소리만 남. 그 외에는 소리가 나지 않음. 따라서 불연속을 떠올림.

## ■ [추가질문] 이와 관련된 과학현상?

- A. 광전효과, RLC회로의 활용, 페놀프탈레인용액. 광전효과는 일정 진동수 이상이면 전자가 방출됨. 쪼이는 빛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크냐의 유무만 따지지, 얼마나 크냐는 따지지 않음. 따라서 불연속. RLC회로를 활용한 안테나를 통한 라디오에서,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방송만 수신함. 예를 들어 100Hz의 방송을 들을 때 101Hz의 방송은 전혀 들리지 않음. 따라서 불연속. 페놀프탈레인용액은 그 용액이 염기성이냐의 여부만 따지지, 강염기라고 색이 더 강해지거나 그런 건 없음. 따라서 불연속.

## ■ [추가질문2] (가)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점?

- A. (가)는 과정이 전단계로부터 비롯됨. RNA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DNA가 필요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RNA가 필요함. 반면 나머지는 아님. (나)의 경우 노동자만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음. (다)의 경우 들뜬 상태의 전자를 고려하면  $n=1$ 이 없더라도  $n=2$ 에 존재 가능. (라)의 경우 0이나 1로만 이루어진 신호가 존재. (여기서 (마)도 말하려고 했는데 타임아웃.)

**Q :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나요?**

A : 물리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물리표를 배울 때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학교 물리선생님께서 제가 기계과를 지망한다는 것을 아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Q : 예를 들면?**

A : 어... 광전효과나 RLC회로?(전기공학인거 알고 있었는데, 제시문에 하도 힘써서 그런지 역학 쪽으로 생각이 안 났음)

**Q : 그건 전기공학 아님?ㅋㅋㅋ**

A : 어 그렇습니다. ㅋㅋㅋㅋ (교수님이랑 조교님이랑 나랑 셋 다 크게 웃었음. 한 3초 정도?)

A : 그렇긴 하지만 제 목표는 공학간의 경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그러면 전기전자과 안 내고 왜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나요?**

A : 어렸을 때부터 하도 기계공학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니다 보니 약간 아이덴티티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은 장비의 설계 및 유지 등 모든 공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학을 배우는 데에 있어 기계공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수고했습니다.**

A : 감사합니다.(속으로 '이게 다야??'라고 느낌. 생기부 진짜 별 거 없음. 자소서는 왜 냈나 싶음.)

갈 때 위치 확인하고 갈 것. 역이 2개인데 본인이 갔던 우당교육관은 고려대학교 역에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야 했음. 가면 사람이 더럽게 많아서 시끌벅적함. 안에 들어갔는데, 번호를 3번을 받음. 기분 엄청 좋았음. 빨리 가서 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이거 면접 대기 순서가 아니라고 함. 내 면접 순서는 21번. 많이 짜증났음. 그런데 내 옆에 앉은 친구는 29번이라... 좀 미안했음. (번호 당 7분 정도라 그 친구는 나보다 한 시간정도 더 늦음.).

제시문 풀이하러 가는 곳이 대기하는 곳이란 다른 곳임. 그래서 가는데 10분 정도 걸림. 한 30명 정도가 같이 제시문 풀이함. 나는 맨 처음에 다른 친구들이 제시문 푸는 걸 보고 고대생인 줄 알았는데, 고사실이라고 적혀있었음. 그래서 논술도 오늘인가 싶었는데, 학추2였음. 다 같은 전형인가. 진짜 여러 전형에서 동시에 온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람 많음.

면접 보고 나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았음 점심 안 먹고 12시에 도착해서 5시 넘어서 나왔으니 죽을 맛. 나오는 길에 버거킹 있길래 가서 콧로치즈버거랑 통다리치킨버거랑 치킨너겟이랑 감자튀김 먹음. 저걸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나 싶겠지만, 아침도 속 안 좋을까봐 적게 먹고 점심을 넘긴 터라 다 먹고도 허기가 남았음. 나오니까 되게 어두웠음. 그런데 밤에 보니까 캠퍼스가 엄청 예뻐.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잘한 점: 대처를 잘한 듯. 면접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었음.
- ◆ 아쉬운 점: 3번 질문에서 (마)에 대해 답 못했음. 시간이 4분으로 촉박함.
-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생기부는 대충 봐도 될 것 같음.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하나 묻는 게 고작임. 제시문 설명할 시간 부족함. 그렇다고 말을 빨리하다간 더듬을 것 같고, 면접 전에 21분 동안 풀게 해 주고 이후 면접실 앞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게 해주는데, 그 때 철저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듯. 면접하고 나오면 옆에 버거킹 있으니 참고.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전 형 명	학교추천1 전형				
면 접 시 간	생기부-10분[면접위원 2명] 토론- 40분 내외 [면접위원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생기부 기반 면접→대기→토론 제시문 숙독 및 정리→토론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생기부 기반 면접 순서에 따라서 최종 면접 마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 ◆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시 부여된 가번호만 사용 가능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꿈이 외교관인데 정치외교학과나 영문학과가 아니라 왜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했나?</b>							
A : 처음에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외교학과에 가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							
<b>Q : 독어독문학과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집단 활동을 해본 것이 있는지?</b>							
A : 교내 동아리나 집단 활동에서는 없었지만 교외 활동으로 모의유엔에 참여하며 독일의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화된 제도를 지닌 나라라는 점을 깨달았음.							
<b>Q : 유럽 여행 가본 적 있는지?</b>							
A : 없음.							
<b>Q : 본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해서 가장 배우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지?</b>							
A : 독일 사상과 문화의 흐름이라는 과목을 가장 배우고 싶음. 사상과 문화를 함께 어울려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음.							
<b>Q : 그 과목의 교수가 누군지 아는지?</b>							
A : 교수님은 모르지만 ~~~(그 과목이 눈에 띄었다는 것 다시 피력)							
-----							
<b>토론 면접</b>							
<b>제시문 : 안암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재판관, 배심원단, 검사, 변호사, 사무관 등)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제시문에 제시된 자치법정의 절차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b>							
A : 배심원단이 가장 중요 - 다수로 구성되어서 의견의 객관성 확보에 유리하다.~~~ 재판관이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 또는 거절하는 두 가지 방안밖에 없다. 배심원단과 재판관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배심원단의 역할의 중요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b>							
◆ 생기부 기반 면접은 의외로 생기부 내용 보다는 면접관이 궁금한 내용을 묻는 질문들이 더 많았음. 그래서 해당 학과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토론 면접을 할 때는 빠른 순발력이 필요함. (질의 시간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물리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학교추천Ⅱ)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고려대 우당교육관(본인 확인 절차)→4층 제 7대기실(여기서 모든 전자기기 제출)→SK미래관으로 이동→어느 수업실에서 21동안 제시문 읽고 3문제 풀기→이동 후 면접 7분(제시문 약 4분, 생기부 약 3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대기실에서는 생기부, 자소서, 책 등 면접 준비자료 볼 수 있고, 화장실은 감독관과 함께 가야함. ◆ 대기실에서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음 ◆ 우당교육관 앞에서 선배들이 간식 나눠주시고, 면접 기다리면서 먹어도 상관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질문]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자료 참고 : 3월 말~4월 초 입학처에 올라옴.</div> <div>■ 질문에 대한 답을 멈추지 않고, 연속해서 말하면 됨. 이후 궁금하신 부분은 면접관께서 질문하심.</div> <div>■ 2개 정도의 꼬리질문이 들어올 수 있음.</div>							
<div>Q :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가장 연관 있고, 또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을 말하고, 그 목차와 배운 내용과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함께 말해주세요.</div> <div>A : 물리학과에 지원했다보니 3학년 1학기 때 이수한 물리 II과목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1단원에서는 고전역학을 다루는 데에 필요한, 힘, 가속도 같은 개념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2단원에서는 로렌츠힘과 같이 전자기학을 다루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배웠어요. 3단원은 정상파처럼 4단원의 양자역학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열심히 학습했었고, 4단원의 슈뢰딩거의 파동방정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div> <div>Q :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는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해 주세요.</div> <div>A : 슈뢰딩거의 파동함수를 다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수학적인 지식에서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공대생을 위한 수학 특강이나 교과서나 영어원서 등을 읽으며 편미분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수학 연산에 익숙해지고 시간에 대해 독립이고 1차 선형인 미분방정식을 풀어보고 역사의 관점에서(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 방정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제시문 면접은 학교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주어지기에 기출을 풀어보면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한다.</div> <div>◆ 난이도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비슷한 실력의 지원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렵다면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자.</div> <div>◆ 평소에 이 면접을 연습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학교에서 배운 물화생지를 본인이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면, 철학 책과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div> <div>◆ 생기부 면접의 경우 위 사례처럼 질문의 범위는 좁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는 외워야하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위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div> <div>◆ 입학사정관께 직접 들은 이야기로, 고려대학교에서는 독서활동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div> <div>◆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보다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원 학과와 관련이 깊은 교과서 저자, 용어, 책 등을 질문에 답변하며 던지시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싶다면 지원 학과와 연관된 심화내용이 포함된 책을 몇 권정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면 그냥 대학교 교과서를 참고해도 좋다(영어 원서도 개인 기량이 받쳐준다면 추천하고 싶다).</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물리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물리학과	전 형 명	학생부교과 학교추천1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고사장 앞에서 앞사람 면접 끝나자마자 바로 응시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수학, 과학에서 증명과 추론의 예시

- 적색편이로 우주 팽창 추론
- 최초 생물 발생
- 수학 방정식 부등식의 해 증명

## ■ [질문] 과학에서 추론과 증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추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새롭게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추가질문] 증명도 중요할 텐데?

A. 증명도 중요하지만 추론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A :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 등장하는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제목의 유래를 알고 그것과 관련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서 여러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탐구하고 싶은 물리학의 주제가 양자역학과 복잡계 네트워크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 Q :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 자율동아리 <캡틴 코리아> 활동에서 부원들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과 문제를 서로 풀고 피드백 하는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터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 Q : 왜 물리 쪽을 좋아하게 됐는지?

A : 2학년 학교수업을 들으면서 간단한 수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물리에 매력을 느꼈고, 방과후 활동을 통해 여러 문제를 풀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다양한 물리 관련 책을 읽으면서 2학년 때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현대물리학을 알게 되면서 더 흥미를 느끼고 그중에서도 양자역학과 복잡계 물리학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Q :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함.
- ◆ 제시문 면접에 꼬투리 잡히기 쉬우므로 분명히 얘기하기!
- ◆ 면접 경험 많이 해보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대 학 / 학 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학교추천표)				
면 접 시 간	7분(제시문 4분, 인성면접 3분) (면접관 :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제시문 면접 4분 + 인성면접 3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 공지사항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 생기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았음. ◆ 한분은 말을 잘 들어주셨지만 한분은 말에 집중하지 않고 펜을 돌리거나 계속 땅을 보고 있었음. 또한 마지막에는 압박면접을 실시하였음. 대답을 성실히 잘하자 마지막에는 두 분 다 말을 잘 들어 주셨음. ◆ 면접 순서를 면접 대기실에서 뽑기로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면접 순서를 예측할 수 없어 면접 준비를 못하고 대기실에 입실하자마자 바로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음.(실제로 순서 뽑기에서 2번이 걸려서 면접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바로 면접을 보러 갔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물리지문 2개 생명과학지문 1개 수학문제 1개</div> <div>■ [질문]</div> <div>A. 물리지문 : 돌림힘 구하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제 해결하기, 생명과학지문 : 멘델의 유전법칙을 활용하여 유전 문제 해결하기, 수학 지문 : 주어진 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div> <div>■ [추가질문]</div> <div>A. 제시된 문제를 풀이한 후 이를 교수 및 면접관들에게 설명해주세요.</div>							
<div>Q :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를 말하고 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div> <div>A :</div> <div>Q : 특정 주제에 대한 흥미를 대학에 진학하여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 설명해보세요.</div> <div>A :</div> <div>Q : 바이오의공학과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div> <div>A :</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처음에 면접을 보러 들어가면 면접관 중 한 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한 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땅을 보거나 펜을 돌리는 등 집중하지 않으신데 이러한 태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당한 태도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div> <div>◆ 면접관들이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지만 내가 먼저 눈을 마주치면 면접관들도 눈을 마주치고 말에 집중하기 때문에 땅을 보면서 말하지 말고 면접관의 얼굴이나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div> <div>◆ 면접 전에 제시문을 풀게 되는데 제시문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제시문을 풀다보면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제시문을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 문제와 문제가 연결된 주제를 찾아내어 그 주제를 힌트로 삼아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div> <div>◆ 제시문의 유형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 전에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문 기출들이 있으니 이를 충분히 풀어보고 면접을 보러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대 학 / 학 과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전 형 명	학교장 추천 I 전형				
면 접 시 간	40분~5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1차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면접(면접위원 2명 약 10분정도 면접 본 것으로 기억)→2차 제시문 면접 20분간 주어진 제시문 보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준비→면접실 입실 후 준비한 답변 대답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학생의 대답에 큰 관심이 없어보이심 선생님 태도에 불안해하지 말 것.</li> <li>◆ 가는 길마다 안내해주심. 면접실 앞에 가면 본인이 노크하고 바로 면접실로 들어감.</li> <li>◆ 생기부 면접이 끝나면 다른 방에 각 조 1번이 모두 모임. 다 모이고 나면 20분간 제시문 준비 시간이 주어짐.</li> <li>◆ 제시문 답변 준비 시 볼펜과 종이가 주어짐 제시문에는 아무 표시도 할 수 없음. 면접 시 답변을 적은 종이만 들고 들어감. 들어가면 똑같은 제시문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음. 형식적으로 교수님이 제시문 밑에 적혀 있는 질문 똑같이 해주심.</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제시문 지문)

(가) 지구-태풍 세력 변화 열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 과정

(나) 화학-전자 위치에 따른 에너지 전위 변화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변화 들뜬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돌아감

(다) 생명-흥분에 따른 막전위 변화

(라) 인구 증가(증가였는지 감소였는지 헛갈림)에 따른 문제점

(마) 경제에서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됨 불황기 때 실업 등의 문제 생김 화폐 조정 등 경제적인 정책 필요

#### ▣ [질문]

**Q : (가)~(다)에서 공통어를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하시오.**

A : 제가 생각한 공통어는 변화입니다. (가)의 경우 태풍이 저위도에서 발생하여 육지로 올라갈수록 수증기 부족 및 육지에서의 마찰로 소멸하게 됩니다. 태풍의 세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어를 변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경우 전자의 에너지 전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닥상태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에너지 전위가 변화하면서 들뜬 상태로 변화합니다. (다)의 경우 흥분에 따른 자극으로 인해 막전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휴지 상태였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고 탈분극 상태로 되어 막전위가 상승하였다가 다시 재분극 상태로 되어 막전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통어를 변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 : 찾은 공통어에 해당하는 자연 현상의 예를 한 가지 말하시오.**

A : 판의 이동에 따른 지형 변화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 간의 밀도 차이로 인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페루-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등이 생기며 지형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Q : (가)~(다)와 (라)~(마)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시오.**

A : (가)~(다)의 경우 발생과 소멸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라)~(마)의 경우에는 그것이 인위적이며 소멸을 위한 다 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의 태풍의 경우 저위도에서 발생하여 육지로 올라오면 에너지 공급 부족 및 마찰로 인 해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나)의 경우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에너지 전위가 상승하였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 로 돌아가기 위해 들뜬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이동합니다. (다)의 경우 막전위가 상승하지만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다시 막전위가 하락하여 휴지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라)의 경우 인구 증가(or 감소)로 인해 ~~~(제시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적혀 있음)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 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의 경우 경기 불황기로 인해 ~~~(제시문에 있음)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제시문에 있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소멸 즉 해결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질문]

보통 추가 질문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내가 찾은 공통어가 틀렸는지 다른 공통어 생각나는 건 없냐고 물어보심 빨리 다른 공통어를 생각해내지 못해서 그냥 준비한 대답 이어감. 또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도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들어도 되지만 그냥 예시를 말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예시를 하나 말했는데 계속 다른 예시를 물어보는 경우는 지금 평가의 갈림길에 놓여있으니 더 정답에 가까운 예시를 들어보라는 의미임. 준비한 대답이 끝난 후 시간이 남아서 (마)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심.

**Q : 고등학교에서 한 창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한 성요셉 재활원에서의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 어떤 봉사활동을 하였나요?**

A : 지적 장애인분들의 학습보조 봉사활동을 원했으나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학습은 불가능한 분들이셨습니다. 주로 재활원 청소, 식사보조 등을 했습니다. (대답이 기억 안 남)

**Q : 봉사활동에서 깨달은 것?**

A :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일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장애인분들도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깨달은 것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Q : 봉사활동에서 배운 것이 과에 / 과에서 배운 것이 봉사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Q : 직업 적는 란에 보면 의대를 희망하였는데 이 과에 지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Q : 이 과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 활동은 무엇인가?**

A : 1학년 때 한 간호반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과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호반 동아리를 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 자세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지식적으로(?) 이 과에 도움 될 만한 배운 것은 무엇인가?**

A :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결국 대답 못함)

**Q : 준비한 멘트 있죠? 해보세요.**

A :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형 인재입니다 제가 그 인재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고려대에 합격하여 제가 그 인재임을 증명해보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당황하거나 떨려하는 거 없이 눈 다 맞추면서 대답함.
- ◆ 면접자가 들어가면 그 때 교수님들도 면접자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처음 열어보고 계심. 자소서를 써서 냈는데 실제로 교수님들은 생기부만 보고 질문하셨고 자소서는 아예 안 보신 듯함.
- ◆ 제시문 공통어를 맞출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면 괜찮다고 들음. 그래서 공통어가 틀렸지만 당황하지 않았음.
- ◆ 제시문 면접 때 대답하고 있는 도중 앞에 계신 교수님이 눈 감고 하품하심. 원래 교수님들이 조금 무관심하게 들으신다고 듣고 갔기 때문에 괜찮았음. 피곤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말하면 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서어서문학과]

대학/학과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학교추천Ⅱ)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면접 준비실에서 21분간 제시문 익히고 제시문 답변 4분, 생기부 면접 3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div>◆ 제시문 면접, 생기부 기준 공통 질문</div> <div>◆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해야하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난 휴대폰 (켜지지 않는 휴대폰) 을 소지하다가 걸린 경우에 뺏점 처리를 받았다고 하니, USB나 휴대폰 충전기 같이 불안할 것 같은 전자기기들도 모두 제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div> <div>◆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님이 두 분 들어오셔서 한분은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한분은 노트북으로 제 생기부를 검토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div> <div>◆ 고려대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 작년 선배들이 힘들어한 이유가 답변시간 6분은 다른 학교와는 달리 본인이 시간을 조절해서 1번 2번 3번을 대답해야하기 때문에 1번 문항을 길게 대답하다가 3번 문제를 대답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시간이 달라져서 그런지 면접관님께서 시간을 조율해주면서 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 (대답을 할 때 시간을 확인 하지 못하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21분 동안은 스톱워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div> <div>◆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반 친구들이 모두 면접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해서 8시까지 가서 면접이 다끝나도 2시간가량 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했는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귀가조치 시켜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순서가 2번째여서) 학교간지 한 시간도 안 지난 채 끝나고 나왔습니다.</div>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제시문 기반 면접] : 기억이 안나요.</div> <div>[생기부 기반 면접]</div> <div>Q. 본인의 진로와 학과와의 연계성을 말해주세요.</div> <div>A. 네 저는 환경전문운동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경영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여 공부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중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연구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아마존 강 유역을 둘러싼 남미국가들과 지역민 그리고 세계인들의 갈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남미 지역을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전통성,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서어서문학과에 진학하여 남미지역학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또한 면접 대답이 4분 같이 적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을 완전히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서 생각 한 사례가 있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이 남을 경우 뒤로 돌아가서 사례나 부차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div> <div>◆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는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1번, 2번, 3번이 기출과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div> <div>◆ 다양한 면접후기를 보고 싶으면 오르비나 수만휘같은 게시판에서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div> <div>◆ 수능이 끝나고 면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다 노는 동안에 나 혼자 면접 준비하고 놀아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너무 폭 놀지 말고 면접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생명과학부]

대 학 / 학 과	고려대 생명과학부	전 형 명	농어촌전형				
면 접 시 간	6~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차례가 되면 각 조의 해당번호가 준비실로 들어가서 제시문을 보고 6분간 대답 정리 후 면접실로 이동						
면 접 특 징	◆ 전자기기, 아날로그시계 금지						
[유의 사항]	◆ 대기 중 대화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div>■ [지문] 수력, 화력, 원자력 전기발전의 문제점에 관한 지문</div><div>■ [질문1] 전기가 생산되고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기까지의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여라. A. 빛에너지, 운동에너지 등이 전기에너지로 변환되고 손실되는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방출됨을 설명함</div><div>■ [질문2] 전기자동차의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A. 긍정- 대기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내용. 부정- 제시문과 관련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설명</div><div>■ [질문3] 위에서 답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A. 태양E, 파력E 등의 전기에너지 생산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 언급</div></div>							
<div><div>Q : 본 학부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활동?</div><div>A : 동아리에서의 친환경 건축자재 제작 활동 경험</div><div>Q : 어떤 걸 주로 참고하였는가?</div><div>A : 검색, 논문 등 참고, 모르는 내용은 선생님께 여쭙봄</div><div>Q : 그 활동을 통해 얻은 점?</div><div>A : 환경과학으로 시작해서 함유물질 조사, 실험 과정에서 생명과학까지 연계하여 깊이 탐구하였다는 내용</div><div>Q : 관련된 또 다른 활동?</div><div>A :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제작을 한 경험</div><div>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div><div>A :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내용</div></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div>◆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div><div>◆ 생기부의 내용보다도 활동 위주의 답변 준비.</div></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수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수학과	전 형 명	학생부교과 학교추천I				
면 접 시 간	학생부 10분[면접위원 2명] 제시문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 → 제시문 면접 준비 → 제시문기반 면접 → 서류기반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내용은 따로 메모할 필요 없음. ◆ 제시문과 학생부 면접위원이 각기 다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성적도 좋고 수상실적도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b></p> <p>A : (수상 실적이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진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이라 판단, 예상 질문 아니라서 순간 당황) 1학년 때는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다가 2학년부턴 수학에 대한 열정을 다양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 영어 스피킹 대회에서 기하학의 역사에 관해 발표한 경험 예로 들.</p> <p><b>Q : 기억 남는 봉사활동?</b></p> <p>A : 동아리활동으로 한 봉사활동에 대해 답변(잘 기억 안남)</p> <p><b>Q : 동아리 활동?(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같은데 잘 기억안남)</b></p> <p>A : 위상수학에 대한 글쓰기를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한 듯.</p> <p><b>Q : 동아리는 원래 있던 것인지 아니면 개설한 것인지?</b></p> <p>A : 개설함.</p> <p><b>Q : 동아리원 모집은 어떻게 했는지?</b></p> <p>A : 2학년 때 동아리는 1,2학년 학생대상으로 공개 모집. 3학년 때는 ~~</p> <p><b>Q : 가장 관심 있는 수학분야는?</b></p> <p>A : 위상수학과 암호학이라고 답변. 암호학에 관심가지고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 읽은 후 RSA암호에 대해 직접 탐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p> <p><b>Q : (오른쪽에 빼딱하게 앉아있던 면접관이 바로 앉으며 책이름 언급하면서 웃음) 학교생활이 바쁜데 언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b></p> <p>A : (면접을 잘 본거 같아서 기분 좋아짐) 본인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파고들어 연구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면접 위원들이 내 자소서와 생기부를 열심히 본 것 같지 않았음. 학생부 기반 면접 때 생기부에 나오는 순서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순으로 질문함.</p> <p>◆ 면접 연습 때는 수월하게 이야기 했는데 실전에 가니 말도 빨라지고 횡설수설했음.</p> <p>◆ 면접 순서가 뒤에서 두 번째여서 대기시간이 길었는데 그동안 볼 자료를 충분히 챙겨 가시길.</p> <p>◆ 이과라도 문과 과목 제시문이 나올 수 있으니 문과 교과서 읽고 가는 것이 도움 될 것임. 저는 1시간 만에 사문책을 다 읽었음. 사회문화 읽는 것 추천. 물화생지에서도 나올만한 요소들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 추천함.</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전 형 명	기회균등전형(사회공헌2)				
면 접 시 간	약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제시문 숙독(6분) → 제시문기반 면접(3분)+생기부기반(약 7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학생부 기반 면접이었으나 제시문이 나옴. ◆ 인사할 시간을 안줌. 재빠르게 인사해야 함.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질문/제시문]

**Q : 본인이 준비한 제시문 질문에 3분간 자유롭게 답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세요.**

- 열에너지, 화석에너지, 수소에너지(?)등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이 전기에너지를 다시 전기자동차까지 넣는 데에 서의 에너지 변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 전기자동차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위에서 언급한 전기자동차의 단점을 극복할 방안을 설명하시오.

A : 생략

**Q : 학생이.. 경제..과를 지원했네요? (지금에서야 내 생기부를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음..) 학생이 학교생활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A : -

**Q : 학생이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에 어떤 게 도움이 됐나요?**

A : 결정적으로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이라는 책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책이 백과사전처럼 되어있고 주제별로 여러 자료와 출처를 밝혀놓는데 이 책에 올라온 자료들이 공신력있는 자료가 많았어서 제가 의문해결할 때 이런 사이트들을 알게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 학생이 말하는 구체적인 정보나 공신력 있는 정보의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A : FAO의 연례 보고서나,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신력 있는 정보의 예입니다.

**Q :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았어요.**

A : 감사합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예상한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호기심 해결 질문가지고 면접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제시문 끝나니깐 개별 질문 체감시간 3분정도 밖에 안돼서 나오면서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 ◆ 기본적인 질문 + 꼬리질문 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꼬리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만들었다. 막상 고려대 면접에선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왔지만, 아무튼 준비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학생부 기반 면접인데도, 제시문이 나왔다는 점. 경제학과에 지원했으나 에너지 변환에 대해 물었다는 점.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당황한 만큼, 남들도 당혹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하면 될 것 같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심리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심리학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준비시간: 14분 면접시간: 3분(제시문)/4분(학생부)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고사장 이동 후 제시문 15분 내에 정리→다른 고사장으로 이동 후 앞사람 면접 끝나면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15분 동안 제공되는 종이에 정리 가능, 이후 그 종이 들고 면접 고사장 이동) ◆ 제시문 질문들 3분 내로 대답 후,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자유 질문을 몇 개 더 던지시기도 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현대사회에서 이타심은 필요한가에 대한 a,b의 견해 / 이타심이 신체·정신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험문</div> <div>■ [질문1] (가)지문의 a와 b의 견해를 비교하세요.</div> <div>■ [질문2] (나)지문을 읽고 (가)지문의 입장에서 이타심을 평가하시오.</div> <div>A. (나)에서는 이타심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이타심을 장려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가)지문을 참고할 때 이기심 또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심 또한 어느 정도 장려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div>							
<div>Q : 생기부에서 '프시케'라는 동아리의 부부장까지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 있나요?</div> <div>A : 자소서 기반으로 대답.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div> <div>Q : 자소서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해주게 된다면,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div> <div>A : 아무래도 아직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이 대답은 추측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감정이나, 스트레스 등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람에게 상담을 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Q : 심리학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div> <div>A : 우선 심리학이 외국에서는 이과로 치부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문과로 치부가 됩니다. 그 말은 심리학자가 문과와 이과의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융합형 과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들어 이야기했으나 이게 기억이 안 남)</div> <div>Q : 진로가 프로파일러인데, 프로파일러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div> <div>A :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에 프로파일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프로파일러에 대한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고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천천히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곧 다른 나라들처럼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믿습니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각보다 압박 질문이나, 꼬리 질문이 없었다.							
◆ 연습을 했음에도 막상 들어가서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천천히 대답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 3년간 지역 청소년센터에 교육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활동을 했음. 처음에는 문법책을 펴놓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과 대화하던 중 아이들이 영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음.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활용해서, OST 가사 속에 담겨있는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암기하는 식으로 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 다행히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3년간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하고, 또 관련 활동을 많이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영어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지 못했음. 이를 찾아나가는 데에는 분명히 도전정신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공부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고 싶음.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대기시간에 비해 너무나 짧은 면접시간. 선배들 후기도 보고 하면 확실히 고려대는 학생 생기부나 자소서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함. 심화적으로, 세부적으로 막 준비하고 긴장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배님이 서울대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그냥 세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 ◆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첫 면접이라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불안해서 대답 잘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 ◆ 전자기기 다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는 아날로그시계도 제출하더라고요. 저 면접 갔을 때도 아날로그시계 때문에 부정 행위 걸린 학생 한 명 있었으니 꼭 짐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라는 거 좀 애매한 거 그냥 다 제출하고 보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학교추천Ⅱ)				
면 접 시 간	8~10분 [면접위원 2명] (제시문 답변 5분 포함)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최초 대기실(출석,폰 수거)→활동기반 면접실 앞 대기→면접 후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타이머가 있어 시간을 엄격히 지킴. ◆ 제시문 기반과 활동 기반 질문을 연달아 함.(교실 이동X)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 (가). 1인 방송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장점 + 부작용 사례  
 (나). '외로움'은 개인이 '사소한 사정'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는 이론의 지문  
 (다). '치유적 피로'에 관한 이론의 지문  
 (라). '최적 독특성 이론'에 관한 이론의 지문

### ■ [질문1] (나)의 관점에서 (가)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 A. 개인의 독창성 증가, '사회의 큰 목소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취향 반영 가능, 대중매체만 있을 때 소외감 느낀 사람들의 소외감 감소 가능 => 긍정적으로 볼 것

### ■ [질문2] (다)의 관점에서 (라)를 이해한 것

- A. 자신이 말한 '최적 독특성'에서 제시한 첫 번째 욕구(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치유적 피로'와 (라)의 두 번째 욕구(사회에 동질감 느끼고 싶은 욕구)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것임. 그 이유는 욕구는 거시적인 집단에 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점이 같기 때문임.

### ■ [질문3] (가)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사회 현상 + 기능 + 문제점

- A. (가)와 유사한 사례는 문화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면에서 같음. 게다가 개인의 이런 독특함을 수용하려는 태도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이게 되면 (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도덕성에 어긋나는 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 할 수 있음.

### Q : 영어영문학이 현대 사회에서 하는 역할?

- A : 인간의 정체성 탐구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사례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읽은 에드거 앨런 포우의 'The Premature Burial'이라는 책에서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채 매장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 느끼는 공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음. 이런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접할 이유가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공포심에 대한 공감을 가능케 함. 또한 과학 소설 같은 경우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활동 기반 질문을 하나 밖에 안 하고 그 질문이 생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어서 당황했음.  
 ◆ 면접 준비시간이 충분한 대신 그만큼 시간을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자유전공학부]

대 학 / 학 과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전 형 명	학교추천Ⅱ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 장소에서 대기 → 제시문 문제풀이 장소에서 21분간 문제풀이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 응시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서류+제시문 면접이지만 서류면접은 공통질문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므로 제시문 위주로 준비할 것 ◆ 고려대학교 제시문의 경우, 문제풀이 시 반드시 지문 내에서 근거를 찾아 '인용'하여 답변할 것 ◆ 제시문 면접 시 본인이 작성한 답변 종이는 참고만 할 것 (머릿속에 답변 정리해 면접관 응시하며 답변하는 것이 좋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총 네 지문 출제 (칸트 지문, 유교사상 지문 등 윤리 내용)</div> <div>■ [질문]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시오. 등의 지문 내 문제풀이</div> <div>A. 제시문 (가)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관점에 비추어 (나)를 설명하면...</div> <div>■ [추가질문] 없음</div> <div>A. 없음</div>							
<div>Q : 본인이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후의 진로계획을 말해 보세요. (공통질문)</div> <div>A : 저는 국제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국제법' 과목과 '동양의 지혜' 과목을 공부하여 법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후 외교부 산하의 기관에서 국제법에 능통한 외교 분야 전문가로서 국익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div> <div>Q : 본인은 국제법 전문가라는 진로를 위해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해 보세요.</div> <div>A : 저는 조약이나 국제기구, 국제분쟁에 관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찾아보았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부산 소녀상 설치가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국가 간 약속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Q : 이 학과에 진학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공통질문)</div> <div>A : 저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통해 권력구조의 부당함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을 나간 스노볼이 다시 돌아와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나폴레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면접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제시문 면접 시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것.(그래야 서류면접을 볼 시간이 생김)</div> <div>◆ 제시문 기반 면접을 철저히 준비해야 실제 제시문 문제 풀이할 때 긴장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함.</div> <div>◆ 면접관이 2인 이상일 경우, 답변할 때 모든 면접관을 번갈아 응시하며 답변하는 것을 추천함.</div> <div>◆ 모든 질문에 답할 때는 두괄식으로 답변할 것 (답변이 길어질수록 면접관이 제대로 듣는 경우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div> <div>◆ 너무 긴장하지 말 것!</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전 형 명	학교장추천Ⅱ전형				
면 접 시 간	8~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문공통	제시문기반	집단토론	다중미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준비실에서 제시문 읽기→면접장에서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제시문 면접 ◆ 자소서 및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과학기술이 불러올 영향</div> <div>▣ [질문]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한 제시문에 대한 비판 &amp; 과학기술에 대한 과잉규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된 사례</div> <div>A.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과학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도 있음을 근거로 하여 비판하였음. 특히 지나친 과학기술 개발은 인간의 이에 대한 의존도 심화 혹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혼란과 같은 문제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부정적 효과들을 들어 설명했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AI 같은 로봇기술의 사례를 들었음. 사례가 잘 떠오르지 않아 좀 막힌 감이 있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함. AI에 대해서 알파고와 같은 사례들을 들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의한 규제가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음.</div> <div>▣ [추가질문] 없었음.</div> <div>Q : 정치외교학과에서의 공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중에서 본인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div> <div>A : 정치적 권리란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 바 있기에, 이런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내 의견을 자신감있는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자질들을 잘 갖추고 있음을 설명드림. 특히나 3학년 학급실장으로써 했던 역할들과 그 속에서 느낀 바를 대답에 녹여냈음. 두 번째로는, 정치의 영역은 대중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따라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잘 드러나야 하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음. 이런 정치를 배우는 정치외교학과임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지닌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내가 가진 정치외교학도로서 자질 중에 하나라고 말했음.</div> <div>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div> <div>A : 면접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한 내용들을 토대로 말했음. 지난 3년간 내가 가장 공들인 활동들을 한 두가지 밝히면서 그만큼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함.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스스로 지닌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음.</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예상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대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함.</div> <div>◆ 평소에 틈틈이 책을 읽거나 학교 수업을 들을 때에 본인의 생각을 조금씩 메모해두는 것이 좋음.</div> <div>◆ 고려대학교는 특히 면접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책이나 준비한 것들을 잘 챙겨가는 것이 좋음.</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컴퓨터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 컴퓨터학과	전 형 명	학교추천Ⅱ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공통	제시문기반	집단토론	다중미니
			★		★		
면 접 절 차	입실→강당에서 조별로 대기 → 대기 중 면접 번호 부여, 전자기기, ‘아날로그’ 손목시계 제출 → 면접 순서 알려줌 → 차례가 되면 다른 조와 함께 이동 → 단체로 교실에 들어가서 제시문 풀(시간제한 21분) → 문제는 클리어파일 안에 있어서 보기만 가능함. 메모할 A4용지 제공 → 21분이 지나면 A4용지 들고 면접실 앞으로 이동, 안내요원이 면접방식 설명해줌(제시문 4분, 서류기반 3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면접 ◆ 서류기반 면접 ◆ 아날로그 시계도 제출해야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가) 단백질 합성 과정 : DNA가 RNA에게 유전정보 전달, RNA는 단백질 합성

(나) 경제적 자본 소유량에 따른 경제적 계급 구분

(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 양자화

(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진법)

(마) 소리의 밀/소에 따른 파장의 결정, 정상파

## ■ [질문]

1. 제시문 (가)~(마)에서 연상 가능한 공통된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

A. 저는 불연속을 연상했습니다.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 하나의 물질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DNA와 RNA 두 가지가 작용한다는 것에서 불연속을 떠올렸습니다. (나)에서는 자본의 정도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데 그 계급간의 경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연속을 떠올렸습니다. (다)에서는 지문에도 나와 있듯이(지문에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있었음) 양자화의 개념에서 불연속을 떠올렸습니다. (라)에서는 연속적인 아날로그와 불연속적인 디지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마)에서는 파동에서 '밀소밀소'의 형태가 반복되므로 밀한 부분과 밀한 부분, 소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2. 1번에서 연상한 개념을 자연현상에서 찾고 설명하라

A. 불연속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광전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빛이 파동성만 지닌 연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광전효과를 통해 빛이 입자성을 지닌 불연속적인 광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광전효과는 금속 등의 물질에 문턱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광양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 3. 제시문 (나)~(마)와 제시문 (가)의 차이점

A. 제시문 (가)는 단백질 합성 과정을 쪼개 DNA와 RNA의 역할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마)는 어떤 하나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경제적 계급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다)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는 파동의 상태에 따라 밀한부분과 소한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추가질문]

X

**Q : 자연과제연구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던데 무엇을 했는가?**

A : 구글이 어떻게 정확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궁금하여 구글의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구현해보았습니다.

**Q :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의 원리가 무엇인가?**

A :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특정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인용되면 인용될수록 더 가치있는 사이트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이런 페이지들의 인용도를 정규화시켜 페이지랭크를 구하고 그 값이 큰 것을 상위 검색결과에 올리는 알고리즘입니다.

**Q :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의 취약점은?**

A : 누군가 악의적으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인용도를 높여 상위 검색결과에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의 목표는 랭킹과 매칭입니다. 페이지랭크는 랭킹을 추구하는 알고리즘이므로 매칭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용도로 비교하지 않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워드를 평가 기준에 추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다룰 줄 아는 언어와 고교 생활 중 만들어본 프로그램?**

A : C, C#, 그리고 파이썬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C를 이용해서 구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기를 C로 구현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시간 끝남) 또 코딩 문제 사이트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짜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말 하고 나옴)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기출을 보면 알겠지만 제시문이 매우 쉽다. 준비시간이 21분이므로 시간이 매우 많이 남을 텐데 그 시간동안 발표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 ◆ 제시문 면접에 할당된 시간이 4분이라서 면접관분들이 추가질문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자신감 있게 발표하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 한국사학과]

대 학 / 학 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전 형 명	학교추천표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제시문 답변 준비(21분)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7분인데 제시문 4분 생기부 3분이라서 생기부 질문은 완전 수박 겉핥기식. ◆ 제시문 기반 ◆ 생기부 기반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가) 21세기 과학 시대를 찬양하는 글

(나) 과학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글

(다) 산업혁명시기 영국의 증기기관차에 관한 글.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증기기관차를 비난하자 여론에 민감했던 당시 영국 정부가 증기기관에 과도한 제한 법률(속도 제한, 횡수 제한 등)을 만들어서 증기기관이 무용지물이 된 사례

(라) 과학시대를 맞아 위상이 올라갈 것 같은 나라 순위 와 각 나라의 산업 유연성, 법률, 교육 등의 지표를 수치화한 도표

### ■ [질문1] (나)를 바탕으로 (가)에 대한 생각

A : (나)는 과학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학을 찬양하는 (가)를 비판할 것입니다.

### ■ [질문2] (다)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예시와 해결방안

A : 저는 '로봇세'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봐 로봇에 세금을 붙이자는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 과학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떨어짐. 로봇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로봇 강대국이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좋아지는 등의 장점을 말해서 설득하자고 함.

### ■ [질문3] (라)를 보고 과학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해야하는 것

A : 산업 유연성이 높을수록 순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노동자들에게 산업에 대해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많이 지원해줘야 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이 낮은 걸 보니 문화지체와 아노미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함.

### Q :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 두 가지?

A : (완전 당황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어 음 저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도.. 이러한 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도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 두 가지 말 하세요.



A : 아 네 그리고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야...우리나라의 역사는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진짜 기억 안 나는데 완전 헛소리한 것 같음. 너무 당황해서)

**Q : 네, 그럼 그 자질을 발휘한 교내 활동을 말해 주세요.**

A : 아 저는 3.1 운동 100주년 봉사활동이 제 애국심을 나타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직접 만세운동도 해보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Q : 그럼 교내에서 뭐 공식적으로 한 활동은 없단 말이네요? 성취한 거 없어요?**

A : (완전 당황 식은땀) 아,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교과 시간에 친구들을 위해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3학년 자율동아리 '사학도'에서 교내 역사익식 고양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Q : 성취한 거 말 하시라고요. (살짝 웃으심)**

A: 아 거기서 제가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은 역사 인물 퀴즈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었고 맞춘 친구들에게는 소량의 선물을 주었고 틀린 친구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글로 적어서 그나마 정리된 거지 실제로는 식은땀 줄줄나고 완전 말 더듬고 면접 끝나고 울고 그랬는데 붙은 것 보면 완전 기적!
- ◆ 제발, 제발 면접 준비 열심히 하세요. 생기부랑 자소서만 보지 말고 그 학과에 관련된 자신의 평소 생각을 많이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 ◆ 최저라면 영어랑 국어 지문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시문 면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고려대(세종) 스포츠과학전공]

대 학 / 학 과	고려대(세종) 스포츠과학전공	전 형 명	글로벌스포츠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3명]	제시문 유무	있음
면 접 절 차	여러 명이 방에서 폰 끄고 기다림. 3시간 기다림. 아주 견디기 힘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인상과 달리 편안하게 해 줌.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지원 동기?**

A : 어렸을 때 유학을 갔고 거기서 럭비를 배웠고~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등등

**Q : 럭비 했다고? 포지션?**

A : 풀백 봤습니다(사실 아닌데 제일 맛있는 포지션 말함)

**Q : 문화적으로 왔다갔다거려서 한국 학교를 적응하기 힘들었겠네요. 수고했어요.**

A : 조금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 토익점수는?**

A : 좀 못 나와서 950점 나왔습니다.

**Q : 영어는 유학 갔다 와서 별로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영어로 한번 답해 주세요. 자기 장점?**

A : 저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유학생활동도 했고 럭비부 주장생활도 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이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 고려대 붙으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장점 다른 거는 없나요?**

A : (영어로) 저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에 집중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사랑합니다.

**Q : 좋아하는 과목은요?**

A : 영어요.

**Q : 영어 말고는?**

A : 국어입니다. 저는 언어를 항상 잘하고 싶었고 항상 목표가 4개 국어 이상 터득하는 것이었기에 언어를 사랑해서 국어 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Q : 마지막 할 말?**

A : 저는 늘 시작점은 틀려도 도착점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록 남들보다 시작점은 느렸지만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이 있고 저는 매우 발전중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고려대에 붙으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문을 대충하고 별로 많이 안함. 내가 젤 꼴찌여서 그런 듯.



**Q :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본인은 봉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아이들과 학습하고 놀면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Q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덴마크나 핀란드보다 그래도 낫다 싶은 교육제도는?**

**Q : 플래너 수상 했던데 무슨 상 인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

A : 학급별로 가장 플래너를 잘 쓴 학생을 뽑아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방대한 학습량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플래너 담당 선생님께 직접 플래너 활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쉽게 놓치기 쉬운 자투리 시간 특히 점심, 석식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Q : 본인은 우리학과에 오면 특히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가?**

A : 저는 본래 교육철학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학자들의 교육철학을 공부한 다음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육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그럼 교사가 아니라 교육학자가 꿈인가?**

A : 현재는 교육학자가 꿈입니다.

**Q :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본인을 어필해 보라!**

A : 교육은 인생 전반에 걸쳐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교육 적 지식을 쌓아왔고 멘토링 활동과 봉사 경험을 통해 실제 경험을 많이 쌓아오는 등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교육학과에 진학하여 교육의 근본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탐구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저 개인의 자질을 개발시킨 후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광운대 경영학과]

대 학 / 학 과	광운대 경영학과	전 형 명	광운참빛전형(학종)				
면 접 시 간	10분~12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교수님들이 답변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편안했음. ◆ 경영학과와 경우 같은 시간에 2개의 교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화장실 미리 갔다가 면접장 갈 것을 추천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함께 말씀해주세요.</b>							
A :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욕심쟁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몫까지 탐내는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의가 아닌, 제가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있을 제 삶에 대한 욕심이 많기에 욕심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중략- 이런 경영컨설턴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 광운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 : 학습플래너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b>							
A : 학습플래너 구성 설명 후 매년 진행한 활동과 그날의 느낌, 학교 행사 후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일기 쓰듯이 기록을 했었다. 그것이 저만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수상할 수 있었다 생각한다.							
<b>Q : 학습플래너 효과를 봐서 그런지 계속 성적이 상승하다가 3학년 때 떨어진 이유는? 플랜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b>							
A : 플랜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첫 중간고사 준비기간에 외조부께서 돌아가셨고 이 시기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의 가족을 위한 시간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그렇기에 학업에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살아가면서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기에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b>Q : 경영컨설턴트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곳을 컨설팅하고 싶은가?</b>							
A : 경영컨설턴트는~							
<b>Q : (꼬리질문) 소상공인들 종류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b>							
A : 실제 동네 작은 식당이나, 빵집, 어린이집 등 자영업자들 상대로 하고 싶다.							
<b>Q : 그럼 자네는 회계 세무 마케팅 생산 인사관리 등 경영학에서 주요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b>							
A : 회계 세무 인사관리(후략)							
<b>Q : (꼬리질문) 동네빵집과 파riba게트가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동네빵집을 컨설팅 할 것인가?</b>							
A : 파riba게트는 전국곳곳에 있는 매장이다. 그렇기에 제품도 서비스도 동일하다 생각한다. 반면에 동네빵집은 프랜차이즈를 따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만의 장점과 특기가 있다 생각한다. 이를 전제하에 동네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 할 것이다.							
<b>Q : 마지막으로 할 말?</b>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보고 난 후 솔직하게 '이건 붙었다' 생각했습니다.(실제로 최초 합) ◆ 꼬리질문이 많았고 세특 관련 질문은 하지 않음. 꼬리질문이 많았기에 여기서 말려들면 압박면접이라 느낄 것 같음. ◆ 답변을 달달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답변에 자신만의 가치가 담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군산대 해양생명의학전공]

대 학 / 학 과		군산대 해양생명의학전공		전 형 명		새만금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신원확인→제1강의실 대기→제2강의실 대기 및 예상 질문 종이 지급→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가번호 추첨 없이 랜덤으로 이름을 부르면 면접실에 입실. ◆ 예상 질문지에 있는 인성문제 4문제, 전공적합성 문제 4문제 중 각각 2개씩 질문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와 있었던 갈등 사례와 해결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예상 질문 인성2)										
A : 저는 부모님과 진로결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이 수산질병관리니 대학교를 집과 먼 곳에 가야해서 부모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직업이하는 일과 학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학과나 직업 정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제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께서 저의 진로를 응원해 주셨고 같이 대학과 학과에 대해 알아보면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Q : 전공이나 학과와 관련한 자신만의 강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예상 질문 전공적합성3)										
A : 해양생물 중에서 특히 어류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해양포유류처럼 소리를 낼 수 없고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관찰력이 좋다는 저의 장점이 수산생명의학과와 관련된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A :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수산생산량 또한 늘고 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수산물의 생산량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대학교에 입학해서 어병학과 바이러스학을 바탕으로 ~~하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기부 질문보다는 면접 예상 질문 위주로 질문했음. (다른 친구들도 그랬다고 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극동대 항공운항학과]

대 학 / 학 과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전 형 명	일반학생전형				
면 접 시 간	7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신원확인→대기실 대기→면접고사장 앞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자소서, 생활기록부 없이 면접 ◆ 정해진 시간대 학생들 중 선착순으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유튜브 시장의 확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div> <div>■ [질문]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하시면 됩니다.</div> <div>A. 저는 유튜브의 시장의 확대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유튜브 자체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촬영됩니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친 영상을 접하게 되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나 어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습적, 교육적으로 좋은 영상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Q : 다른 항공운항학과도 많을 텐데 극동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div> <div>A : 제 꿈이 공군인데 극동대학교가 군조종장학생 선발률이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div> <div>Q : 다른 학교 어디 지원하셨나요?</div> <div>A : 항공대, 교통대, 중원대, 청주대, 영남대 지원했습니다.</div> <div>Q : 극동대식 내신이 몇 등급 되시나요?</div> <div>A : 3등급입니다.</div> <div>Q : 극동대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div> <div>A :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만의 특징이나 장점 알아가야 함.</div> <div>◆ 심사위원이 두 분이다 보니 양쪽 심사위원들께 시선을 번갈아 주는 것 잘한 것 같음.</div> <div>◆ 생각보다 짧고 금방 끝나니까 처음부터 좋은 인상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자세, 표정, 자신감 등)</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대 학 / 학 과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전 형 명	일반학생				
면 접 시 간	20분~3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교사장 앞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질문 없음 ◆ 예상질문에서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나 똑같은 안 나옴 ◆ 교수님들이 엄청 친절하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 및 우리 학과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세요.</b></p> <p>A :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000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특수교사이신 어머니를 따라 특수학교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장애인들에 대한 좋은 인식과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꽃동네라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봉사의 즐거움과 장애인분들의 순수함에 반하게 되어 특수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Q :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을 자신의 장점과 연관 지어 말해보세요.</b></p> <p>A : (자신이 생각하는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을 자신의 장점과 잘 연관 시키는 것이 중요함) 저는 적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 :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데 임용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말해보세요.</b></p> <p>A : 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Q : 중등특수교육과도 있는데 왜 초등특수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동기가 있으신가요?</b></p> <p>A : (초등에 지원하였으면 어느 대학교든 꼭 물어보시는 질문임)</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2대5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어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 ◆ 지원동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만의 장점을 잘 알아가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함. ◆ 예상 질문에 없는 것을 물어보셔도 딱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깐 긴장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대 학 / 학 과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전 형 명	섬기는리더1 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 → 밖에서 대기 → 면접실 입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 아님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A : 제목, 읽게 된 계기 , 느낀점 ,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함.							
Q : 지원동기							
A : 꿈을 갖게 된 계기, 내가 한 활동, 학업 계획을 다 요약해서 말함.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 예상 질문에 관한 답을 다 생각하고 가는 게 좋고 다 교복입고 오니까 교복되면 교복 입고 가는 게 좋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남서울대 전자공학과]

대 학 / 학 과	남서울대 전자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5분~10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 → 밖에서 대기 → 면접실 입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 위원 3명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A :							
Q : 본인이 타인에게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A :							
Q : 고교시절 동아리활동이나 단체 활동 등을 했는가?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나갈 때 문 옆에 뭐 누르는 걸 누르고 나가야 한다. 난 이것 때문에 좀.. 큼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대전대 한의예과]

대 학 / 학 과	대전대 한의예과	전 형 명	교과면접				
면 접 시 간	3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제시문 준비 시간 15분 + 답변 시간 15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블라인드 면접임                      ◆ 제시문 준비하는 곳과 답변하는 곳이 다름 ◆ 수험번호순으로 진행됨              ◆ 3대3 면접임 ◆ 제시문에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자신이 어떤 제시문에 대답할지는 제비뽑기로 결정됨 ◆ 1차 발표와 동시에 공통질문 10개가 공지됨 이 중에 한 가지만 물어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div>■ [지문]</div><div>■ [질문]</div><div>A.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윤리 판단의 방식으로 서술하시오.</div><div>B. 조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div><div>C. DNA의 개념과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div><div>(나는 A를 뽑음)</div><div>■ [추가질문]</div></div>							
<div><div>&lt;실제 면접&gt;</div><div>인사한 뒤 앉고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같은 건 일체 안 물어봄</div><div>Q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세요. (공통질문에 있던 거)</div><div>A : 최저임금은 ~한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한 점에서 고용주에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iv>Q : 노동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빨리 올리라고 하지 않나요? (꼬리질문)</div><div>A : 물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한시라도 빨리, 많이 인상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버리면 고용주들은 높아진 시급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 상되어야 합니다.</div><div>Q : 수술실에 cctv 찬반, 그 근거를 윤리 판단 방식으로 서술하세요. (제시문 A)</div><div>A : 저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환자와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cctv를 설 치하는 것은 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3단 논법 이용해서 대답함)</div></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3대3 면접인데 15분이니까 결국 인당 5분인 면접임 ◆ 다른 애들 답변하고 있을 때 굉장히 머쓱함 그래서 미소를 띠고 고덕고덕 하고 있어야 함 ◆ 빵이랑 피크닉을 주는데 성심당 빵은 아니고 속이 알찬 단팥빵이라서 배고플 일은 없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후기[동국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동국대 의예과	전 형 명	지역인재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형 식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실 밖에서 5분쯤 대기 후 입장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질문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자소서를 잘 숙지해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 ■ [질문] 생명이란 무엇인가?

A.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란 단지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명이 있어야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점에서 생명은 어떤 물체가 정말 존재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추가질문] 생물체의 생명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식물을 예를 들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있고 인간에게는 물질대사와 항상성 유지, 소화 등이 있다.

## Q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의대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A : 1학년 때 수학 관련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수학이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자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했다. 특히 프랙탈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나선형 프랙탈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번기 물 내림에 적용되어 이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씻겨 내려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혈관에 적용시켜 혈액이 나선형으로 지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산소 운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조사를 통해 오히려 혈관 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통해 수학적 이론이 생명체에는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의사가 되어서도 이론이 무조건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 Q :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A :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들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점심식사 보조도 하는 활동을 했다.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나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을 보며 그런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요양병원의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할머니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의사가 된다면 병원에 꼭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고 환자들 생기를 느낄 수 있게 식물이나 조화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Q :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A : 환자를 볼 때 어떤 조건 없이 정말 환자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 Q :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가?

A : 사실 지금 의대생이 아니니까 무슨 과에 갈지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다. 단지 암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연구하고 싶으니까 약물치료를 주로 하는 내과보다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에 가고 싶다고 단순히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의대에 진학하게 된다면 예과, 본과, 인턴을 마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정말 나한테 적합한 과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 Q : 한 때 건축을 희망한 적도 있는데 왜 의사로 전향했는가?

A :

[본인이 생각하는 합격한 주요 요인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동국대 한의예과]

대 학 / 학 과	동국대 한의예과	전 형 명	교과면접전형				
면 접 시 간	25분~3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앞사람 면접 후 바로 응시 → 제시문은 면접고사장에 들어가 면접관 앞에서 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문항 면접 ◆ 공통문항(인성, 사회성)은 면접 전 미리 홈페이지에 제시됨 ◆ 단, 전공적합성문항은 당일 면접관 앞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생물1 내용을 알아야 대답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질문] 공감과 관련된 단어 2~3개를 들어 공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을 설명하시오.</div> <div>A. 저는 이해, 감정의 동화, 행동이라고 생각. 이해와 감정의 동화는 공감의 필수적 요소. 이해로부터 자연스럽게 감정의 동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1학년 토래상담사활동에 대입하여 설명함. 행동은 '진정한 공감은 행동을 이끌어낸다'의 의미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친구와의 토래상담과 그와 연계하여 재학 중에 했던 활동을 제시함. 환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치료와 연구 활동을 하고 싶다.</div> <div>▣ [질문] 대학입학 후, 학과 동료들과 협력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팀장이 되었다. 그런데, 협력학습 중 팀원 중 유독 한 친구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팀 미팅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div> <div>A. 저는 조원들과 역할분담을 할 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언제 어디서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2년간 수학토래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수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 효과가 좋았다.</div> <div>Q (추가질문) 그래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두 번 정도 했다.)</div> <div>A. 그 친구의 장점을 살려 조에서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것. 그래도 팀장으로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div> <div>▣ [질문] 인체 내의 4가지 기관계를 각 기관계 내의 기관 명칭과 그 기능을 포함하여 모두 설명하시오.</div> <div>A. 답이 정해진 생물 내용이라 생략. (구체적으로 과학적 용어를 많이 넣어 설명할 것. 예를 들어 배설계에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같은 명칭뿐만 아니라 과정 설명자체를 '확산, 재흡수, 능동수송'같은 용어로 설명)</div>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미리 준비해 감.) 3년 동안 한의대를 준비했다. 한방연구 만들기, 커리어 로드맵 등등 활동을 통해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 목표를 동국대학교 의료원에서 이루고 싶다 등등.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평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한의대를 준비했던 활동에 대해 느낀 점 정리한 것과 생1내용 암기를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국대는 교수님들이 문과생이 과학내용을 아는지 집중해서 보는 것 같으니 때문에 생1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유리할 것 같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대 학 / 학 과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 이내[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대기→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p>◆ 입실시간 이후에는 면접 준비자료 모두 가방에 넣어야 함!! 다른 대학교랑 다른 점이였다.</p> <p>* 타 대학 면접도 많이 다녀봤지만 유난히 분위기가 딱딱했음. 면접관 2분 중 한분은 긴장을 풀어주 시려고 하거나,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한 분은 정색하시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하지 않았음.</p>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 : 지원동기?

A : 교내 봉사동아리 해피프렌즈 활동을 통해서 외부단체인 월드비전과 봉사활동 기회가 많았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한, 두 가지 봉사활동경험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에서 얻은 가치관에 대해 진심을 다해 답변했음.

### Q : 봉사활동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과 그 이유?

A : '독거노인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활동' 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이야기하고 이유와 내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엮어서 말했음.

### Q : 1학년 때 성적이 낮는데 이유는 없겠지만 변명 같은 거라도 해보시겠어요?

A : 1학년 때 중학교와 다른 환경으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말했음. 또 처음으로 학급 간부로 학생회활동도 하다 보니 학업에 소홀했다. 학습플래너 활동을 했지만 과목별, 시간대별 구분이 정확하지 않았다. 2학년 때부터 담임선생님의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 과목별, 시간대별,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학습 플래너를 작성했고, 높은 성적향상을 할 수 있었다.

### Q : 진로희망이 사회복지사에서 3학년 때 구체적으로 '국제구호사업개발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로희망이 변한 이유?

A : 국제구호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월드비전 난민체험에 대해 언급함. 국제구호사업에 대해 설명함. 그리고 세계에 아직도 인권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인간존엄성을 위해 앞장서고 싶다고 이야기했음.

### Q : 국제구호사업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는지? 타 대학에도 국제학과 등이 아니라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셨는지?

A : 처음에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대학교에도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였다고 일단 대답하고, 여러 NGO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구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복지학과에 희망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음. 대학에서 국제사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

### Q : 왜 많은 대학 중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희망하신 건가요?

A : 학업계획으로 동덕여대의 사회복지학과 강의목록을 조사해 가서 그 토대로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답변했다. 학업 이외에는 동아리활동과 학교 특색활동에 대해 조사해 가서 고등학교 때는 못 해 본 심화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음.

###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기본적인 자소서, 생기부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한 활동에 대해서는 꼭 활동 과정부터 활동 후 느낀 점 까지 기록해두고 면접 대기 시간에 훑어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기. (생기부에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활동인지, 내가 변화한 점이나 느낀 점을 요약해서 가져갔다. 면접 대기시간에 요약노트를 보며 대기했더니 어떤 활동에 대해 물어보셔도 답변할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활동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긴장하는 모습과 자신감 없는 모습은 천차만별!!)
- ◆ 대학교,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조사는 필수.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의 상징이나 인재상, 비전 등에 대한 조사는 기본)
- ◆ 단골 질문은 무조건 답을 생각해서 가기 (자기소개, 동기, 장단점 등)
- ◆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진심을 다해 어필하기. 면접고사장 입실 할 때 들어가고 앉는 자세와 표정, 말투, 눈빛 모두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생각. 긴장되는 것은 다 똑같은 혼자 너무 떨지 말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동명대 군사학과]

대 학 / 학 과		동명대 군사학과	전 형 명	일반고(군사학과)전형				
면 접 시 간	2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 체력(1. 팔굽혀펴기 2. 윗몸일으키기 3. 1.2km(여)달리기)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음(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도움 될 수도 있음) ◆ 면접할 때 심층면접도 있고, 발성면접도 있음. ◆ 달리기 할 때 (남자: 5바퀴/여자: 4바퀴)뛰는데 마지막 바퀴를 담당 한 선배와 같이 뛴.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군사학과를 지원한 동기? A : Q : 6.25 전쟁기간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추가질문) A : Q :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Q :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군사학과 면접 중에 제일 군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물어보신 거 같음. 면접 전에 군에 대한 시사들, 경제, 사회 등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거 같음. ◆ 발성연습도 시킴. 다른 면접에서는 군가를 부르기도 했음. ◆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하면 될 듯.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

대 학 / 학 과	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	전 형 명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15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호명하면 차례대로 아이디어 스케치 실시 → 대기 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자소서보다 학생기 위주로 질문 ◆ 디자인과는 아이디어스케치 실시 ◆ 전자기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 [아이디어스케치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아래의 티셔츠에 표현하시오. (반팔티)</p> <p>▣ [질문] 디자인한 셔츠를 설명해주세요.</p> <p>A. 셔츠의 앞장과 뒷장을 모두 꾸며보았다(문제엔 셔츠 앞장만 제시) 저희 어머니는 걸으면 잔소리가 많으시고 화도 많지만 뒤에선 항상 절 응원하시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그래서 셔츠 앞장엔 화난 표정의 그림과 밑단을 날카롭게 디자인해보았고 뒷장엔 응원하고 사랑하는 표정과 밑단을 부드럽게 디자인해보았다 특히 입술 모양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보았다. (이런 내용을 부풀려 말함)</p> <p>▣ [추가질문] 이 셔츠를 누가 입을까요?</p> <p>A.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디자인 한거니 어머니가 입을실 거 같다.</p> <p>Q : 진로희망이 바뀐 이유?</p> <p>A : 1,2학년 때 항공 승무원과 조종사를 진로를 삼았던 이유 중에 단순히 제복이 예뻐서라는 이유가 포함되었다. 이에 관심이 많아 1학년 때 협력 논문수업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승무원의 제복에 대해 논문을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을 만큼 본래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큰 결정적 계기는 유튜브에서 본 동아대 졸업 작품전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며 딱 이거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2학년 말에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p> <p>Q : 1학년 때 부반장하며 리더십이나 봉사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것?</p> <p>A :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이 소위 말해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선생님과 회장과 함께 해결하며 학급 분위기를 다시 좋게 이끌었던 경험이 리더십을 발휘 했던 것 같고 전교회장이 각 반에 행거를 돌린 적이 있는데 정작 옷을 걸 옷걸이가 없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옷걸이를 들고 와 반 아이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도왔다.</p> <p>Q : 3학년 때 한 과학 동아리 2개에 대하여 활동한 것 설명해주세요.</p> <p>A : 첫 번째 동아리: 섬유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섬유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이다~~(나일론에 대하여 읽었던 책과 연관 시켜 말하고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함. 폴리에스테르는 현대의 패션 경향에 빚대어 부연 설명)</p> <p>두 번째 동아리: (생기부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래의 패션 경향에 연관시켜 앞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 옷들의 기능들도 발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말함)</p> <p>Q : 마지막으로 할 말</p> <p>A : 남들보다 늦게 패션에 대해 눈이 뒹을지 모르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패션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게 한 것도 동아대의 영향이 크니 동아대에 와서 패션에 대해 깊이 배워가고 싶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아이디어스케치 그림 못 그려도 상관 1도 없음. 나는 남들과 차이점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옷 앞 뒤 모두 디자인 함. 후에 다른 학생들 보니 앞장 만 디자인함(흐뭇). 뻔한 디자인이 아닌 독특한 생각이 떠오르게 노력.</p> <p>◆ 면접은 스케치 한 거랑 생기부만 보니까 생기부 열심히 보고 가면 됨</p> <p>◆ 나는 면접을 100정도 준비 했으나 80정도 말하고 옴. 그러니까 준비 할 때 120정도 준비하면 좋을 듯</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명지대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대 학 / 학 과	명지대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전 형 명	교과면접				
면 접 시 간	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 대기실에서 면접기초조사서 작성→고사장 앞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1명씩 면접 ◆ 20분 동안 면접기초조사서에서 3가지 질문들을 받아 작성 (당일 공지) - 전통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학 후 어떤 인재가 될 것인지 등 ◆ 꼬리질문이 많았음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면접관 : 긴장하지 말고 면접은 약 20분 동안 진행되며 15분에 타이머가 울릴 것입니다.</p> <p>Q : 전통건축 전공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p> <p>A : 중학교때 직업체험에서 건축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통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매체들을 접했고 그때 유현준 건축가님이 출현하신 한 프로그램에서 전통한옥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학교 발표에서 '난간의 미학'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딱딱한 현대 건축보다 자연화적인 전통건축에 매력을 느껴 진로를 알아보다 명지대학교 전통 건축 전공을 알게 되었습니다.</p> <p>Q : 언제 알게 되었나요?</p> <p>A :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p> <p>Q : 그럼 전통건축을 알게 된 후 직접 가본 건축물이 있었나요?</p> <p>A : 음..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멀어서 가보지 못 하였습니다. 그 대신 어릴 때 한국사와 관련된 여행들이며 가보았던 곳들을 책들과 여러 매체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며 그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p> <p>Q : 아까 '난간의 건축미학'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이었나?</p> <p>A : 계좌난간과 난간의 자연친화적인 부분을 발표했었고 이 발표를 통해 궁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p> <p>Q : 그럼 발표하면서 조사한 곳은 어디였나?</p> <p>A : 창덕궁이었습니다.</p> <p>Q : 창덕궁을 조사하면서 가보았나?</p> <p>A : 거리상 창덕궁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기억들과 매체들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p> <p>Q : 건축에서는 미적감각도 있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p> <p>A : 미술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에서 구도도 중요하지만 색감을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Q : 그럼 입시미술을 한 적이 있나요?</p> <p>A : 아니요. 입시미술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과정에서 진행한 미술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적은 있었습니다.</p> <p>Q : 그럼 최근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p> <p>A :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신윤복님의 미술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p> <p>Q :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나요?</p> <p>A : 정확히 작품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부드러웠던 선과 우아함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각보다 준비했던 질문들은 면접 기초조사서에서 반영이 되었고 정작 면접에서는 꼬리질문이 너무 많아서 당황함.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니 짧게 주장을 말하는 게 좋을 듯. 1시간이나 일찍 갔음에도 사람이 많았음으로 빨리 가길 권장함. 대기실은 매우 조용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명지대 수학과]

대 학 / 학 과	명지대 수학과	전 형 명	명지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입장 → 전자기기반납 →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블라인드 면접 ◆가번호가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직접 증명해본 공리가 있나요? 있다면 뭔가요?</b></p> <p>A : 기하적인 부분에서 간단한 공리들은 증명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공리에 대한 증명과정은 아직 제가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p> <p><b>Q : 미분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가요?</b></p> <p>A :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잘못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p> <p><b>Q : 진로희망이 수학교사인데 아직도 유효한가요?</b></p> <p>A : 사실 아직까지는 진로를 확정짓지는 못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나 코딩 부분에서도 관심이 생겨 대학에 진학하여 더 탐구해보고 싶습니다.</p> <p><b>Q :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한 노력이 있나요?</b></p> <p>A : 저는 중학교 때 까지만 하더라도 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하는 모둠활동이나 동아리에서도 항상 리더의 역할을 자진하여 하였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대기시간이 엄청 길고 면접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 대답은 자신감 있게 하였지만 전문성에서 대답이 부족했던 것 같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명지대 아랍지역학과]

대 학 / 학 과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전 형 명	교과 면접				
면 접 시 간	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바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면접 기초 자료 작성 → 대기 → 면접5분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5분 타이어 ◆ 면접관 2분 중 1명은 분위기 풀어주고 1명은 압박면접. ◆ 꼬리질문 많은 편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지원동기~ A : 아랍문화 관심 닥 닥 닥  Q : 장래희망~ A : 아랍지역관련 호텔리티 산업종사  Q : 왜 아랍지역학과여야 하는가? A : 아랍관련 인프라 구축x 도움 주고자  Q :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반발? A : 물론o, 자유주의 국가여서 종교의 자유 보장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준비한 것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각보다 면접 짧다. ◆ 질문기초자료 작성해서 기초자료나 잘 작성하면 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명지대 융합전공학과]

대 학 / 학 과	명지대 융합전공학부	전 형 명	명지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휴대폰 제출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해 간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b> A : 융합전공학부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다방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 :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알려주세요.</b> A : 딩고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영상 모두를 제작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b>Q : 2학년 때 무슨 학과에 가고 싶나요?</b> A :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b>Q : 교내 활동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뭔가요?</b> A : 방송부 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리더로서 방송부를 이끄는 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이뤄낼 때마다 한층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b>Q :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을 했네요? 설명해주세요.</b> A : 저희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코딩수업을 배웠습니다.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빼악빼악이라는 앱을 만들고 포토샵도 사용해 보는 등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이더라도 살짝 미소를 유지하고 교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대 학 / 학 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전 형 명	교과면접전형				
면 접 시 간	원래는 5분이나 살짝 초과함.[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30분 동안 기본 면접자료 작성 후,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면접을 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활기록부를 정말 일도 안 본다. (참고도 안 함. 그냥 30분 동안 작성한 것을 토대로 면접을 봄. 만약 어필하고 싶은 활동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기초 면접 자료에 적어야 한다.)</li><li>◆ 기초 면접자료 잘 못 적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준비했던 질문과 다른 문항들이 나와 일목요연하게 적지 못하고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많이 당황했지만, 면접 점수에 정말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듯했다.</li><li>◆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학교명 등 자신의 신원을 알릴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인사할 때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20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li></ul>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요?</p> <p>Q : 네,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p> <p>A :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꿈은 종군기자입니다. 종군기자가 되기 위해선 분쟁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닌 국제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들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Q :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가요?</p> <p>A : 홍콩 시위입니다. 시위의 현장에선 인권이 침해당하고 비인도적인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p> <p>Q :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종군기자를 선택하게 된 이 유가 무엇인가요?</p> <p>A : 종군기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데는 마리 콜빈이라는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데 돌아가신 종군기자에게서 굉장히 많 은 영감을 얻었습니다.</p> <p>Q : 지금 당장 종군기자가 되어 한 나라를 취재할 수 있다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요? 아, 당연히 홍콩인가요?</p> <p>Q : 홍콩의 시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뭔지 말해보시겠어요?</p> <p>A : 중국입장은 말했지만 미국 입장은 잘못 말했습니다.</p> <p>Q : 미국입장은 뭔가요?</p> <p>A : 죄송합니다. 미처 미국의 입장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ㅜㅜ</p> <p>Q : 괜찮아요. 면접 자료를 보니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p> <p>A :</p> <p>Q : 아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하하</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접 당시 답변 하나를 못해서 당황하고 거의 반은 포기 상태였지만 내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계속 답변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li><li>◆ 만약, 정치외교학과 면접 준비를 앞둔 학생들이라면 하나의 이슈에 대해 한 방향에 대한 생각 (한 나라의 입장만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한다면 당신은 합격!!</li></ul>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명지대 컴퓨터공학과]

대 학 / 학 과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전 형 명	명지인재 전형				
면 접 시 간	9분 [면접위원 2명/지원자 1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직전 문 앞 → 면접고사장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 시간 정시에 학생 대기실로 입실 가능						

[illegible]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경영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경영학과	전 형 명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입실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자료 열람 가능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부경대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 A : Q : 대학공부를 할 때 필요한 자질과 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해보세요. A : Q : 학교 생활 중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A : Q : ~~책의 이름이 특이한데 의미가 무엇인지 아나요? A : Q : 학교 생활 중 ~~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활동에서 중요한 점과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A : Q : 수학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써져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어떻게 극복을 하였나요? A : Q :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봉사와 느낀 점.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활기록부 기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기부를 자세히 보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기계공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기계공학과	전 형 명	학교생활 우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실 앞에서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휴대폰 제출 ◆ 수험표, 신분증 빼고 다 제출 아무것도 소지 못 함 ◆ 대기하는 동안 자료 못 봄 다 미리 연습해서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지원 동기?							
A :							
Q : 기계공학과 관련된 최근 사회적 이슈?							
A :							
Q : 목표를 가지고 실천해서 성공 또는 실패한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경험?							
A : 목표를 설정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한 경험 말함							
Q : 학업 외에 실천한 경험? (같은 질문)							
A :							
Q :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경험?							
A : 동아리 관련 활동 말함							
Q : 그 외에 다른 경험? (같은 질문)							
A :							
Q :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은지? (진로희망이 로봇공학자)							
A :							
Q : 기계공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A : 물리, 수학							
Q : 그런 과목에 있어서 학교 공부 외에 노력한 점? (ex 동아리 활동, 소인수수업)							
A :							
Q : 학교에 입학한 후의 학업계획?							
A :							
Q : 브릭스-라우서 진동반응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는지? (자기소개서 3번에 언급함)							
A :							
Q :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관분들 친절하시니까 과하게 긴장하지 말 것							
◆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편하게 하라고 설명해주시고 예시 들어주면서 도움 주심							
◆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수해양산업교육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수해양산업교육학과	전 형 명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 대기→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비뽑기로 면접 순서를 정함 ◆ OMR카드를 작성함 학생은 수험번호만 작성하고 교수님께서 지원동기, 인성, 전공적합성 등을 5단계(매우우수~매우미약)으로 나누어서 채점하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진로를 보니까 수산질병관리사인데 그러면 수산생명의학과를 가야하지 않나요?</b>							
A : 전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이 발달한다는 뉴스를 보고 3학년 학기 초까지만 해도 국립수산물학원 병리과에서 양식장에서 일어나는 해양병원체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생명시간에 멘토-멘티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이해시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화법과 작문시간에 해양생물의 성전환에 대해 발표하면서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양식 산업이 발전하려면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산생명의학과 보다는 수해양산업교육과에 입학하여 학생들에게 해양산업에 관한 관심과 배움의 동기를 심어주고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 : 이 학과를 나와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b>							
A : 양식학을 전공 후 임용고시를 쳐서 인천 해사고등학교 양식부분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b>Q : 희망 진로를 보니까 다 해양 쪽인데 해양 쪽에 관심이 많나 봐요?</b>							
A : 중학교 때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서 문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 진로탐색활동과 흥미검사 진로적성검사를 하면서 탐구심과 자연 친화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어와 해양학 이라는 책을 읽고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해양생물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b>Q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눔, 갈등, 협력사례에서 자신이 한 일과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줄래요?</b>							
A : 저희 동아리가 과학축전에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주제를 정하는데 생명과 관련된 실험, 창의적인 실험으로 나원 부원들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젤리비누 만들기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고, 모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러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부원들과 서로를 격려하여 포기하는 사람 없이 축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인원을 확인한 뒤로 부터는 준비해온 종이(생기부, 자소서)를 볼 수 없고 볼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주의해야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정보통신공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정보통신공학과	전 형 명	학교생활우수인재(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약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12:30분 입실 완료 →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면접번호 마킹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대기실에 자리마다 물, 오렌지주스, 시리얼바, OMR카드,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이 비치되어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학교 첫 인상은?							
Q : 부경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지원한 이유?							
Q : 최근 정보통신보안 관련 이슈에 대해 아는 것 있으면 말해보시오.							
Q : 봉사활동 시간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적은데 이유는?							
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Q : 프로그래밍반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Q : “엔트로피”(3학년 때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은?							
Q : 엔트로피의 정의?							
Q : 학교 진학한 후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Q : 준비했는데 하지 못한 말은?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독서 내용정리(최근 독서활동 위주) ◆ 지원동기 반드시 물어봄 ◆ 동아리 봉사 활동 위주의 질문 ◆ 대기실에서 12시 30분이 지나면 자료를 못 보므로 책 읽기 추천(대기시간 지루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중국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중국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 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휴대폰 제출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해간 자료를 볼 수 있음 ◆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부경대 중국학과 지원 동기?							
A : 평소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중국어를 접하게 되었음. 중국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나누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 중국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음 .							
Q : 진로리포터 활동을 3년간 하였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A : 반에서 10명 정도 뽑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였음.							
Q : 주제탐구대회에 참여하여서 상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주제가 뭐였나?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나?							
A : “PPL”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주제탐구대회에 참여하였으며 , 사람들 인터뷰와 네이버 폼 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담당하였다.							
Q : 설문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주었나?							
A : 주변 친구들에게 부탁하니 약 100명 이상이 참여해주었다.							
Q : 생기부에 리더십이 돋보이는 활동이 별로 없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언제인가?							
A : 약 3년간 서기를 맡으며 학급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육대회,, 야영 방 정하기 등 학급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서서 의견을 내세우고 친구들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Q : 의견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							
A : 친구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긴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진 않는다.							
Q : 최근 중국에 대한 기사를 본 것이 무엇이 있는지?							
A : 홍콩과 중국과의 갈등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Q : 다른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나요?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싶다고 하였는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생각은?							
A :							
Q : 고교생활 중 자기가 개별적으로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A : 3년간 서기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께 어필하였음.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신의 생활기록부랑 자소서를 많이 읽어보기      ◆ 지원 동기는 무조건 준비해가기 ◆ 많이 긴장 안 해도 됨      ◆ 대기 시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으니 자료 챙겨가기 ◆ 면접은 당당하게 말 하는 것이 중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행정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행정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8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관이 3팀이나 돼서 면접 순서가 중요 ◆ 맨 마지막 순서는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를 온 이유, 부경대를 선택한 이유?</b></p> <p>A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는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 마인드를 갖춘 미래지향적 지도자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고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이 부경대학교와 부합하다고 생각했다.</p> <p><b>Q : 아무래도 진로 관심이 행정, 국제, 경찰 등 다양해서 국제공무원이라는 꿈을 결정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 방법 등 자세히 설명해주세요.</b></p> <p>A : 상식파괴자라는 책 읽었는데 자기 진로에 대해 잘 수립하면 성취가 향상된다고 읽었다.</p> <p><b>Q : 진로부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b></p> <p>A :</p> <p><b>Q : 행정학과/공무원 관련 중요한 소양과 내가 교내 한 활동 등 내가 기르거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연관 지어 설명해 주세요.</b></p> <p>A : 전문성 중시, 실무능력 중시 – 전문관제라고 부산시 외자유치 해외 파견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생겼다. 고등학교 활동하면서 내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p> <p><b>Q : 학생회장으로서 이끌어 간 점 말고 배려한 부분에 대해 말해보세요.</b></p> <p>A : 어.. (당황) 네? 배려한 부분이요? /질문 다시 설명해주시/ 대의원회가 보통 3,6,9월 열리는데 매 달 열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고 교내 부분 고치려 노력했다. 날짜 결정도 학생들 고려했다.</p> <p><b>Q : 되게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다양한 것보다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한 이유는?</b></p> <p>A : 내가 되게 나에 대한 발전에 욕심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 아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p> <p>A :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정은 마치 사회계약설처럼 자연권과 사회권을 위해 시민들이 동의 약속에 기초해 체제를 성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생기부 사실 확인 질문은 하나도 안 나왔음</p> <p>◆ 자기 진로 방향이나 공부 방법 같은 거 확실하게 눈에 띄게 준비해야 할 듯</p> <p>◆ 왜 하필 부경대냐는 질문 매년 나오는 필수질문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 + 내가 기른 관련 학과와 관련된 자질도 거의 항상 나오는 질문이기에 꼭 준비 = 행정학과는 전문성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듯 전문성이라고 하자마자 꼬덕꼬덕 오.</p> <p>◆면접 분위기는 엄청 좋음 잘 웃어주시고 내 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사실 면접 질문 매년 비슷한 느낌도 들음, 압박 면접이라기보다는 면접비중 20%답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답하면 될 듯, 실제로 면접 준비 하나도 안하고 후보로 불렸다는 선배님도 봄 그 정도로 면접 비중은 적은 듯</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대 학 / 학 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8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질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정해진 자리에 착석, 휴대폰 제출 ◆ 대기하는 동안 가져온 자료 열람 가능 ◆ 생기부와 자소서에 기반을 둔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체육교사에서 대기환경 분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b></p> <p>A : 원래 체육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여 체육교육과를 희망했지만, 신체적 한계와 체력적 부담이 있어서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시절, 지구과학 교과 수업 중 '대기' 단원에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책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대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기예보 없이 날씨를 예측해보는 과정에서 예측 내용이 맞았고, 이 분야가 적성이 맞다고 생각하여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p> <p><b>Q : 진로사항에 대기환경 분야라고 적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b></p> <p>A : 기상 관측관이 되고 싶습니다.</p> <p><b>Q : 우리 과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고 있나요?</b></p> <p>A :</p> <p><b>Q : 자기소개서에 영문초록을 읽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b></p> <p>A : 도심과 외곽지역의 일교차에 대해 탐구했는데, 도심에서는 최저기온이 오르는 정도가 최고기온이 오르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일교차가 작아지는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일교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기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p> <p><b>Q : 3학년 때 반장 역할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b></p> <p>A : 반장이라는 역할이 처음이어서 서툴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었지만, 후에는 친구들과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학급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p> <p><b>Q : 나의 장점을 이 학과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나요?</b></p> <p>A :</p> <p><b>Q : 학교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을 두고 계획한 활동은?</b></p> <p>A : 선도부 활동입니다.</p> <p><b>Q : ‘빨간하늘 파란지구’ 책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b></p> <p>A : 기후변화가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100퍼센트 생기부와 자소서 중심, 예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거의 다 예상한 것에서 나옴). ◆ 생기부와 자소서 등 대기 시간 동안 볼 수 있으니 가져가서 꼭 보고 있을 것. ◆ 뭐 배우는지 빠삭하게 알아갈 것이라는 후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대 학 / 학 과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전 형 명	고교생활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오전, 오후a, 오후b조로 구성되어있음. 면접시작 30분 전 대기실 입실, 전자기기 제출, 유의사항 전달, 대기하다가 호명하면 면접실 앞으로 가서대기, 면접 보고 바로 귀가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본인의 장점</p> <p>A :</p> <p>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p> <p>A : 가톨릭 치매센터 봉사활동.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점을 답변함.</p> <p>Q : ‘오래된 미래’(독서활동 중 교수님이 즉석에서 하나 고른 것임)의 책 내용?</p> <p>A : 인간 문명에 대한~</p> <p>Q : 인간 문명에 대한 본인의 생각?(위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p> <p>A :</p> <p>Q : 성적 변화의 이유?</p> <p>A :</p> <p>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본인 생기부 공부 꼼꼼하게 할 것</p> <p>◆ 독서활동에 기록한 책 한 번씩 더 읽고 가기. 독서 감상문이라도 읽어보기</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산교대 초등교육과]

대 학 / 학 과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전 형 명	초등교직적성자				
면 접 시 간	15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집단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생기부 기반으로 하는 질문은 없음 ◆ 한 사람당 말할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함. ◆ 인원이 조정될 경우, 면접 시간이 줄어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요즘 교내에 cctv설치를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cctv를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p> <p>A :</p> <p>Q : 요즘 학교 성적 산출하는 방안이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p> <p>A :</p> <p>Q : 학생들의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해보고 해결방안을 말해보세요.</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도 되는지 여쭙어 보았는데, 딱 잘라 거절하셨음. 이래도 당황하지 말고 웃음을 유지한 상태로 나오기 ◆ 항상 밝게 웃음을 유지하고 공손한 태도가 가장 중요함 ◆ 현재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평소에 많이 가정해보고 생각해 보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부천대 항공서비스과]

대 학 / 학 과	부천대 항공서비스과	전 형 명	일반고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면 접 절 차	대기 → 접수 →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부천대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년제가 공통질문이니 본인 순서가 올 때까지 생각하세요. ◆ 들어가기전 선배님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 선배님들 어짜피 안도와주세요 하고 가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지원동기</b></p> <p>A :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객실훈련 센터가 부천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진 부천대학교가 저의 승무원이라는 꿈의 지름길이라 생각 되어 지원하였습니다.</p> <p><b>Q : 10년 후 본인의 모습예상</b></p> <p>A : 저는 몇 권의 일기장을 모았을 겁니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고 여행하는 나라별 사용하는 언어들로 일기를 적어 추억을 남기고 있을 겁니다.</p> <p><b>Q : (영어지문 필수)</b></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얼굴 경련이 오면 들어가기 전에 계속 표정을 찡그리고 볼 바람 넣으면서 근육 풀어 주고 들어가세요. ◆ 외우기보다 즉흥으로 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 아이컨택 중요합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상명대 디자인학부]

대 학 / 학 과	상명대 디자인학부	전 형 명	상명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 이내[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심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대구 미술관 sns홍보 활동 설명</b>							
A : 대구 미술관 sns활동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구미술관'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을 갔다 온 후 전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청소년이 바라보는 전시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들을 여러 사진들과 함께 올려 다른 사람들이 이 글들을 보고 대구미술관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한 활동입니다.							
<b>Q : 전공 관련 활동 하나 설명</b>							
A :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을 주제로 간단한 영상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유니버설 디자인제품을 소개하는 광고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설명하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b>Q : 광고디자이너 하고 싶게 된 계기(인상 깊었던 광고나 광고디자이너를 예를 들어서)</b>							
A : 저는 코카콜라 브랜드의 '마음을 전해요' 광고는 요즘 직접 마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어진 현대인들에게 소통의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저도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광고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b>Q : 입학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b>							
A : 저는 특히 패키지디자인 수업과 ~~등 전공수업을 들어보고 싶고, 또한 디자인관련 동아리에 가입을 하거나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b>Q : 졸업 후 진로</b>							
A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광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나 로고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브랜딩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b>Q :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디자인을 제외하고 하고 싶은 부전공</b>							
A :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을 반영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러한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능력과 좀 더 차별화시키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와닿을 수 있는 광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b>Q : 광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b>							
A : 광고디자이너는 미적 감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은 제품디자인같이 다른 디자인분야에 대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Q : 최근에 관심있게 본 기사 있으면 설명</b>							
A : 저는 요즘 기업들이 유튜브 광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tv광고보다 낮은 제작비가 들고, 젊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				
면 접 시 간	10분 이내[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질 문 토 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교사장 앞 대기(8분 정도 대기)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학교장 추천 전형,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등 특별한 전형이 많아서 자기 조 헛갈리지 말기 (면접도우미 선배님들이 잘 알려주시고 친절해서 걱정 하지 마세요)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해간 자료를 볼 수 있음. (면접 준비자료 꼭 준비해가기) ◆ 엄청 넓은 강당에서 대기하는데 엄청 조용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지원동기?</b> A : 교내 봉사동아리 해피프렌즈 활동을 통해서 외부단체인 월드비전과 봉사활동 기회가 많았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한, 두 가지 봉사활동경험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에서 얻은 가치관에 대해 진심을 다해 답변했음.							
<b>Q :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것 같나요?</b> A : 학교장 추천은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교내활동(어떤 교내활동을 했는지 말했음)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습니다.							
<b>Q : 지원자는 봉사시간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과 그 이유?</b> A : ‘독거노인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활동’ 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이야기하고 이유와 내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엮어서 말함.							
<b>Q : 3학년 동아리 활동이 1, 2학년 동아리활동이랑 다른 점? 그 이유? 그리고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b> A : 1, 2학년 때는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b>Q : 진로희망이 사회복지사에서 3학년 때 구체적으로 ‘국제구호사업개발자’라고 했는데, 국제구호사업개발자가 하는 일과 구체적으로 진로희망이 변한 이유, 3학년 동아리에서 왜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탐구했는지?</b> A : 국제구호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월드비전 난민체험에 대해 언급함. 국제구호사업에 대해 설명함. 그리고 세계에 아직도 인권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인간존엄성을 위해 앞장서고 싶다고 이야기했음.							
<b>Q : 가톨릭대학교에 입학 한다면 학업계획과 학업 이외의 계획?</b> A : 학업계획은 강의목록을 조사해 가서 그 토대로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답변했다.							
<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기본적인 자소서, 생기부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한 활동에 대해서는 꼭 활동 과정부터 활동 후 느낀 점 까지 기록해두고 면접 대기 시간에 훑어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기. ◆ 대학교,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조사는 필수.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의 상징이나 인재상, 비전 등에 대한 조사는 기본) ◆ 단골질문은 무조건 답을 생각해서 가기 (자기소개, 동기, 장단점 등) ◆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진심을 다해 어필하기. 면접교사장 입실 할 때 들어가고 앉는 자세와 표정, 말투, 눈빛 모두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생각. 긴장되는 것은 다 똑같은 혼자 너무 떨지 말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디자인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학과	전 형 명	학교생활우수자(학종)전형				
면 접 시 간	10분~11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교사장 앞 3명 대기 → 면접 후 바로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휴대폰 제출/ 조한개당 20명씩 구성하여 4개의 조를 편성 한 조당 2명의 교수님께 면접 ◆ 자료는 면접 들어가기 직전까지 확인 가능/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면접 마지막 순서인데 기다리느라 힘들지 않나 ? A : 떨린다고 말함. Q : 준비해온 것 있으면 해보아라.(자기소개나 지원동기 등) A : 자기소개함. Q : 자소서에 탄소화학나노튜브에 관한 논문을 읽었는데 간단한 내용설명과 읽게 된 이유? A : 내용설명과 자소서 1번 내용에 대한 심화탐구라고 말함 . Q : 교내 수상기록이 많은데... 물리 경시대회에서 상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 A : 운동부분에서 복잡한 운동에 관한 어려운 내용을 vt그래프를 그려 도형의 넓음을 이용하여 쉽게 구하여 시간을 절약. Q : 외부 봉사활동 기록이 그리 많지 않은데... ? A : 특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함. (우리학교에서 하는 신생아 모자 실뜨기) Q : 신생아 모자를 3d 프린터로 제작하면 어떨까? A : 불가능하다고 말함 재질면에서 3D프린터는 플라스틱이라 단열효과가 안되서 사람이 직접 뜨면 정성이 들어감. Q : 학교 축구대회 최약체 팀에서 3등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 A : 반의 부실장으로서 조용한 친구들에게 축구를 계속 권유했고 재능이 있는 친구와 팀이 화합하여 결과를 이끌어냄. Q : 3d프린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련 활동을 했다고 생기부에 기록되어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 A : 123d프린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기능들을 직접 동아리 부원들과 탐구하면서 사용했다고 말함. Q : 3d프린터로 의수제작을 하고 돌림힘의 원리로 실을 이용하여 조작을 했다는데 돌림힘의 정의? A : 외워갔던 원리와 실로 의수를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했다고 대답함.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준비해간 멘트 서울과기대만의 캡스톤 디자인을 말함.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 순서가 마지막이라 긴장한 상태로 4시간을 기다리면 힘드니 간단히 먹을 것 가져가는 것 추천. ◆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아쉬웠거나 보충할 것은 마지막에 생각하면 다 말해도 된다고 말해주심. ◆ 간단한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 할 말 은 준비 추천 나머지는 그때 생각하고 말해도 됨. ◆ 물리 관련 지식 1단원 4단원은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전 형 명	기회균형선발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 복도에서 제시문 답변 준비(7분) → 면접실(10분 내외)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기부 자소서 확인면접이 없고 제시문 면접만 있음 (나는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알았는데 대기할 때도 생기부 보는 사람이 있었음. 다들 실수하지 않길!)</li><li>◆ 복도에 책상, 의자, 제시문, 종이, 볼펜, 소음차단 귀덮개, 타이머가 있음</li><li>◆ 각 조당 15명 정도로 배정되는데 9번째 사람까지 하고 중간에 공식적으로 모두 쉬는 시간이 있어서 10~15명 배정된 사람은 3시간 가까이 대기해야한다고 들었음.</li><li>◆ 앞 번호 사람이 면접실에 들어가고 3분 뒤에 복도로 불러 나감. 면접실 바로 옆 복도에서 준비하다 보니 앞사람 대답 내용이 조금 들림(안 듣는 게 나음!)</li><li>◆ 먼저 두 개의 제시문 모두에 대한 답변을 하고 꼬리질문을 받는 식임. 혼자서 10분 동안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됨. 꼬리질문을 생각보다 많음</li><li>◆ 원래 서울교대 면접 분위기가 딱딱한 편. 나같은 경우에는 눈을 일부러 안 마주치려고 하신 것인지 자주 다른 곳을 보셨음. 제시문 답변할 때도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엄청 당황한 나머지 많이 더듬었음. (고덕거리지도 않으셨다.....)</li></ul>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1) 1인 미디어가 점점 뜨고 있다는 제시문

### (2)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제시문

## ■ [질문] - (1), (2)를 보고, 1인 미디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해라.

### -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A.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입장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 하나 더 준비해갔는데 말하면서도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부정적인 면으로 넘어감) 부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갈 수 있고, 둘째 미디어 소외계층은 앞서 말한 긍정적인 부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디어 소외계층이 1인 미디어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 [지문] 침묵의 나선이론에 대한 제시문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침묵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

## ■ [질문] -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설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의견 개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 학교 내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 나타나는 사례

A.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에 해당될 경우 자신의 의견을 묵인하는 현상을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합니다. 따라서 지배적 의견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 사회적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론 수렴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제로 겪은 사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학교에서는 현장체

험학습 장소를 학급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일명 '목소리 큰 아이들'이 주도하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회의 진행을 따라 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자신이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면서도 조금 이상해서 끼워 맞춤) 두 번째로 전교 회장 등 선거를 할 때 간혹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텐데 대부분의 경우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침묵의 나선이론에서처럼 소수의 의견을 가졌지만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 만약 교사가 된다면 1인 미디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

A : 네. 1인 미디어가 주는 부정적인 면 보다 1인 미디어가 주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 미술, 체육 등 과목에서 우수한 예를 보여줄 수 있고,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미디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미디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오래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과목에서 미디어 대신 실제로 보여주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과 영상 등을 제작하는 시간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Q : 미디어 소외계층을 사용해서 답변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는가?**

A : 노약자와 같이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 자체의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소외계층이라 했습니다.

**Q : 수업 시에 1인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미디어 소외계층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 방법을 설명할 것이며 학교 자체에서 미디어 기기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 두 번째 사례에서 선거를 들었는데 ~~ (기억 안 남)**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2020 김윤환 이채린의 교대사대 구술면접>이라는 책을 사서 작년 교대 면접 질문과 예시 답안 등을 보았는데 내가 지원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것도 모두 보았었다. 전체적인 답변의 구조와 문제 출제 경향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2019학년도 제시문의 트렌드가 유튜브였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학교에서 올해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열심히 봤는데 역시 서울교대 1번 제시문이 1인 미디어여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대기실에서 같은 책을 보는 사람이 많았음)
- ◆ 서울교대 제시문은 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원인 또는 결과를 설명하거나 이론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서울교대 사향인재가 아닌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낯선 글을 읽고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고, 다양한 결과를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 김완 컨설팅 등 돈을 주고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달리 참신한 구조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명 컨설팅 학원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도 하므로 필요하면 구매해도 좋지만 위에서 말한 면접 책만 사도 충분하다.
- ◆ <다음카페-수교사>에 교대 관련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 이 카페를 참고해도 좋다. (교대 합격 선배들의 자소서, 면접 후기, 교육 관련 시사 정리 글 등이 모두 무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경제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 경제학부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3시간 대기 → 면접고사장 앞에서 10분 기다림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소논문 중심으로 질문이 나옴 ◆ 자소서에서 특이한 제재가 있을 경우 심화 내용까지 준비해야 함 ◆ 사용하는 용어의 본질에 대한 학생만의 내면화된 정의를 질문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아침 일찍부터 와서 힘들죠?</b></p> <p>A : 아니요. 힘들다기보단 설렙니다.</p> <p><b>Q : 설렌다니 의외네. 오늘 할 면접은 진짜 생기부 내용을 했는 지만 확인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요.</b></p> <p>A : 네!</p> <p><b>Q : 미세먼지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설명해줄래요?</b></p> <p>A : 네, 저는 꿈인 환경경제학자여서 미세먼지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미세먼지는 중국발인가? 라는 주제로 탐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세먼지의 현황에 대한 분석만 진행했지만 탐구를 하면서 미세먼지가 만들어 갈 사회현상의 변화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p> <p><b>Q : 어떤 사회 현상 변화가 있었나요?</b></p> <p>A : 저는 미세 먼지로 인한 사회현상의 변화를 더스티코노미라고 정의했습니다. 미세 먼지로 인해 사적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때 공적영역에 대한 투자가 함께 줄어들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p> <p><b>Q : 사적 영역의 관심이 뭐지?</b></p> <p>A : 미세 먼지로 인한 배달 영역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향유할 문화에 대한 관심입니다.</p> <p><b>Q : 배달? 배달이 뭐가?</b></p> <p>A : 배달입니다.</p> <p><b>Q :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발인가?</b></p> <p>A : 제가 탐구한 바로는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생성국이 상이하여 한 국가의 영향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b>Q : 최근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연평균 30퍼센트가 중국발이라는데 이것이란 연관시켜 설명해보겠나?</b></p> <p>A : 네, 저도 최근에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30퍼센트가 중국발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중국발이라고 호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트 개념자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배출 국가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겨울철은 70퍼센트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탐구 결과를 얻었기에 연평균을 지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b>Q : 내가 힌트를 줄게. 기간 중 연평균 30퍼센트가 중국발이네.</b></p> <p>A : 아, 연평균이라는 기간에 집중을 한다면 이 대목에선 중국 정부가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을 낮춰 발표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p> <p><b>Q : 자소서 3번을 보면 원조에 대해서 고민과 탐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코이카 같은 걸로 많</b></p>							



**이 원조하고 있잖아?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 제가 탐구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원조 현실보다는 어떻게 원조할까? 에 집중되어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원조는 계량적인 수학적 탐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의 시작이 바로 적정기술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조란 그곳에, 그 터전에,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에 대해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뉘플로 교수님께서 주목을 받으신 이유도 계량적 측면에서 벗어나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건 경제학보다 인류학이 더 적합하지 않나?**

A : 제가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기에 인류학과 같은 학문이 적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람 자체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하며 만드는 사회적 현상과 경향성, 매커니즘에 관심이 있기에 경제가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 그러면 생기부 질문을 할게요. '사유를 사유하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네?**

A : 네, 작성했습니다.

**Q : 사유를 사유하다가 어떤 뜻이죠?**

A : 앞의 사유는 개인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유이고 뒤의 사유는 생각하는 사유입니다.

**Q : 왜 사유를 생각했죠?**

A : 저는 현재 한국의 빈곤과 양극화와 같은 문제의 핵심이 불로 소득과 빈곤이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에 두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자! 라는 취지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Q : 소유권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A : 소유에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최근 개념의 소유는 19세기 무렵 산업 사회의 발달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소유는 산업 사회의 결과라고 보는거네. 음, 그러면 개인은 소유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A : 제가 사유를 사유해야 한다. 라고 본 이유는 개인의 소유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아니라, 개인이 사유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피게티 교수님이 말하는 사회구조적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게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근로 자산의 증식속도보다 귀속 자산의 증식 속도가 빠른 사회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어 불로 소득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 사회 구조적 문제의 배경은 무엇인가?**

A : 저는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교육의 사적 재화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적 재화화가 되면서!

**Q : 이만하면 되겠네. 가보게.**

A :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평소 사고했던 부분과 맞닿아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음 (평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결부시켜 답변한다면 더욱 진솔한 답변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 서울대는 책을 중요시하여 책만 준비하는 것은 삼가야 함.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은 대부분 소논문과 같은 활동의 진위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였음.
- ◆ 짧고 추상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사고의 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임 (짧은 질문일수록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질문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여 본인의 관련 교과에 대한 지식과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좋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경제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 면접 고사실 앞에서 제시문 풀이(30분) → 면접(15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옴. 다 풀 필요 없고 교수님들도 학생이 아이디어를 찾도록 최대한 도와주 심. 시간 배분 잘할 것.						
	◆ 사회 과학 지문은 사탐 공부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나 평소에 독서나 사색하는 습관이 필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div>■ [지문]</div><div>(가) 중앙 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오히려 그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상황</div><div>(나) 재무건전성이 가장 높은 비영리 기업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지만 정작 그 비영리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div><div>■ [질문]</div><div>A.</div><div>■ [추가질문]</div><div>A.</div></div>							
Q : 그럼 수학 문제부터 풀어보자.							
A : (솔직히 문제는 거의 못 풀었음. 푼 데까지 설명하고 칠판에 그림을 그린 후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풀이했 지만 결국은 다 못 풀고 넘어갔음.)							
Q : 사회과학 지문으로 넘어가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까?							
A :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그 보상 자체에 실효성이 결여되었 다고 답했던 것 같음.)							
Q : 그럼 바로 거기서 2번 질문에 대한 답도 이어서 해 봐.							
A : (관료제 조직의 무사안일주의를 사례로 들었음. 교수님께서 그 사례가 (나)와는 접점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셨고, 그 때 1분 남았다는 신호가 왔음. 설명하다가 시간이 끝났고 교수님께서 조금해하는 나에게 다 이해했으니 괜찮다고 해 주심.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은 일체 없었음.)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제시문 풀이할 때 제한 시간 5분전에 5분 남았다고 신호를 준다. 그때는 괜히 더 생각하려 하지 말고 답변 내용을 정 리하는 것이 좋음.							
◆ 학원은 도움이 안 됨.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를 것.							
◆ 틀려도 좋으니 조리 있게 말할 것. 쪼잔 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주장이 확실한 것이 좋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국어교육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국어교육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실 앞에서 5분전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전자기기 제출 ◆ 대기시간에 준비해간 자료 못 봄 ◆ 2조로 나뉘서 한조에 한명씩 2명이 각각 다른 면접실로 들어감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IB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말해봐라.(생기부)</b></p> <p>A :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뜻 말함.</p> <p><b>Q : 토론했는데 무슨 입장 들었고, 그 근거까지 말해봐라.(생기부)</b></p> <p>A : 찬성 입장 들었고, 공교육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 등.</p> <p><b>Q : 향찰에 대해 배웠는데 이게 뭔지 말해봐라.(생기부)</b></p> <p>A : 서동요 예시 들면서 말함.</p> <p><b>Q : 한자 기억나나?</b></p> <p>A : 2학년 때 배워서 한자까지는 기억 안남.</p> <p><b>Q : 관동별곡 배웠는데 기억에 남는 거 말해봐라(생기부)</b></p> <p>A : 물 흐르는 장면을 용에 비유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p> <p><b>Q : 요즘 학생 줄고 있는데 교사 안하면 뭐할 건지?</b></p> <p>A : 평가원이나 교육부 산하의 교육학술정보원 들어가서 미래의 교육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다.</p> <p><b>Q : 중국어 배웠는데 중국어랑 국어 차이점 말해보라(생기부)</b></p> <p>A : 중국어는 성조 있고, 국어는 성조 없음.</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기부 위주로 물어보심 ◆ 자기소개서는 내 경우에는 안 물어봄 ◆ 생기부 위주로 꼼꼼하게 조사해가는 게 좋을 거 같음(추가질문 많이 하심)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인문광역)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 정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까지 대기 → 고사실로 이동(1명씩) → 면접(서류 기반)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 대기실에서 자신이 들고 온 자료를 보며 준비 가능 ◆ 면접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함, 그래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었음 ◆ 내 경우에는 생기부나 자소서에 ‘드러난’ 내용보다는 ‘그와 관련하여 했던 다른 것이 있냐’ 위주였던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3년 동안 진로 희망이 모두 작가인데,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b>							
A : 글쓰기를 통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책과 글을 읽으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더 나은 내가 되어간다는 점에서 글쓰기에 매력을 느꼈고, 이를 직업으로 삼고 싶었다.							
<b>Q : 지금까지 본인이 쓴 소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은 무엇인가?</b>							
A : 사람을 구하기로 한 살인자와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세한 답변은 여기서 생략)							
<b>Q : 서류랑 답변 내용을 보니 특히 ‘죽음’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어린 나이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가?</b>							
A : 나는 죽음이 단순히 삶의 끝이자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죽음은 삶의 일부이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리 시간에 죽음 철학과 실존주의에 대해 배우며 이러한 생각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 이러한 죽음이라는 소재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다.							
<b>Q : 이청준 작가의 작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의 다른 작품은 어떤 것을 읽어보았는가?</b>							
A : <미친 사과나무>라는 작품을 감명 깊게 읽었다. 짧은 분량 속에 언어의 모호성이 어떻게 대중을 선동하고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가를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b>Q : (생기부 독서 부분에서 나온 질문) &lt;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gt;를 읽었는데,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b>							
A : 실제 식량 자원이 부족한 거 보다는 식량 자원의 분배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이 필요한 곳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정작 그 분배는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힘의 비대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b>Q :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b>							
A : 선진국의 의식적 변화와 국제적 관심 및 제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자세한 답변 내용 생략)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 순서에 따라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 긴장을 푸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면접 직전에 할 말을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싶은지 평소에 많이 생각해보며 머릿속에 각인,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말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상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내가 한 활동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가 가진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면접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 짧은 면접 시간이지만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외워야 하나’라는 생각에 부담도 되고, 여기서 망치면 어쩌나 두렵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열심히 노력해왔다. 이를 잊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와도 어떻게든 길을 찾게 되더라.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대 학 / 학 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 형 명	지역균형 선발전형				
면 접 시 간	8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까지 대기 → 고사실로 이동(1명씩) → 면접(서류 기반)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매우 친절 ◆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만 질문 ◆ 독서에 대한 질문은 없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기계공학과에 지망한 이유는?</b></p> <p>A : 4차 산업혁명 AI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필요.</p> <p><b>Q : AI가 무엇인가?</b></p> <p>A : AI중 머신러닝(머신러닝?)에 대하여 대답.</p> <p><b>Q : 본인이 이야기한 분야가 기계공학에 있는가?</b></p> <p>A : 제어공학이 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해 AI를 연구해보고 싶음.</p> <p><b>Q : 수학연습 수강 때 작성한 관성모멘트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라.</b></p> <p>A : 관성모멘트란 회전 역학임. 관련된 공식에 대해 설명.</p> <p><b>Q : 관성모멘트 적분한 7가지 강체는 무엇인가?</b></p> <p>A : 빈 원기둥, 원기둥, Plate, rod, rn, 빈구 등.</p> <p><b>Q : 고등학교 과정 밖 적분도 있었을 텐데....</b></p> <p>A : 모르는 내용은 찾아보고, 처리 가능한 적분으로 대체하여 작성함.</p> <p><b>Q : 3학년 때 물1, 물2, 고급물리 3과목을 어떻게 다 수강하였는가?</b></p> <p>A : 과학1 2과목, 과학2 1과목이 필수선택이고, 고급물리는 너무 듣고 싶어서 신청했음.</p> <p><b>Q : 스포츠과학 과목 스카이다이빙 중단속도에 대한 보고서는 체육과목인데 어떻게 작성했는가?</b></p> <p>A :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여 수행평가 보고서로 제출함.</p> <p><b>Q : 항력은 어떤 값인가?</b></p> <p>A : 일반물리 책의 내용으로 설명.</p> <p><b>Q : 스카이다이빙에 탄성력이 작용하는가?</b></p> <p>A : (당황)예, 낙하산 줄에서 장력과 탄성력이 작용합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잘한 점 : 실수했을 때 해맑게 웃어넘긴 것 ◆ 못 알아들은 내용은 다시 질문함. ◆ 면접관이 친절하여 부담이 적었음.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열심히 check하는 것이 필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대 학 / 학 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 형 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면접→퇴장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해 뜨기도 전에 부름. 옷 따뜻하게 입을 것. ◆ 잠 많이 옴. 전날 일찍 잘 것. ◆ 허무함. 그러니 더욱 준비 열심히 할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b></p> <p>A : 사촌형이 공학을 전공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DGIST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공학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말씀을 듣고서(여기서 교수님이 호오...이러심.) 허물어지는 공학을 앞장서서 개발하는 공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2 때는 케빈 켈리의 통제 불능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서 기계와 인간, 나아가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없어진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명공학과 기계공학간의 장벽을 없앨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는 사피엔스를 읽게 되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뒷 페이지에 인공지능 진화에 대해 언급하며 기계를 통한 진화, 사이보그, 그리고 생물을 통한 진화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사이보그가 기계와 생물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로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인공지능 등을 통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바이오메카닉스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음.(참고로 전날 봄.) 이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p> <p><b>Q : 그러면 생명 쪽으로 복수 전공할 생각인가요?</b></p> <p>A : 예, 생명 분야를 복수 전공할 생각입니다.</p> <p><b>Q : 생명분야를 복수전공한다면 어떤 영역을 하고 싶은가요?</b></p> <p>A : (당연히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와 놀라서 조금 더듬음) 생명화학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p> <p><b>Q : 사피엔스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 해봐요.(자소서 4번에 사피엔스를 썼음.)</b></p> <p>면접오기 전날 TVN에서 방영하는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1화에서 다룬 책이 바로 사피엔스. 운이 엄청 좋았음. 실제로 읽긴 했는데, 프로그램 안 봤으면 줄거리 못 말했을 것 같음. 그 외 이기적유전자나 충군최도 봤음.</p> <p>A : 1부에서 인지혁명.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있기에 다른 종들과 달리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2부가 아마 농업혁명. 인류는 농사를 통해 정착생활을 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 농사만 한다고 여가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산업혁명 때에도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실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이 부분 말 좀 더듬음.)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농사가 인류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돈과 제국,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진짜로 이렇게 대답함.). 그리고 3부 과학혁명에서... 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p> <p><b>Q : 괜찮네. 그 정도면 읽었을 거 같네. 테일러급수는 왜 배웠나요? (이건 자소서 1번. 참고로 테일러급수는 대학교 수학.)</b></p> <p>A : 달성인재양성스쿨에서, sin x 가 x로 치환될 수 있고, e^x-1 도 x로 치환될 수 있고, 1-cos x 가 x^2/2로 치환될 수</p>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납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sin x - \tan x)/x^3$  는 그렇게 따지면  $x$ 가 0으로 갈 때 0인데 실제로는 0.5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고, 그래서 배운 게 테일러급수입니다. (이후 테일러급수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서 편의상 생략.)

**Q : 아 그랬군. 그러니까  $\sin x/x$  가 왜  $x=0$ 에서 1인지를 몰라서 배웠다는 건가요?**

A : ㄴㄴ 그게 아니라  $\sin x$ 를 왜  $x$ 로 치환할 수 있는지를 납득을 못해서 배웠습니다.

**Q : 음? 그러면  $\sin x/x$  가  $x=0$ 에서 1인건 어떻게 이해했나요?**

A : 그 부분은 도형으로 이해했습니다.

**Q : 그렇구먼. 외부 봉사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2학년 때 주로 했고, 수목원 청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Q: 3학년 땐 왜 하지 않았나요?**

A: 3학년 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세 과목을 다 배우고 되었는데, 셋 다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니 부득이하게 외부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Q: 음 2학년 때 했네.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했나요?**

A: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마다 2시간 정도 참여했습니다.

**Q: 그러면 대충 24시간 정도 되니까, 별로 안했네?**

A: (면접 통틀어서 제일 당황했음.)예? 아... 3개월 정도 참여했습니다..

**Q: 거기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환경 정화?**

A: 주로 한건 환경정화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서 식물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 할아버지를 도와준 일입니다. 어떤 철부지 아이가 안내원 할아버지에게 되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제가 주위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할아버지께 드리고 위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Q: 그렇구먼. 주로 한건 환경정화?(내 이야기엔 관심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음.)**

A: 예 그렇습니다.

**Q: 교내 봉사가 260시간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이었나요?**

A: 선도부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각하는 학생이나 복장불량인 학생, 정문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단속하는 역할이었습니다.

**Q: 열역학 제 2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질문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문 열림. 면접 다 끝났다는 거.)**

A: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Q: 됐습니다. 가도 됩니다. 수고했어요.(알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급하게 끝내는 거 엄청 티남.)**

A: 감사합니다.

책은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봉사에서 좀 나쁜 인상을 보인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함. 그래도 그것만 빼면 나름 면접 괜찮게 본 것 같음. 아침을 안 먹고 가서 굉장히 배고팠음. 나오니까 11시 조금 넘음. 면접할 때 정도 되면 잠이 안 온다는 점만큼은 좋았음. 위에서 흐름 끊길까봐 안 썼는데, 중학교 동창 만나서 대화 나눔.(당연하지만 복도에서 대화한건 아니고, 화장실에서 진짜 우연히 만나서 대화했음.) 그리고 대기실에서 자는 사람들 많음. 어떤 친구는 코도 골았음. 나는 잠은 살짝 왔는데 굳이 안 잤음. 물은 주는데 먹을 거는 안줌. 에너지바를 하나정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상.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잘한 점: 봉사 제외한 대답들.
- ◆ 아쉬운 점: 봉사에 대한 대답.
- ◆ 준비해야할 것: 수험표, 신분증, 생기부, 자소서, 따뜻한 옷, 에너지바 또는 초콜릿, 기타 등등
-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파이팅.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전 형 명	지역균형 전형				
면 접 시 간	0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학생부 기반 면접 10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 대기실에서 자료 볼 수 있게 해주고, 대기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도 될 것 같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여기 학생이 미중무역전쟁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미중무역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 29번 학생의 의견을 말해 볼래요?</b></p> <p>A : 네. 우선 미중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계속되는 적자가 생김을 이유로 미국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무역전쟁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미중무역전쟁 중에서도, 중국의 미국국물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포커스를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양국 모두 급격하게 부과된 관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관세를 완화하는 대안을 택할 것 같습니다.</p> <p><b>Q : 관세를 철폐하지는 않고 완화할 것 같나요?</b></p> <p>A : 네, 애초에 무역전쟁의 원인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되는 적자를 끝내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안보다는 타협안을 찾아서 현재 부과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 : 학생이 미국국물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요?</b></p> <p>A : 미국이 처음 자동차, 항공우주 등 중국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응한 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관세를 맞부과했습니다. 애초에 미국 농수산물은 중국의 수입을 예상하고 생산하는데, 이게 예상 된 만큼 수출되지 않고 남아돌게 되면, 콘벨트의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라도 이 농산물을 팔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타깃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기로 한 것이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p> <p><b>Q : 학생 혹시 WTO라고 아나요?</b></p> <p>A : 네! 세계무역기구입니다.(너무 크게 대답해서 면접관 놀라셨으나, 호탕하게 웃어주심 ㅎㅎ.)</p> <p><b>Q : 미국이 WTO에 가입해 있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무관세로 무역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b></p> <p>A : 네, 말씀하신 것처럼 FTA를 맺으면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WTO라는 국제기구가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입김에 따라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위원 선임에 대한 보이콧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는 WTO가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데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 : 네, 저 10초만 더 쓸게요. (면접관 별로 질문 순서랑,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듯했음), 그러면 학생은 한국도 미국처럼 관세를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b></p> <p>A : 하하.. 음 한국은 미국만큼의 강대국은 아닐뿐더러, 세계경제에서도 미국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함부로 부과하면 후폭풍이 클 것 같습니다.</p>							



**Q : B29번 학생이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개해 볼래요?**

A : 제가 2학년 진로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상경계열 진학이란 막연한 꿈보단 좀 더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해야겠다고 느끼면서 그간 해온 활동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제가 교내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캠페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 영양사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자료조사도 하면서 농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환경과 자원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메이저로 잡으면 어떨까 싶어 관련 학과를 찾아보던 중 농경제사회학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지원 계기는 동아리 발표였습니다. 제가 고1때부터 꾸준히 펜팔을 해오던 친구가 농부였는데 그동안은 일상적인 대화만 하다가, 제가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깐 이 친구가 농부란 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한 정보도 묻고, 대화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 말고 또 누가 해봤을까 하는 생각에 동아리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감명 깊게 보셨는지 저한테 농경제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고, 이를 계기로 계속된 관심을 갖고 학습하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잔반 줄이기 캠페인에서 잔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나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학생들이 급식을 먹다가 남겨도 잔반이 되지만, 급식을 신청해놓고 먹지 않아도 새 음식들이 고스란히 잔반이 됩니다. 학생들이 식단표를 보고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는 식단이 나오는 날엔 매점을 이용한다고 급식을 먹지 않는데, 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자비를 내고 밥 먹는 학생들에게 밥을 무조건 먹으라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단체를 기준으로 잔반을 일정량 이하로 남긴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주고, 월말에 스티커 개수로 시상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Q : 캠페인 시행결과 학교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 캠페인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우선 잔반이 줄었다는 점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학교에 미친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학교는 잔반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했기 때문에 잔반이 많거나 하면 소각한 냄새가 났는데 이 악취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Q :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의 장점에 대해 당차게 소개해 볼래요?**

A : 음.. 저는 평소엔 관찰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관찰력이 좋으면 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 그렇군요. 그럼 29번 학생이 지금 관찰력이 좋다고 했는데, 이 면접장에 들어오면서 관찰한 게 있다면 말해볼래요?**

A : 음.. 자세히 둘러보진 못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TV 2개를 봤는데, TV를 향해 배치된 의자가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왜 두 대인지, TV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Q : 네, 그건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29번 학생 수고했어요. 나가시면 됩니다.**

A : 감사합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자신의 장점 말하라고 했을 때 준비해 간 게 생각이 안 났다. 순발력 있게 답하긴 했지만, 좀 더 학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시켜서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 첫 질문부터 시사 문제다. 자신이 동아리 시간이나, 교과 세특으로 적어놓은 보고서나 발표활동이 있었다면 꼭 어떤 내용이었는지, 느끼거나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봐야 한다.
- ◆ 막상 면접 때는 꼬리질문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후기를 적다 보니 무척 연결된 게 많음을 느꼈다. 개인적으로 이 '꼬리질문'부분을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얻도록 유도하는 연습을 했는데 무척 도움이 된 것 같다.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면접을 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전 형 명	지역균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1층에서 신분검사→8층 강의실에서 대기 → 바로 옆 면접장 앞 복도에서 2분 대기 → 문 직접 열고 입장 → 면접 → 10분 지났다는 노크 → 좀 더 말하고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대기실이 강의실 같은데 반원모양 탁자에 둥글게 앉아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순서가 면접 순서입니다. ◆ 교수님은 웃어주셨고, 입학사정관은 무표정. 그러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편안했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고대 학추2 봤는데 거기보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 뒤에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눈 아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오는데 힘들지 않았나?</b></p> <p>A : 힘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ktx타고 왔습니다.</p> <p><b>Q : 그래요(웃음) 많이 힘들었겠네.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b></p> <p>A : 네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p> <p><b>Q :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우선 생기부에 대해서 본인이 한 보고서에 대해 물어 볼게요. 예멘난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과정이나 결과 같은 거 말해 볼래요?</b></p> <p>A : (농경제인데 갑자기 윤사시간에 한 난민 물어봐서 당황했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했던 거라 대답) 네 그 당시 가장 화제가 되고 있었던 제주도 예멘난민에 대해 윤리사상을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론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서 실수 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p> <p><b>Q : 그래요 윤리사상을 적용했는데 어떻게 했나?</b></p> <p>A : (다시 질문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머리 굴려서 제가 사상이랑 사상을 잘못 연결했음을 깨닫고 정정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황한 척 안하려고 웃으며 얘기하니 긴장도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나 베이컨의 이상론을 적용하여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b>Q : 네 (웃음). 그럴 수 있죠 (진짜 웃어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b></p> <p><b>Q : [입학사정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공유가치 창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보세요.</b></p> <p>A : 먼저 기업의사회적 책임 즉 csr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한 자선적 책임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가치 창출 즉 csv는 이윤추구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에 더 바람직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 : 이걸 공부하면서 뭔가 새롭게 사용한 학습방법이 있나요?</b></p> <p>A : 네 저는 평소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읽거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완벽히 충족할 수 없어서 논문을 처음으로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논문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 사례를 분석하여 csr과 csv의 차이를 구분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논문은 저 같은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도 있기에 회피하지 말고 읽어보며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p> <p><b>Q : csr과 csv의 차이가 무엇인가?</b></p> <p>A :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두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p>							

**Q : [교수님] 공부하면서 책을 읽었다고 답변했는데, 자소서를 보니 '사다리 건너차기'를 읽었네요. 어려웠을 텐데 한번 책을 말해주세요.**

A : 책 간략히 한 줄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들이 과거의 사다리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계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각각의 주체들이 얻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Q : 네. (웃음) 그럼 왜 여기서 '사다리'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무엇인가 같나?**

A : 저는 과거 선진국 즉 프랑스나 영국 등이 보호무역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해왔으면서 현재에 와서는 그 사다리를 건너차고 개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상황을 빗대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Q : [입학사정관] (꿈이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입니다.) 학생은 경영학과 아닌가? 지원동기를 말해볼래?**

A : (저는 이거 처음 가자마자 할 줄 알고 준비해갔는데 안 나와서 기다렸습니다.ㅋㅋ) 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경영학과에 지원하여 일반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봤고, 강릉한과마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과마을에 대한 소개~] (10분 지났는지 노크-두 분 모두 계속하라고 손짓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사업에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더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전국각지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에 앞장서고 싶다고 생각해서 좀 더 특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Q : 우리 학과에서 그럼 무엇을 할 건가? [졸업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요 재학 중예요.**

A : 네 저는 농경제사회학부 중 지역정보학과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농식품...브랜드경영의 이해 과목과 농업 및 바이오 비즈니스 경영진단이라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미래 지역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

**Q : [교수님]그럼 학생의 꿈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인가?**

A :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성장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Q : [교수님]네. 시간 다되었으니 나가도 좋습니다.**

A : [앉아서] 감사합니다. / 일어나서 목례하며 감사합니다. - 문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보고 눈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분명 답변에 실수가 있었지만, 어차피 저는 미완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담담히 인정하고 정정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 ◆ 저는 3학년이 되어서 원서 쓸 때 이과로 지원했던 터라 생기부에 농업관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마다 질문도 많이 만들어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짜잘한 책까지 다 읽는다고 힘들었는데, 그냥 생기부에 있는 것만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 농업 관련해서 fta나 개도국 지위 포기 같은 시사 알아갔는데 안 물어봅니다. 생기부랑 자소서나 보고 가세요.
- ◆ 장래희망이 무역-경영컨설턴트로 이어져서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례랑 제 가치관을 묶어서 지원동기를 이야기해서 조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 ◆ 시간이 부족했기에 마지막할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거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답변할 때, 짧게 덧붙여서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 ◆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도우미 분들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할 때, 사실 그 분들과 웃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웃으면서 들어가고, 계속 웃음을 유지하세요. ◆ 목소리 크기, 속도, 호흡 조절 꼭꼭 ◆ 대답 기승전결 맞춰서 하는 기술 있으면 좋음.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생각. 기억 안 나면 '잠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등으로 시간을 벌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A : 안녕하세요, B025번입니다.							
Q :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요. 기록을 보니까 저희 학과 활동한 게 많네요?							
Q : '식량안보가 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했는데, 계기랑 조사 과정, 배운 점 말 해주세요.							
A : (조사 과정 부분 때문에 약간 당황)							
Q : 그래서 배운 점은?							
Q : 북한 식량 문제 발생 이유가 뭐죠?							
A : 무역이 주는 이익 설명, 북한은 외교 폭이 좁고, 식량을 살 돈으로 무기를 사서 식량 문제 발생한다고 말함.							
Q : 그럼 북한 식량 문제가 농업적 문제는 아닌 거죠?(관련 추가 질문함...근데 잘 기억은 안남.)							
A : 아니요. 북한의 경우 강수량이 적어서 쌀을 생산하기에 조건이 불리합니다.(근데 추가 질문 부분 조금 씹었는데, 후회 됨. 논지 파악 잘못된 느낌임. 잘 기억은 안남.)							
Q : '합리적 인간에 대하여' 탐구대회에서 이 주제로 탐구했다고 하는데, 합리적 인간이란?							
A :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완전 분석하고, 이후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Q : 보면 최후통첩 게임이랑 지네 게임의 원리를 통해서 이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냐?							
Q : 최후통첩 게임 설명해봐.(이후 추가 질문으로 왜 이름이 최후통첩게임인지도 물어보심.)							
A : (최후통첩 게임 이론 설명~)							
Q : 지네게임은?							
A : (지네 게임 이론 설명~)							
Q : 그런데 최후통첩 게임에서 제안자가 이익을 보도록 제안을 했는데 합리적인 것 아닌가?							
A : 하지만 완전 합리적으로 이익을 본 것도 아니라고 설명~.							
Q :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이 말 나오기를 약간 기다리신 듯)							
Q : 농경제사회학부 지원한 계기?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독서량 이슈 관련 질문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해두셔야 합니다.							
◆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도 같았는데, 교수님 두 분 중 한 분은 계속 웃고 계시고, 한 분은 적당히 흥미롭다는 표정에 서 무표정 사이의 표정을 유지하십니다. 말려들지 말고 표정을 읽으려 하지 마세요.							
◆ 질문의 논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과 자신의 대답의 논지에 힘을 실어야합니다. 질문의 논지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경우들이 조금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들께서 약간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독어교육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독어교육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서류 기반 10분 [면접위원 총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서류 기반 10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면접에 교수님들만 들어오심. 홈페이지에서 지원학과 교수님 사진보고 갈 것 ◆ 압박을 주려고 하시진 않는데 내가 긴장해서 압박면접 같음^^... ◆ 세특&지원학과 관련 독서활동에서 많이 물어보셨음. 생기부에 있는 거 소홀히 보고 가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학생부기반 면접]</p> <p><b>Q: (교수님 1) 세특에 보면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 이론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 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이 활동과 관련해서, 활동 이후에 연관 지어서 이어서 한 활동이 있는지?</b></p> <p>A: 1학년 때 &lt;영어 사교육 경험이 학생의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gt; 이라는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은 사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서 작성된 논문. 사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고, 그래서 부르디외의 문화 재생산 이론을 통해서 그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자 했음. 이후 루소의 &lt;에밀&gt;을 읽고 선생님,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음.</p> <p><b>Q: (교수님 2) 그... '교육 격차'에 대해서 써놨던데, 계층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해요?</b></p> <p>A: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음. 개인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 교사가 한 학급, 혹은 수업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필요함. 수업에서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생이 직접 선택해서 풀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그 외에 현실적으로 교사 한 명의 도움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음. (여기까지 말하고 너무 긴 것 같아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p> <p><b>Q: (교수님 2) 그... 계층 타파랑 그 방안들이랑 무슨 상관이예요?</b></p> <p>A; (여기서 당황함) 음... 학업에서의 격차는 계층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함.</p> <p><b>Q. (교수님 2) 헤세의 &lt;데미안&gt; 읽었네요? 감상이랑, 이 책을 읽고 학생의 삶에 미친 영향 말해주세요.</b></p> <p>A. (안 나올 줄 알고 안 외운 답변....^^ 당황했음) 이 책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 약간의 신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서술한 소설입니다.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로서, 단순히 어른들이 시키는 삶, 남들이 결정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p> <p><b>Q. (교수님 2) 학생의 삶에 미친 영향도 말해달라고 했는데?</b></p> <p>A. (속으로 소리 자름..... 세상에.....) 아...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갇혀 있는 '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3년간 영어교사를 꿈꾸면서, 무작정 영어교육과를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제가 갇혀 있는 알이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교육학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꾸어 독어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지금 생각해보니 교육학과 답변이네요...?ㅋㅋ 이럴 수가)</p>							

**Q. (교수님 2) 음 뭐.. 사실 독어교육과 와도 영어교사 할 수 있어요. 뭐 복수전공을 하던지....(이 때 또 소리 지름ㅋㅋ) 교사랑 교육학자랑 다른 점이 뭐예요?**

A. 교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만 끌어낼 수 있지만, 교육학자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의 본질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평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의 자율성이 조금 억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Q. (교수님 2)독문학에는 혹시 관심 없어요?**

A. (교수님 얼굴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독문학 전공 교수님이셨음, 여기서 괜히 아는 척 했다가 털린다! 생각하고 관심 없다는 말 돌려서 함) 아... 독일이 문학 교육에 일가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독문학...보다는 교수법.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Q. (교수님 1) 우리 학과 와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A. 우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서, 직접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의 교육 현장을 체험하면서, 독일 교육의 장점을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Q. 네 뭐... 나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면접실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 안 했는데 교수님들 얼굴 보자마자 심장이 너무 뛰었음... 준비 많이 하고 가길....^^
- ◆ 생기부 그냥 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됨. 특히 세특/독서활동에 있는 지원학과 관련 내용은 무조건 암기하고 답변도 생각해서 갈 것.
- ◆ 답변하는 도중에 질문 까먹지 마세요... 진짜 제발..... 뭘 대답해야 하는지 뇌 한구석에 꼭 담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독어교육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독어교육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9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면접5분전 이동 면접실 앞 대기 면접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시간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면접실이 작고 면접관과 거리가 가까움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2학년 국어시간에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							
Q : 3학년 동아리 시간에 동네주변 문제점 해결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였고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A :							
Q : 헤르만 헤세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중 ‘데미안(자소서에 적음)’의 간략한 줄거리와 느낀 점, 교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							
Q : 독어교육과에 와서 후에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말해주세요. A :							
Q : (마지막으로 생기부 내용 중 하나를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남)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친절하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지는 말자. ◆ 확실히 지균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서류 진위 확인형 면접인 듯하다. ◆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사회교육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사회교육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 → 나와서 잠깐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이름, 출신고교 언급X ◆ 응원해주는 서울대생들 있음. 자기 지원학과 분들 찾아서 간식거리 받아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8시 15분까지 입실. 서울대 넓고 길 복잡하니까 버스 이용하는 거 추천. 서울대입구역 출구 앞에서 5511 버스 타고 샤 지나서 관악사삼거리?에서 내림. 사범대 쪽으로 걸어가서 11번 건물 찾으니깐 앞에 대학생들이 응원하고 있음. 앞에서 뚫고 가기 쑥스러워서 조금 서성대고 있으니깐 한 형이 와서 “어디 지원하셨어요?” 물어봐서 “사회교육과요!” 하니까 “우리 과! 우리 과!” 하시면서 갑자기 와악 모이더니 간식거리 주심. 그리고 들어가서 대기실로 갔는데, 특이한 점은 소지품 간단한 마실 거, 먹을 거 말고 싹 다 앞으로 갖다냄. 그러니까 뒷 순번일수록 강 멧때리고 있어야함. 하지만 난 맨 첫 번째 순번. 참고로 대기실은 히터 하도 틀어놔서 건조하니까 주의하세요. 나와서 잠깐 대기 후 면접실 들어감.</p> <p>면접관은 교수님 두 분. 한 분은 유쾌하신 느낌이고 웃상. 한 분은 진중하시고 조금 매서운 눈빛.</p> <p>질문 순서는 뒤죽박죽.</p> <p><b>Q : 1,2학년때 부실장 했네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세요.</b></p> <p>A : 사실 부실장이 하는 일은 크지 않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을 보조하고 학우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돕고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p> <p><b>Q : 2학년때 보고서는 특수 활동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과목...?</b></p> <p>A : 사회문화 보고서 말씀이시라면 사회문화 수행평가로 수행한 것입니다.</p> <p><b>Q : 보고서 하면서 어려웠던 점 있나요?</b></p> <p>A : 학교에서 통계 포털...을 사용하라고 해서 국가통계 사이트를 통해 통계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자료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p> <p><b>Q : 보고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b></p> <p>A : 지니계수를 통해서 한국의 불평등 정도를 OECD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불평등 정도와 다르게 OECD 국가 내에서는 그렇게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불평등 정도는 왜 이리 높은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p> <p><b>Q :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탐 과목은 사문, 한지, 윤사, 생윤, 이렇게 네 개 했나요?</b></p> <p>A : 아뇨, 동아시아사까지 해서 다섯 갓입니다.</p> <p><b>Q : 교외 봉사가 없네요? 교외 봉사가 없는 이유가 뭐죠?</b></p> <p>A :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토요일에 나와 집에 도착하면 토요일 오후가 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교외 봉사보다는 교내 봉사에 주력하기로 결심했고 선도부에 들어가는 등 교내 봉사에 집중했습니다.</p> <p><b>Q : 수학 관련 읽은 책이 많네. 수학에 관심 있나?</b></p> <p>A : 수학...에 관심이 있다가보다는 수학과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 수학 성적이랑 비교돼서 웃으면서 말함ㅋㅋ)</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수리과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수리과학과	전 형 명	기회균등전형(농어촌)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시간이 매우 짧음. 때문에 질문 수도 적지만 자신이 했던 활동을 명확히 기억해야함. ◆ 지원동기,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음 ◆ 생기부의 틈새나 상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2학년 때 자연상수 e에 대해 어떻게 e가 정의되는지 탐구했다는데 어떻게 했나요? A : e의 정의와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탐구했습니다.							
Q : 그것을 탐구하고 느낀 점은? A :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 군론이 무엇인가요? A : 군론의 개념 설명.							
Q : 태양의 적위에 따른 관측자의 낮 길이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탐구했나요? A :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나 시간이 초과되어 끝까지 하지 못함.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질문 자체가 생기부, 자소서 확인용 질문이라 변별력이 크게 없다고 생각함 ◆ 크게 긴장하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또박 또박 잘 마무리하면 밝은 분위기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45분[준비시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 기 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 → 45분 동안 제시문 보고 답안 작성 → 15분 동안 발표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시간에 자료 다 훑어감. 수험표랑 신분증만 책상에 둬. ◆ 수험표는 컬러로 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화학2 (제시문)</div> <div>Q : 화학반응식 쓰기</div> <div>Q : 엔탈피 구하기</div> <div>Q : 탄소 산화수 구하기</div> <div>Q : (응용) 조건에 해당하는 반응식 만들기</div> <div>-생명과학2 (오염생성과정 및 몸 속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그림+제시문)</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명과학은 1과 2가 대체적으로 섞여서 나와서 생명과학 2를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할 만함. ◆ 화학의 경우는 화학2 내용을 공부해야 풀 수 있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계산 부분은 확실히 공부해서 면접해야 함. ◆ 대기시간에 공부할 생각하면 안 됨. 자료를 다 제출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5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30분 제시문 풀기 → 15분 제시문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일반전형 면접이라서 생기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 저는 자소서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 제시문을 면접실 밖에서 풀도록 되어있는데 꽤 추웠습니다. ◆ 면접관님이 친절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제시문]</div> <div>인문학</div> <p>(가) 비파 연주를 잘하는 예술인(송경운)의 사례. 아랫것이나 귀한 사람이나 똑같이 예의바르게 대하고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연주해 줌. 스스로를 천한 사람이라고 낮춤.</p> <p>(나) 산수화를 독창적으로 잘 그리는 예술인(최북)의 사례. 스스로를 '명인'이라고 칭하면서 "나 같은 천재가 명소에서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살하려고 함. 아무리 귀한 사람이 와도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음. 한 번 귀인이 그림을 강제하자 자신의 눈을 찢어버림.</p> <div>사회과학</div> <p>(가) 각 지역의 예산 편성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정자립도는 (각 지자체 마련 재원) / (각 지자체 마련 재원 + 중앙정부 지원 예산)임. 이리다보니 지자체 사이에서 예산 편성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u>중앙 정부가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지만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실</u></p> <p>(나) 기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무건전성으로, 재무건전성은 자선 단체에서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순수 금액이 많을수록 높고 인건비, 광고비, 각종 다른 비용이 추가될수록 낮아짐. 자선단체 X는 재무건전성이 높아서 기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음. 자선단체 Y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u>재무건전성 측면에서 X는 최고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받는 현실</u></p> <div>■ [질문]</div> <div>인문학</div> <p>문제 1. (가)와 (나) 사례에 제시된 예술가 두 명을 비교하고, 어떤 예술가 상이 더 바람직한지 자신의 주장을 말하시오.</p> <p>문제 2. (가)와 (나) 사례에 제시된 두 명의 인간상이 예술 외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시오.</p> <div>사회과학</div> <p>문제 1. 밑줄 친 두 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p> <p>문제 2. (가), (나)와 유사한 사례를 들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p> <div>■ [면접]</div>							

A: 안녕하세요.

**Qa: 네~ 답하고 싶은 거 문제 먼저 답해보세요.**

A: 네. 인문학 문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가)와 (나) 속의 인물들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신과 타인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 두 인물 모두 예술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술의 양상이 두 제시문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에서는 음악, (나)에서는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제시문에서는 인물들의 태도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가)의 인물은 자신을 ‘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나)의 인물은 자신을 ‘명인’으로 표현하면서 제시문에 표현된 대로 ‘오만한’태도를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송명길과 최북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 바로 예술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입니다. 송명길은 남을 위해 예술을 합니다. 남이 만족할 때까지 비파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타인을 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북은 자신을 위한 예술을 하며 귀인이 와서 부탁하더라도 자신의 예술적 주관을 굽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인물 중 최북의 예술관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할 때만이 그 독창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송명운의 예술관이 좋아 보이지만, 송명운처럼 남의 구미에 맞는 예술을 추구하다 보면 예술이 획일화되고 개성과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북처럼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예술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b : 네 다음 질문 대답해주세요. 이 두 예술상을 다른 사례에 어떻게 접목시켜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술과 다른 그 분야부터 말씀해주세요.**

A : 네 저는 이 두 예술상을 종교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Qb : 흥미로워하심**

A : 최명운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최북과 같은 인물은 예술의 개인적 가치만을 중요시합니다. 이를 종교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최명운과 같이 종교의 사회적 가치만을 중요시한다면, 고려시대의 호국불교처럼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호국불교는 나라를 지키자는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고려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에 한 마음으로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최명운과 같은 인물상은 종교 분야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회적 가치만을 중요시하다보면 그 가치가 잘못되었을 때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세의 기독교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처음 그 종교가 시작된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1000년간 서양을 지배하면서 면죄부와 같이 경제적 이득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최명운과 같은 인물상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북과 같은 인물상은 종교의 개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석가모니에서부터 시작된 불교는 각자 자신이 더 중요시여기는 가치에 따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선종과 교종 등으로 분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종교의 개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생긴 장점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종교의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생깁니다. 중동 지방에서 명예 살인을 인정하는 종교, 또는 여성 차별을 합리화 하는 종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최북이 예술의 개인적 가치만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파괴한 것과 같이 해당 종교의 가치만을 고수하여 인간 존엄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한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Qa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Qb: 다음 답변까지 듣고 질문을 한꺼번에 합시다. 밑줄 친 두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문제점은 무엇이죠?**

A: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 제시문에서는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재정의존도를 계산할 때, 지자체가 마련하는 재원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을 함께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원 예산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이는 다시 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제시문에서는 기부의 적절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부의 적절성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모

두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나) 제시문에 따르면 직접 비용만이 강조되어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례 모두에서 사회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조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준으로만 사회 현상을 평가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a : 네 그 구체적인 예시로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또 그 해결책은요?**

A : 저는 제가 아무래도 학생 입장이다 보니 교육과 관련지어 해당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교과수업 시수를 줄이고 진로수업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진로 탐색 기회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한 것은 수업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절대적인 시수도 중요하겠지만 수업에서 진로와 관련해 어떤 것을 가르치는 지도 문제의 원인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Qb : 학생의 사례도 제시문과 연결 지었을 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내에서 단편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사례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 잠시 생각

**Qa : 다른 분야여도 좋겠지만, 학교 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 : 저는 체육시간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b : 오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A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저는 저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평가기준에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적이 잦았습니다. 체육 수업 내에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들이 그러한 사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Qb :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대상을 한 방향에서만 보지 말고, 보다 다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의 체육 수업을 생각해 본다면 학생을 평가할 때 결과로서만 그 능력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다 세분화해서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 저는 아까 학생이 말했던 것 중에 '직접 투자 비용', '간접 투자 비용'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한 거죠?**

A : 제시문을 살펴보면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수혜자에게 직접 비용이 투자되는 것을 직접 투자비용이라고 표현했고, 이와 반대로 광고비, 인건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을 간접 투자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Qa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서울대 일반 면접은 일주일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뚜렷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답변 시간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 ◆ 답변의 제 1 원칙은 두괄식입니다.
- ◆ 면접 시간을 칼같이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1-2분 정도 초과했어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의예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4층 대기실 대기→2층 이동→면접 시작→끝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못 봄 ◆ 면접관들 친절하네 개인마다 다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구체적 계기</b>							
A : 제가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는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투병할 때 저를 봐주셨던 교수님께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라는 막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갖게 된 것은 투병하던 제가 집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뇌에 대해 많이 읽다보니 자연스레 인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지식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공익에 대한 헌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서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b>Q : 자소서 1번에 '내 몸 공부(염응의)'에서 의사의 자세를 배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b>							
A : 처음에는 정규동아리에서 책을 쓰고 있던 중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인체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던 제가 읽기에도 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추후에 의사가 된다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b>Q : 자소서 3번을 보면 축제에서 자율 동아리 부스활동을 하다가, 몇몇 부원들이 밴드부나 다른 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되어있다. 결국은 상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지금 적혀있는 결론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b>							
A : 저희들은 상의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참여하지 못하는 부원들은 우리 동아리의 부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의 일원이기도 하기에 저희 동아리 활동만 내세우는 것은 그 친구들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 저희 동아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의해보았습니다. (뒤에는 그 부원들에게 홍보를 맡겼고, 실제로 우리 동아리 방명록에 홍보를 보고 왔다는 글이 많았고, 이런 결과는 그 부원들과 상의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방안을 얻지 못했더라면 얻지 못했을 것)							
<b>Q :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혹시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서 평론이나 서평 등과는 다른 생각이 들었던 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b>							
A : 제가 엔트로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과학사에 흥미가 많았던 제가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 읽게 된 책이었는데, 내용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저자의 의도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엔트로피는 현대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화학2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저희 사회를 너무 무질서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전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b>Q :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은지</b>							



A : (이 질문을 가장 대답 못했다고 생각)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남. 어쨌든 앞에 말했던 서울대 핵심 가치와 연관 지어서 노숙자분들을 돕는 그런 사소한 수 있는 봉사를 모으고 모아서 서울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함.)

(서울대학교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적인 영역을 말해야했을 것 같은데, 봉사에 초점을 두고 말해서 아쉬웠음)

**Q : 친근감이 많은 학생인 거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이고, 지금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A : 친한 친구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가장 친한 친구도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수능을 평소보다 못 쳤는데, (그 친구가 힘든 것을 느꼈고, 그 친구도 자신의 감정을 말해주었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내용. 위로는 구체적인 발화를 예시로 들면서 말함.). 제가 슬럼프나 힘들 때, 그 친구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에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 같다.

**Q : (1분 중치고 난 후)이제 1분 남짓 남았는데, 앞서 했던 질문 중 미진했던 질문에 대해 보충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A :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은지에 대해 보충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강점을 꼽으라면 과제 집착력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소논문 활동을 하면서 실패를 맞보았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3학년 때 전공논문 읽기활동이나 융합탐구활동을 통해 보완해나갔던 것도 그런 능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도 현재 16년째 파킨슨병을 투병하고 계신데...(중략서 나감)

(원래는 투병하시는 교수님이 자신의 세포를 가지고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결국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얻은 것도 과제 집착력이기에, 나도 서울대학교에서 나의 능력을 활용해 학문적으로도 서울대학교에 공헌하고 싶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다 말 못해서 아쉬움)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이 편안해서, 잘한 점도 딱히 없고, 크게 아쉬운 것도 없음.

◆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면접이 어려운 학생도 있었는데, 면접 들어가서 면접 쉽다고 면접관들이 관심 없냐?라고 오해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괴롭히지 나 탈락인가?라고 생각하지 말길. 면접관들은 전생애 나를 3번 이상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되, 혹시 교수님이 비야냥거리더라도 열받으면 안 됨. 그것도 시험 일부임.

◆ 굿 럭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의예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8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기 ★	단 문 통	제시문 기 본	집단 토 론	다 중 미 니
면 접 절 차	서울대 오전 조 면접은 1교시, 2교시로 나누어 진행하고 오후 조는 3교시 한 시간만 하고 마쳤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개인 순서가 마치면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기반 면접만 하는 학교는 대부분 개인 순서 마치면 바로 귀가합니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건물 앞쪽에 롱패딩 맞춰 입은 선배들이 응원 인사를 해주십니다!</li> <li>◆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든 소지품을 내고 면접 준비실로 이동해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선배들의 복기에 보면 인사이드 아웃을 틀어줘서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고 봤었는데 올해는 안 틀어주셨어요. 오전조 거의 마지막 순서여서 거의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li> <li>◆ 다른 학교와 달리 서울대는 들어가면 책상 위에 작은 디지털시계가 있어 면접이 몇 분 남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시간 조절하며 답변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10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A: 안녕하세요. 면접번호 B35번입니다.

**Q : 네 안녕하세요. 생기부를 보니 노인병원도 오래 가고 봉사를 많이 했네요. 우선 학교생활 중 가장 재밌었던 일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일 하나씩 말해줄래요?**

A : 네. 가장 재밌었던 일로는 2학년 때 간 학급별 수학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수학여행 장소와 코스를 정하고 숙소까지 자율적으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학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신기하다는 면접관님의 표정^^)그러다 보니 학기 초부터 자연스레 학급 간부가 맡아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코스를 짤 때 거리상 또는 시간상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 양해를 구하기도 하는 등 갈등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보다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 수학여행을 갈 무렵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멀어진 친구가 생겨 다들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같이 다니자 하여 함께 놀고 같은 방을 쓰며 새로운 친구가 생겨 재밌기도 하였습니다.(이 답은 그냥 재밌게 들으신 듯하다.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신뢰와 재미가 모두 커지는 효과!) / (앞의 답변을 길게 하여 조금 짧게 함. 해보고 싶었던 연구 같은걸 말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가장 아쉬웠던 일로는 축제 때 무대에 서지 못한 것이 떠오릅니다. 축제 때 부스 진행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밌었지만 무대를 준비하는 축제날은 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무대에 서자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공부를 하며 시간적 여유를 찾기 어려워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일이 친구들도 아직까지 언급할 만큼 아쉬웠던 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Q : 네. 노인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했는데 느낀 점이 있나요?**

A : (봉사활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라 생각했다.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하면 될 것 같다.) 중학생 때부터 노인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었고 적절한 목소리 크기로 대화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정도는 다르더라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가족분들 또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논문이나 책을 많이 찾아보며(구체적으로 언급해도 좋을 것 같다. 자소서에 기재한 내용이라 빨리 넘어감)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가장 흔한 이유임을 알게 되었고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 알츠하이머 발생 자체를 막는 방법, 기억을 회복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Q : 학생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뭐예요?**

A: (관심 있는 분야는 ‘~과’라고 답해야 한다. 무슨 과라고 답할지, 그리고 그 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 그 과의 특성 등은 꼭 찾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1학년 때 뇌과학 캠프에 참가하여 뇌와 통증의 관계, 뇌와 학습 능력의 관계 등과 관련된 강연을 들으며 뇌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관심을 갖게 된 알츠하이머 또한 뇌 속에서 시냅스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질병임을 알고 더욱 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된 질병인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을 다루는 신경과에 현재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Q : 뇌에 관심이 많으면 과학자를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의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A: (자소서에서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적어서 여러 학교에서 받은 질문이다. 임상의와 연구의 중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질문과 같다고 생각했고 이 질문의 대답은 무조건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고 싶다고 해야 한다. 한쪽만 택하면 위험하다.) 뇌와 관련되거나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에 앞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봉사활동을 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하여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치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나 약의 개발이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도 함께 병행하고 싶습니다.

**Q :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너무 뜬금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맥락상 어색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대체하기 어렵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인공지능은 여러 수학적 계산이나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의 증상과 병명, 치료 방법을 연결 짓는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될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공지능도 의사에게 확률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최종 선택은 의사가 해야하므로 기계인 인공지능이 인간인 의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A라는 증상을 보이면 B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질병에서라도 예외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때에는 인공지능의 선택이 오히려 틀릴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는 우선 의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가지 선택지만 단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예외 상황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중심 의학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는 사람 중 또 공통적으로 예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게는 새로운 치료법 C를 사용하도록 메뉴얼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에게도 단정적인 설명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비율이 적다고 해서 그 환자가 예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 그냥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자소서나 생기부에 봉사활동 관련 내용을 기재하잖아요. 이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A: (‘보여주기 위한 봉사’의 의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봉사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보여주기식 봉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보여주기식 봉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평등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봉사를 직접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으로 봉사를 접하는 계기로서는 보여주기식의 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기식 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 강제성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 (9분쯤 지남. 말하는 도중에 차임벨 울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A :**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비를 멈출 수 없을 때 함께 비를 맞고 있겠다.'라는 좌우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게 가난, 불평등, 고난 등의 '비'를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비를 멈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비를 멈출 수 없더라도 함께 그 비를 맞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대학에서 많이 물어보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 서울대는 학교에서 한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과거 복기를 보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정하고 그 책을 읽기 전의 나와 읽은 후의 나를 도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를 지균 면접 공통문제로 낸 적이 있음) 학교 활동을 크게 연구, 독서, 봉사, 간부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나누어 그 활동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질문에 대답하는 길이가 길면 받는 질문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 길이를 잘 조절하면 전체 면접의 흐름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답변하면 추가 질문/꼬리 질문이 덜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 ◆ 서울대학교 면접은 마지막 관문이기에 꽤 부담이 컸습니다. 어떻게든 10분만 잘 버티자는 생각으로, 내가 면접에서 걸러내야 하는 학생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의예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서류기반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아주 기본적인 질문만 했음 (지식적인 것 물어보지 않았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지원동기를 짧게 말해보시오.</b></p> <p>A : 저는 어렸을 적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노화와 노인성질병에 관심이 생겼고, 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던 1학년 때는 노화하면 화장품이 떠올랐기에 생화학자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탐구를 진행하며 더 근본적인 노화의 원인과 다양한 노화 현상을 다루고 싶었고, 이에 의대 진학을 꿈꿨습니다. + 서울대 노화 관련 연구 특징</p> <p><b>Q : 의료윤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수명연장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노화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말 해봐요.</b></p> <p>A : 과거의 의학은 환자의 국소 부위 치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화연구는 정확히 현재의 의료목표를 지향하는 연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장수, 백세시대에 노화연구를 통해 노인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면 이보다도 더한 삶의 질 향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p> <p>A : 저희 할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것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당시에 가족들보다 의료진의 말에 더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보고 의료진은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직업임을 느꼈고, 환자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과에 진학해 의과학자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10분이라서 긴장을 풀 시간조차 없으니, 어렵겠지만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최대한 풀고 입장하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의예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1. 1층 대기실에서 수험표와 신분증 제외하고 짐 모두 맡기고 4층 대기실로 이동 2. 면접번호 부여받고 자기 순서 될 때까지 대기 3. 자기 순서가 되면 면접 대기실 앞에 가서 벽보고 앉아 있음 4. 이전 사람이 나오면 대기하다 입실 방송이 나오면 노크하고 입실 5. 1분 남았을 때 방송으로 알려줌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대기실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함 ◆ 작년과 달리 무난한 질문 위주 ◆ 면접 끝나면 바로 귀가 가능 ◆ 종료 방송 나와도 조금 남은 것 같으면 제지 안함. 끝까지 말하고 나오길.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자소서를 보면 행복에 대해 고민해서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Q : 좋아하는 과목이이 1학년 때 화학 쪽이었다가 2학년 때부터 생명과학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 아까 전에 EM 흙공의 수질 정화 효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EM이 수질을 어떤 원리로 정화하나요?							
Q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였나요?							
Q : 최근 유명한 이슈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토론을 하셨는데 어떤 입장으로 토론을 하셨나요. (1분 안내방송)							
Q : NK세포에 대해 여러 가지 탐구를 하셨는데 NK세포가 뭔지 1분 내로 설명해 보세요.							
Q : 시간이 조금 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대부분 생기부 자소서 물으니까 꼼꼼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준비해 가면 좋아요. ◆ 면접관님들 모두 친절하니까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돼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인문광역]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인문광역	전 형 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면접 순서대로 대기 - 앞 사람 끝날 때쯤 면접고사장 앞에서 기다리다 나오면 바로 응시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긴장 안 했죠?</b></p> <p>A : 네!</p> <p><b>Q : 진로가 국사학과 교수라고 되어있는데 국제경제, 국제정치 수업을 들었네요. 이 수업들을 듣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본인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b></p> <p>A : 원래 배우던 교과과목이 아니었고 ‘국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이 신기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방식은 국제경제, 국제정치와 자신이 관련 있는 주제를 연결해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경제 시간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이 한창 기사로 떠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p> <p><b>Q : 2학년 때는 과제연구를 했네요. 한번 그 내용을 말해보세요.(이런 느낌의 질문이었는데 확실치 않음)</b></p> <p>A : 2학년 때 친구와 연구를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고등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현대와도 연결된 주제를 택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광주학생항일운동과 2·28민주운동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중 2·28민주운동을 맡아서 배경, 전개 과정, 당국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관련 논문들을 찾아서 학생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뽑아내고 그걸 이제 당시 미국의 총기규제시위인 March for our lives에 적용해보았었습니다.</p> <p><b>Q : 봉사활동으로 도서관을 갔네요? 가서 어떤 일을 했죠?</b></p> <p>A : 도서관에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 자료실과 그 이상의 어른용 자료실이 있는데 청소와 책 꺾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소만 해서 유아 자료실 먼지 청소 등 청소한 얘기함.)</p> <p><b>Q : 청소한 거 말고 질적으로 다른 일은 없었나요?</b></p> <p>A : 없었습니다.</p> <p><b>Q : 이제 전자책도 늘어가고 있는데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b></p> <p>A : 예전에 전자책이 막 나올 때도 종이책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종이책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책 권 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는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활동 간 도서관도 그렇고 학교 앞 도서관도 그렇고 책 읽는 역할도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문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p> <p><b>Q : 3학년 때 환경 연구를 했네요. 가뭄이라는 주제를 고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나요?</b></p> <p>A : 네. 3학년 환경 시간에...</p> <p><b>Q :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b></p> <p>A : 네.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p> <p>A : 그래서 3학년 환경 시간에 선생님이 관심 있는 환경 문제를 선택해 해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번 가뭄 관련 기사를 봤던 것 같아서 가뭄을 주제로 선택했고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가뭄 대비</p>							

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에서 찾는 가뭄 대비책이라고 엮어 보았습니다. 자료 수집은 먼저 최근 가뭄 피해 기사를 찾아 정리하고 청와대 등 사이트에 들어가 현재의 대비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가뭄 기록을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Q :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물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소규모로, 지역별로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뚝방처럼 그 지역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등의 큰 프로젝트는 너무 규모가 커서 부작용도 너무 큼니다.(뭔가 더 자세히 말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남.)

**Q : 그런데 강은 원래 커서 지역별로 맞는 대책을 찾기 힘들다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요?**

A : 그 지역이 행정구역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계처럼, 예전 산경도처럼 강 유역별로 하면 됩니다. (약간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강 유역별로 또 나누면 할 수 있습니다.

**Q :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미국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읽었네요. 이 두 책을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A :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후 몇 초 생각하다가 말하려는데...)

**Q : 그럼 슬럼 지구를 뒤덮다, 왜 지구의 절반을 굶주리는가를 연결해서 얘기해보세요.**

A : (어차피 앞의 두 권도 생각해서 네 권 다 엮어서 얘기해 봄.) 저는 네 권의 책의 공통점이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에서는 재개발이 결국은 주인공들의 거주권 등을 불평등하게 빼앗습니다. 미국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는 사실 미국의 한인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보긴 했지만 흑인들은 같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합니다.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보면 슬럼 거주민들은 집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위생시설 등도 없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왜 지구의 절반을 굶주리는가는 생산량은 풍족한데 한 쪽에선 배불러서 사람이 죽어가고 한 쪽에선 사람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런 불평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본인이 생각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말 것. 국사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 하필 서울대 국사학과인 이유, 대학교 와서 학업 및 진로 계획 등을 준비했었는데 비슷하게도 안 나옴.
- ◆ 면접고사장이 교수님 연구실인 것으로 추정됨. 생각보다 교수님과 거리가 가까움.
- ◆ 생기부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한다는 느낌이 강했음. 본인의 생기부를 보면서 내용들에 대해 계기, 활동내용, 느낀 점 등을 말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안 나오는 부분은 보충해야 함.(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음. 세세하게 모든 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님.)
- ◆ 학원 면접 프로그램보다 학교 면접 프로그램이 훨씬 나은 것 같음. 학교 면접 프로그램에서 환경 연구 관련해서 질문 받은 것이 실제 면접 질문과 유사했음. 학원 면접 프로그램은 아예 동떨어졌었음. 학원가는 시간에 혼자 생기부 더 보는 게 훨~씬 나옴.
- ◆ 옆쪽에 과자가 잔뜩 준비되어있음.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먹어도 됨.
- ◆ 대기실에 조교님? 들어오시면 아예 면접 순서대로 앉게 해서 자신이 몇 분 뒤에 면접을 볼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음. 그 시간에 맞게 자신이 준비하면 될 듯.(대체로 대기실 들어오고부터 다들 본인 생기부, 준비해온 것 등을 보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걱정만 될까 봐 그냥 머릿속으로 반드시 나올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다시 생각해보고 명 때림.)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인문광역]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인문광역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30분간 안내사항 설명, 본인확인 후 부여받은 면접번호대로 면접 실시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휴대폰 제출 ◆ 자료열람 가능여부 과마다 다르므로 일단은 자료 챙겨갈 것 ◆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이지만 배경지식을 필요로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수험번호 82번? 오래 기다리느라 수고했어요.</b></p> <p>A :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p> <p><b>Q : 바로 질문할게요. 자기소개서 1번에 쓴 영어문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b></p> <p>A : 'We're in the end game now'이라는 문장을 썼는데 여기서 'end game'이란 '끝난 게임'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어!'가 아닌 '우리는 끝났어!'라고 해석하는 오역을 범하게 되었습니다.</p> <p><b>Q : 영화의 제목은 뭔가요?</b></p> <p><b>Q : 영화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b></p> <p><b>Q :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보면 2학년 때 전교부회장을 했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아주 큰 일도 해냈는데 이거에 대해 더 설명해줄래요?</b></p> <p>A : 2학년 때 전교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학생들이 교복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에 대해 건의를 하고 직접 교육청 주관의 '착한교복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학교도 학생들이 편하게 착용하고 비용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착한교복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 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모두 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편리함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적절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p> <p><b>Q : 인문계열에 진학한다면 어떤 것을 전공할건가요?</b></p> <p>A :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할 예정입니다.</p> <p><b>Q : 그럼 3년 동안 희망진로가 외교관이었는데 특별히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b></p> <p>A : 초등학교 때 NGO단체에서 주관하는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아, 빈곤 문제 그리고 NGO단체 더 나아가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 (끼어들기 당함)</p> <p><b>Q : 아 그럼 그 희망편지 아직도 주고받고 있나요?</b></p> <p>A : 희망편지쓰기 자체는 단발성의 대회였지만 이를 통해 맺은 인연으로 볼리비아의 여자아이를 1대 1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많이 어려 아이의 부모님과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저의 후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해나가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 이제는 저와 영어로 편지를 직접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작은 도움을 통해 한 생명이 바르게 자라나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만큼 귀하고 기쁜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p> <p><b>Q : 그럼 외교관이 되어서는 뭘 할 건가요?</b></p> <p>A : 저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아나 난민,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복되는 세계문제들을 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르게 자라난 청소년들이 또 다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p> <p><b>Q : 그렇다면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아나요?</b></p> <p>A : 사실 수치를 정확하게 알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기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p>							

습니다. 아직은 조금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Q : 근데 학생은 그럼 외교관이 되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는 건가요?**

A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변화되어가면서

**Q : 자기소개서 책 3권을 보면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다 다른 것 같은데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A : 우선 'The little prince'는 책을 통해 과거의 제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곤 문제와 국제 기구의 문제를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통해 앞으로 닥칠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재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저와 이 사회의 모습을 성찰해보고자 책 3권을 선정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Q : 학업적으로나 학교생활 중 외교관이 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나요?**

A : 경제나 외교나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고교 생활 중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와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습을 할 때 외교관이 되어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영어 과목은 책 만들기 동아리를 통해 장문의 소설책을 영어로 만들어보며 문서를 작성하고 영작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학교에 APEC E-learning 연수단이 방문하였을 때 발표자로 참여하여 실용적으로도 그것을 적용해보며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Q : 토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되어있는데 그 때 본인의 주장은 찬/반 중 무엇이었는데,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시연해 줄 수 있나요?**

A : 토론대회의 주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저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으나 토론대회의 절차 상 찬성 측에 서서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 (끼어들기)

**Q : 그러한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자유를 주지 않나요? 학생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신의 가치나 생각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요?**

A : 물론 저도 그 제도 자체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의 기존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야 했기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Q. 그럼 학생의 기존 입장에서 시연해보세요.**

A : 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 지글러는 어떻게 말했을 것 같나요?**

A : 제 생각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장 지글러는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서울대는 면접을 할 때 생기부와 자소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생기부와 자소서를 외우다시피 준비하고 생기부의 활동들과 자소서를 더 잘 엮으면 좋을 것 같다.
- ◆ 시간이 날 때마다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평소 여가시간에 뉴스나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아니면 준비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기부나 자소서, 교과내용 밖의 질문을 받았을 때 풍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답변을 낸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 인문계열이라 그런지 학문을 실용적 측면에서 보거나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탐구를 원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도 소신껏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 ◆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연습이 특히 서울대에는 더 중요한 것 같다. 생기부, 자소서, 교과학습 내용 외의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아는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인문계는 무엇보다도 나의 꿈, 진로에 대해 나름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활동들에 대해 'Why?'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내가 형성한 직업관이나 신념에 귀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 생기부나 자소서의 용어 하나하나의 정의 즉 사전적 정의와 자기 자신이 내린 정의 모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인문광역]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인문광역	전 형 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 접 시 간	8분 ~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대기 → 면접 → 개별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한 조당 12명 정도(결시 2명 있었음) ◆ 대기 시간 중 가져온 책, 생기부, 자소서, 각종 자료 읽을 수 있음 ◆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과제연구를 보고 4명이 참여했는데, 이 과제연구를 왜 참가했어요?</b></p> <p>A : 과제연구 과목은 물리학 과제연구였습니다. 실제로 물리는 이과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서 처음에 13명이 수강했으나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9명 있어서 4명이 최종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문과 학생이기는 하지만 과학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과에서 배우는 과학 과목이 생명과학 밖에 없기에 다른 과학 과목을 배워 보고자 이 과제연구를 듣게 되었습니다.</p> <p><b>Q : 과제연구에서 실제로 한 연구과제가 뭐였어요?</b></p> <p>A : 제가 실시한 과제는 ‘비행기는 어떻게 뜨는가?’였습니다. 양, 양력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데 이를 베르누이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으로 비행기 날개 모양을 열심히 표현) 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날개를 흐르는 공기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철, 음 그리고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진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p> <p><b>Q : 어, 인문사회계열 학생인데 왜 물리학을 수강했어요?</b></p> <p>A :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물리학을 접하며 저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리학이 많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과제연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b>Q : 독서와 문법 세부능력특기사항을 보면 ‘심리적 원인에 따른 언어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가 변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b></p> <p>A : (교과서 한 귀퉁이에 있던 사례가 떠올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함.) 저는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는 ‘곰’이 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서 곰? 이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심.) 곰이 어, 동물의 일종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나 앞뒤가 막힌 사람을 지칭할 때도 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원인에 따라 언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 : 곰이 실제로 굉장히 빠른 거 알고 있어요? (웃음)</b></p> <p><b>Q : 맞아, 곰이 실제로 엄청 빠르고 힘도 센데? (웃음)</b></p> <p>A : (교수님이 웃으셔서 그냥 따라 웃었음. 놀란 척하면서) 아, 저 잘 몰랐습니다.</p> <p><b>Q : 그러면 곰이 굉장히 빠르고 썸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미가 생겼을까요?</b></p> <p>A : 사람들도 저처럼 곰이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멍치나 외형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p> <p><b>Q : 여기 4번 보면 책 3권 적어줬잖아요. 제일 처음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b></p> <p>A : 도덕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 그 시장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여성의 성매매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로 생각한다</p>							

면 이러한 시장 형성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Q : 조금만 줄어드나요? 그러면 어떡해요.**

A : 저는 그렇기에 법률적, 제도적 측면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성매매 시장이 형성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양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러한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률적으로 그런 행위를 처벌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 진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여성들이 있어서 성을 사고팔았는데 처벌까지 받아야하나요?**

A : 저는 처벌 대상이 성을 파는 여성이 아니라 성을 사는 남성들로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환경에 있는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다급하게 답변을 마무리했음. 논리적으로 탄탄하지 못해서 아쉬운 답변)

**Q : 여기 '아들러가 전하는 77가지 행복 이야기'가 있는데 77가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1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좀 행복해진다? 요런 거.**

A : 저는 '열등감'을 다룬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 역시도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었기에 더 공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열등감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Q : 그렇다면 여기서 열등감을 다루는 법을 너는 적용하고 있니?**

A :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열등감을 이렇게 바라봐야겠구나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열등감을 통해서 불행해진다는 믿음을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Q : 그럼 이제 너는 열등감이 없니?**

A : 어, 열등감이 없다기보다는 저의 장점에 더 초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책에 보면 '행복의 신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화가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A :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행복의 역사나 신화가 어떻게 행복을 다루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막상 읽어보니 사람들의 통념과는 반대되는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Q : 돈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나요?**

A :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행복의 역사나 신화가 어떻게 행복을 다루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막상 읽어보니 사람들의 통념과는 반대되는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영어로 쓰인 책을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Myth'라는 영어단어가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화가 근거 없는 믿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Q : '행복의 신화'는 왜 그런 책 제목일까요?**

A : (당황해서 정적이 흐르니까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다시 풀어서 해주셨음.) 이 책이 사람들의 통념과 배치되는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화적 믿음, 통념을 깨기를 위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Q :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도 열등감일까요?**

A : 열등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시기심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시간이 다되어서요. 나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안 물어보시고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사실 확인 질문이 많았으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답할 준비를 다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인수 수업, 과목별 특기사항, 과목별 독서사항)
- ◆ 4번에 쓴 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자신의 생각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 자신에게 적용한 사례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으니 평소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겪은 갈등, 일화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 당황하더라도 계속 웃으면서 답변하세요. 완벽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인문광역]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인문광역	전 형 명	기회균등1				
면 접 시 간	서류 기반 10분 [면접위원 총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서류기반면접 10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과 선배들이 응원을 안 나왔다. 사회과학대학은 깃발 들고 많이 응원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해서 이 건물이 맞는지 의심했다. ◆ 교수님과 본인 간 거리가 멀었다. ◆ 여교수님 1, 남교수님1 -> 근데 제 전공 교수님 아니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학생부기반 면접]</p> <p>Q : 세특에 보니, 구토를 읽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 본인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p> <p>A : '자유가 그 자체로 긍정적이기만 한 가치는 아니다.'라는 점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불행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유를 더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p> <p>Q : 플라톤의 저서들을 읽고 소크라테스와의 담화를 써서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p> <p>A :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 다양한 책을 주제로 했지만, 저는 향연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범속한 에로스'와 '성스러운 에로스'를 구분하는 장면에서 저는 하나의 사랑 속에 범속함과 성스러움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담화를 전개해나갔습니다.</p> <p>Q : 그래도 플라톤이 성스러운 에로스와 범속한 에로스를 구분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p> <p>A ; 플라톤처럼 사랑을 분석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저는 인간의 감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프로이트의 의자'를 읽고 깨달았는데 인간을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Q : 자신이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자질이 있나요?</p> <p>A : 저는 '구성원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회장선거에서 낙선했던 적이 있는데, 그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너무 무서워보였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다소 딱딱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Q : 공동체의 리더로서 꼭 가져야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p> <p>A : '구성원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아는 리더가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읍사 조별과제를 하면서 일부러 예체능 학생들을 뽑아, 시에 노래를 붙이는 등의 다채로운 발표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은 '구성원에 대해 잘 이해하기'라고 생각했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서울대는 화장실가려면 조교랑 같이 가야해서 민망함. 입실시간 전에 무조건 한번 다녀오세요. ◆ 긴장하지 마세요! 모두들 상냥합니당 ;) ◆ 대답하다가 질문 까먹지 마세요 빠이팅 그리고 독서 꼭 잘 준비해가시공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인문광역]

대 학 / 학 과	서울대 인문광역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면접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플라톤의 이데아계에 대해 스스로 논증했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b></p> <p>A: 첫 가설은 만약 이데아계가 앞으로 개발될 기술까지 모두 완벽하게 실현된 세계라면 ~~하지만 이는 죽음을 빨리 맞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p> <p>두 번째 가설은 이데아계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말 근본적인 재료만 불변하며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개발된 TV,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p> <p><b>Q : 그렇다면 이데아계가 무엇입니까?</b></p> <p>A: 이데아계는 참된 존재인 이데아계를 모아놓은 것.</p> <p><b>Q : 플라톤에게는 천국입니까?</b></p> <p>A : 플라톤에게는 일종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p> <p><b>Q : 화씨451이 자신에게 준 영향</b></p> <p>A : 우선 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준 책이며 동시에 문학에 대해 가졌던 회의감을 해소시켜준 책.</p> <p><b>Q : 문학에 대해 회의?</b></p> <p>A : 암기식 공부 때문에 생긴 회의라고 생각. 선생님과의 상담. 파편적으로 읽는 것을 경계하게 되고 회의감을 해소했음.</p> <p><b>Q : Beneath the Wheel에서 수레바퀴의 뜻은?</b></p> <p>A : 주인공의 과거 시절 물가에서 놀면서 수레바퀴 아래서 놀았던 장면이 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수레바퀴는 주인공이 지향했으나 결국 놓친 유년시절을 상징하는 것 같다.</p> <p><b>Q : 한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삶을 대하는 유연성을 배웠는지?</b></p> <p>A :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서 정한 목표를 절대 굽히지 못하고 지나친 압박감에 시달리는데, 저는 목표를 확고하게 갖는 것은 좋지만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나치게 시달리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p> <p><b>Q : 그렇다면 자신은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겠다는 것입니까?</b></p> <p>A : 아... 그렇다면 수레바퀴가 의미하는 것이....(말 끝맺지 못함)</p> <p><b>Q : 남은 30초 동안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지 설명</b></p> <p>A : 물리적 폭력 때문에 원조 공급이 끊길 수 있으며 동시에 자국 내에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전혀 예상 못한 질문만 나옴.</p> <p>◆ 독서를 많이 물음.</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전 형 명	지역균형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 대기실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RLC 회로에서 임피던스란 무엇인가요?</p> <p>Q : RLC회로에서 고유진동수란 무엇을 뜻하나요?</p> <p>Q : 왜 고유진동수일 때 임피던스가 최소인가요?</p> <p>Q : 고유진동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p> <p>-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거 설명?</p> <p>Q : 그럼 라디오 돌리는 것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건가요?</p> <p>Q : 저항은 변화시키는가요?</p> <p>Q : 양력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는데 무엇을 했나요?</p> <p>Q : 친구들끼리 진행했나요?</p> <p>Q : 그럼 분명 의견이 맞지 않는 등의 역경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요?</p> <p>Q : 양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진짜 교수님 태도에 화가 날 수 있음. 무슨 과목을 들었다면 그것을 들은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함. EX) 로봇기술이란 과목을 들었으면 왜 많은 분야들 중 그 과목인지?</p> <p>◆ 억울한 것 있으면 입학본부 찾아가기</p> <p>◆ 꼬리 물기 질문에 미쳤으니, 정말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함</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 형 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접 순서 오면 면접실 밖에서 10분 간 대기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 분위기가 생각 이상으로 삭막했음. ◆ 답변을 잇는 꼬리질문들이 핵심을 꿰뚫는 느낌이며 당황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었음. ◆ 그렇지만 쫓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안녕하세요? (바로) 3학년 사회문화 세특에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b></p> <p>A : 자본주의의 모순에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들이 물질적 가치로 환원 됨에 따라 인간소외, 공동체 붕괴, 환경 파괴,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팽배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p> <p><b>Q : 그래요? 방금 환경 파괴라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환경 파괴는 자본주의만의 문제점으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 국가,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에도 알고 있겠지만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b></p> <p>A : 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인간이나 자연, 자원 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함...)</p> <p><b>Q : 아니... (답답) 내 말은 환경파괴를 신자유주의의 모순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생태사회주의도 환경파괴가 있잖아요?</b></p> <p>A : (당황)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30초 정적) 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사회 체제 내에서의 환경 파괴 문제는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의 특성상 환경 파괴의 파급력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종말’의 저자 엘바 알트파타가 말했듯이 연대형 공유경제, 생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해 석유, 일부 부존자원의 이용률을 낮출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 : (다른 교수님) 자, 아까 신자유주의를 언급했는데 본인만의 신자유주의 개념을 정의해 보세요.</b></p> <p>A :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케인즈학파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복지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교환과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마거릿 대처 등이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신자유주의 이론을 적용한 정치인들입니다.</p> <p><b>Q : 그럼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신이 붙었잖아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나요?</b></p> <p>A :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15초 정적) 자유주의는 오래전부터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권리를 강조해왔고 신자유주의도 자유주의와 명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을 구분하려면 아무래도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선 제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이를 보완하는 공부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p> <p><b>Q :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를 정의해보세요.</b></p> <p>A :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력을 통해 생산된 재화들을 판매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사실 3년간 공부해온 내용(법, 정치)이 아니라 경제 쪽 내용이라 기존 배경상식에 많이 의존했고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했음. ◆ 면접장에서 당황했더라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침착하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이 대학에 오고싶다.’라는 간절함이 면접 시 표정이나 답변 내용에 녹아있으면 좋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장 앞에서 30분간 제시문 파악 및 준비→15분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면접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인문학 제제-개인의 도덕성&사회의 도덕성 비교, 사회과학-사회 제도(해외원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실효성

■ [질문]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예술가상

A: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 채 대중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작품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 예시로 '고흐'를 들어 설명함.) 하지만 바람직한 예술가상은 사회와 소통하고 작품을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모습을 지닌 예술가라고 생각함. (여기서도 '플래시몹'과 같은 행위예술을 예로 들어 설명했음)

■ [추가질문] 사회 속 다른 영역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의의를 지닐 것인가

A: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기에 정치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м. 정치의 영역에선 특히나 정치가들 같은 경우 대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를 사회 정책에 잘 녹여내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정치의 영역에선 사회적인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함을 강조하였음.

■ [질문] 제시문 속에 나타난 정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A: 해외원조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소 단편적이고, 가시적인 수치에만 집중하여 나타난 문제점임을 밝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음.

■ [추가질문] 앞선 제시문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문제를 띤 사례를 들고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A: 자소서 및 생기부에 드러난 책 속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음.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국제원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실효성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시작함. 해결책 같은 경우 책속의 내용에서 좀 더 내 생각을 담아서 설명하였음.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선 특히 내 생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반대 입장 속 긍정적인 점들을 밝혀주는 것도 좋음
- ◆ 추가질문은 내가 답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
- ◆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
- ◆ 평소에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자신만의 생각을 메모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치의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치의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0분씩 4번[방마다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각 방마다 10분씩 시간 주고 총 4개의 방에서 질문, 답변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이름, 학교 말하면 바로 불합격처리 ◆ 서류 기반 + 상황 제시문 ◆ 면접 순서 기다릴 때 영화 틀어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한 조에 A, B, C 가 있음. 이 조를 포함한 여러 조들을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해야 함. 시간은 촉박한데 A는 최근에 다리를 다쳐 설문조사하기 힘든 상황. 이때 B가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문조사인원을 40명으로 줄이고자 함. 그러나 C는 다른 조들 전부 60명을 조사하기 때문에 60명 조사하는 것을 유지하자고 함. 이때 A는 침묵하고 있음.</div> <div>■ [질문] B, C중 나의 입장과 비슷한 사람을 들고 이유? A. C와 비슷함.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전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B는 A와 의견을 주고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40명 하자고 함. 이는 A에게 심리적으로 자책감(내가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되었다)을 줄 수 있음.</div> <div>■ [추가질문] 내가 C라면 B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A. 60명을 다 조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40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A 때문에 우리 조만 40명 조사하게 되면 A가 다른 조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잘 기억이 안나요)</div> <div>Q : 치과의사에게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 정서적 공감을 통해 환자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인지적 공감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div> <div>Q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더 좋은 것과 그 이유? A : 절대평가가 더 좋다고 생각. 상대평가는 어찌되었든 옆에 친구보다 뛰어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대평가는 아무래도 친구와 협동, 협력을 통해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div> <div>Q : 치과의사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합격률이 95퍼센트를 넘는다. 과연 이 시험이 변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A : 제가 치과의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와 치과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지 등의 요인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변별력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이 치료를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험이 치과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함.</div> <div>Q : 인간이 인간의 사회성으로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 사례 A : 태조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을 예시로 들었음. 역사적 사례 더 말해보라고 했지만 생각이 잘 안 났음.</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솔직하게 생각나는 거 말하면 됨 ◆ 생각 안 나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멘탈만 잡고 나오면 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통계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통계학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제시문 풀이(45분) → 면접(15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판서 불가, 자신이 종이 쓴 풀이를 바탕으로 설명(그림이 있고 풀이 종이를 보여줘야 하며 그림을 잘 그려야함) ◆ 면접관은 2명이었으며 1명은 친절하셨고, 1명은 차가운 인상이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가) 세포막, (나) 지구자기장, (다) 전자기파, (라) 반도체, (마) 지질연대측정 관련 지문</div> <div>■ [질문]</div> <div>1) '선택적 투과'라는 개념으로 (가), (나), (다), (라) 설명</div> <div>2) '1'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 현상</div> <div>3) '1'의 개념과 비교하며 (마) 설명</div> <div>■ [추가질문]</div> <div>없음</div>							
Q : 수학 성적이 제일 낮는데 수학과를 지원한 이유?							
A :							
Q : 우리가 시간을 준다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전 형 명	기회균형전형(농어촌)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 → 생기부 기반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생기부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설명해봐라?</b></p> <p>A : 아는 대로 설명함</p> <p><b>Q : 생기부를 보면 신약개발위주로 되어있는데 왜 화학생물공학과로 왔나? 의예과나 생명과학과도 있는데</b></p> <p>A : 의예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는 현재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과 신약 개발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를 지원하였다.</p> <p><b>Q : 화학생물공학과와 생명과학과와 의예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b></p> <p>A : 뭐라고 했는지 기억안남</p> <p><b>Q :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은 잘 알겠고 그 외에 흥미 있었던 과목은 무엇이냐?</b></p> <p>A : 물리가 흥미로웠다.</p> <p><b>Q : 화학생물공학과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잘하지 않을 텐데. 혹시 입학하고 난 뒤 복수전 공이나...?</b></p> <p>A :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서 나감)</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기부를 무조건 제일 꼼꼼히 준비해가기. 독서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꼭 준비해야 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건축공학전공]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질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장 앞으로 이동 후 15분대기 후 입장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실 대기 시 살짝 더울 수 있음 ◆ 교수님 한 분만 계속 질문을 하셨음 ◆ 교수님께서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해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시립대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b>							
A : 저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초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에서 대학교수님을 통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라는 비극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건축이라는 분야가 사람들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같이 슬픔과 비극을 주기도 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 관련 공부를 하며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은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 : 수학 성적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b>							
A : 2학년 때 수학 과목이 많아지며 다른 과목과의 적절한 시간 분배를 잘하지 못해 성적이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3학년 때는 시간 분배를 잘해서 성적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b>Q : 건축동아리에 참가했네요. 건축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 무엇이었나요?</b>							
A : 2학년 때 학교모형제작이 제일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던 작년 활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원들끼리 의논하여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고 보람도 큰 학교모형을 제작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학교축제에 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b>Q : 저희 시립대에는 다른 나라의 대학 학생들과 모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의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이 만약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조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b>							
A :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1학년 때 문제가 있던 프로그램을 2학년 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만약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치하지 않는 각 나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b>Q : 3학년 때 자연과학독서토론 반에서 ‘도시 재개발을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가?’로 토론을 하였는데 여기서 학생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b>							
A : 저는 도시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등 지역 별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등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준비해가서 잘 대답할 수 있었다. ◆ 다른 대학과의 면접과 비교해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 15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금방 간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건축학전공]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내외[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질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모든 질문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발췌되어 제시되었다. ◆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니었지만 간단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물어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제시문 2개의 문제) 정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b>							
A : (제시문이 등장해서 당황했으나 전반적으로 쉬웠음. 첫 번째 문제는 한국사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사회문화 문제였다.) 2번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b>Q : 1학년과 2학년 모두 학습플래너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b>							
A : 계획표를 작성한다는 자체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일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 학습이 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후에 건축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계획표를 작성했었습니다.							
<b>Q : 봉사활동 목록을 보니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하셨는데, 보통 쓰레기라고 하면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b>							
A : (원 질문인가 했으나 약간의 허구를 섞어 대답함.) 학급 환경을 개선하고자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주도적으로 나서 서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성실히 하여 선생님께 좋은 말씀을 듣거나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b>Q : 주요과목이 아닌 과목도 열심히 하셨는데 미술 수업에서 테셀레이션에 관한 수업을 하셨는데 어떤 수업 이었나요?</b>							
A : 테셀레이션이란 기초 도형을 규칙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문양을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교수님이 끄덕끄덕 하심.) 미 술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문양에 모티브를 얻어 문양을 창조하여 이를 조각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경험 이 건축 모형 프로젝트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더욱 열심히 학습했었습니다.							
<b>Q : 진로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을 한 권 고르라면?</b>							
A : 지오 폰티의 건축예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두 줄 정도 구술함)							
<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							
A : (조사하기 어려웠던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들을 나열하며) ... 우수한 교수 분들이 계시고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충분한 설계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두 면접관 분들이 면접 내내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지음)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전반적으로 면접관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분위기도 좋았으며 덩달아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한 것 같다. ◆ 후배에게는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을 준비할 때 다른 어떠한 것도 보지 말고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완벽히 숙 지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0분~15분[면접위원 0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입장 → 자기자리 찾아서 앉기 → 기다리기 → 불러나가서 면접 → 귀가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고른기회 면접이긴 한데 사실상 그냥 학종 면접이랑 동일한 듯 ◆ 교수님 친절한 듯 하나 상당히 날카로움 ◆ 나는 자소서 100% 질문이었는데, 당시 수만휘 반응 보니까 꼭 그렇지 만은 않았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서에 보면 현대 대규모 기업이나 기관의 경제 독점과 정보격차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적었는데,이거 좀 도발적인 주장 아닌가요? 허허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인데 근거는?</b></p> <p>A : 사회문화 수행평가를 통해 관심있는 논문을 탐구하였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통신, 언론, 미디어 산업의 90%이상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치중되어있습니다.</p> <p><b>Q : (꼬리질문) 그럼 본인 의견은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b></p> <p>A : 언론, 통신 기업도 결국은 자유 경쟁시장에 속해있기 때문에 완전평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p> <p><b>Q :좋아요, 본인 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읽었어요,정의란 무엇인가,사피엔스,세계화의 덫, 뭐 유명한 거 다 읽었네요. 허허. (이때 망했다 싶었음)세계화의 덫'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점 얘기해봐요!</b></p> <p>A : 세계화의 덫 내용 중 가장기억에 남는 내용은 환투기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p> <p><b>Q : (연결 질문)본인이 주장하는 정보격차와 경제 양극화의 상관관계(이게 내 핵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가 또 있나요?</b></p> <p>A : 사례를 통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아퀼라 프로젝트와 구글의 룬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오지에 인터넷을 제공합니다.</p> <p><b>Q : (꼬리 질문) 그런 기업들이 온전히 봉사적인 정신을 통해 그런 활동을 할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것같은데.</b></p> <p>A : 물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창출이나 빈곤지역 시장독점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p> <p><b>Q : (또 꼬리 질문) 방금 말한 독점문제도 심각할 것 같은데, 독점이 일어나면 본인 주장하는 양극화 완화랑은 정반대 아닌가?</b></p> <p>A :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회에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 : 요즘 무상 급식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본인은 학생들한테 무상급식 제도를 제공할 때 돈으로 밥값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급식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b></p> <p>A : 전 밥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인간은 매물비용과 같은 요인처럼 완전히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학생이라면 더할 것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제공하면 무상급식의 혜택의 본질이 무뎌질 것입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b></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잘한점: 꼼꼼히 준비하고, 주제 하나 정해서 관련 생각 많이함 ◆ 아쉬운점: 실수하나 없이 끝내서 인간미가 없었음 ◆ 당부: 확실히 본인 자소서 내용이나 그런 거 한번은 읽어보고 약간 '이건 좀 그런데?' 싶은 거 질문함. 화이팅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질 문 토 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지하에서 면접 봤는데 면접실 앞에서 대기할 때는 많이 추웠음. ◆ 의자랑 책상이 약간 높은 단상에 있었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앉는 자리에 계셨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 이때 자율주행 정밀지도랑 드론 얘기함.								
Q : 자율주행에 정밀지도가 왜 필요한지, 일반지도와 어떻게 다른지, 드론에 대해서도 질문								
A :								
Q : 진로가 IT분야면서 컴퓨터과학과나 전전컴 말고 공간정보공학과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A :								
Q : 공간정보의 의미?								
A :								
Q : 주변의 공간정보 예시를 들어보면?								
A : GPS, 네비게이션 얘기함.								
Q : GPS 원리에 대해 아는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음. 그래서 아는 만큼만 대답함)								
Q : 과학 뭐 선택했는지와 뭐 좋아했는지?								
Q : 수학 중에 뭐 좋아했는지?								
A : 확통이 실생활과 많은 연관이 있어서 더 흥미롭게 공부했다고 함.								
Q : 확통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보라고 하심. 그리고 다른 교수님이 로또지 뭐 이러셨음.								
그리고 로또 사봤냐고 해서 미성년자라서 못 산다고 했음.								
Q : 마지막 할 말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소서, 생기부 골고루 준비해야 할 듯								
◆ 질문은 대부분 꼬리 질문으로 계속 이어져서 질문하심.								
◆ 준비해간 질문이 아니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15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 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단체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휴대폰 제출 ◆ 대기실 + 고사장에서 자료 볼 수 있음. ◆ 15분 되면 밖에 있던 선배들이 들어와서 면접 바로 끊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 + 지원동기를 말해보라.</b></p> <p>A :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일하는 국제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p> <p><b>Q : 영서 성적이 3학년 1학기에 낮는데 우리 과에 오면 힘들 것이다.</b></p> <p>A : 대학에 와서 여러 활동을 통해 더 배워나가겠습니다.</p> <p><b>Q : 전공 관련 성적이 낮는데 왜 그런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b></p> <p>A : 등급은 낮지만 원점수는 다 높고 열심히 했지만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성적이 잘 못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p> <p><b>Q : 국제 정세가 힘의 논리가 있는가?</b></p> <p>A : 보이는 듯 아닌 듯 선진국이 이득이 되는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p> <p><b>Q :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b> / <b>개인이 할 수 있는가?</b></p> <p>A :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개인이 아닌 단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b></p> <p>A : ‘외교는 감동이다.’ 외교관의 자질에 대해 배웠고, 언어가 부족한데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입니다.</p> <p><b>Q : 어느 단체에서 일하고 싶나?</b> / <b>유니세프가 UN 아닌가?</b></p> <p>A : 유니세프나 UN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 유니세프는 작은 범위이고 UN은 큰 범위입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b></p> <p>A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여 지식과 소양을 쌓은 뒤 서울시립대학교를 빛내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각보다 전공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당황했음. 전공 관련 지식 충분히 검비하고 갈 것!							
◆ 책과 관련된 질문 많이 하심.							
◆ 긴장하면 말이 더 잘 안 나오니 긴장하지 말고 심호흡 하면서 긴장 풀 것!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도시공학- 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 전공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대기시간이 많으니 준비할 것 많이 가져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전공에 지원한 000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는데 자기소개 준비해가세요.)							
<b>Q : 성적은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인데 3학년 때 어떻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었나요?</b>							
A : 비교과과목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탐방을 통해 부동산이라는 것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보와 기술가정과목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답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b>Q : 모의유엔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청년실업 관련 해결방안을 찾았네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문제와 결합해서 혹시 설명해줄 수 있는지?</b>							
A : 모의유엔활동에서 만들어낸 결론은 공모전과 청년노동 지원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도 창업 공모전을 시행하여 지원금을 준다면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늘어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Q : 지역 혁신도시 탐방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도시를 계획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었는가?</b>							
A : 지역혁신도시 탐방활동을 했는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만이 이전하는 도시인줄 알았는데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져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채용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었는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지역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자족기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Q : 마지막으로 할 말해주세요?</b>							
A :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벽이 처음에는 안 좋은 의미인줄 알았는데 박제가의 백화보서에서 꽃을 그리는데 평생을 몰두했던 김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에게는 한 분야에 몰두하는 벽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도시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도 도시부동산과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는 1997년 도시과학대학을 설립할 만큼 도시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학교이고 그렇기에 고등학교1학년 때부터 서울시립대학교를 바라보며 공부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저의 꿈을 마음껏 펼쳐 서울과 시대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기소개 준비해가기!							
◆ 준비해간 질문이 아니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물리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
			★				
면 접 절 차	최초대기실 → 순번으로 해당 면접실에 2명씩 대기 → 면접실 → 면접 후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대기실 입실 시간이 11시에서 12시였지만 일찍 들여보내줌,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소지 금지, 소지 시 가방이나 겹옷에 넣고 밖에 진행요원에 맡기고 입실, 소강의실을 면접실로 하여 두 교수님들은 학생 석에 앉고 면접자는 강단 위의 의자에 착석, 뒤의 칠판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요구하실 수도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지원동기?</b></p> <p>A : 물리를 배우면서 물리의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세계를 표현 가능함에 재미를 느껴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지원하게 됨.</p> <p><b>Q : 서류를 보니 중력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면이 관심이 가는가?</b></p> <p>A : 중력파는 ~인데 시공간이 파도처럼 움직인다는 것에 관심이 생김, 중력파와 블랙홀의 실체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음. (상대성이론을 설명함)</p> <p><b>Q : 도함수를 설명하라. (뒤 칠판 사용)</b></p> <p>A : (물리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 물으니까 당황함, 횡설수설함)</p> <p><b>Q :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던데 자신의 컴퓨터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b></p> <p>A :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 파이선 가능 가이드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p> <p><b>Q : 마지막 할 말</b></p> <p>A : 열심히 공부해왔고 물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뽑혔으면 좋겠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저처럼 당황하지 마세요, 풀 수 있는 문제도 저처럼 실수 합니다.</p> <p>◆ 좌절하지 마세요, 너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서울시립대 생명과학-빅데이터 분석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생명과학-빅데이터 분석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고사장에서 대기 후 시간 되면 호명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안녕하세요. 앞에 놓인 유의사항 읽어주세요.</b></p> <p>A : (블라인드 면접이라 수험번호나 이름 등을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p> <p><b>Q : 3학년 때 성적향상이 1차를 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적을 올렸나요?</b></p> <p>A : 2학년 때 수학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며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의 연산이 물리에서의 힘의 합력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련 있는 두 과목을 묶어서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EO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바꾸게 되었고, 성적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p> <p><b>Q : 자기소개서 4번에 DNA의 반보존적 복제실험과정을 배우며 통계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실험과정과 통계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b></p> <p>A : DNA의 반보존적 복제의 실험적 증명과정은 스탈과 메셀슨에 의해 증명된 실험입니다. N15배지에서 배양한 대장균을 N14배지로 옮겨 배양하며 일정시간동안 세포로부터 추출한 DNA의 밀도변화를 분석하고, 관찰된 결과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며 반보존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에서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p> <p><b>Q : 그러면 DNA의 복제모델 중 반보존적 복제 말고는 어떤 복제모델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b></p> <p>A : DNA의 또 다른 복제모델에는 보존적 복제와 분산적 복제가 있습니다.</p> <p><b>Q : (교수님께서 놀라운 표정을 하시며) 그럼 그 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b></p> <p>A : 보존적 복제모델은 본래의 DNA 이중나선구조가 유지되며 복제되는 모델이고, 분산적 복제모델은 DNA 구조가 쪼개지며 복제되는 모델입니다.</p> <p><b>Q : DNA 모델에 대해 잘 배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DNA 손상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쓰여 있는데 DNA 손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싶나요?</b></p> <p>A : 저는 DNA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개발에 도움을 주는 생물정보분석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DNA 손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익힌 다음,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DNA 손상과 관련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p> <p><b>Q : 우리 학교는 인성도 중요하게 보는데, 학교생활 중 봉사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나요?</b></p> <p>A :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 일찍 등교하여 반을 청소하며 학급의 면학 분위기와 청결에 힘썼습니다.</p> <p><b>Q : 꿈에 대해 발표해서 상을 받았네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떠한 꿈을 꾸었기에 상까지 받게 되었나요?</b></p> <p>A : 저는 법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법과학 진로가 명확했습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며 법유전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향후 법유전학 분야로 나아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법과학 관련 진로로 나아가려는 친구들이 별로</p>							

없었고, 제 의견을 명확히 말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인가요?**

A : 포트폴리오 대회는 1년 동안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난 뒤 보고서와 소감문을 작성해 모아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대회입니다.

**Q : 그러면 여러 활동을 모아둔 거네요?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A : 저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활동한 계통수 작성에 대한 보고서와 창체 동아리에서 한 돼지 심장 해부실험 등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 계통수 작성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어요?**

A : 가상의 절지동물 감징어(Caminalcules)를 몸의 무늬와 팔의 유무, 눈의 유무 등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종이 분화되는 과정을 계통수로 작성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Q : HL활동이 뭔가요?**

A : H=HL은 사람도서관 활동으로 나아가고 싶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활동입니다. 저는 집단유전학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집단유전학의 연구의 시작과 활용분야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Q : 책을 많이 읽었네요. 그중에서도 우리학과와 관련된 통계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 통계학 책에서 실생활에 쓰이는 통계라는 내용을 주로 읽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통계가 많이 쓰이며 통계라는 학문이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통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A :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생물정보분석가가 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빅데이터 분석학과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익힌 다음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하는 기반을 다지며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이라 자신이 자소서에 쓴 내용들, 그리고 실험원리 등을 꼭 익히고 가져야 합니다!
- ◆ 15분이라고 겁먹지 말고 막상 면접 보면 시간 정말 빨리 가요! 교수님과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편안히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면접 보세요!
-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꼭 준비해가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철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철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제시문 7분, 생기부 기반 7분 [면접위원 총 4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제시문 5분 → 제시문 7분 면접 → 대기 → 학생부 기반 면접 7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오후 면접은 대기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 꽤 뒤 순서였는데도 금방 들어갔음. ◆ 압박 면접 전혀 아님! 엄청 방긋 방긋 웃어주시고 긴장 많이 풀어주시니 전혀 걱정 말 것. ◆ 대개 여자 한분, 남자 한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학생부기반 면접]							
Q : ‘고딩들, 논문을 읽다.’라는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이 있었고, 그 논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 보세요.							
A :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두 변인이 당연히 정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의 양상이기는 했으나 완전 정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논문에 적힌 것 말고 생각해보다가, 경험적으로 제 부모님의 관심도와 제 성취도가 어땠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짜임새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논문의 순서에 맞게 그에 따라 글을 쓰면서 구조적인 글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인문학 철인 3종 경기가 뭐예요?							
A : 산문, 영어글쓰기, 논술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수상하는 대회입니다.							
Q : 그 중에서 뭐가 인상 깊었어요?							
A ; 저는 영어에세이가 생각납니다. 교복을 입어도 되는지에 대한 주제였는데, 저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서 교복은 현재 본래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다양성을 감추시킨다는 점에서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Q : 나중에 철학과 나와서 뭐하고 싶어요?							
A : 저는 사회에 필요한 철학을 사회에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 진로가 3년 내내 계속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A : 고1때 배움에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열정을 불어넣고자 교육학자를 희망했는데, 문득 철학을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를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윤리교사를 희망했으나, 사고를 깨우는 대상을 학생이 아닌 대중으로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철학분야로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 수학223등이었는데 전교1등으로 끌어올린 끈기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에 윤동주가, 서강대에 봉준호가 있다면 서울시립대에는 000이 있다는 말이 꼭 대한민국에 퍼지게끔 하겠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질문 300개 정도 뽑았었는데, 부족했던 것 같음. 더 뽑아야 할 듯. ◆ 방긋방긋 웃으면 처음에는 진지한 표정의 심사위원분도 방긋방긋 해주심. ◆ 자기 전공이랑 상관없는 지문도 제발 꼼꼼하게 공부!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실 앞에서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생기부 면접 ◆ 올해부터 시립대는 제시문 면접이 아닌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 면접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앞에 글 읽으세요.</b></p> <p>A : (블라인드면접 유의사항)</p> <p><b>Q : 1분 동안 서울시립대에 왜 지원했는지, 화학공학과를 왜 희망했는지 말해보세요.</b></p> <p>A : (진로가 중간에 바뀌어서 바뀐 이유와 화공 지원한 이유 말함. 지금 생각해보니 과만 말하고 서울시립대에 왜 지원했는 지는 말 안함;;)</p> <p><b>Q : 화학을 많이 좋아하나봐요?</b></p> <p>A : 네! 엄청 좋아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좋아했습니다.</p> <p><b>Q :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하지요?</b></p> <p>A : (당황)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걸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 : 화2도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배웠나요?</b></p> <p>A : 아.... 다는 아니고 조금 배웠습니다. (앞부분 완전 살짝 배움.)</p> <p><b>Q : 화학 반응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때 원소린가 싶었음)</b></p> <p>A : 네?</p> <p><b>Q : 무슨 에너지 배웠을 텐데. 화학 평형 안 배웠나요?</b></p> <p>A : ??? 혹시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이 섞였을 때 온도가 평형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지요.</p> <p><b>Q : 아니 무슨 에너지라고 배웠을 텐데. 자유에너지 안 배웠습니까?</b></p> <p>A : ?????????</p> <p><b>Q : 안 배웠나보네요.</b></p> <p>A : 예.</p> <p><b>Q :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 실패했는데 열심히 해서 성공시켰다면가..</b></p> <p>A : 음펨바 효과 실험입니다. 중학생때부터 보통 책에 있는 실험 그대로 따라했..</p> <p><b>Q : (말끊고) 잠깐잠깐. 음펨바가 뭐지요?</b></p> <p>A : 아, 음펨바 효과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어는 현상입니다.</p> <p><b>Q :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b></p> <p>A : (준비해온 거 설명함) ~~~해서 입니다. 이게 현재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교수님들 이때까지만 해도 웃으셨음)</p> <p><b>Q : 그게 왜 가장 기억에 남지요?</b></p> <p>A :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설계한 실험이어서요. 원래는 책에 있는 그대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첨부 끝까지 스스로 설계한 실험은 처음이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p>							

**Q : 실패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A : 뜨거운물=팔팔 끓는 물, 차가운물=얼기 직전의 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패. 그래서 10도씩 온도를 다르게 해서 실험했더니 40도에서 성공.

**Q : 40도 물이 더 빨리 얼었다고요? 10도보다? (느껴진다. 망쳤다는 느낌이 남.)**

A : (이 부분 준비 안 해서 겁나 어버버댐) 실험 성공의 정의를 어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로 시작해~~ 설명을 잘 못함.

**Q :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네.**

A : 제가 설명 능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Q : 물이 어는 현상을 설명해보세요.**

A : 액체였던 물이 열을 방출하면 고체가 됩니다.

**Q : (약간 정적) 그렇지. 그럼 물이 얼 때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A : (정말 당당하게) 증가합니다.

**Q : (정적)**

나: 아 잠시 만요. (잠깐 생각하는 척)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Q : 그렇죠. 감소하죠. (물2때 엔트로피 안 배워서 막 질렀다가 교수님 눈치보고 다시 말바꾼것임. 저처럼 하지마세요..) 교과 외에 활동한 거 있습니까?**

A : 네. 텔로미어라고 염색체 끝의 부위인데 생명분야인...

**Q : 아니, 교과 외 활동을 이야기해 주세요.**

A : (이제야 이해하고) 아, 체육! 좋아합니다.

**Q : 체육? 무슨 운동 좋아하나요?**

A : 배구 엄청 좋아합니다.

**Q : 배구 선수인가요?**

A : 아뇨. 수행평가한 뒤로 엄청 좋아하게 돼서 스포츠클럽도 만들려다가 사람이 50명이 넘어가서 포기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했습니다. 아, 또 체육도우미하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Q : 엄청 건강하겠네요?**

A : 네!!! 엄청 건강합니다! (맨날 골골대서 시체라고 불렸음.)

**Q : 다른 활동은?**

A : 음. 흡연글쓰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Q : 흡연글쓰기가 뭐지요?**

A : (뭔가 이상함을 느낌) 아 금연글쓰기.. 흡연이 아니라 금연 글쓰기입니다.

**Q : 금연글쓰기가 뭐지..?**

A : 초등학교때부터 글쓰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이 말 왜 한건지 아직 이해가 안감) 시험기간 직전에 흡연예방글쓰기대회가 열려서 캐릭터랑 스토리 다 짜고 밤낮으로 글써서 상을 탔습니다.

**Q :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삼행시 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 하세요.
- ◆ 시립대는 전공 심화 질문을 많이 물어요. 공부 많이 해가세요.
- ◆ 깡이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 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실 → 바로퇴장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자기소개 2분 해보세요.</p> <p>A : -</p> <p>Q : 나무의 종류에는 시스형, ~형, ~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시오.</p> <p>A : 이에 대해 지금은 모르겠으나, 입학 후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음.</p> <p>Q : 식물 관련 실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굉장히 꼬리질문이 많았음)</p> <p>A : 나뭇잎 크로마토그래피</p> <p>Q : 마지막으로 꼭 우리 학과에 와야 하는 이유.</p> <p>A :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학과 관련 질문이 나옴, 당황하지 않고 모름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음.</p> <p>◆ 굉장히 꼬리질문이 많고, 꼼꼼히 물어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함.</p> <p>◆ 실험에 관련된 꼬리질문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정의와 절차, 기억에 남은 이유 등을 통해 정말 실험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의도 같음. 만약 본인이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적었던 실험, 또는 기억에 남은 실험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실험이 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한 재분석과 조사가 필요할 듯 함.</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여대 수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여대 수학과	전 형 명	바름 인재 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폰냄→대기→가번호 순서로 들어감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면접관(2), 나 면접, 블라인드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지원동기</p> <p>A : 준비제대로 못해서 답 못함.</p> <p>Q : 수학을 좋아하나요?</p> <p>Q : 범죄수학이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p> <p>Q : 자소서 3번에 봉사활동 적혀있는데 무슨 봉사 인가요?</p> <p>-주기적으로 갔나요?</p> <p>-같은 시설을 계속 갔나요?</p> <p>Q : 수학과 가장 연관된 과목은 뭐라고 생각하나요?</p> <p>A : 화학 - 각 화학 동아리 활동하면서~</p> <p>Q : 물리는 아닌가요?</p> <p>A : 물리도 맞다.</p> <p>Q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속도 가속도~</p> <p>Q : 속도 가속도는 수학 무슨 부분이랑 연관? - 미적</p> <p>Q : 수학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하는지 - 확통 - 그 이유는? - ~~~</p> <p>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생각보다 생기부 기반 X. 평소에 수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 및 흥미에 대해 이해해 놓아야 할 듯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여대 일어일문학과]

대 학 / 학 과	서울여대 일어일문학과	전 형 명	플러스전형				
면 접 시 간	10분 진행 (대기 2시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폰넬→대기→가번호 순서로 들어감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이름순으로 면접 진행합니다. ◆ 분위기 자체가 화목하고 대화하는 느낌 , 공감성의 반응 많이 보여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지원동기부터 말씀해주세요</b> A : 일본어는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고마운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화나 문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번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통해 일본문화를 배웠습니다.							
<b>Q : 일본에 대한 어떤 오해를 깨게 되었나요?</b> A : 할아버지께도 그리고 책에서도 일본인은 이중적이다 라는 말을 항상 봤었습니다.							
<b>Q : 자기소개서에 적은 부라쿠민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나요?</b> A : 개념과 암묵적인 차별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후 저는 부라쿠민이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b>Q : 성적이 상승곡선인데 오르게 된 사건이 있나요?</b> A : 저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하다가 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버렸었는데, 수업과 연계하는 교내 대회에서 수상하기 시작하고 이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b>Q : 1학년 때 읽은 일본문화답사기 어떤 내용을 읽었나요?</b> A : 아스카편을 읽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남은 불상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배웠고,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b>Q :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나 많이 배웠던 책은?</b> A : '가면속의 일본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도 진로희망에도 적었듯이 일본인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b>Q : 왜 서울여자대학교여야 하나요?</b> A : 수상경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 저는 공동체 속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함께 녹여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Q : 우리학교 커리큘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b>							
<b>Q :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b>							
<b>Q : 문화의 어떤 차이?</b>							
<b>Q : 마지막으로 할 말 해주세요.</b>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준비했던 것 다 말하고 옴(처음에 크게 인사) 목소리가 떨렸던 것이 좀 아쉽다 ◆ 안 물어볼법한 책도 다 준비 하는게 좋음 (유명한 책은 별로 질문하지 않음) ◆ 서울여대는 특히 학교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요구함 ◆ 서울여대여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준비하기 ◆ 모르는 질문 당황하지 말고 아는 것에 한해서 대답 무조건 하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울예대 광고창작전공]

대 학 / 학 과	서울예대 광고창작전공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5분 [면접위원 5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면접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30초 자기 PR 준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흥미 있게 공부했던 과목과 이유?</b></p> <p>A: 세계지리.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직접 경험하거나 시각적 요소를 통해 공부하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p> <p><b>Q : 방학 기간 중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b></p> <p>A: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p> <p><b>Q : 모로코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보시오.</b></p> <p>A: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지중해와 대서양이 닿아있는 나라 ~~</p> <p><b>Q : 그러면 세계지리를 잘하는 것과 광고를 잘하는 것은 무슨 상관있나요?</b></p> <p>A: 내가 세계지리에 대해 잘 알고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면 광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p> <p><b>Q : 그것 뿐 인가요?</b></p> <p>A: 또 광고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잘 알면 광고에 활용할 수 있고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p> <p><b>Q : 그러면 학교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b></p> <p>A : 가장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활동은 연극부활동이다.</p> <p><b>Q : 연극부에서 어떤 활동?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b></p> <p>A : 연극부에서 미술감독과 조명감독을 주로 맡고 연출일도 도와서 진행하였음. 나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p> <p><b>Q :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각해지는 상황.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b></p> <p>A :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작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제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진행해야함. 또 이런 의미를 까먹지 않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한다.</p> <p><b>Q: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b></p> <p>A: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곳곳을 여행하고 싶다. 또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해보고 싶다.</p> <p><b>Q: 30초 PR 준비했어요?</b></p> <p>A: 네.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기출 문제가 생각보다 나옴.</p> <p>◆ 잘하는 과목과 연관성을 질문.</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서원대 항공서비스학과]

대 학 / 학 과	서원대 항공서비스학과	전 형 명	학생부교과 창의면접전형				
면 접 시 간	5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수험번호 확인→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수험번호 순서대로 면접이 진행돼요. ◆ 예상 질문 안에서만 무조건 나와요 ◆ 대기실에서 떠들면 이름 적히니깐 조용 하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SNS홍보활동의 장점은?							
A : 요즘 학생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선배님들께 바로 물어볼 수 있다.							
Q : 존경하는 선생님의 성함과 이유?							
A :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될 만한 책도 빌려주시고 입시 기간 많이 응원 해주신 현재 담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Q : 학교 재학생이라면 학교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A : 학교에 궁금한 점이나 면접 준비과정 중 궁금했던 것 리스트 작성 - UCC로 만들기							
Q :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							
A : 홍보단 S-LINE, 학생회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예상 질문에서만 나온다고 공지까지 해주시니깐 예상 질문만 준비해서 가셔도 돼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손들고 하셔도 돼요. ◆ 교수님이 적극적인 학생 좋아해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선문대 환경생명화학공학과]

대 학 / 학 과	선문대 환경생명화학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5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 → 밖에서 대기 → 면접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2명에서 면접을 하는데 한분은 아무것도 안하고 보고만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일상생활 속에서 지원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한 경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p> <p>Q : 선문대학교에 지원한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말해보기 바랍니다.</p> <p>A :</p> <p>Q :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2분 중 한분만 질문을 하고 한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한다 함정질문도 안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의상 시선만 맞추고 한분만 생각하자.</p> <p>◆ 한분만 질문하니까 쫄지 말자.</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성균관대 수학교육학과]

대 학 / 학 과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전 형 명	학생부 종합(계열모집)전형				
면 접 시 간	7분~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 대기(3명 씩)→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휴대폰 전원 끄고 소지 가능 그러나 사용은 불가능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한 자료를 확인 가능, 특히 3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1,4,7,10,...번대에 애들은 그 전 번호 3명이 불러나갈 때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 60명 인원을 두 개의 조로 나눠 면접을 본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일까요?</b>							
A : 교사의 지식적인 측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의 해당과목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b>Q : 학창시절 내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b>							
A :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교육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b>Q : 꿈이 중학교 수학교사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아닌 중학교 수학교사인 이유?</b>							
A : 초등학교 때에 수학을 좋아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수포자가 되는 것을 보고 그 중간다리 역할인 중학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b>Q : 학창시절 내에 가장 인상 깊게 공부했던 것은?</b>							
A : 현수선입니다.							
<b>Q : 현수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말해주세요.</b>							
A : (내용 생략)							
<b>Q : 수포자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가?</b>							
A :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다							
<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							
A : (진짜 하고 싶은 말 하기)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시고 제 말에 충분히 귀 기울여주시는 느낌이 나서 면접할 당시에는 되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도록 하자.							
◆ 한글 프로그램 기준으로 한 질문 당 3-4줄 정도 준비를 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개의 질문은 5-6줄 정도로 준비를 하자(내용을 간결하게 핵심만 담을 수 있도록, 썰 풀듯이 하면 안 좋음). 들어갔다가 나오면 7-8분이 지나가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 만약 대기번호를 나중에 받았다면 한 1시간정도는 꿀잠 잘 수 있다. 하지만 자고 나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대 학 / 학 과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전 형 명	학과모집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수험번호 순(원서 접수 순)으로 30명씩 두 조로 나뉨. 조별로 30번까지 가번호 추첨 후 번호순으로 면접 보러 들어감. 면접관 두 명중 한명은 고정질문, 한명은 생기부 질문 물어봄.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대기실에서 자기 순서 될 때까지 준비한 자료 읽을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지원동기+자기소개</b></p> <p><b>Q : 다른 교사들과 달리 컴퓨터 교사만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질?(컴교 2조 고정질문/컴교1조&amp;나머지 사대 고정질문: 4차 산업혁명시대 AI 발달과 교육 관련 질문)</b></p> <p>A : (교사의 자질까지는 성대 사대 기출이어서 예상했는데 다른 교사들과 달리에서 막혀서 살짝 당황했지만 바로 답함.) 어, 미래에도, 현재에도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융합점을 명확하게 알고 학생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p> <p><b>Q : 옛날에 ~~언어들을 배웠다고 하는데(생기부 진로희망... 생기부 안에 깊은 내용이나 꼬리질문 할 것 많은데 하필 이거 물어서 생기부 안 읽으셨나보다 하고 느낌)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b></p> <p>A : 다른 언어들은 많이 잊었고, 지금으로서는 C와 파이썬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원하셨던 거 같은데 의도 파악을 늦게 함.)</p> <p><b>Q : C언어 컴파일러 어떤거 쓰는가?</b></p> <p>A : 비주얼 C++(Dev C++쓰는데 말 잘못해서 당황)을 이용합니다.</p> <p><b>Q : 컴퓨터 관련해서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해 본 것?</b></p> <p>A :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가해 보았습니다. 아, 교내에서 진행된 파이썬을 이용한 R&amp;E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더 많고 프로그래밍 해본것도 많은데 긴장해서 못 떠올림.)</p> <p><b>Q : 해킹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생기부 진로희망)</b></p> <p>A : 대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 k-mooc의 정보보호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때 버퍼오버플로우를 이용한 간단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p> <p><b>Q : 실습에서 어떤 운영체제를 이용했는가?</b></p> <p>A : (정말 간단한 거였고 리눅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게 보였는데 자소서에 쓰인 걸로는 그렇지도 않았고, 여기서도 자소서 안 읽으신 게 보여서 당황함. 그리고 너무 흥미롭다는 듯이 물어보심ㅠㅠ 윈도우에서... C를 이용해 간단한 코드를 짜서 하였습니다.</p> <p><b>Q : 아... 윈도우? 아, 윈도우라고 하니까 신기해서, 보통은 리눅스에서 하니까. (여기서 아차 했음. 자소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싶었고... 너무너무 아쉬워하셔서 2차 당황.)</b></p> <p>A : 배열로 일정 크기의 메모리를 선언해서 그 버퍼 용량을 초과하는 값을 입력해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는 실습을 하였습니다.(여기서 고정 질문하시던 분이 생기부 질문하시던 분께 끝났나요? 묻고 고정 질문하시던 분께 넘어감)</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라 들어가기 전에 긴장 심하게 해서 계속 떨었고 목소리도 상기됐고 떨렸음. 말도 많이 더듬고 진짜 원하는 대답을 못 드린 게 아쉬움...ㅠㅠ 긴장 안하는 게 제일 중요함.</p> <p>◆ 모의면접 볼 땐 내 앞에 책상이 없어서 그냥 무릎에 손을 댔었는데 면접 볼 때는 앞에 책상이 있어서 손을 어디 돌지 몰라서 그냥 무릎에 댔음... 어떻게 뒤야 더 좋아보일지 모르겠으니 그런 거도 고려해야 함!ㅠ</p> <p>◆ 긴장해서 표정도 굳음 웃는 거 잊어버려서 안에서 어떤 표정 지었는지도 기억안남. 그냥 다 포기했음 웃는 건 절대 잊지 말자.</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세명대 항공서비스학과]

대 학 / 학 과	세명대 항공서비스학과	전 형 명	면접*실기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5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전체 대기실→조별 대기실→면접 고사장 앞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거주지역 *출신학교 *이름 언급 시 불이익) ◆ 조별 대기실에서 예상 질문 6개 공지 후 생각할 시간 10분 제공(그 중 2개가 나눔) ◆ 슬리퍼 제공, 워킹 라인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신입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말해주세요.</b></p> <p>A :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저는 자신이 가진 목표를 생동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항공승무원을 목표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저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 : 경험 해 본 서비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b></p> <p>A : 얼마 전 버스를 탔었는데 기사님이 내리시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힘차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며 신경 쓰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져 ‘감사합니다.’하고 내렸습니다. 손님이 들던 들지 않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저도 서비스인으로서 배워할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p> <p><b>+종이에 있었던 나머지 질문</b></p> <p>1.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p> <p>2.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매너</p> <p>3. 책 내용 소개</p> <p>4.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5대 5 면접이다 보니 자신의 차례가 아니어도 교수님과 아이컨택이 가능하니 피하지 말고 미소 항상 유지 ◆ 면접 들어가기 전 질문을 공지해 주긴 하지만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준비해 가기 ◆ 이미지(어피 잔머리 깔끔하게, 가르마 방향), 목소리 톤*빠르기 신경 쓰기,완전히 나가기 전까지 바른 자세와 미소 유지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세종대 전자정보공학과]

대 학 / 학 과	세종대 전자정보공학과	전 형 명	지역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복도에 줄서다 대기실 입장 후 자리 배치 (타 학과와 같은 대기실) 한사람씩 면접장으로 이동 면접장에서 수험표, 신분증 확인함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조용히 각자 대기 ◆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해당 학과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 .							
Q : 물리주제탐구대회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어 금상을 수상했나요.							
Q : 플라즈마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A : 디스플레이, 공기청정기 등 원리 설명							
Q :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은 어땠는지?							
A : 글쓰기가 양자역학에 대해 감탄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함.							
Q : 의사에서 공학자로 진로변경 계기?							
Q :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A :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께 도움을 들이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함.							
Q : 구체적으로 어떤 도?							
A : 휠체어 분야 발전							
Q : 의료계와 관련해서 해당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연구?							
A : 혈당량측정 패치처럼 의료 밴드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함.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딱 종합전형에서 나올만한 질문들							
◆ 기본적인 도서, 봉사, 수상 질문하심 어려움은 없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세종대 컴퓨터공학과]

대 학 / 학 과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전 형 명	창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제시문 40분 동안 확인 후 9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 대기시간 길 ◆ 제시문 있음 ◆ 서류 면접 질문의 비중이 매우 낮음. 제시문 설명/질문 7분 서류 질문 2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제시문 설명해보세요.

## &lt;제시문&gt;

드론 회사가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고 현재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대안을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 + 고객의 만족도는 생산/수송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판매액을 줄이면 조금 올라간다.
- + 보기에는 회사의 현재 상품 생산/판매 전략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 상품은 총 3종류로 각 상품마다 2개 이상의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다. 각 공장에서의 상품의 생산 가격, 생산/수송 기간이 제시되었고, 상품마다의 판매 가격도 제시됨.
- +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생산을 어떤 공장에서 얼마만큼 할지를 정하는 “생산 전략”과 판매액을 얼마만큼 할지를 정하는 “판매전략”이 있다. 두 전략을 잘 써야함.

A. 먼저 이전 전략에서 회사의 판매 가격에서 생산가격을 뺀 순이익을 계산하고, 각 공장에서 상품 1대 생산의 순이익에 대해 계산함. 이후 순이익이 높으면서 기간이 짧은 공장에서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원리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 제안하고 그 수치로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 밝힘. 생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판매 전략은 부가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개함. 특히 판매 전략에서 나의 전략으로 인해 생긴 이전 회사의 전략으로 생긴 회사 이익에서의 추가 이익을 다 소비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내릴 수 있음을 제안함. 이 또한 계산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 ■ [추가질문] 기간을 줄이고 이익은 올렸네요.

A. 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대기한 시간에 비해 생각보다 면접 시간은 너무 짧았다.
- ◆ 제시문을 보고 발표를 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 ◆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 원래 정해진 답이 없는 제시문이니 최대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 면접관의 반응이 매우 심드렁하므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단순한 질문을 할 때(“잘 설명하시네요.”, “~~하네요.”)가 있는데, 그 때 조금씩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때를 그냥 “네”라고 넘긴 것이 아쉽다.
- ◆ 논리적으로 계산할 뿐만 아니라 수치를 직접 계산해서 보여준 것이 좋은 것 같다.
- ◆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단 그 수치로 나의 대안이 이익이 되는 정도를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 ◆ 발표시간이 짧으니 이전에 미리 기출문제를 보고 시간 제약에 맞추어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
- ◆ 면접관의 발음이나 목소리가 알아듣기 힘들다. 추가질문을 듣고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추가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한 채로 모르겠다고 했고 바로 서류질문으로 넘어갔다.

대 학 / 학 과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과	전 형 명	교과면접전형				
면 접 시 간	10~12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질 답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자기소개 1분이 필수임(올해부터 바뀌었음) ◆ 3명이 같이 면접을 봄. 대답도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먼저 함. 모든 대답은 시간제한 있음.(1분) ◆ 교과라서 생기부내용은 안 봄. 면접 위원들은 성적만 알고 계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 1분</b></p> <p>A :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가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학업과 전문지식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 지리를 공부하고 환경부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단순히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는 꿈을 수원대학교에서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p> <p><b>Q :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와 그 이유는?</b></p> <p>A : 도시공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함.</p> <p>사람들의 복지와 여가 시설에 집중하면서 사회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식으로 말함.</p> <p><b>Q : 학교 내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은?</b></p> <p>A : 학교 건물 앞에 식물 가꾸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토마토나 상추와 같은 식물들을 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등굣길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Q : 학과 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b></p> <p>A : 도시 재생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대답함. 그 이유로 요즘 경제 개발의 이유로 계속되는 환경파괴가 심각하다고 대답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3명의 친구들이 같이 면접을 봐서 친구들이 대답할 때 나의 대답을 준비할 시간이 있음. ◆ 기본질문이 나와도 절대 외운티나게 대답하지 마시길. 그리고 ◆ 제한 시간 1분을 잘 지킬 것. 1분 이내로 답을 못하면 답변하고 있는 중간에 그만하라고 함. 그렇게 되면 매우 당황에서 다음 답변 때 긴장을 하게 되서 해가 될 수 있음. ◆ 다른 사람이 답을 할 때 옆에서 미소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거렸음.(경청). 매우 중요함. 여러 명에서 면접 볼 때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것 중요함.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절대로 친구들 답변 귀에 안 들어옴 . 그냥 듣는 척 고개 끄덕거리면서 자기 답변 준비하기. 심사위원분들 눈 번갈아가면서 쳐다보고 눈 피하지 말기. ◆ 면접위원과의 거리가 되게 멀었음. 그래서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했고 답변할 시간이 짧지만 정말 차분히 또박또박 대답함. 제발 화장 연하게 했으면 좋겠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송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대 학 / 학 과	송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5분~10분[면접위원 0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전자기기 일절 제출 ◆ 대기시간 1시간 30분 내 ◆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 대기시간에 준비자료 열람 가능 ◆ 면접 고사장 앞에서 5-10분 대기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 : 지원 동기?

A :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해왔습니다. 고3 현재 저는 미디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에 맞는 학과를 찾아보다 글로벌 미디어학과의 미디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이 저와 잘 맞는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 생기부에 아두이노 코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였나요?

A :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진행한 로켓 발사 과제연구에서 낙하산 사출과 고도 측정을 위해서 고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코딩해 보았습니다.

## Q : 낙하산 사출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A : 가속도가 + 값일 때를 올라가는 것, - 값일 때를 내려오는 걸로 해서 - 로 바뀔 때 낙하산 사출을 하였습니다.(원래는 속도가 -값일 때)

## Q : 벽돌깨기 책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 우리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아시나요?

A : 아니요, 몰랐습니다(사실 알고 있음..)

## Q :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제가 원래 힘든 일을 겪어왔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자 인데 글로벌 미디어학부의 글로벌 역량과 포용력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인재와도 잘 맞는다 생각해서 이 학과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또 제가 기독교 신자라 그런 점도 저와 잘 맞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면접관(교수님)들 눈을 똑바로 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며, 말을 더듬지 않았다.
- ◆ 조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 ◆ 사실 교수님들께서 초반에 농담을 해주셔서 압박면접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음.
- ◆ 준비는 최대한 많이 해가는 것이 좋고,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정도는 외워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 대기시간 동안 집중이 거의 잘 되지 않아서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해가는 것이 좋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송실대 전기공학부]

대 학 / 학 과	송실대 전기공학부	전 형 명	SSU미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약 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3조로 나뉘서 동시에 진행하는 듯 대기시간이 길지 않음. 들어가서 바로 가번호 말함.						
면 접 특 징	◆ 공대 면접은 교과 관련 질문을 많이 함						
[유의사항]	◆ 수험표는 확인 안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간단하게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A :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지능로봇 연구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능로봇을 연구하기에 앞서 전기신호와 회로등 전기공학에 대한 학식을 다지고자 송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Q : $\sin x + \sqrt{3} \cos x$ 라는 함수가 있어요. $\sin x + \sqrt{3} \cos x$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 :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은 다음 그 값을 대입해서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말고 다른 건요?							
A : $\sin x$ , $\cos x$ 는 최대가 1 최소가 -1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함. 수학 선생님 말씀으로는 삼각함수의 합성임. 루트가 왜 나오는지 이제 알.)							
Q : 전기에서는 대전, 송전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류도 있고 직류도 있는데 송전에서는 교류와 직류 중 무엇인가요?							
A : 교류입니다.							
Q : 그런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Q : 보니까 플라스마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플라스마, 플라스마가 뭔가요?							
A : 플라스마란 기체에 고에너지를 가했을 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잇는 제 4의 물질상태라고 불리는 물질상태입니다.							
Q :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를 얇게 하는 데 쓰여요?							
A : 네.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는 유리관 사이에 가스 튜브 안에 네온, 아르곤과 같은 기체를 넣고 고열을 가해 기체를 플라스마 상태로 바꾸고 자외선을 통과시키면 가시광선으로 변해 컬러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 그래요.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인공지능에 대해 전기공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요? 공상 과학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A : 네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로봇, 스피커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사용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기공학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Q : 공간상에 두 평면이 있어요. 3차원에 두 평면이 있는데 두 평면 사이의 각을 어떻게 쉽게 구할까요?							
A : 평면의 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주 직선 사이의 이면각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 그래서 그 각을 어떻게 구하죠?							
A : 두 평면의 법선벡터를 이용하여 $\cos$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있으면 하고 마무리할까요?							
A : 우선 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능로봇을 이해하기에 앞서 전기공학을 이해하기 위해 송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교내대회를 통해 길러온 탐구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춘 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송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입학한다면 참된 인성과 지력을 갖춘 미래형, 한국 미래기술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학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전체적으로 온화한 분위기.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고 경청해주심. 질문의 난이도는 평이하나 교과 질문이 많음.							
◆ 긴장을 많이 해서 서술어 같은 걸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게 아쉬움.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신한대 국제어학과]

대 학 / 학 과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3~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5명씩 대기 후 1명씩 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기본소양에서 1질문+인성평가에서 1질문+추가질문 할 수도 있음 ◆ 짧은 대기시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최근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가 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b></p> <p>A :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너무 급격히 올라서 그만큼 일자리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래서 아직 전면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p> <p><b>Q : 본인 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b></p> <p>A : 저는 정리정돈을 못해서 방이 지저분한 편이다. 하지만, 내 방이기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다 기억할 수 있다.</p> <p><b>Q :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b></p> <p>A : 어렸을 때부터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서 성우를 공부했었다. 하지만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한 가지의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껴서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응용력이 좋은 국제어학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싶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질문에 답을 침착하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1번째 질문에선 1가지를 답하지 못했고, 2번째 질문엔 당황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 3번째 질문은 예상했었는데 잘 말하지 못했다. ◆ ‘침착하고 자신 있게’ 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점 인 것 같다. ◆ 평소에 시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좀 더 유연하게 면접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신한대 유아교육과]

대 학 / 학 과	신한대 유아교육과	전 형 명	사회기여자전형				
면 접 시 간	5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교수님 질문 후 하고 싶은 말하기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학교이름, 자신 이름도 공개X)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Q :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div> <div>A :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편견만 가지고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듣지도 않는다면 극복할 방법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시대나 상황 등을 기억하며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대 차이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div> <div>Q : 대학 입학 후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은?</div> <div>A : 먼저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고 토익이나 토플에 고득점을 따서 나중에 해외에서도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고 싶다.</div> <div>Q : 더 하고 싶은 말은?</div> <div>A : 제가 수많은 유아교육과 중 굳이 신한대를 오고 싶은 이유는 지방 대학들에 비해 기독교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지방 대학들은 특별새벽기도회나 채플에서 학생들이 없고 다들 피하는 눈치이지만 신한대와 같이 서울권 대학들은 그렇지 않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싶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첫 면접이라서 긴장을 진짜 많이 하고 왼쪽에 앉으셨던 교수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긴장했던 탓인지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읽고 들어갔었어야 했는가 보다.</div> <div>◆ 말투, 억양 등에 신경 쓰지 말고 똑 부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빨리 말해도 급해 보이니까 적당하게 끊기지 않도록 말하기!</div> <div>◆ 학교 교육이념에서 종교적인 단어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면접할 때 사용하면 좋아한다.</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아주대 건설시스템학과]

대 학 / 학 과		아주대 건설시스템학과	전 형 명	ACE 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2명/지원자 1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직전 문 앞 → 면접고사장 → 퇴실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면접 시간 정시에 학생 대기실로 입실 가능 ◆ 면접 순서 정해져있음 (선착순이 아님) ◆ 휴대폰 제출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수험표 검사 ◆ 면접 끝나면 먼저 귀가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아주대학교의 건설시스템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b></p> <p>A : 기계공학과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움직이는 기계공학보다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학문인 건설시스템공학과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 :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b></p> <p>A : 독도와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한다면 독도와 울릉도에 가는 경비나 시간적 측면에서 장점을 주고 관광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적자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p> <p><b>Q : 그래서 학생은 공항을 건설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b></p> <p>A :저는 건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독도와 울릉도를 관광해본 사람들이 적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 : 합격한다면 입학 후 들어와서 어떤 것을 연구해보고 싶나요?</b></p> <p>A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거제도에 있는 거가대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구조물을 건설하여 자동차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해저도시를 건설해보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해저도시의 입지조건을 생각해봤었습니다. 우선 인간이 누려야할 일조량을 위해 수심이 200미터 내외인 대륙붕에 건설해야한다고 생각했고 바닷물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에도 부식이나 파손되지 않는 금속재질을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부식되지 않도록 길이 코팅된 티타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있으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조류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이 과에 들어간다면 이것 말고도 건설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고 싶습니다.</p> <p><b>Q :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은?</b></p> <p>A :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가 가장 인상 깊은 책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가용에너지 범위를 넘어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질서를 만들어야한다.”가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인데 여기서 질서는 과학기술발전을 말하고 무질서는 환경오염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이 과에 들어와서 연구를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환경오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p>A : 지방에서 올라와서 낯설고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저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드셨거나 틀린 답변이 있었다면 제가 이 과에 들어와서 교수님들께 모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저는 면접 준비를 엄청 오래해서 대답을 하다보면 준비를 많이 해온 티가 나는데 면접관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고 칭찬해주셨어요.</p> <p>◆ 저는 답변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길게 한 편이었지만 면접관들께서 끝까지 집중해주셨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부 하고 나오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면접 볼 수 있는 것 같아요.</p> <p>◆ 말을 할 때 면접관들 눈을 꼭 쳐다보세요. 떨려서 못 보겠으면 넥타이를 쳐다봐도 돼요.</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아주대 건축학과]

대 학 / 학 과		아주대 건축학과	전 형 명	농어촌 특별 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 내외[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 → 자소서 기반 질문 → 생기부 기반 질문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div>◆ 본인 신원(수험번호, 성명, 출신학교 등) 언급 금지</div> <div>◆ 교복 착용 불가</div> <div>◆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음</div>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Q : 4차 산업 혁명이 무엇인가?</div> <div>A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더 편한 삶속에서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div> <div>Q : 양자 컴퓨터의 원리는?</div> <div>A : 기존의 컴퓨터가 이진수들의 반복적 연산으로 정보를 처리했다면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상태가 중첩된 큐비트를 처리하여 속도가 더 빠른 컴퓨터입니다.</div> <div>Q : 도서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개념 100'어떤 내용을 읽었는가? 그것이 사용된 수학적 개념을 말해보라.</div> <div>A : 논리 게이트에 관한 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div> <div>Q : 평행판 축전기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오.(물리II를 확인하는 듯)</div> <div>A : Q=CV식을 토대로 도체 평행판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직렬로 전압과 연결되면 역할을 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는 법에 대한 추가 설명..</div> <div>Q : 키르히호프 법칙이 무엇인가요?</div> <div>A :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후 추가로 설명해주심)</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div>◆ 2분 자유 스피치가 사라져서 학생부 기반 면접의 비중이 늘어난 듯하다.</div> <div>◆ 자소서는 교수님이 아닌 듯 한 면접관님, 생기부는 교수님이 질문하셨다.</div> <div>◆ 자소서, 생기부 모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나 활동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준비할 것!!</div>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아주대 경제학과]

대 학 / 학 과	아주대 경제학과	전 형 명	ACE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 귀가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휴대폰 제출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음 ◆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경제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b></p> <p>A : 3년간 봉사를 해오며 소득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삶에 기여하고 싶었음.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정책전문가를 꿈꾸게 되어 경제학과를 지원하게 됨. 고교 시절 지니계수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에 보완점을 느꼈는데, 소득양극화를 잘 나타내는 지표를 아주대학교에서 함께 고안해보고 싶다.</p> <p><b>Q :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가, 몇 명에서 봉사활동을 했는가? 그 복지관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루에 몇 명의 노인들이 오는가?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다 물음)</b></p> <p><b>Q : 생기부에 미국 경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지표였으며 어떤 내용?</b></p> <p>A : 미국의 물가상승률 그래프를 분석하고 이를 발표했다. 미국의 물가상승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임금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이 반영되어 있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게 된다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p> <p><b>Q : 자기소개서에 체육활동 부장을 맡았다는데 간부로써 어떤 역할?</b></p> <p>A :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 팀원 한명 한명에게 찾아가 진심어린 태도를 보임. 공통된 불만 사항이 학업에 지장을 준 연습시간이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개편해 단합을 이끌어냄. 리더는 팀원이 처한 상황을 주시하고 그들이 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소서와 생기부에 적힌 내용의 진위 여부를 매우 꼼꼼히 확인함. ◆ 자소서와 생기부 꼼꼼히 파악해서 가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아주대 미디어학과]

대 학 / 학 과	아주대 미디어학과	전 형 명	학생부 종합 - ACE 전형				
면 접 시 간	10분~12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본인확인 → 가번호 수령 → 대기실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휴대폰 전원 끄고 가방에 넣기 (대기실도 휴대폰 사용 불가능) ◆ 대기실 + 면접 직전까지 자료 볼 수 있습니다. ◆ 서류기반 면접이지만 돌발 질문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 해볼까요?</b></p> <p>A : 준비한 내용 말했습니다.</p> <p><b>Q : 2학년 때 진로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이유였나요?</b></p> <p>A :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적성과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p> <p><b>Q : ICT활용 창의성 경진대회에서 자신이 한 역할은?</b></p> <p>A : 저의 역할을 말하고 대회 중 있었던 일화를 제시하며 깨달은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p> <p>(단, 일화는 너무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음)</p> <p><b>Q : 좋아하는 그래픽 작품이나 디자이너는?</b></p> <p>A : 저는 000디자이너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에서 본 인상 깊은 프로젝트와 느낀 점)</p> <p><b>Q :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b></p> <p>A : 저는 ~한 것과 ~것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 + 느낀 점)</p> <p><b>Q : 학과 특성 상 조별과제가 많은데 자신이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지?</b></p> <p>A : 리더십 관련 활동을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p> <p><b>Q :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b></p> <p>A : &lt;한 곳 차이 디자인 법칙&gt;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 (책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로 적용해본 사례제시)</p> <p><b>Q :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은?</b></p> <p>A : 알고 있는 점 이야기 했습니다.</p> <p><b>Q :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가 학생을 뽑아야하는 이유는?</b></p> <p>A : 저의 장점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p>A : 준비한 내용 말했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에 대한 간절함 꼭 보여주기							
◆ 말하기 연습 많이 하기 (발음, 목소리크기, 시선처리 등)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대 학 / 학 과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전 형 명	ACE전형				
면 접 시 간	15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면접실 대기 → 대기실 앞에서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시간보다 먼저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국민과 시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b></p> <p>A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고, 시민은 국민이 주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p> <p><b>Q : 난민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다만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사회적 혼란이 있지 않을까?</b></p> <p>A : 유럽 역시 단기간에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점진적으로 다문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있을 것 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쇼팽 역시 난민이었지만 인류에 길이 남는 업적을 세웠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난민도 그럴 수도 있다.(이탈리아 반난민 정서완화를 위한 캠페인 인용)</p> <p><b>Q : 생기부에 ‘책임감이 많다’라는 구절이 다수 있다. 네가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를 들어 달라.</b></p> <p>A : 인성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함</p> <p><b>Q : 국제기구 종사자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다. 국제기구 종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b></p> <p>A : 첫째, 석사이상의 전문지식. 둘째,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어야 한다. 셋째, 국제 경험. 국제기구는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민족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이후 자세한 설명을 곁들임.)</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학생부 꼼꼼히 읽고 자소서를 잘 표현하도록 연습.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p> <p>◆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좀 심화된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p> <p>◆ 면접 전에 ‘나는 이미 여기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수님 얼굴 보러 간다는 이정도로만 생각하고 긴장은 풀고 갈 것.</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간호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 간호학과	전 형 명	한마음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다른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 면접 후 대기실 대기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 사항]	◆ 오전 면접반이라 8시 30분까지 입실이었는데 12시 30분 일괄퇴실이었음. ◆ 전자기기 제출 ◆ 모두 공통질문이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현대사회에서 경쟁의 역할과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b></p> <p>A :</p> <p><b>Q :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 내에 경쟁을 겪었던 경험과 그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극복방법은?</b></p> <p>A :</p> <p><b>Q : 간호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이유는?</b></p> <p>A :</p> <p><b>Q :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간호학과도 많이 변해있을텐데 어떤식으로 변해있을 것 같은지?</b></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정말 면접 일주일 전부터 생기부 자소서 분석하고 예상 질문도 엄청 뽑아서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도 안 나왔음.</p> <p>◆ 분명히 작년까진 정말 생기부 관련 질문이었는데 이번엔 모두 공통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라 많이 당황했고 횡설수설한 것 같음. 심지어 내 생기부랑 자소서는 갖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았음. 생각보다 면접 고사장이 굉장히 작고 면접관님들과의 거리가 가까움. 면접관님들 굉장히 친절하셨지만 질문들은 친절하지 않았음..^^ 연대 면접 같은 경우는 매년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함. 공통질문이나 시사질문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할 것 같다. 마음의 준비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막상 면접 보면 예상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큼.</p> <p>◆ 오전 면접반 중에서도 면접을 빨리 본 편이었기 때문에 퇴실 시간까지 엄청 많이 남았었음. 면접 보고 나와서 멘탈 터진 상태에서 대기실에서 3시간을 휴대폰도 없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음. 책이나 공부할 거 챙겨가는 것도 좋지 만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대기하던 사람들끼리 다 친해져서 같이 얘기하고 논다. 그러니까 시간 엄청 빨리 갔음.</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경영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 경영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 기 반	단 문 토 론	제 시 문 기 반
					★
면 접 절 차	제시문 기반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면접을 위주로 하고, 생기부 질문 거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div>▣ [지문] 기부금 결정 시간 측정.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 금액을 알 수 있음. 결정시간 10초 이내 (빠른 판단 집단)일 때 기부금이 증가하는 그래프임. 결정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는 기부금 감소. (가) (나) (다) 지문이 있었는데 (다)가 잘 기억나지 않음.</div><div>▣ [질문] 그래프를 설명하시오. / (다) 실험을 기반으로 (가) (나)를 설명하시오. (답변 잘 기억나지 않아요..)</div></div>					
Q : 꿈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요?					
A : 노무사, 조직행동이론, 노사관계론 공부하고 싶다.					
Q : 연세대와서 꼭 하고 싶은 활동?					
A : 경영 법 동아리 하고 싶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연세대 면접형 보단 제시문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할 만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교육학부]

대 학 / 학 과	연세대 교육학부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면 접 절 차	대기 → 제시문 숙지실로 이동 → 제시문 숙지(8분) → 면접실로 이동 → 면접(8분) → 대기하다가 일괄퇴장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8분 안에 제시문 읽고 답변을 생각하고 연습지에 메모 ◆ 면접실에서 제시문, 연습지 보면서 말할 수 있음 ◆ 제시문 기반이지만 지원동기, 마지막 한마디 등을 질문하기도 함.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제시문 (가) : 타인의 감정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내용

제시문 (나) : 4명의 참여자가 각자 2만원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부하는 실험. 모인 기부금은 두 배가 되어 참여자 전체에게 1/4씩 돌아오는데, 기부를 하지 않고 공동체기부금을 받기만 할 수도 있음.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의 기부금을 알고 있을 때, 다른 참여자들의 평균 기부금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기부금도 높아졌다.

제시문 (다) :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의 기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함. 10초 안에 기부금을 결정해야 했던 '빠른선택집단',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해야 했던 '느린선택집단', 아무 제약이 없었던 '비교집단'이 있음. 빠른선택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 기부금이 높았고, 느린선택집단은 낮았음.

## ■ [질문]

1. 제시문 (가)의 입장과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시오
2.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입장과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평가하시오

## Q : 1번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A : 제시문 (가)에서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른 참여자들의 평균 기부금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기부금도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참여자들이 낮은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높은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참여자의 선택이 영향을 받아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방향의 선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가 '인간은 타인에게 동조하고 공감하는 본성이 있다'는 제시문 (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 Q : 2번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A : 먼저 제시문 (다)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빠른선택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을 기부했고, 느린선택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금액을 기부했다. 이 실험에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의 선택을 알지는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본성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빠른선택집단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므로 본능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느린선택집단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성이 개입해 비교적 낮은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제시문 (가)를 평가해 보자면, 타인에게 동조하고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느린선택집단과 같이 이성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 본성은 흐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평가해 보자면,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 안남.)

## Q : 마지막 한마디

A : 자기소개서에 썼던 지원동기 정리해서 말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시문과 그래프를 빠르게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언더우드학부(공학)]

대 학 / 학 과	연세대 언더우드학부(공학)	전 형 명	언더우드 국제계열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10분 간격으로 면접 보러감. 대기실에서 문제집이나 책을 볼 수 있음. 대부분 시사문제를 읽거나 수학문제를 풀. 대기번호가 불리면 복도에서 신원 확인함. 조별로 승강기 타고 올라감. 올라가면 조금 대기함. 20분 동안 문제 풀고 10분 동안 면접봄. 오전 면접이여서 오후 조가 다 들어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p>◆ 수학 2문제랑 자기 생각을 말하는 문제 1문제. 생기부나 자기소개서 기반 문제는 안하심.</p> <p>모두 영어로 제시되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 함. 한국인 교수님 1분과 외국인 교수님 1분 앞에서 문제 설명. 시간이 남으면 추가질문 들어옴.</p> <p>◆ 단단한 종이를 주시는데 종이에 간략하게 풀이를 적고 적은 풀이를 바탕으로 면접함. 풀이 적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p>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등비급수의 합과 관련된 수학문제 나옴. 숫자 주어지고 이 숫자가 한 집단의 수열의 등비급수의 합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 3번째 문제는 과학의 진보의 정도랑 예시를 제시하는 문제.

■ [추가질문] 시간이 남아서 추가 질문으로 생명과학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더 답변해보라고 하심

**Q : The reasonable man adapt himself to the world. The unreasonable one persist in trying to abdapt the world to himself. Therefore all progress depend on the unreasonable man**

A : 합리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고 탐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함. 이로써 과학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를 탐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으로써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예시로 물리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말함. 아인슈타인 이전까지 사람들은 뉴턴의 기존 생각, 시공간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었지만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상대성이론으로 어떤 곳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어떤 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함. 따라서 비합리적인 사람의 시도로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다고 함.

**Q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말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들 수 있는 예시 없나요?**

A : 조금 생각하다가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세포에 대한 지식이 바뀐 점이 있다고 답변.

**Q : 어떻게 현미경이 발달해서 세포에 대한 지식이 바뀌죠?**

A : 현미경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세포에 분화하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 사람이 자라서 아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이 발달하고 세부적인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는 핵이나 리보솜과 같은 소기관이 있고 이들이 분열하며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Q: 생명과학과 관련된 또 다른 예시 없나요?**

(조금 고민하니까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심)

A : 유전학적으로 이전까지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로부터 형질이 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진보하고 사람들은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전자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더 설명해 볼래요?**

A : 제가 후성 유전학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는데 유전자가 발현될 때 메틸기가 붙어서 발현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수학용어를 영어로 정리하고 가면 매우 유리함.

◆ 20분만 지문숙지시간이 주어지는데 5분전, 1분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데 10분전에도 알려달라고 한 점은 잘한 것 같음.

◆ 시간이 남아서 할 말을 다 적어서 갔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더 집중해서 문제에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대학/학과			연세대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전 형 명		국제인재전형 (오전반 면접)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통	제시 문 기 반	질 문 토 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면접 준비실에서 제시문 익히고 답변을 약 12분 정도 준비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시문 면접 ( 영어 지문 , 영어로 답변 )</li><li>◆ 전공과 교수님들이 두 명 들어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교수님 한 분과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li><li>◆ 방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교수님 한분께서는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시고 제시문에 적합한 조금 전문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 교수님께서 놀라시며 종이에 답변을 적으셨습니다.</li><li>◆ 영어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력과 사례 적합성 같습니다! 면접학원에서나 합격해서 과에 진학하는 선배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지금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을 글로 쓸 수 있는 만큼의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li><li>◆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li><li>◆ UIC 전형은 생기부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년도 역시 없었다고 하지만, 합격한 선배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한 번씩은 굵직한 질문 ( 진로 / 동아리 ) 을 했다고 합니다.</li></ul>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대답을 10분가량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다 활용해서 추가질문이 없었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답변을 일찍 끝내는 경우에는 답변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li><li>◆ 오전반 면접이 되면 다 끝나도 오전반 모든 친구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면접 끝나고 난 2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공허하게 앉아있는 것 보다는 독서할 책이나 수능 공부할 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li><li>◆ 제시문이 기억은 안 나지만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지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사상 같은 과목들은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영어로 모든 개념을 말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살다왔지만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였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때 본래의 영어실력과 어휘력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li><li>◆ 고려대와는 다르게 면접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처음에 잘 잡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고 문제에서 제세하는 상황과 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li><li>◆ 앞 친구가 면접을 끝낼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2-3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좋은 사례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ul>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대 학 / 학 과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전 형 명	한마음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1차 대기실에서 편하게 대기하다가 다른 층으로 이동한 후 다른 대기실에서 대기함. 이후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대기하다 면접고사실로 입장함.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작년에는 서류기반질문으로 긴장할 만한 질문이 없었으나 올해는 공통질문으로 질문수준이 높아짐. ◆ 면접이 40%로 면접비중이 어느 정도 높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현대사회에서 경쟁이란 무엇이고, 경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b> A : 경쟁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여서 그 능력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역시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b>Q : 그렇다면 경쟁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b> A : (본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해서 당황하였음)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시험기간만 되면 친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시험 관련 자료를 서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b>Q :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죠?</b> A : 친구들과 모여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 <b>Q : 그러니까 그 집단지성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거죠? (표정 안 좋아지심)</b> A : 친구들과 모여서 자료를 공유하고, 자신이 가진 자료를 설명해주면서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은 더 강화할 수 있었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서로 더 큰 이득을 끌어오는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였습니다. <b>Q : 그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뀐 모습이나?</b> A : 저는 본래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경쟁을 치루고, 그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끌어오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b>Q : 본인은 언론영상학이라는 분야가 10년 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나요?</b> A :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다원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언론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b>Q : 그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본인이 무얼 할 수 있죠?</b> A : (준비 안 된 질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예로 들면, 음..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노동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하고, 또 콘텐츠 기획자가 된다면 이런 분들의 단순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콘텐츠로서 사회의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하니까 계속 가우뚱한 표정이셨음)구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액세서리나 팔찌를 만드시면 저는 그런 과정이나 장애인분의 이야기를 카드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찌와 함께 보내고, 그분들의 일상 콘텐츠를 공식 sns에 올림으로써 사회전체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 고덕고덕)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공통질문이었으며, 쉬운 질문이었는데도 당황하니까 형식수설하게 되었음. 당황해도 자신이 준비한 걸 믿고 제대로 말하는 게 중요함. ◆ 무슨 답을 하든지 경험이나 사례가 따라와야 함. 구체적으로 말 안하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함. ◆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과와 무관한 가치관, 철학 질문을 하니까 평소에 책 많이 읽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세워두는 게 중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전 형 명	면접전형				
면 접 시 간	제시문: 7분 [면접위원 2명] 활동기반: 7~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면 접 절 차	최초 대기실(출석,폰 수거)→제시문 숙지실(5분)→제시문 답변실(7분)→2차 대기실(각 조원이 모이는 대로 이동) →활동기반 면접실→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타이머가 있어 시간을 엄격히 지킴. ◆ 제시문 숙지 시간 짧아짐 (제시문 자체는 면접실에서도 제공)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 A. T호르몬에 대한 관념과 실제 T호르몬 주입이 인간의 이타심/이기심에 미치는 영향  
 각 경우별로 나눠, 실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 중 타인에게 나눠줄 비율 선정  
 if) 상대방이 수용 => 비율대로 나눠가짐  
 if) 상대방이 거절 => 두 명 모두 받는 것 없음

	T호르몬 주입 믿음	위약 주입 믿음
T호르몬 실제 주입	32%	22%
위약 실제 주입	43%	32%

(수치는 정확X)

->T호르몬과 T호르몬에 대한 믿음이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에 대해 설명.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은 호르몬 등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 ■ [추가질문] : 받지 않음 (시간이 남음-&gt;보충할 부분 찾으라고 함)

## Q : '나쁜 사마리아인' 도서 내용, 자신의 입장은?

A : '제가 기억하기로는~~'으로 시작.

선진국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가는 이미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개발 중인 국가들은 똑같이 하지 못하게 함. (ex. 미국, 우리나라 등) 일종의 '사다리차기' 방식이라고 말함.

## Q : 실제 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

A : 사실 1학년 때 모의유엔 때도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의 대두와 관련된 의제를 다뤘음. 그때 느낀 점은, 아무리 모의유엔 같은 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내려도 그것은 권고 혹은 권유에 머물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함.

## Q : 디베이트 동아리 주제 중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토론을 위해 어떻게 준비, 어떤 입장들이 있나?

A : 주로 뉴스를 통해 자료를 찾음. 그 결과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 바로 미세먼지가 '중국만의 책임이다.'와 '우리나라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입장임.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동 연구'가 소홀하기 때문에 아직 원인 정하지 못함.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Q : '생명윤리의 철학' 도서 내용 물음?

A : 미래에 대비해 낙태 등 다양한 생명 문제 다룸. 특히 이성이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음.

##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지?

A :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글로벌한 인재상에 걸맞다고 생각하며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독서 활동을 생각보다 많이 물음. '생명윤리의 철학'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음.
- ◆ 시사와 관련된 주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듯했음.
- ◆ 면접실에서도 남은 시간을 순발력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전 형 명	활동우수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면접 준비실(8분) → 면접실(8분)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 &lt;제시문1&gt;

약당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타인의 상황에 대해 연민, 동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감력이 있다는 주장

## &lt;제시문2&gt;

- 실험: 4명의 참가자가 있는데,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2만원임.

4명이 낸 기부금을 모두 모아놓은 금액은 다시 4등분을 해서 나눠준다.

즉 개인이 받는 금액은 (2만-기부금)+(기부금의 1/4)

이런 실험을 한 결과, 참가자들이 상대가 얼마나 기부할지 아는 상태에서 자신이 결정한 기부금의 평균과 전체 참가자 기부금의 평균값을 곱한 선 그래프로 표현

## &lt;제시문3&gt;

같은 실험의 결과 참가자가 상대가 얼마나 기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한 기부금을 3집단으로 나눠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 빠른 판단 집단은 10초 이내 빠르게 결정한 집단, 느린 판단 집단은 10초 후에 결정한 집단, 비교집단은 아무 제약 없이 결정한 집단이다.

## ■ [질문]

1. 제시문2를 기반으로 제시문1의 주장에 대한 입장 설명
2. 제시문3을 기반으로 제시문1,2 평가

## ■ [추가질문]

전반적으로 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Q : 제시문2를 기반으로 제시문1의 주장에 대한 입장 설명**

A : 제시문2를 보았을 때 대부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결정하는 것 같음.

**Q : 제시문3을 기반으로 제시문1,2 평가**

A : 처음에 드는 감정이 이타심인데 오히려 10초 정도 지났을 때는 기부를 덜 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제약 없이 결정할 때는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적절히 계산해서 그 중간 값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음.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면접 준비시간이 다소 부족한 느낌.
- ◆ 면접 질문에서 나온 제시문 간의 관계성을 빨리 파악해야 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대 학 / 학 과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 면접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 대기실 → 면접 대기실 → 제시문 면접 5분 숙지 → 7분 발표 → 생기부 면접 7분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제시문 면접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사람들은 T호르몬이 이기심과 ~~를 유발한다고 믿는다.

실험 내용 - 사람들에게 T호르몬과 위약을 주입한 후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받는 돈을 타인에게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묻는다. 다음 표를 읽고 답하시오

	T호르몬을 주입한 사람	위약을 주입한 사람
자신이 위약을 투여 받았다고 믿는 사람	43	33
자신이 T호르몬을 투여 받았다고 믿는 사람	33	23

## ■ [질문] 1. T호르몬에 관한 정보, 표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을 말하시오

### 2. 인간의 행동이 호르몬에 의해 좌우되는지에 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 A. 1. T호르몬을 투여했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우선 T호르몬을 투여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게 타인에게 돈을 준 것을 통해 믿음을 통해 실제 자신이 그런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주입을 기준으로 말하면 T호르몬을 주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준 것을 통해 ... 어..? (여기서 말 막혔습니다) / Q: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A: 어.. 제가 말한 두 주장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 Q: 그럼 생각을 뒤집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A: 어.. 그럼 T호르몬이 이타심을 유발....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음 우선 믿는 것을 기준으로 그전과 같으나 실제 주입을 기준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T호르몬을 투여하면 이기심을 유발한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이타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단 위에서 볼 수 있듯이 T호르몬의 주입으로 인해 행동이 바뀌었으니 호르몬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르몬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Q : 왜 전자공학과에 지원했어요?

A : 1학년 때까지 물리는 역학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다양한 물리분야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 반도체 단원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리 선생님께서 직접 휴대폰을 분해해 내부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고 이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 동아리 부장을 했는데 충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사실 제가 1학년 때 부장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2학년 선배님들이 정해주시는 커리큘럼대로 동아리 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1학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1학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2학년 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진로를 기준으로 모둠을 짜고 1학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2학년에도 적용시켰기에 충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 Q : 동아리 계획을 미리 짰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중간에 동아리부원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했나요?

A :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단 동아리마다 배정되는 예산이 있었기에 담당 선생님께 물어봐 예산을 확인하고 이후 저희 동아리 내에서 투표를 진행하여 해결하였습니다.

**Q : 동아리 실험은 무엇을 했나요?**

A : 저희 동아리는 공학동아리여서 공학 관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력에 관한 실험을 하였는데 고정 봉을 두 개 설치한 후 스티로폼으로 에어포일의 형태를 달리하고 받음각을 달리하여 측정해보아 양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Q : 물리시간에 디스플레이에 관한 활동을 하였는데 디스플레이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A : 사실 디스플레이에 관한 글을 읽은 후 저는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 글에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알아보았습니다.

**Q : 그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박막봉지 기술이 있습니다. 박막 봉지 기술이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플렉시블 oled의 단점인 산소와 수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기막과 무기막을 번갈아가며 성막하여 발광층까지 산소와 수분이 닿지 못하게 하면서도 증착까지 끝낸 패널위에 박막봉지를 성막시키기 때문에 일체형으로서 구부릴 수 있습니다.

**Q : sic 반도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 동아리 시간에 일반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 후 저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큰 전압을 견딜 수 있는 sic 반도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제시문의 경우, 이미 알려진 효과에 대한 심화 문항이 많으니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 ◆ 동아리 매우 많이 물음. 자세한건 1~2개정도?
- ◆ 교수님들이 편하게 대해주시니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대로 하기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천문우주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전 형 명	연세 한마음전형				
면 접 시 간	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12시 30분까지 입실 → 1차대기실 → 8분마다 5명씩 이동 → 2차 대기실 → 문 앞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교복착용이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입고 왔을 경우 이름표 가리기 해줌 ◆ 보안이 매우 엄중함 특히 전자제품! - 에어팟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도 안됨 ◆ 면접보기 바로 직전까지 자료 보기 가능(학생부, 자소서 같은 것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쟁이란 무엇이고, 경쟁이 주는 이점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b>							
A : 경쟁이란 단편적으로 봤을 땐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쓴맛을 맛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개개인은 성장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큰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b>Q : 그럼 본인이 학교생활을 겪으며 학업 이외의 경쟁의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b>							
A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을 떠올리기가 어렵네요...							
<b>Q : 예를 들면 체육대회나 동아리 내에서의 갈등과 같은...</b>							
A : 아 그럼 동아리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Q : 무슨 동아리였죠?</b>							
A : 제가 만든 천문학 자율동아리 ‘밤하늘’이었습니다.							
<b>Q : 어떤 경쟁이 있었나요?</b>							
A : 학문 간의 인식에 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천문학은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동아리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요.							
<b>Q : 아 천문학은 미래가 없다고?</b>							
A : 네. 당사자는 천문학에 관심이 있음에도 취업이 잘되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쪽을 가야 훗날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동아리를 그만두려 한 것입니다. 저는 친구가 그런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때 천문대 지도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위치한 모든 천문대를 표기하고 관측 가능 시간대, 일반인 관측 여부 등을 나타낸 지도였는데, 여기에 훗날 천문학과를 졸업 후 천문대 취직이나 연구소 취업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친구는 천문학을 전공하고서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돌렸고 동아리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b>Q :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겪기 전과 겪은 후 자신에게 변한 점이 있다면?</b>							
A : 제 꿈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별과 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선 막연히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b>Q : 그 경험이 대학 진학 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b>							
A : 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의 대중화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만이 아닌 계몽가로서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과학을 알려주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는 기초과학 분야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의 시선 또는 인식 때문에 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천문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하여도 길은 분명히 있음을 추상적으로만이 아닌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b>Q : 고등학교 3년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해결방법이 있다면?</b>							
A : 가장 많이 받은 스트레스는 역시 학업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하면 펜을 잡아라- 말을 떠올리며 오히려 더욱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묵혀두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했는데요, 공부시간도 뺏기는 김에 일요일엔 교회를 갔다 오고 폭 쉬자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답변은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음. 한마음전형의 면접 경우 압박 면접 분위기는 아님. ◆ 면접 대기실에 정수기가 없음. 필요할 때마다 마시라고 생수 한 박스를 가져다 두긴 하는데, 개인 물을 챙기는 것을 권장함. ◆ 주말에 면접이라면 반드시 미리 숙소를 예약해 놓을 것. 보통 토요일일 텐데 그럼 서울에 놀러오는 사람들까지 겹쳐서 숙소잡기가 힘들 수 있음. 학교 가까운 곳으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수.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 철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학교 철학과	전 형 명	면접전형				
면 접 시 간	제시문 7분, 생기부 기반 7분 [면접위원 총 4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제시문 5분→제시문 7분 면접→대기→학생부 기반 면접 7분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오후 면접은 대기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 ◆ 압박 면접 전혀 아님! 엄청 방긋 방긋 웃어주시고 긴장 많이 풀어주시니 전혀 걱정 말 것. ◆ 면접관은 2명인 경우가 일반적임.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가상실험

## ■ [질문] T호르몬과 인간행동 간 어떤 관계가 있음?

- A. 절대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 의식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을 인식한다면 완화시킬 수 있음

## ■ [추가질문] 위 도표가 함의하는 바는?

- A. 위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을 함.

## [학생부기반 면접]

## Q: 자기소개해보세요.

- A: 미리 준비한 자기소개를 암기한 티가 나지 않게 잘 하였음.

## Q: 사회문화시간에 ---에 대해 조사하셨는데, 그 탐구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A: 선생님, 인터넷,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영 관련 자료가 없어서 최대한 연관성이 있는 참여관찰법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림.

## Q: 인권동아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셨나요?

- A: 커리큘럼 짜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친구들을 잘 이해시켜 커리큘럼에 넣는 것에 성공했음. 또한 조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학생과 장애인학생이 다소 친하게 지내지 못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 노력했음.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질문 300개 정도 뽑았었는데, 부족했던 것 같음. 더 뽑아야 할 듯.
- ◆ 방긋방긋 웃으면 처음에는 진지한 표정의 심사위원분도 방긋방긋 해주심.
- ◆ 제시문을 똑바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리저리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연세대(원주) 물리치료학과]

대 학 / 학 과	연세대(원주) 물리치료학과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제시문 숙지 15분, 면접 5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 및 면접장소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호명 → 제시문 숙지 → 면접 → 귀가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예상 면접 질문 일체 하지 않음.(지원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준비해 갈 것.) ◆ 제시문은 A4용지 양면에 제시되었으니 뒷장도 잊지 말고 꼭 확인할 것. ◆ 면접 직전이 아닌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자마자 전자기기 모두 거둬가니 휴대폰에 제시문 담아두고 연습하지 말고 꼭 일 반 용지에 준비해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A] 학교폭력에서 방관자의 심각성을 알리는 지문</div> <div>■ [지문B] 지문A에서의 방관자의 문제를 심히 다루며 남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무시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문.</div> <div>■ [지문C] 막상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말리지 않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내용, 진정한 우정 이란 (b)할 줄 아는 친구이다.</div>							
Q : <지문A~C>를 보고 방관자가 잘못된 이유를 두 가지 말하라.							
A : 제가 생각했을 때 방관자가 잘못된 이유는 방관자의 사회적 무관심은 도덕심과 정의감을 해치는, 사회에 무성의한 태도이며 (1)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가해자와 다를 바가 없 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2)							
Q : <지문B>는 밀줄 친 부분(남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말하라.							
A : 앞서 문제 1-1에서 말씀드렸듯이 방관자의 사회에 무성의한 태도는 사회의 도덕심과 정의감을 해치는 행동이며, 자신에 피해 가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방관하는 것은 엄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제시문C>에서 (b)에 들어갈 말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라.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A : 저는 (b)에 들어갈 말이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친구는 서로 방황하던 시기가 달랐는데 친구가 방황하던 시기에 는 제가, 제가 방황하던 시기에는 친구가 서로를 채찍질하며 바로 잡아주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과 등의 척추건강이 나빠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과정에서 도수치료에 대해 알게 됐습니 다. 물리치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여러 가지 알아보게 되었고 자연히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흥 미와 더불어 적성에도 부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 질문은 매해 다르며 예상 문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답은 간단명료하게 생각하고 제시문 내용의 일부 분을 인용하여 말하면 됩니다.							
◆ 제시문지는 공용이며 답지가 따로 주어집니다.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답지에 답을 너무 장황하게 적으면 나머지 질문에 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글씨는 날려 적어도 상관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적고 다음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 면접관계서 명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원학과나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우송대 글로벌아동교육과]

대 학 / 학 과	우송대 글로벌아동교육과	전 형 명	일반Ⅱ전형				
면 접 시 간	20분~3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교수님 질문 2개 → 키워드 선택 후 관련 개념, 의견, 생각 말하기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5명이 함께 면접을 본다. ◆ 키워드는 최대 1번 바꿀 수 있다. ◆ 키워드는 단어장으로, 뒤집어서 골라야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우송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b></p> <p>A : 전국 단위로 유아교육과 관련 학과들을 찾아보다 글로벌 아동교육과라는 학과를 알게 되었고 독특한 학과명이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니 글로벌이 되어가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아이들도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로 교육시키는 선생님을 길러내는 학과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유아교육과를 지원하기 보다는 글로벌 아동교육과로 진학해 유치원선생님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유일하게 글로벌 아동교육과가 있는 우송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p> <p><b>Q : 글로벌 아동교육과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라.</b></p> <p>A : 급격해진 세계화로 인한 갈등, 편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아이들에게 여러 나라에 대한 문화, 예절 등을 알려주고 다른 인종 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등을 인식시켜주는 방법을 배운다. 나중에 해외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학과이다.</p> <p><b>Q : 키워드) 1.블랙홀 -&gt; 2.백지설로 교체</b></p> <p>A : 단어를 몰라 설명하지 못함. (면접 후 집에서 찾아보니 철학자 로크 관련설이었다. 인간은 원래 백지상태였다는 그런 의미)</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사투리나 말투에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아는 대로 자신 있게 말하였더니,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더 열심히 말하게 되는 것 같았다. ◆ 지원하려는 학과가 나중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 지에 대해 알아 가면 좋을 것 이다.  ◆ 면접관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 생각하기보다는, 먼 친척이라 생각해서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함께 면접에 들어간 사람 중 몇 명은 너무 떨어져 의사소통이 힘든 정도였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우송대 외식조리학과]

대 학 / 학 과	우송대 외식조리학과	전 형 명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20분~25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면접 분위기가 무겁지 않으니 긴장할 필요 없어요. ◆ 질문 개수가 많지 않아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를 해보세요.</b></p> <p>A : 저는 오투기처럼 항상 도전하고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아이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항상 요리에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요리를 개발하는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p> <p><b>Q : 1학년 때 진로 희망이 스튜어디스였는데 꿈을 위해 자신이 한 노력이 있나요?</b></p> <p>A : 스튜어디스와 관련된 15인 승무원의 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p> <p><b>Q : 자신의 잠재능력은 무엇인가요?</b></p> <p>A : 저는 제가 관찰한 것을 저만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저의 잠재능력이 앞으로 제가 대학에서 배우고 경험할 것을 저만의 기술로 만들어서 저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p>A : 저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배움을 추구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가야 할 여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위한 스타팅블록 같은 존재가 우송대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우송대 외식조리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울산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울산대 의예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제시문 면접방 x 4개: 10분 (준비 2분+실제 면접시간 8분) 서류 면접방: 2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
면 접 절 차	총 3교시 정도 진행했는데 한 교시에 A팀, B팀으로 나누어 각각 6명씩(1시간에 총 12명이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총 5개의 방이 있었고 4개의 방은 인적성 면접(10분씩) 나머지 1개의 방은 서류 면접(총 20분)으로 진행했습니다(총 60분). 작년과 달리 인적성 면접방을 한 개 줄이고 서류면접 시간이 20분으로 늘어나 서류 면접이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하지만 내년에도 서류면접을 20분 할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면접은 제시문 읽는 시간 2분 + 면접시간 8분입니다. 울산대 제시문 제시 방식은 미달이문처럼 여는 형식입니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면접 종료 1분 전에 차임벨이 울리는데 그 때 퇴실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퇴실하지 않고 마지막 마침종이 칠 때까지 면접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실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먼저 수거합니다.</li> <li>◆ 울산대 홍보영상을 보면서, 결시자 확인 후 간단하게 면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li> <li>◆ 사람마다 면접 순서는 다르며, 저는 서류면접부터 진행했습니다.</li> <li>◆ 면접관은 2인 1조이며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나, 아닌 경우도 있음.(면접관의 표정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5번방-서류기반]

**Q1 : 안녕하세요. 올해는 서류면접이 20분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끝까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었나요?**

A : 저는 1학년 과학영재 동아리 활동 중 곤충 다리 형태를 이용한 목발 제작이라는 탐구를 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쓰기도 했고, 그 탐구 주제를 정한 계기가 노인 병원에서 한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요양 병원에서 봉사를 할 때 저의 부족과 보조를 받고 직접 걸으며 산책을 원하는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보조할 수 있는 목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곤충 다리 형태를 이용해 충격력이 가장 작은 목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곤충의 다리가 관절을 기준으로 꺾여있듯이 관절을 기준으로 마디의 길이 비, 각도 크기, 그리고 목발에 사용할 재질을 변인으로 잡고 총 36개의 모형을 직접 만들고 충격력을 측정하여 길이 비는 1:2, 각도는 150도, 재질은 스테인리스일 때 충격력이 가장 작음을 실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Q2: 충격력은 어떻게 측정했나요?**

A: 충격력은 결국 힘인데 'F = ma'이므로 힘은 곧 질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모형들을 전자저울 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무게가 가장 최고점을 찍을 때의 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값이 사실 충격력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 방법으로 상대적인 충격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Q1: 곤충 다리 형태를 어떻게 이용했나요?**

A: 논문을 찾아본 결과(서울대였으면 무조건 무슨 논문인지 물어봄. 참고문헌 내용과 이름 꼭 외워서 가!) 곤충들의 평균적인 길이 비와 각도가(곤충 이름들 외워서 갔는데 까먹음 $\pi\pi$ ) 1:1.5 그리고 140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길이 비는 1:1, 1:2, 1:3, 각도는 90도, 120도, 150도로 실험 변수를 정하고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Q2: 직접 목발을 만들어보았나요?**

A: 네. (더 말하려고 했는데 옆 면접관님이 바로 다음 질문 들어옴)

**Q1: 그 연구 말고 기억에 남는 다른 탐구 활동이 있나요? 그 탐구를 하게 된 계기, 탐구 방법, 결과, 아쉬운 점 등을 말해주세요.**

A: (위의 질문처럼 울산대학교는 한 번에 여러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저는 2학년 과제연구 활동으로 진행한 '육류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기 제작'이라는 탐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발명품 경진대회에 'NDD'라는 발명품을 고안한 적이 있습니다. NDD는 No Dust Drill의 줄임말로 드릴 사용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고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NDD는 본질적으로 드릴 사용 자체에 불편함을 준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세 먼지가 사회적 이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는 음식을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DD에 사용된 청소기의 원리와 필터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세먼지 제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기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미세먼지 제거기의 작동 여부, 식물의 여부를 변인으로 두고 실험을 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기가 먼지를 포집하고 제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Q2: 필터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A: 우선 NDD에서 필터의 원리는 먼지는 통과하지 못하고 공기는 통과할 수 있는 촘촘한 틈의 필터를 제작하여 먼지의 순환을 방지하고 먼지가 잘 포집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미세먼지 제거기의 크기가 크다는 단점을 인지하고 바이오 필터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고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되는 뿌리에 사는 미생물을 필터에 도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크기가 작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미세먼지 제거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Q1: 미생물을 도포한 필터를 만들어 봤나요?**

A: 네. (더 말하려고 했는데 옆 면접관님이 바로 다음 질문 들어옴)

**Q1: 1학년 때 주제탐구 대회에서 수상을 했네요. 어떠한 탐구를 했나요?**

A: 1학년 때는 밥의 종류와 온도에 따른 곰팡이 성장속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 잘 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를 보고 그러한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40도, 25도, 4도의 온도에서 여러 종류의 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일수와 일주일 후 곰팡이 면적을 비교 하였습니다. 면적은 곰팡이 배양한 모습을 일정하게 사진을 찍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미가 40도의 온도에서 가장 곰팡이 배양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Q2: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네요. 친구들이 왜 반장으로 뽑아준 것 같아요?**

A: 음...아마 제가 약속한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뽑아준 것 같습니다. 제가 반장선거 당시 2개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늘 웃는 얼굴로 곁에 있겠다(웃는 얼굴로^^)는 것이었고, 둘째는 굶은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청소 검사를 맡았었는데 자주 아프거나 조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 비어 있는 청소 구역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자리를 맡아 청소하고 청소가 조금 미흡한 구역도 제가 먼저 청소하였습니다. 물론 리더는 그 친구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역할 분담도 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2: 1학년 때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네요. 이때 한 '항원-항체 실험'이 무엇이었나요?**

A: (지금 생각하니까 혈액형 판정 실험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서 딴 실험으로 이야기 돌림..)아...그 실험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그때 했던 효모 발효 실험은 제가 주도하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접 집에서 여러 온도에서 효모를 배양하여 온도조건과 습도조건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조건들에 따라 효모가 무성생식을 하는지 유성생식을 하는지가 구분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2: 부장은 몇 학년 때 한 건가요?**

A: 2학년 때 하였습니다.

**Q2: 2학년 때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A: 리더는 늘 긴장한 상태로 미세한 부분까지 캐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축제에 동아리 부스를 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루고루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자연스레 1학년보다 2학년들의 의견이 훨씬 자유롭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학년 부장과 의논을 해보니 아무래도 1학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개인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받거나 투표용지에 의견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훨씬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 10분 좀 지나고부터 면접관님들도 미소를 띠며 훨씬 편한 분위기로 면접을 이어감)

**Q1 : 노인 병원에서 봉사를 꾸준히 오래 했는데, 노인 병원에서 봉사를 하게 된 계기와 주로 했던 일, 그리고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A :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분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인 요양병원에 봉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아침 식사 보조, 말벗 도우미, 청소 등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웅기종기 보드게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이 보드게임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 보드게임의 방법을 익혀 직접 카드를 만들어 원래 봉사시간보다 일찍 가서 할머니들과 이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익히고 나서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셨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웃음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할머니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대에 입학하여 더 많이 공부하여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 알츠하이머 발생 자체를 막는 방법, 기억을 회복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고 의사로서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Q2 : ‘뇌 과학 여행자’라는 책을 읽었네요.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A : (책 두 권에 대한 질문은 정말 무작위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안 읽은 책을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책일수록 자연스럽게 그 책의 내용보다 책을 읽게 된 계기나 읽고 나서 느낀 점 또는 연관된 지식 등으로 잘 포장해서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뇌과학 여행자’는 자세히 읽은 책이었고 ‘역사란 무엇인가’는 무슨 책인지 잘 몰랐어요) 아마 그 책은 제가 1학년 때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책 제목처럼 뇌과학 여행자는 뇌과학에 대해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유명한 미술가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측두엽이 발달하여 미술에 큰 재능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그러면 개개인의 재능은 어느정도 뇌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와 ‘재능은 선천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서울대에서는 위 말에 대해 추가 질문이 들어올 것 같다.)

**Q2 :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A : 음...(진짜 기억 안남)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이 책은 1학년 때 역사책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수행평가를 위해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의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대화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은 광혜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의료의 발전과정이 있었습니다.

**Q1 : 노인병원이 학생 집에서 많이 멀었나요?**

A : 음... 차를 타고 30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30분에 집에서 나섰습니다.

**Q1 :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하면서 멀리까지 봉사를 어떻게 병행했나요?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봉사를 계속 할 것인가요? 한다면 어떠한 봉사를 하고 싶나요?**

A : 저는 봉사를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줄이는 자발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봉사를 제가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실제로 생기부에 반영되지 않는 2학기에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고 내일도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ㅎㅎ 대학교 입학에서도 물론 봉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노인병원에서 꾸준히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학에서 해외에 봉사를 보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한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Q2: 고등학교 3년 동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네요. 그 중 저희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A: 저는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차임 벨 올림)

**Q2: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2번방-스토리텔링 방]**

**<제시문>**

(6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었음) 6개의 그림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학급 친구에게 2분간 설명해 보아라.

**Q: 안녕하세요. 그림은 크게 확대되어 있으니 큰 그림으로 봐도 됩니다. 학급 친구에게 2분간 설명해 보겠어요?**

A: (어색하지만 반말로 친근하게..)음..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부가 물고기를 낚시를 하고 있어. 물고기 잡힐까 기대하는 표정 이야. 두 번째 그림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나보네. 굉장히 기뻐보여. 세 번째 그림은 어부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양동이 넣고 있는 장면이야. 그런데 멀리서 고양이와 그 물고기를 탐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 네 번째 그림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가 그 물고기를 양동이에서 꺼내 자신이 가지려 하고 있네. 아마 먹고 싶은 게 아닐까? 어? 그런데 다섯째 그림을 보니 고양이가 어딘가에 그 물고기를 넣고 있네. 이 그림만 보고는 어디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일부러 여섯째 그림을 보고 펠리칸의 입에 넣음을 알았지만 스토리텔링 하듯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함) 아. 마지막 그림을 보니 이제 알겠네. 고양이는 펠리칸의 입에 물고기를 넣고 있었어. 고양이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펠리칸은 굉장히 신나서 고양이를 약 올린 후 고양이에게 잡히지 못하게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진짜 스토리텔링처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Q: 네. 어부는 고양이가 물고기를 가져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A: 우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부는 낚시를 하면서 설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표정을 통해서 물고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잡은 것 같은, 그래서 낚시에 성공한 기쁨이 더욱 극대화된 그러한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물고기로 큰 기쁨을 느끼던 때 그 물고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화도 날 것 같습니다.

**Q: 네. 그러면 펠리칸은 고양이가 가져간 물고기를 자신이 먹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A: 펠리칸은 정말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어부가 조개를 잡은 것처럼 펠리칸은 노력을 하지 않고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고양이에게서 얻었습니다. 뜻밖의 횡재에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여섯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기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Q: 이제 같은 반에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보세요.**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선 시각장애인 친구에게 말하는 상황일 때는 주변 배경 묘사를 더 자세히 하고 등장인물들의 표정을 세밀하게 설명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밑줄 친 부분이 앞의 스토리텔링과 다른 부분이다.)

A: 우선 첫 번째 그림서 배경을 보니 굉장히 화창한 날씨이고 다리 위에 어부는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지고 있다. 어부는 한쪽 입을 씹룩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물고기 잡힐까 기대하는 표정이다. 두 번째 그림에서 어부의 표정을 보니 이 모든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는 모습인 것으로 보아 물고기를 잡았나보네. 굉장히 기뻐보여. 세 번째 그림은 어부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양동이 넣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멀리서 고양이가 눈을 찡긍하며 물고기를 응시하는 것 같아. 그 물고기를 탐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 네 번째 그림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가 그 물고기를 양동이에서 꺼내 자신이 가지려 하고 있네. 아마 먹고 싶은 게 아닐까? 어? 그런데 다섯째 그림을 보니 고양이가 어딘가에 그 물고기를 넣고 있네. 이 그림만 보고는 어디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일부러 여섯째 그림을 보고 펠리칸의 입에 넣음을 알았지만 스토리텔링 하듯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함) 아. 마지막 그림을 보니 이제 알겠네. 고양이는 펠리칸의 입에 물고리를 넣고 있었어. 고양이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펠리칸은 굉장히 신나서 고양이를 약 올린 후 고양이에게 잡히지 못하게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

#### [1번방-종이접기 방]

##### <제시문>

##### 종이접기 영상을 보여줌.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설명하는 문제일 것이라 예상은 하고 영상을 주의 깊게 보았다. 원래 종이접기를 못해서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종이접기 결과보다는 그 설명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방향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사각형의 꼭짓점마다 번호를 매겨 설명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갔다.)

**Q. 앞의 교수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세요. 단, 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잘 못했던 부분):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를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종이를 접으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종이를 펴달라고 요청한 후 '종이를 반대 면이 보이도록 뒤집어주세요'라고 수정하여 말하였다.)

(잘했던 부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보시는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주세요.', '왼쪽 아래에 있는 꼭짓점을 1번이라 하고 시계방향으로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등의 표현은 배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더 정확히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의를 만드는 형식이므로 좋게 평가받았을 것 같다.

바로 앞에서 교수님이 접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종이접기 동영상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접으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바로 고치거나 계속 진행하거나 하면 된다.

#### [4번방-숫자 방, 제시문]

(가)에는 노자?의 사상이 줄글로 제시되어 있었다. (5-6줄 정도. 별로 길지 않았음) 무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 유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나)에는 사과 그림, 도마 위에 칼이 있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었다.

문제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

문제1. (가)를 바탕으로 '1÷0'과 '0÷1'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문제2. ((가)와 연관 지어도 되고 연관 짓지 않아도 됨) (나)의 그림을 보고 '1÷0'과 '0÷1'을 설명해 보세요.

**Q. 제시문을 충분히 이해했나요?**

A. (철학 글이 조금 어려웠음)음..네.

**Q. (가)를 바탕으로 '1÷0'과 '0÷1'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준비할 시간을 조금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30초 정도 지나고)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 나온 노자의 사상에 따르면 무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 유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고 1은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0은 노자가 말한 '무'와 비슷한 개념이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1은 노자가 말한 '유'와 유사하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누기라는 기호가 앞의 수를 뒤의 수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1÷0'은 1을 0으로 나누어 보면서 1에 대해 더 파악해보려는 시도로 보았고 즉 유를 무로 해석하면 무한대가 나오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0÷1'은 무를 유로 해석하면 0이라는 역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두 그래프를 보고( $y=x$  그래프와  $y=1/x$  그래프 두 개를 갑자기 보여주셨다.) '1÷0'과 '0÷1'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A. 음..(당황스러웠음) 잠시 생각할 시간을..

Q. 네. 편하게 하세요.

A. (30초 정도 후) 우선 오른쪽 그래프는 개형과 대입된 숫자의 값으로 보아  $y=1/x$  그래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의 값은  $x$  좌표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x$ 가 0일 때  $y$ 값은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으므로 '1÷0'은 무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Q. 네. 그러면 이제 (나)의 그림을 보고 '1÷0'과 '0÷1'을 설명해 보세요.

A. 저는 우선 사과와 칼 그림을 보고 어린 아이들에게 숫자 그리고 사칙연산에 대해 설명할 때 모형을 만들어 직접 보여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수식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즉 1 나누기 0은 사과 1개를 아무에게도 나누어주지 않는 상황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0 나누기 1은 남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 없고 받으려는 사람은 1명 있는 상황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라 파악했습니다.

Q. (두 분 다 '오'라며 만족해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면 1 나누기 0은 사과 1개가 내거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 수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상황자체만 본다면 1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다시 아까 대답 못 한 '0÷1'을 그래프를 통해 설명해 보겠어요?(차임벨 올림)

A. (고민 중...)  $y=x$ 의 그래프는 결국  $y$ 와  $x$ 의 곱이 1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Q. 그래프에서 수학적으로 수렴의 의미를 생각하며 해석해 보겠어요?(마침중 올림) 아. 나가면 됩니다.

A. 감사합니다.

### [3번방-전형적인 상황 제시문 방]

A라는 동아리가 학교 축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학교에서 동아리 부원들이 회식할 수 있는 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 부장은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동아리 부원 B는 동아리 부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받았다는 소식을 동아리 부원에게 전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아리 부장과 친한 친구들은 별일 아니라며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줄글로 상황 제시문이 5-6줄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음. B의 입장에서, 동아리 부장의 입장에서, 동아리 부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다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려 노력함.)

Q.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우선 B의 입장에서 동아리 부장이 자신의 동아리에게 축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좋은 소식,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동아리 전체가 받은 돈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점이 당황스럽고 또 말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 묘사로는 동아리 부장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려 했고 굉장히 나쁘게 묘사된 것 같은데 동아리 부장이 선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아리 부장으로 축제 준비를 해보면서 학교에서 주는 예산으로 부스 준비가 거의 불가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활동으로 얻은 상금을 부스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장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Q. 그러면 동아리 부장이 잘못된 점은 없나요?

A. 아닙니다. 동아리 부장으로서 동아리 부원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된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동아리 부장의 친구들이 별일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A. 동아리 부장의 목적이 나뻐는데 친구들이 그 잘못을 덮어주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든 그 실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아리 부장의 의도가 좋았고 또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이때까지 부장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면 그러한 표현이 오히려 동아리 전체의 결속이나 사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그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만약에 학생이 B인데 동아리 부장이랑 이야기를 해봤어. 근데 동아리 부장이 사정도 잘 얘기 안 해주고 회피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A. 사정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나요?

**Q. 그냥 회피하고 있어.**

A. 그러면 우선 저에게 만이라도 사정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자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제가 대신 친구들에게 설명해도 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Q. 설득해도 이야기를 안 해줘. 그러면 선생님께 말할 거야?**

A. 저는.. (종료벨 울림)

**Q. 네. 수고하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쉽지는 않지만 면접을 할 때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태도가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 ◆ 서류 면접의 경우에 20분으로 굉장히 길어서 답변 길이 자체가 조금 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면접할 때 늘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 할 때에도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특히 문제없이 제시문 글만 주어진 방의 경우 2분 준비시간에 질문이 무엇일까에 대해 예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울산대 전기전자공학과]

대 학 / 학 과	울산대 전기전자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면접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순서를 알려줌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1,2,3학년 진로가 모두 다른데 바뀐 이유?</p> <p>Q :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이야기' 책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p> <p>Q : 창의수학발표대회에서 은상 수상했는데 어떤 주제였나?</p> <p>Q :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다가 3학년 때는 다시 올랐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p> <p>Q : 영어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p> <p>Q : 하루에 30개씩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되어있는데 성실히 했는가?</p> <p>Q : 마지막으로 준비한 할 말</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학생부에서 모두 질문함 학생부 공부 꼼꼼히 하면 좋을 것 같다.</p> <p>◆ 끝번호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함.</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원광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원광대 의예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1번방 6분 [면접위원 2명] 2번방 6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휴대폰 제출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해간 자료를 볼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 ◆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1번방</b>  처음 들어갔을 때 긴장하지 말라고 여러 단순질문을 먼저 시작함. <b>Q1 :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b> A :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본 에피소드를 제시. 사람이 아플 때 힘들 때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나의 비전 제시 <b>Q2 : 봉사활동관련 질문</b> A: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계속 봉사한 이야기, 그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계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 응답했음. <b>Q3 : 면접관이 질문하다가 시간이 끝나서 다음방으로 이동함.</b>							
<b>2번방</b>  <b>Q1 :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b> A :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본 에피소드를 제시. 사람이 아플 때 힘들 때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나의 비전 제시 <b>Q2 : 뇌사자 장기기증의 비율이 낮는데 그 이유와 의사로서 장기기증을 권장해야 하는가?</b> A :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족들의 감정적인 문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 이라고 대답함. 그러므로 의사로서 권장이 아닌 좋은 장점을 소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함. <b>Q3 : 자신의 좌우명은?</b> A : (갑작스레 물어본 질문이라 당황했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 문학작품 민옹전에서 불사의 약은 다른 불사초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끼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료 환경을, 모두가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b>Q4 : 의사로써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봄</b> A: 미세면지와 NK세포와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했음)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방 1개당 6분이라 시간이 많이 짧음. 대답을 머뭇거릴 시 큰 마이너스가 될 듯함. ◆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함.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육군사관학교]

대 학 / 학 과	육군사관학교 (자연계열)	전 형 명	학교장추천				
면 접 시 간	방 7개 [면접위원 각 3명] 1번 방: 18분, 나머지 10분 내외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	
면 접 절 차	1. 집단 토론 2. 제시문 기반 (국가관, 안보관 등) 3. 학생부 기반 4. 자소서 기반 5. 외적 자세 (자세, 발성, 신체 결함 등) 6. 심리 검사 7. 종합 판정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전 날 제시문 주고 쟁점에 대한 자기 생각 2분 내외로 정리하라고 함. 문제는 쟁점이 잘 안 보이는 글임. ◆ 면접 전 날 자소서 새로 쓰게 함(자소서 2), 면접은 자소서 2 바탕으로 함. ◆ 거짓말은 절대 금물!(내 뒤에 사람이 재수해서 3학년 2학기 생기부도 반영됐는데 수능 끝나고 결석한 거 한 달 내내 해외 나가있었다고 거짓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출입국 기록 가지고 있었다고 했음.) ◆ 블라인드 면접임. 전 날 면접 번호 줌. ◆ 전 날 심리검사 세 개(총 9백 몇 문항) 함. 여기서 일관성 없으면 불합격 받을 수 있음. ◆ 문과랑 이과가 1~4번방에서는 나뉘어져있고 5번방부터 합쳐짐. ◆ 뒤쪽으로 갈수록 대기 시간 엄청 기니까 대기시간동안 할 일을 미리 생각해둘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약술 제시문 (이과)</b> <b>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한중학술회의 관련 기사</b> ~~ 통합 임정에 반영돼 ‘독립운동방략’을 제정했으며, 나아가 국내 연통제(국내통합)와 국제선전전략(외교전략)으로 구체화됐다. 이 같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점진적 독립전쟁론은 한국광복군(1940.9.17 성립)과 대한민국 국군으로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 (검색결과: 국방일보 글 <a href="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411/1/BBSMSTR_000000010056/view.do">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411/1/BBSMSTR_000000010056/view.do</a>)</p> <p><b>자소서2 문항</b> 1.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발휘한 일화 2.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3. 학업 외 지적 성취를 한 경험 4. 특별한 활동 (체험활동, 극기 훈련, 사고경험 등)을 한 경험 5. 학창시절 자신의 모습 6. 육사에 지원한 동기, 계기, 준비과정 7. 육사 입학 후 계획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8. 여가시간에 하는 일, 취미 활동 9.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사회성 (교우관계, 단체생활, 사회활동 등) 10. 어려운 여건, 한계, 단점을 극복한 경험 (10문항, 70분 동안 컴퓨터로 씀. 분량은 정확히 기억 안 남. 200자 정도?) 뭐 보고 적으면 안 되고 즉석에서 문항 보고 즉석에서 바로 적어야 함.</p> <p><b>면접 복기</b> <b>1번 방: 집단토론</b> - 6명이 한 팀. 대표 한 명이 막대기 뽑아서 주제 선택함. 찬반 나누는데 0:6이거나 1:5면 주제 새로 뽑아서 함. - 토론 전 10분 시간 부여. 우리는 주제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해야하는가?’였음. - 10분 동안 찬반 상관없이 서로 주장 공유하는 게 좋음. - 토론면접장에서는 면접 번호 순서대로 앉고 18분 동안 진행한다고 알려준 후, 자유토론 하라고 함.</p>							

- 18분 타이머를 화면으로 띄어줌. 반대 측 한 명이 자기 먼저 입론 하겠다고 하고 입론한 후, 반대 측 돌아가면서 입론함.
- 그 후 찬성 측 입론함.(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는 자세+메모하는 태도가 필요함.)
- 입론 후 "00번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목당한 사람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됨.
- 보통 한 명씩 다 질문 했는데 나는 상대측 3명 다 내한테만 질문해서 면접관님들도 웃고 나도 당황해서 웃고 다른 토론자들도 웃었음.
- 답변하느라 의도치 않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질문 따로 안함. 좀 걸렸던 건 다른 사람이 "이러한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해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 아직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그건 다른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눈 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
- 5분 남기고 정적이 계속돼서 면접관 한 분이 한 명 지목하면서 "00번 수험생이 말을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할 말 없나요?" 하셔서 그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발언하였음.
- 2분 남기고 또 정적이어서 토론자 중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분 언급하고 끝남.
- 토론할 때 면접관 보면 안 되고 상대 토론자 보면서 해야 함.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면접관이랑 눈 마주쳐서 그것도 불안했음.)

## 2번 방: 약속

**Q: 사전에 받은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은 하지 말고 본인 생각만 2분 동안 말해보세요.**

(그 중이에는 요약하라고 적혀있었음.)

**Q: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해요?**

A: 저는 카카오톡만 합니다.

**Q: 안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A: SNS 상에서 애들끼리 이상한 친목 모임하고 일진놀이 하는데 그런 것을 보기 싫어서 안 합니다. (중략)

나중에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 막 일진놀이하고 비속어 쓰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나중에 그런 거 없으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다가 학폭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은 철이 좀 들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3번 방: 생기부 (+자소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형식의 면접을 진행함.

**Q: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A: 아 예 저 농구 좋아합니다.

**Q: (웃음) 시대표도 했네요?**

A: 아 예. 아마추어 대회지만 작년에 대구광역시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 우승 했었습니다.

**Q: 여학생인데 출결이 깨끗하네요? 여학생이 이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A: 예. 저 그 생리조퇴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Q: 그러네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개근상 받으려고요?**

A: 아 그것도 있긴 한데 제가 학교 규칙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Q: 회장 부회장, 학생부회장 이건 전교부회장이죠? 다 했네요? 언제 했어요?**

A: 저 2학년 때 다 했습니다.

**Q: 아~ 2학년 때? 전교 부회장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런 일 하면서 혹시 힘든 거 있었어요?**

A: 그 다수의 의견에 따를 때 소수의 불만을 줄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경우에 소수 애들을 직접 하나하나 설득을 했는데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의견 차이 있을 때 그거 때문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Q: 학생들끼리 싸우진 않았어요?**

A: 제가 실장이랑 전교부회장 할 때 애들끼리는 서로 안 싸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갈등이 좀 있었지 애들끼리는 괜찮았습니다.

**Q2: 그러면 학교장 추천 받았겠네요?**

A: 예. 받았습시다.

**Q1: 그러면 합격할 확률도 높겠네요?**

A: 아 감사합니다.

**Q1: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소서에 쓴 문장 그대로 읽으심.)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 아니예요?**

A: 아닙니다. 제가 봉사하는 만큼 애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해주는 거 보면은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1: 얻는 게 뭐예요?**

A: 그 다른 애들한테 신뢰도 얻고 그냥 애들이 고마워해주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Q1 고마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요?**

A: 아 안 고마워하는 애들이 있어도 꽤 있긴 한데 제가 그냥 뭘 해줬다는 데에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4번 방: 자소서 (+학생부)**

**Q: (자소서 보며) '군대에 빠를 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군인이 되려는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A: 결정적 계기...라기보다는 되고 싶었던 이유가 아 그게 계기인가요? 그 중학교 때 K2공군기지를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멋있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2: 어떤 부분이 멋있다고 생각했나요?**

A: 공군도 나라 지키는 건 같으니까... 그 멋있었던... 게... 그냥... 군인 분들끼리 서로 경례하는 (경례하는 몸짓 취함.)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전에 했던 말 반복. 면접관이 경례자세가 좋다고 칭찬하였음.)

**Q: 전교부회장 했네요? 전교부회장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A: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사이에 갈등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Q: 합격 발표가 언제인지 기억하나요?**

A: 10월 18일입니다.

**Q: 그때 합격발표 나면 어떡할 거예요?**

A: (싱글빙글) 일단 애들한테는 말 안 하고 말하면 영향 받으니까 안 하고 선생님들께 다 자랑할 겁니다. 다 돌면서 선생님들께 자랑하고 후배들한테도...

**Q: 친구들한테는 왜 말 안 해요? 영향 받는다고?**

A: 애들한테 말하면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 안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합격하면 아...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Q: 와... 친구들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나군요? (엄청 좋아하심) 합격하면 입학한건가요?**

A: 예. 저는 의대 붙어도 육사 올 겁니다. 저 수시로 의대 냈단 말입니다.

**Q: (냈단 말입니다는 말투에 박장대소) 수능은 칠거예요?**

A: 예. 치킨 칠 건데 제대로 못 칠 것 같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어렸을 때 12년 동안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 치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킨 칠겁니다. 그런데 들떠가지고 제대로 못 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2차 준비한다고 정시 공부를 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Q: (끄덕끄덕) 아무래도 그렇죠?**

A: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육사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꼭 우선선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방: 외적 자세**

- 카메라로 앞에서 찍고 있음, 화면에 글이랑 사진 띄워줌.

- 대기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해 줌.(바닥에 있는 선 따라 돌아서 들어가기.(걷는 자세 보려고))

**Q: 차렷해보세요. 여기 위에 액자 보고.**

**Q: 카메라 쪽으로 몸 돌려서 설게요. 화면 보고 최대한 크게 읽어주세요.**

A: 예. (화면 보고) 태산아 무너져라! 아 무너져라!

**Q: 다시 해볼게요.**

A: 태산아 무너져라! (화면 넘어간 거 보고) 간장공장공장장은 박 법학박사이고...

**Q: 긴장해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봐요.**

A: 예. (다 틀림) (무슨 헌 상장사 새 상장사 어찌고 읽었음.)

**Q: (웃으며) 좀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A: (그나마 무난)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었음.)

**Q: 화면에 나오는 거 따라 해보세요.(경례자세가 나옴)**

**Q: 다리 한 쪽 들고 서보세요.(반대쪽도 시킴)**

**Q: 쪼그려 앉아보세요.**

**Q: 오래달리기 몇 초 나왔어요?**

A: 5분 17초 나왔습니다.

**Q: 팔굽혀펴기 몇 개 했어요?**

A: 17개 했습니다.

**Q: 키 몇이예요?**

A: 167입니다.

**Q: 혹시 어디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한 적 있어요?**

A: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아 저 3살 때 팔 뺏아졌었습니다.(면접관이 한참 웃음.) 이후 부러졌다고 정정함.

**Q2: 팔 걷어볼래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거 없어요?**

A: 예. 좀 굽긴 했는데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Q2: 어렸을 때 뼈가 부러지면 좀 휘거든요.**

**6번 방: 심리 검사**

**Q: (들어가서 앉자마자)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해보세요.**

A: (당황해서)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뢰!

**Q: (손가락 한 개 접으며) 신뢰.**

A: 신뢰랑... (10초 쯤 고민하다가) 배려

**Q: (한 개 더 접으며) 배려**

A: 신뢰랑... 배려랑... (많이 고민) 희생할 수 있는 마음...?

**Q: (손가락 한 개 더 접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툭어져라 쳐다보심.)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A: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받으면 다른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풀거나 취미생활 하면서 푸는 것 같습니다.

**Q: 취미로 뭐해요?**

A: 아 농구랑 바이올린이 취미입니다.

**Q: (신기하다는 듯이) 잘 안 어울리는데 신기하네요? 그 두 개가 서로 같이 안 할 것 같은데..(나는 웃기만 함)**

**Q2: 본인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해요 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A: 저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외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외향적으로 변한 거라고요?? (이게 외향적인 거면 원래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놀랍다는 눈빛)**

A: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내성적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금 외향적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학급 임원도 하고 전교 부회장도 하고 하면서 좀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Q: 아 회장이랑 전교 부회장 했었어요? (의외라는 눈빛으로) 내성적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가게 되었어요?**

A: 그게 러닝메이트 그래서 2명에서 한 팀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그때 학급 부실장이었는데 실장이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해서 고민하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Q: 그럼 내성적이었는데 선거운동하고 연설하고 이런거 안 힘들었어요?**

A: (대답 내용 기억 안 나는데 형설수설했던 것 같음.)

**민간인 상담사 면접관: 부모님이랑 사이 어떤가요? 첫째인가요?**

A: 첫째입니다. 부모님과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민간인 Q: 부모님께서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부담되진 않아요?**

A: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 방: 종합 판정**

- 대기시간 엄청 길고 주의사항 엄청 많음.

**Q: 네 앉으세요^^.**

**Q: 농구 잘해요?**

A: 아 2학년 때까지는 꽤 잘했는데 요즘은 연습을 좀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Q: 여학생인데 주변에서 반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A: 주변에서 반대를 하기보다는 친척들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응원해주셨고, 친구들은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꼭 가라고 하면서 응원해줬습니다.

**Q: 부모님은 반대 안하셨나요?**

A: 아 부모님은 처음에는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Q: 여태껏 20년 가까이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A: 저는 저희 학교에 수학 선생님을 제일 존경합니다.(잘 기억나지 않으나, 일과 감정을 분리할 줄 아는 분이라 말한 듯)

**Q: (끄덕끄덕) 군인도 그래요. 군인도 그렇게 감정이라 일을 잘 분리해야하는데, 아주 좋은 선생님을 두었네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해보세요.**

A: (10초 정도 고민하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고...(말하는 동안 흐뭇하게 웃고 계셨음)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기가 자소서에서 쓴 내용 완벽히 숙지하고 있기

◆ 심리검사 거짓으로 체크하지 말기

◆ 수능 잘 치면 다른 데 가겠냐고 물으면 무조건 욕사 온다고 하기 (앞 사람이 체력 만점이었었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웃었는데 면접관이 한숨 쉬면서 "이러면 우리가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라고 했다고 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이화여대 경제학과]

대 학 / 학 과	이화여대 경제학과	전 형 명	고교추천전형				
면 접 시 간	5분 30초[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문통	제시문 기반	질문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실 이동 후 바로 실시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면접 순서가 무작위라고 알리지만 결국 접수번호대로 진행됨. ◆ 학생부부 기반 면접인 만큼 정말 학생부만 물음. ◆ 수상경력이란 세트를 중심으로 질문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왜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지원하셨나요?</p> <p>A :</p> <p>Q : 봉사로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네요. 본인이 왜 받았다고 생각하나요?</p> <p>A :</p> <p>Q : 어떻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었나요?</p> <p>A :</p> <p>Q : 경찰을 희망한 이유는 뭔가요?</p> <p>A :</p> <p>Q : 미적분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시가 어떤 게 있죠?</p> <p>A :</p> <p>Q : 미적분이 경제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거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의 학생 생각을 말해주세요.</p> <p>A :</p> <p>Q : 수상경력을 보니 모의유엔에서 2위를 했네요? 어떤 활동이었나요?</p> <p>A : 모의유엔(미투운동내용)에서 프랑스 대사를 맡음.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시민들보다 정부가 나서서 모습을 보임.</p> <p>Q :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도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 운동을 지지했다고 생각하나요?</p> <p>A :</p> <p>Q : 한국의 사회문화 시간에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조사했네요. 학생은 이제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면 투표를 할 건가요?</p> <p>A :</p> <p>Q : 왜 그렇죠?</p> <p>A :</p> <p>Q :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투표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을까요?</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교수님들도 내 학생부를 면접 시작하고 처음 보는 듯했음. 질문도 그냥 학생부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 묻는 느낌임.</p> <p>◆ 교수님들 반응 잘해줌,</p> <p>◆ 자기소개 같은 거 없이 바로 지원동기 물음.</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대 학 / 학 과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전 형 명	고교추천전형				
면 접 시 간	6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강의실에 앉아서 대기하고 자기 차례 앞사람이 할 때 동안 면접실 앞에서 앉아서 기다림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지원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한다. ◆ 대기실은 긴장감이 있어서 조용한 편임. ◆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지원동기</b> A : 국제회의의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 국제사무학과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영어 커뮤니케이션, 전문적인 문서 기획 및 관리 능력,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전공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의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기본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마이스 개론과 마이스 플래닝 앤 매니지먼트 전공을 보고 더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실습이 많은 강의방식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 : 수상을 보면 수학과 한국사와 관련된 수상이 많이 보이네요. 수학을 잘 하나보죠?</b> A : 네!!! (자신감 있게)							
<b>Q : 영어 연극동아리같은 활동은 보이는데 영어 수상은 보이지 않네요. 영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b> A : 영어 수상은 없지만 저는 3년 내내 높은 영어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뛰어난 내신관리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영어 덕분에 높은 영어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회화를 좋아하여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외국영화를 즐겨보는데 두 번째로 볼 땐 자막 없이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배여 있는 영어 덕분에 높은 영어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b>Q :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한 점</b> A : 저는 3학년 때 매일 아침, 반 친구들에게 국내 및 세계이슈 뉴스를 전하는 앵커로 활동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반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등교하여 제가 전할 뉴스를 정하고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편집하여 아침 시간에 뉴스를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국가 간 상호작용, 국제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키워왔습니다.							
<b>Q : 영어로 한거예요?</b> A : 아닙니다. 한국말로 하였습니다.							
<b>Q : 우리 학과가 학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 즉 자기자랑을 해 보세요</b> A :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 있는 성격,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성격, 국가 간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은 저는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Q : 마지막으로 할 말</b> A : 학과장님 인사말씀에 학과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꼭 필요한 것을 담은 그릇을 제공하고 대학은 그 그릇에 얻을 수 많은 재료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보고 졸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학교, 이 학과를 진학하게 된다면 제공받은 그릇과 재료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영어가 정말 중요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된 질문도 많구요. ◆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을 자세히 숙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학과라 그런지 기본적인 질문들 위주였습니다. ◆ 특수학과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자신의 꿈(직업)이 학과와 연관될수록 훨씬 좋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이화여대 식품공학과]

대 학 / 학 과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				
면 접 시 간	6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 고사장 앞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휴대폰 제출, 본인 확인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보면서 준비(화장실 갈 때 몸수색하고 칸 정해줌) ◆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세요.</b></p> <p>A : 학과 특징과 관련지어서 답변함.</p> <p><b>Q : 다니엘 전지 실험을 했는데 다니엘 전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b></p> <p>A : 특징이랑 원리 구체적으로 대답함.</p> <p><b>Q : 학교에서 본인을 왜 추천했다고 생각해요?</b></p> <p>A : 성실함, 진로에 대한 열망, 이타심</p> <p><b>Q : 우리 학과에 와서 이루고 싶은 것과 그 이유는?</b></p> <p>A : 3d프린팅</p> <p><b>Q : 3d프린팅 기술을 식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b></p> <p>A : 잘 모르겠습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b></p> <p>A : 준비해 간대로 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 기억해서 문장 만들어내기, 절대 당황하면 안 됨(완벽히 숙지했는데도 질문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당황해서 마지막 질문 대답 못 했음)</p> <p>◆ 대본 한 번 작성한 후에는 말하면서 익히기, 주변인과 연습하면서 영상 찍어보기</p> <p>◆ 교수님들 사진 보고가라는 말 많아서 홈페이지에서 보고 갔는데 한 분도 없었음</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대 학 / 학 과	이화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 형 명	고교추천전형				
면 접 시 간	6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 시 문 기 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면접시행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함 ◆ 면접 순서는 원서 접수 순서대로 인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학술제 때 무엇을 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지?</b></p> <p>A : 어떠한 주제로 논문을 적고 이를 발표해서 상을 받았다, 나에게 끼친 영향을 대답함.</p> <p><b>Q : ‘호질’을 읽고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했는지?</b></p> <p>A :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고 대답함.</p> <p><b>Q : 가장기억에 남는 책은?</b></p> <p>A : ‘세계를 바꾸는 작은 거인들’ 나중에 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시켜 일함.</p> <p><b>Q : 행정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했는지?</b></p> <p>A : 외교부에서 일하는 행정 공무원이 되어 중국 정책을 관리하고 싶다며 잘 연관 지어 말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이루고자하는 꿈을 자세히 절명하니 구체적이다 라고 말하며 좋아해주셨음. ◆ 미소 지으면서 대답하니 분위기 좋았음.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안함. ◆ 생기부 꼼꼼하게 보고가기 긴장하지 말 것.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대 학 / 학 과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전 형 명	고교추천전형				
면 접 시 간	5분 30초 ~ 6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휴대폰 제출. 필통 소지 불가(간단한 필기구만 가능). ◆ 금속탐지기로 신체 수색. ◆ 자소서가 없는 전형이기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해간 자료를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지원동기.</b></p> <p>A :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장기에 관심을 가졌다. 인공장기의 개발 방법은 다양하기에 그만큼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화여대의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이런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뿐더러 글로벌 필드 트레이닝과 같이 폭 넓은 경험을 제공하기에 지원했다.</p> <p><b>Q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b></p> <p>A : 창체동아리 활동으로 참여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물 통한 하천의 건강성 탐구 프로젝트이다. (이유 설명)</p> <p><b>Q : 동아리 활동이 많다. 생기부를 보면 동아리 활동 중 인공장기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가?</b></p> <p>A : 인공장기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과 직접 연구해보고 싶은 환경보전 인공장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을 했다.</p> <p><b>Q : 어떤 과목이 본 학과를 이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b></p> <p>A : 공학을 공부하기에 공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 기술을 배우는 학과이기에 생명과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b>Q : 그렇다면 생명과학과 물리 모두 좋아하는가?</b></p> <p>A : 굉장히 좋아한다.</p> <p><b>Q : 진로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b></p> <p>A : 인공장기에는 이종장기, 세포기반 인공장기, 전자기기 인공장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세포기반 인공장기에 가장 관심이 많다. 특히 효소공학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환경보전 인공장기를 연구해보고 싶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p>A : 이화여대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대학이라 생각한다. (추가)</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대학교나 학과 홈페이지, 학과 관련 영상을 보며 교수님의 얼굴을 자연스레 익혀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음. ◆ 끝까지 밝은 표정 유지. ◆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본인은 연습이 많이 부족했기에 조금 아쉬웠음.(높은 학과인 만큼 경쟁치열.) ◆ 면접 고사장에 들어갈 때 첫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제대 의용공학과]

대 학 / 학 과	인제대 의용공학과	전 형 명	자기추천자전형				
면 접 시 간	10분 ~ 20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대기한 후 면접실로 간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3대5로 면접을 본다.(면접관3명 학생 5명) ◆ 선배님들께서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어 주신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b></p> <p>A :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다스의 손을 가진 ○○○입니다. 제가 의용공학과에 지원한 계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들의 쓰임새를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가 고장 나게 되면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어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단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전문 의료기기 엔지니어 되어 병원의 의료기기를 빨리 고쳐주고 책임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고 의료기기 개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 : 1학년 1학기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b></p> <p>A : 난 의용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고 말함</p> <p><b>Q :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 할 것인가?</b></p> <p>A : 먼저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모든 강의를 녹음하면서 듣는다고 하고 하브루타 라는 학습방법을 통해 공부 할 것이라고 말함</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준비해온 것 중에서 제일 자신있는 것을 말하세요.</b></p> <p>A : 난 내가 준비 해온 것 중에서 의용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가기 1주일 전부터 친구와 함께 준비하면 잘할 수 있다. ◆ 면접 하는 동안 밝은 표정을 항상 유지할 것.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천대 생명과학과]

대 학 / 학 과	인천대 생명과학과	전 형 명	학생부 종합 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자기소개 → 질문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대기실이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고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인천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로 시작할게요.</b></p> <p>A :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8번입니다. ( 블라인드 면접 번호 )</p> <p><b>Q : 먼저 생기부를 살펴보니 성적이 1학년 보다 2학년 성적이 하락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적 하락세에 관한 질문)</b></p> <p>A : 1학년 때는 수학, 과학, 사회처럼 과목이 통합과목이었는데, 2학년에 올라가서 수학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로 나뉘고 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뉘면서 성적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목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p> <p><b>Q : 생명과학2도 수강하였는데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b></p> <p>A : 세포호흡, 광합성, DNA 부분이 어려웠습니다.</p> <p><b>Q : (그러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물학 용어를 물어보시면서 ) 이것도 배워보셨나요?</b></p> <p>A :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p> <p><b>Q : (자소서 4번을 보시면서) 여기 WWF 라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b></p> <p>A : 이러한 단체 기관이고 여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p> <p><b>Q :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명과학만 좋아해서는 안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나요?</b></p> <p>A : (사실 이때 굉장히 당황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허둥지둥 어떻게든 이으려하였다.) 아 제가 그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해서 그렇지 다른 과목을 배척하려하지 않았습 니다.</p> <p><b>Q : 고등학교 내 홍보모델 하셨네요? 홍보모델 하면서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 같나요?</b></p> <p>A : (이 질문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아 실제 수치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저희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b>Q : 홍보모델 활동 하면서 느낀 교훈이 뭔가요?</b></p> <p>A :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장점을 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b>Q :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b></p> <p>A :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음..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고1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학교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p> <p><b>Q : 면접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p> <p>A : (준비한 마지막 말) 감사합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생명과학1이나 생명과학2의 교과 지식이란 독서 내용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도 묻지 않아서 아쉬웠다.</p> <p>◆ 예상치 못한 학생부 내용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다.</p> <p>◆ 이렇게 글로 써서 그렇지 실제로 굉장히 얼버무리면서 이상하게 얘기하여서 아쉬웠다.</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천대 전기공학과]

대 학 / 학 과	인천대 전기공학과	전 형 명	고른기회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들어감.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학생부 보니까 수학성적이 좀 낮네요? 전기공학과는 수학 잘해야 하는데...</b></p> <p>A : (처음부터 이런 질문 할 줄 몰라서 엄청 당황함. 뭐라고 말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엄청 헛설수설하다가 그냥 괜찮다고 그만하라고 하셔서 답도 제대로 못 했음.)</p> <p><b>Q : 자소서에 드론 만들기 했다고 되어 있네요.</b></p> <p>A : 처음에 드론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활용할까 하는 주제에서 나온 탐구였습니다. 저희가 아예 새로 만들 수는 없어서 드론 키트를 사서 일부 변형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더 둥글고 경사지게 해서 양력을 크게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p> <p><b>Q : 경사지게 하면 더 무리가 갈 텐데 전기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b></p> <p>A :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음.) 어...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고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실험을 해 볼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수치 측정은 못 했고, 작동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했었습니다.</p> <p><b>Q :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가졌네요. 뭐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b></p> <p>A : 태양광 발전은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를 개발해서 효율을 더 높였습니다.</p> <p><b>Q : 여기 동아리 활동에 보니까 미술부도 있고 예체능 쪽에 관심 많은 것 같은데?</b></p> <p>A : 당시 있던 동아리가 폐부되면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없어서 그냥 취미로 하자 싶어 옮기고 자율 동아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p> <p><b>Q : 아, 직접 이끌어서 동아리를 만들었나요?</b></p> <p>A : 네, 제가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p> <p><b>Q : 수고하셨습니다.</b></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첫 질문에 당황하여 다음 질문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대답하지 못한 것 같음.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여 멘탈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하대 경영학과]

대 학 / 학 과	인하대 경영학과	전 형 명	인하미래인재 전형(학종)				
면 접 시 간	6분~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30분전 입실가능, 신분증확인 후 대기, 앞사람 면접 중일 경우 복도에 나가서 대기함.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스톱워치로 시간 측정함 ◆핸드폰 전원 끄기(모든 학교 공통)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어서 오세요. 많이 긴장되죠?**

A : 네(웃음) 사실 너무 오고 싶었기에 설렘반 긴장반이라 많이 떨립니다.

**Q :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좋네요. 면접 잘 할 것 같은데요?**

A : 감사합니다. 6분이라는 시간동안 저의 진실 된 모습을 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자기소개 30초 이내로 해 주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를 욕심쟁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뒤통까지 탐내는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의가 아닌, 제가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있을 제 삶에 대한 욕심이 많기에 욕심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저의 욕심은 고등학교 생활을 주체적으로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을 학생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급을 이끌어가고 다양한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여러 과정 중 하나였던 리더십캠프에서 만난 멘토가 저에게 '넌 특정문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조원들과 협력하여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 잘하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타인이보는 저의 모습이 장점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한 결과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경영컨설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경영컨설턴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2학년 때 어디 아팠나요?**

A : 네, 2학년 학기 초에 수술을 2번하였고 이후에 계속 통원치료를 다녔기에 질병 조퇴, 결석이 꽤 있습니다.

**Q : (포리질문)지금은 괜찮나요?**

A : 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고 있기에 괜찮습니다!

**Q : 봉사활동을 꾸준히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1학년 때 가입했던 MRA 봉사이후 시간이 지나 2학년 때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왔었던 것을 기억해주는 것을 보며 봉사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꾸준히 가게 되었습니다.

**Q : 4차 산업과 예측마케팅전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 있는 커피를 쿠팡에서 여러 번 구매했습니다. 이후 다시 쿠팡에 들어갔을 때 기존에 구매했던 것과 비슷한 타사의 제품들을 추천제품으로 뜨는 것이 바로 책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과 예측마케팅입니다.

**Q : (포리질문) 그렇다면 경영과 4차 산업의 연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 제가 자소서 1번에서 언급한 뉴로 마케팅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은 빅데이터 외에도 AI 인공지능망 등 인간의 뇌와 관련된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뇌 분석에 여러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마케팅에 적용하는 뉴로 마케팅이 4차 산업 시대 경영의 연관성이라 답하고 싶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가천대, 광운대와 달리 앞에 책상이 없이 의자에 앉기 때문에 손동작 조심할 것
- ◆ 면접관의 의도는 구체적인 자신의 생각이 궁금하신 것 같음.
- ◆ 당부하고 싶은 점은 답변을 달달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답변에 자신만의 가치가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나를 쳐다보지 않는 분이 있거나, 나를 너무 쳐다본다고 해서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골고루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본인의 생각이지만 이것 또한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대 학 / 학 과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전 형 명	인하미래인재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4조씩 나눠서 대기 → 순서대로 한 조에 한 명씩 문 앞에서 대기 → 순서대로 면접실 앞에서 한 명씩 대기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생각보다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 교수님들이랑 진행요원 친절하심. ◆ 대기실에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손들면 진행요원 한 명이랑 같이 감. ◆ 면접관은 2인 1조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남) 기다리는 거 부담스러웠죠? 이제 시작할게요. 3년 개근이었고, 성적을 꾸준히 좋게 유지했는데 비결이 뭐예요?</p> <p>A. 제 꿈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연출가에서 무대감독으로 꿈이 조금 바뀌었지만 3학년 때 콘서트 무대감독으로 꿈이 구체화되면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p> <p>Q. (여) 세계의 공연장 80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공연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p> <p>A. 저는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공연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시 형태로 꾸며진 돔이었는데, 건축물 설계자가 공연장이 주변의 자취에 감춰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 멀리서도 공연장이 눈에 띄도록 만들기 위해 그와 같은 형태로 지었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페라극장, 갤러리, 콘서트홀 등 복합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한 공연장이라 더 기억에 남습니다.</p> <p>Q. (남) 연극 무대에 선 적이 있나요?</p> <p>A. (무대 올린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학교 축제 때 연극을 연출해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p> <p>Q. (남) 말고 연기자로서 무대에 선 적은 없어요?</p> <p>A. 네, 전 무대 감독이 꿈이기 때문에 연기자로 활동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p> <p>Q. (여) 원무지계 기법이 뭔지 설명해줄래요? 제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요.</p> <p>A. 원무지계 기법은 주로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해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원-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무-무엇을 해 보았니? 지-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계-계획을 세워보자 라는 뜻입니다.</p> <p>Q. (여) 이건 어디서 배운 기법이에요? 직접 만든 건가?</p> <p>A. 또래상담자 활동을 하면서 배운 기법입니다.</p> <p>Q. (여) 교내 각종 행사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직접 기획하는 일을 한 거예요 보조를 한 거예요?</p> <p>A. 원래 저희 학교에서 행사의 진행요원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싶어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 행사를 보조하는 진행요원 역할을 직접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는 주로 조명과 음향을 담당했습니다.</p> <p>Q. (여) 여기에 인문학 과학 융합토크 콘서트 진행요원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행사였어요?</p> <p>A.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융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행사였습니다.</p> <p>Q. (남) 처음 콘서트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어떤 공연이었어요?</p> <p>A. 저는 사회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메시지를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Love Yourself'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여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관람하고 난 후 그 메시지가 각인되었고 저도 그러한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p> <p>Q. (남)근데 우리는 연극 영화학과가 아니라서 공연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는 않는데, 우리 학과에 와서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p> <p>A. 공연보다도 더 넓고 포괄적인 문화콘텐츠학과 문화 마케팅을 융합하여 배우고 그 내용을 공연에 접목시켜 더욱 완벽한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여기서 '공연기획과 마케팅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덧붙였어야 했는데..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학생부의 독서활동 책 하나하나 내용, 느낀 점, 인상 깊었던 문장 대충이라도 준비해서 간 것이 주요했음. ◆ 지원한 학과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면접 볼 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음. 준비해 갔는데 말 못해서 아쉬웠음. ◆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게 제일 중요함. 정말 정말 중요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하대 중국학과]

대 학 / 학 과	인하대 중국학과	전 형 명	학종(인하미래인재)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입실 → 3시간 대기 → 면접실 앞에서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간간하고 솔직한 거 좋아하시는 교수님의 압박면접!! ◆ 다들 정장입고 온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수학 성적이 1학년 때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공부했나요?</b> A :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b>Q : 3학년 때는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b> A : 수시 준비와 내신, 수능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b>Q : 수능 잘 쳤나요?</b> A : 평소 정도의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b>Q : 꿈이 국제회의 기획자라 했는데 지금의 솔직한 꿈은 무엇이죠?</b> A : 국제회의 기획자의 꿈도 있지만, 동시통역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Q : 문화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다른 직업은?</b> A : 외교관, 무역회사 관계자, 교육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Q : &lt;중국인은 왜 시끄러운가?&gt;라는 책을 읽었네요? 이 책에는 중국인이 왜 시끄럽대요?</b> A : 4성이라는 성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Q : &lt;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gt; 왜 읽었어요? 인상 깊었던 내용은?</b> A : 우리나라와 같은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의 작문 시험에서 체제에 순응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쓰면 만점을 받고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쓰면 낮은 점수를 받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b>Q : 최근에 읽은 중국 관련 기사가 있나요?</b> A : 최근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인기 여행지는 일본과 태국이었고 한국은 사드규제 때문에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 습니다.							
<b>Q : 사드규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b> A :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경제적인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머 울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대답 잘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타이머 울려서 마지막 말도 못하고 나왔다.---							
◆ 제가 면접 본 교수님이 간간하고 솔직한 거 좋아한다고 소문난 교수님이었어요.							
◆ 대기실이 덥고 건조해요.							
◆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인하대 화학공학과]

대 학 / 학 과		인하대 화학공학과	전 형 명	인하미래전형				
면 접 시 간	0분~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종이로 프린트 된 자료 보는 것 가능)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전자기기 및 아날로그시계 착용 금지 ◆ 생기부 및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1 : 자소서를 보면 화학정원을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그 과정과 원리?</b></p> <p>A :</p> <p><b>Q1-(1) : 삼투압이란?</b></p> <p>A :</p> <p><b>Q1-(2) : 사고실험을 해볼 건데 질문을 듣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U자관의 한 곳에서는 설탕물, 다른 곳에서는 그냥 물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b></p> <p>A : 동적평형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p> <p><b>Q1-(3) : 맞는데, 그거 말고 전체적인 높이 변화는?</b></p> <p>A :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설탕물 쪽의 높이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p> <p><b>Q1-(4) : 계속해서 높아지나?</b></p> <p>A : 삼투압과 외부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설탕물과 그냥 물의 높이차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b>Q1-(5) : 그렇다면 이 U자관을 우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나?</b></p> <p>A : 외부압력이 없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쪽의 물의 높이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p> <p><b>Q2 : 르샤틀리에 법칙이 뭔가요?</b></p> <p>A :</p> <p><b>Q2-(1) : 하버-보슈법에서 르샤틀리에 법칙은 어떻게 이용되었나?</b></p> <p>A : 온도가 낮은 쪽으로, 압력이 높은 쪽으로 진행됩니다. (반응식을 이용하여 추가적 설명함)</p> <p><b>Q2-(2) : 발열반응이 맞다. 그렇다면 델타H값의 부호는 무엇인가?</b></p> <p>A : -98kJ입니다 (원래는 93kJ. 실수함)</p> <p><b>Q3 : 물리를 이수하지 않았는데...?</b></p> <p>A : 저도 그 부분을 약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MBL실험활동을 비롯하여 물리와 관련한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동아리도 물,화,생,지 통합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불여만 주신다면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해 올 것입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예상한 질문이 나오면 자신감을 갖고 길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전남대 수산생명의학과]

대 학 / 학 과	전남대(여수) 수산생명의학과	전 형 명	고교생활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고교생활우수자전형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 대기→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수산생명의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b></p> <p>A : 해양병원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양 병원체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수산용 백신에 대해 밝혀진 것이 많이 없고 매년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 병원체가 일어나는 시기, 특징,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단시간에 많은 생물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수산질병관리사가 되어 꿈을 실현하고자 수산생명의학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 :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했는데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주세요.</b></p> <p>A :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을 가지만 어류 관상어, 양식어 등이 문제가 생기면 질병을 검사하거나 관리하고 처방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p> <p><b>Q : 동물병원은 돈이 될까요?</b></p> <p>A :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따로 보험처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 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p><b>Q : 그렇다면 수산질병관리원은 돈이 될까요?</b></p> <p>A : 관상어 뿐 만 아니라 양식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것에서 수요가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양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양식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중요시 되고 있어 앞으로도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p> <p><b>Q : 전국 아쿠아리움 투어를 했다고 했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b></p> <p>A : 저는 여수 아쿠아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쿠아리움과 비교했을 때 규모도 크고..</p> <p><b>Q : 개인적인 경험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여수인가요?</b></p> <p>A :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롯데 아쿠아리움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작은 규모지만 경기도에 있는 다른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없고 희귀한 벨루가라는 동물을 만날 수 있고 또 도심에 위치해있으며 아쿠아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백화점과 롯데월드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롯데 아쿠아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 :자신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b></p> <p>A : 탐구심이 강하고 긍정적이고 밝으면서 친화력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 :장점이 친화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b></p> <p>A :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계획을 세우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친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p> <p><b>Q :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요?</b></p> <p>A : 아무래도 동아리시간에 개인주제발표 활동입니다. 1학년 때 태평양 쓰레기 섬에 대해 조사를 하며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과연 오염 원인이 쓰레기와 같은 비생물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까 궁금증이 들었는데 해양병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2학년 때는 해양병원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3학년 때에는 이런 해양병원체를 막을 수 있는 수산용 백신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쓰고 발표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꼬리 질문이 매우 많았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제주대 수산생명의학과]

대 학 / 학 과	제주대 수산생명의학과	전 형 명	일반학생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체육관 집합→면접 대기실 이동→면접 순서 제비뽑기→대기 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비뽑기로 면접 순서를 정함 ◆ 대기실에 가면 준비해온 종이를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수산생명의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b></p> <p>A : 해양병원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양 병원체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수산용 백신에 대해 밝혀진 것이 많이 없고 매년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 병원체가 일어나는 시기, 특징,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단시간에 많은 생물에게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수산질병관리사가 되어 꿈을 실현하고자 수산생명의학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 : 화학과목 점수가 낮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b></p> <p>A : 저는 아무래도 성적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문제를 풀면 풀수록 새로운 부분이나 알지 못하던 부분이 나오면 집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서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계획해둔 부분까지 공부하지 못해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쉽습니다.</p> <p><b>Q : 이 학과를 졸업해서 무엇을 할 건가요?</b></p> <p>A :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식을 통한 수산물 생산이 확장되고 있지만 수산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를 졸업한 후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과 대학원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리연구과에서 수산 동물 질병 진단 기술과 양식생물의 단시간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양식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알맞은 진단법과 그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과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것입니다.</p> <p><b>Q : 알고 있는 수산용 백신이 있나요?</b></p> <p>A : 구체적인 약물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 주사법, 침지법, 경구투여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p> <p>A :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창의적이며 제주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키고 세계와의 교류를 하는 제주대의 목표를 이루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교수님과 면접관님이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면접을 하시기보다는 서류를 보시고 대화하시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딱딱함 .</p> <p>◆ 제시된 제주대 예상 질문 위주로 준비하면 답하는데 예는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중원대 항공운항학과]

대 학 / 학 과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전 형 명	일반표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나오면 바로 3명씩 들어가 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제시문 면접 ◆ 휴대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Q</div> <div>: 만약 친한 친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div> <div>A : 저의 친구가 그런 행위를 저지른다면 친구에게 먼저 가서 자신이 먼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음에도 다시 그 행동이 보이면 교칙을 통해 말씀드리고 처벌 받게 할 것입니다.</div> <div>Q :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div> <div>A : When I was 4~5 years old, I wanted to be a captain, so I applied to the aero notices department. I would study physics and English because entering the school, complete all the courses necessary to a acquire aviation majors and pilot certificates, and cultivate the level of knowledge required by airlines. So I can relieve my dream in my future.</div> <div>Q : 베르누이에 대해 (생략)</div> <div>A : 베르누이의 원리란 유체의 유속이 빨라지면 그 유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 날개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는 돌아서 가야하니 훨씬 빨라집니다. 위쪽의 낮은 압력, 아래의 높은 압력으로 뜨게 되고 양력이 발생합니다.</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다른 면접자들의 준비한 정도가 매우 높았음. ◆ 자기가 준비한 것은 자신 있게 할 것!							



대 학 / 학 과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21세기 교직적성전형				
면 접 시 간	개별 10분/집단 5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후, 개별면접 → 50분 동안 적성 검사 → 집단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실 들어가면 면접 자료 볼 수 없음, 전자기기 제출한다. ◆ 수험생과 대화 절대 금지. ◆ 개별 면접 교실이 좀 울려서 면접관님 말씀이 잘 안 들림.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주제: 숙제다운 숙제

## 숙제의 장단점, 숙제다운 숙제란?

**Q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 먼저 저는 교사가 시대에 맞춰 변화할 자세를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똑똑히 표현할 수 있는 토론, 토의 수업을 연구해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봉사 실적에 헌혈이 있는데 헌혈이 봉사라 할 수 있나요?**

A : 봉사 실적을 위해 헌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피가 부족하다는 팻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자진해서 헌혈을 하였습니다.

Q : 우유 도우미는 한 번만 한 거 아니가요?

A : 한 반에 두 명씩 뽑아 1년 동안 매일매일 배달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Q : 국제정치, 국제경제는 13명씩 수강하였는데 성적이 안 적혀 있네요?

A : 중점학급에서 두 반으로 나눠 한 학기씩 번갈아가며 수강하였기 때문에 절대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Q : 혹시 준비해온 장기 있나요?

A : 네, 저는 춤을 좋아하는데, 가능하다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Q : (웃음) 학생은 장기가 많은 학생이구만. 댄스 동아리 했어요?

A : 학업 때문에 동아리는 들지 못했고 매년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Q : 자신감도 넘치고 학생은 워낙 성적이 좋아서 다 붙어도 진주교대 안 올거지? 교대 몇 개 넣었어요?

A : 네, 5교대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주교대는 제게 2지망입니다. 이후 지원 이유를 설명함.

**Q : 말 잘했네, 허허~ 그럼 학생이 말한 행복한 학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A : 네, 저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 어필 있어요?**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진주교대는 타교대에 비해 유독 학교의 충성심을 많이 보는 거 같음. 무조건 오겠다는 느낌 강하게 어필하기.  
◆ 개별보다는 집단에 신경 쓸 것. 교대 집단 면접 중 가장 어려웠음. 개별은 가벼운 느낌이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진주교대 초등교육과]

대 학 / 학 과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전 형 명	21세기형교직적성자전형				
면 접 시 간	개별면접 : 10분 집단면접 : 50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	★	
면 접 절 차	적인성검사→개별면접→집단면접 (순서는 조에 따라 달라짐) 집단면접 실시 전에 숙고실에서 15분 동안 발표지 작성. (제시문, 연습지, 발표지, 삼색 사인펜 제공) 발표지만 반으로 접어서 집단 면접하러 이동 (지원자 간 대화 절대 금지.) 발표지를 화이트보드에 부착한 뒤 가번호 순서 or 하고 싶은 순서대로 3분 발표 (종료 1분 전 알려줌) 지원자 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데 한 사람당 1개의 질문만 가능 면접관의 전체 질문에 대해 각 지원자가 대답으로써 집단면접 종료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 시간 엄청 김. 대기실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4명씩 호명하면 개별 면접하러 올라감. ◆ 근데 대기 시간에 면접 준비 불가. 그냥 멍하게 있거나 기도하고 있어야 함. 입학 도우미 선배가 질문 받거나 재밌는 얘기해주기도 함. 대기할 때가 화장실 갈 타이밍. 눈치 보지 말고 가도록! ◆ 개별면접 들어가기 직전 문 앞에서 기다릴 때 입학 도우미 선배가 담요 덮어주고, 핫팩 주고, 손잡아주고, 말 걸어줌 ★중요: 그 선배랑 많이 대화하는 게 엄청 도움 됨. 긴장도 풀리고 입도 풀림.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 [지문] 대충 숙제의 장단점이 적혀있는 제시문. 숙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숙제다운 숙제를 위한 방안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었음.</div> <div>▣ [추가질문] 자신이 살면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의미 있었던 숙제는 무엇인가요?</div>							
Q : 지원자가 생각하는 교사의 자질?							
Q : 그렇다면 교사의 덕목은? 예를 들면 사랑이라던가-> 자질이랑 덕목이랑 뭐가 다른 건지 몰라서 당황했음.							
Q : 그 덕목을 학교생활 중에 실천해 본 경험?							
Q : 봉사활동에 시간 쓰기 아깝지 않았나?							
Q : 봉사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Q : 초등학교에는 지필 평가가 없다. 수행평가로만 평가를 치르곤 하는 데 이에 학업 수준이 낮아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 : 이제 20초 정도 남았는데 어제 숙소에서 준비한 거 한 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보통 제시문에 답이 나와 있음. 나와 있는 거 모두 적어서 발표해야 함. '이런 것까지 꼭 적어야 할까?' 싶어서 안 적으면 나중에 발표할 때 3분 못 채움.							
◆ 다른 지원자가 발표하는 거 꼼꼼하게 듣고 다 받아 적어야 함. 그래야 뭐 질문할지 결정할 수 있음.							
◆ 다들 발표 먼저 하려고 할 때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하지 말기. 적극성이 없어 보임. 그렇다고 기를 쓰고 달려들면 안 됨. 양보의 미덕도 보여주어야 함.							
◆ 제시문 보고 쓰는 것+3분 발표 꼭 많이x3 연습하고 가길. 이때 못하면 다른 지원자랑 비교 엄청나게 됨.							
◆ 학생부, 자소서 질문 하나도 안 하심. 그렇다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면접 준비할 때 개별면접 준비한다고 집단면접 준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시간 배분 잘 하시길.							
◆ 나는 꼬리 질문 많지는 않았지만 진주교대는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많기로 유명함.							
◆ 마지막 말은 자기가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면접관이 안 물어봐 준 거 있으면 그걸로 하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마지막 말 '없다'하는 사람 없었죠?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추천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청주교대 초등교육학과]

대 학 / 학 과	청주교대 초등교육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 배움나눔인재전형				
면 접 시 간	2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옆 반에서 제시문 읽고 발표 준비(10분) → 면접고사장 앞대기 → 개인발표 및 면접(5분+15분)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을 읽고 5분 동안 개인 발표를 준비해야 함.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예술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예술가들의 대처법과 교사들의 문제점  
 문제1 "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생긴 문제들에 대해 예술가와 교사의 대처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발표  
 문제2 "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교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할 것"

### Q : 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A : 네, 센터에는 몸으로 하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센터에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물어봤더니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태권도장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그 아이의 특성이나, 재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수업을 할 때는 교과목과 연관시켜 실험을 준비해가거나 몸으로 직접 해보는 활동들을 함께 해보니 더 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수업 시간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아이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됨을 배웠습니다.

### Q : 동아리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아무래도 부모님도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다른 외모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해줌으로써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문화 가정 부모님을 일일교사로 초빙해서 그 나라의 문화나 음식들을 알려주며 수업을 해봄으로써 같은 반 아이들에게도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 칭찬 메니페스토 약속 대상일지가 무엇인가요?

A : 칭찬 메니페스토 약속 대상일지는 하루에 한 번씩 칭찬, 배려, 소통을 하고 느낀 점을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친구를 정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에서 조용하고 안전한 친구가 체육시간에 민첩하게 공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장점과 재능들을 찾아 칭찬해주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습관은 교직에 나가서도 아이들에게 숨겨진 수많은 잠재성들을 발견하고 발휘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 여러 교대에 지원했을 텐데 왜 청주교대에 지원을 했죠?

A : 저의 대학 생활 목표는 교직에 나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학교는 청주교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주교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학, 과학, 미술 영재원에 대학 생활 동안 참여관찰교사로서 활동을 해보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멘토링을 해봄으로써 저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교대 교수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인자함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주교대에서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왜 많고 많은 교대 중에 청주교대에 지원했는지에 대해 꼭 물어봄. 답변 준비해가기
- ◆ 교직 시사에 대해 많이 준비해가고 연습을 해 간다면 제시문 개별 발표를 시간 맞춰서 해낼 수 있을 것임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청주대 항공운항학과]

대 학 / 학 과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전 형 명	창의면접전형				
면 접 시 간	7분~10분[면접위원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생기부 자소서 없이 면접 ◆ 휴대폰, 가방 등 가져온 모든 것 제출 ◆ 전날 청주대 기숙사 숙박 가능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조종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어릴 적 구름 위에 떠 있는 비행기 조종석에서 촬영한 영상을 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꿈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 때까지 구체적으로 조종사에 대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중3때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블랙이글스 팀의 비행을 접하며 어릴 적 경험이 되살아나 조종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선수를 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들은 친구들과 협동하여 플레이를 하고, 함께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파이팅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성격에 맞는 직종인 구인에 대한 목표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직종을 결합한 공군 조종사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 : 먼저 저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는 운동한다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꼭 연애를 해보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동아리는 학교 동아리 시간에만 보고 끝나는 형식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대학교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 외에도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Q : 졸업한 후에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어떻게 해서든 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군의 길을 걸을 것이고, 블랙이글스 팀에 소속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항기 조종사로 빠지지 않고, 공군 조종사라는 사명감 있는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 할 말 준비한 거 있나요?**

A : 따로 준비 한 건 없고, 저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한 분은 면접시간 내내 웃고 계셨고, 한 분은 공군 출신으로 딱딱한 표정으로 계셨고, 한 분은 동네 아저씨 느낌이었습니다
- ◆ 솔직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음. 연애 얘기했을 때 극히 공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함
- ◆ 사람마다 질문이 다름. 앞 사람은 항공지식에 관한 질문 받음 (양력, 중력 등)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총신대 역사교육과]

대 학 / 학 과	총신대 역사교육과	전 형 명	코람데오전형				
면 접 시 간	5분~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답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기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b></p> <p>A :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연약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주님과 멀어지고 삶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 : 자소서에서 정조의 서얼 허통법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b></p> <p>A : 역사를 돌아보면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성군들 중에서는 소외되는 이들을 정계로 끌어드려 훌륭한 통치를 펼친 왕들도 많죠. 자본에 가리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 서얼 허통법처럼 자신의 능력으로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서얼 허통법을 선택했습니다.</p> <p><b>Q : 3년 간 진로가 역사교육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 과를 선택한 이유는?</b></p> <p>A :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체육 교사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교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교수법에 대해 탐구하며 교실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고민 중, 다양한 답이 존재하고 상상력의 활용이 용이한 역사 과목이 학생의 참여와 창의력 수업을 중시하는 저의 교육적 가치관과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 :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b></p> <p>A : 저는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친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계획 없이 무작정 부딪쳐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교사에게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교수법과 심리학의 중요성을 서술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보다 수업을 계획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성숙한 교사관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p>◆ 말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급하다 보니 속도 조절을 못한 것 같다.</p> <p>◆ 신앙 관련 질문에 준비를 덜한 것 같다</p> <p>◆ 원서 내기 전에 기도 많이 해보자.</p>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충남대 경제학과]

대 학 / 학 과	충남대 경제학과	전 형 명	prism(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0분~20분[면접위원 2명] 특히 나는 면접시간이 되게 길었다. 나에 대한 흥미를 많이 가져주신 덕분.	면 접 유 형	서류기반	단문공통	제시문기반	집단토론	다중미니
			★				
면 접 절 차	입장 및 인사→자기소개→질문→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퇴장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면접관들이 되게 철저히 준비해 오신 느낌이다. ◆ 본인에 대한 흥미도가 높으면 계속해서 면접이 길어질 수 있다(이제 면접시간이 다 되었지만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런데 설명해줄 수 있냐는 등) ◆ 진심으로 자신들의 학교를 빛내기 위한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자기소개해주세요</b> <b>Q : 1학년 때 경제수업을 들었네요. 무슨 내용을 배웠나요?</b> A : 1학년 때 미시경제와 거시 경제 중 미시경제만 배웠습니다. <b>Q : 그럼 한계효용에 대한 용어를 들어봤나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b> A : 효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특정 부분이 되면 그 정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b>Q : 수학 성적이 계속해서 올랐네요. 또 수학에 대한 상이 참 많네요. 수학을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b> A : 적당히 대답함 <b>Q : 경제관련도서를 읽은 적이 있나? 설명해 달라.</b> A : 일자리혁명 2030을 읽었다.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 새로 생길 일자리 등을 알 수 있는 책이었다. <b>Q : (꼬리질문) 사라질 일자리, 새로 생길 일자리에 뭐가 있었나요?</b> A : 적당히 대답함 <b>Q : 2학년 때까지 빅 데이터 전문가가 꿈이었는데 3학년 때 경제학 연구원으로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꿈이 바뀌었습니까?</b> A : 저는 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빅 데이터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라는 분야에 흥미를 가지며 경제와 빅 데이터를 적용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경제학 연구원으로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b>Q : 자율 활동을 보면 1, 2, 3학년 간 꾸준히 인성이 좋다는 표현이 되게 많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표현이 기재되었다고 생각하나요?(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답하려고 함)</b> A :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인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을 보면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공손한 태도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신 거 같다. <b>Q : (나를 신기해하며)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이렇게 차분한 학생이 어떻게 1,2학년에 실장 활동을 하였나요?</b> A : 저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아니다.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잘 섞이지 못하는 친구를 뒤에서 많이 도와주며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다. <b>Q : 시간이 참 많이 지나서 이제 면접을 마쳐야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공유지의 사용은 무조건 비극적일까?’라는 토론을 실시하였는데 기획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요?</b> A :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여 공유지가 결국에는 소멸되는 일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과연 인간들이 할까?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이러니 교수님이 고등학생이 참 신박한 주제로 토론을 했다면서 엄청 좋아하심)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 분위기가 편안하다. 그렇지만 준비한 만큼 침착히 잘 대답하면 된다. 질문이 구체적이니까 이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돌발질문도 많이 하니까 그 순간의 집중력, 순발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충남대 자유전공학부]

대 학 / 학 과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과학전공	전 형 명	학생부종합 PRISM인재전형				
면 접 시 간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앞에서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대기 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음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div>Q : 자기소개 해보세요.</div> <div>A : (준비해간 거 말함)</div> <div>Q : 꿈이 교사인데 왜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div> <div>A : (지원동기 준비한 거 위주로 말함)</div> <div>Q : 여러 대회 활동 많이 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요?</div> <div>A : 주제탐구대회에 나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렌즈를 소재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직접 안경원에 찾아가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div> <div>Q : 책 ‘울지말고 당당하게’ 내용 말해줄 수 있어요?</div> <div>A : 1학년 때 그 책을 읽고 발표했던 경험 말하면서 줄거리 설명하고 느낀 점 말함</div> <div>Q : 책 ‘핀란드 교육의 성공’의 저자는 일본인이네요?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div> <div>A : 한국과 일본,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 참여식 수업의 효과, 장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div> <div>Q : 출신고교명, 지역 말하지 말고 본인 고등학교 특징 말해주세요.</div> <div>A : 내신을 잘 받기 좀 어려운 학교였지만 다양한 대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온전한 학업 공부 이외에도 그 대회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div> <div>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div> <div>A : (준비해간 거 말함)</div>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 할 말은 꼭 준비해가기 ◆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정보 알아간 것이 도움이 되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충북대 의예과]

대 학 / 학 과	충북대학교 의예과	전 형 명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0분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 문 앞에서 잠시 대기 → 면접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지정된 임시번호에 따라 면접 진행33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수험표 미리 인쇄할 것 ◆ 수험생들을 2개조로 나누어 진행함 ◆ 면접 끝나면 먼저 귀가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 의예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A :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위에 의대에 진학한 지인이 많았었기 때문에 의대에서 생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년의사 장기려'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힘든 상황임에도 환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의사라는 꿈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 년 반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봉사활동을 다녔었는데, 이때 환자들과 가까이서 소통해보기도 하였고 또 의료인들을 지켜보며 '나도 응급의학과에 진학해서 의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희망해 의예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 저는 2학년 때 제가 부장을 맡아 이끌었던 생명과학 실험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부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간계획 수립부터 예산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맡아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아리에서 여러 실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돼지 심장 해부실험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직접 관련 지식도 찾아보고 실험이 제대로 진행 되도록 직접 예비실험도 해보았으며, 동아리 부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도와주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Q :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하고 싶은 활동은?							
A :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학교 동아리에 가입해보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해서 운동도 하고, 대회에도 나가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동아리 같은 여가활동도 즐겨보고 싶습니다.							
Q : 지원자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함)							
Q : 앞으로 의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나요?							
A :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의학에도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사의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의사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환자와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마음의 고통까지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인성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인성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이러한 점이 인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친구들이 지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친구라고 이야기하나요?							
A : 저는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친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친구의 표정이 어둡다면 먼저 다가가 "무슨 고민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고민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무조건 고민을 해결해주기보다는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엄마 같은 친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관은 총 3명이고 대부분 웃으면서 편안하게 면접을 진행해주심. ◆ MMI면접이지만 상황제시와 같은 면접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면접 ◆ 처음에 들어갈 때 의자 옆에서 '충북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한 임시번호 00입니다.'라고 인사하면 좋아하심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대 학 / 학 과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약 1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7분간 제시문 보고 간단한 답변 작성 → 면접실에 들어가 제시문에 대한 질문에 답변+공통 질문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제시문 면접 ◆ 전공 적합성에 관한 개방형 질문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지문] 사회 변화와 교육 변화에 대한 연관성을 다룬 지문

■ [질문] 교육에 본질이 있는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 교육이 변화하는가?

A. 변화함,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교육방식만을 추구한다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워져 교육을 하는 의미가 없어짐.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현재 교육은 변화함.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인 면에서 근거를 많이 제시함 - 인공지능을 사례로 근거를 제시)

■ [추가질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유아에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A.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배운 후 이를 아이들에게 응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사가 응용한 후 그 결과물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 AR 기술과 동화책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가로 말씀드림)

Q : 본인의 유아교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자질을 들어 설명

A : 끈질기고 차분함 -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대회와 관련해서 설명(대회에 떨어졌었는데 노력해서 1등 했다는 식의 내용). 이러한 끈질기고 차분하게 노력하는 성격이 유아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함.

Q :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 장애아동과 했던 교육봉사에서의 수업을 사례로 들어, 장애유아를 위한 맞춤 수업을 위해 수업 방식에 대해 연구한 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함. (그 과정에서 현재 유아교육에서 실시되는 '놀이교육'을 적용시키는 경험을 했고,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

Q : 마지막 할 말?

A : 사촌동생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함.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마지막 할 말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을 더 어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 교육 시사에 대한 제시문 면접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면접관들이 어떤 방향의 답변을 원하는지 대충 감을 잡고 면접을 보면 좋음.
- ◆ 교육에 관한 가치관(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교육을 전하고 싶은지-방법이나 수업 주제 등, 고교 시절에 이를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교원대 중국어교육과]

대 학 / 학 과	한국교원대 중국어교육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우수자전형				
면 접 시 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문 공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니
면 접 절 차	제시문 면접 → 개방형 면접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p>◆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을 준비하는 방에서 10분간 지문을 읽고 답변을 생각한 후, 면접하는 방으로 입장.</p> <p>◆ 자신이 면접 준비한 곳에서 메모했던 종이 들고 면접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필기도구 구비되어 있음) 면접할 때 조금씩 보면서 대답해도 됩니다.</p> <p>◆ 제시문이 지문 한 개와 질문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접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고 나서 말하려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질문 두 개를 모두 바로 대답합니다.</p>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1) 교육 내용은 시대마다 달라졌는데 교육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란 있는가에 대한 입장 정하기 및 근거 말하기

(2) 현재 사회에서 가르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 내용을 (1)의 답변과 연관 짓기

- A. 저는 교육의 내용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등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므로 그에 맞춰서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사람들이 잘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법이나, 기본적인 예의 등을 가르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에는 AI가 많으므로 저는 AI와는 구별되는 인간만의 능력들이 더 가르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 앞쪽에는 나무가, 왼쪽에는 할머니 오른쪽에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AI는 장애물을 피해야한다고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 [추가질문]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앞쪽의 나무를 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요?

- A. (고민하다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Q : 중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12년 동안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3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에 매력을 느꼈고, 한국으로 전학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친구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흥미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 3년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A :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Q : 중국에서 공부 말고 따로 한 활동이 있나요?

A : 중국인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드리는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Q : 그 중국인분들 중에 아직도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A : 네 있습니다.

Q : 중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국으로 전학을 가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어를 배울 때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3년의 노력 후, 저는 중국어의

- ◆ 저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눅 들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면접 때 말할 내용을 친구나 지인에게 말하는 연습을 자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면접 때 말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잘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면접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한 번씩 꼭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많이 긴장하고, 당황해서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했던 말 반복 등)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세요.
- ◆ 교육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많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꼬리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찬찬히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면접관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알겠다고 한 후, 다음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해서 너무 당황했고, 다음 질문에 대답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교통대 항공서비스학과]

대 학 / 학 과	한국교통대 항공서비스학과	전 형 명	NAVI 전형				
면 접 시 간	50분~60분 [면접위원 3명/지원자 5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학부모 대기실 → 학생 대기실 → 직전 문 앞 → 면접고사장 → 퇴실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시간 정시에 학생 대기실로 입실 가능</li> <li>◆ 면접 순서 정해져있음 (선착순X)</li> <li>◆ 휴대폰 제출</li> <li>◆ 신분증, 수험표 검사</li> <li>◆ 학생 대기실에서 10~20분 정도 대기</li> <li>◆ 면접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1번부터</li> <li>◆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인사 안 함</li> <li>◆ 담요가 있기 때문에 앉을 때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음</li> <li>◆ 답변 순서는 12345, 23451, 34512.. 이렇게 진행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 : 자기소개 말해주세요.

A :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창시절에 학급 실장이나 지역청소년홍보대사 등 다양한 역할들에 도전하고 배우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급 실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보기도 하고, 모든 학급 인원이 자신의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기도 하며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실장이라는 칭찬을 모두에게 들으며 값진 경험이었던 실장을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하며 길러온 저의 끼와 재능들을 이곳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동반자 삼아 더욱 같고 닮아 훌륭한 승무원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Q :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목표를 가진 이후로부터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을 하며 대학교에 대해 많이 조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추천해주셨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커리큘럼과 다양한 프로그램, 비교과 외국어 활동 등을 조사하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학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꿈꾸게 되었고, 꼭 이 대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저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꿈을 이뤄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지원했습니다.

### Q : 방금 말했던 지원동기 그대로 영어로 말해보세요.

A :

### Q :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을 말해주세요.

A : 저는 외국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승무원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을 필수로 가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영어를 중점으로 공부했습니다. 매일 단어를 외우면서 단어장의 표지가 닳아 떨어질 때까지 반복했고, 직접 어법과 어휘를 사용하면서 영작을 해보기도 하면서 적응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에는 영어 토크콘서트에 학생 연사로 참여하여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도 해보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 승무원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Q : 입학 후 계획 말해주세요.**

A : 저는 학창시절에 지역청소년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때 행사 보조, 부스 활동 등을 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배운 것이 많았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입학한다면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단인 한빛나래에 들어가 승무원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해 널리 알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Q : 배워보고 싶은 과목 있으면 말해주시고 그 이유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항공안전과목을 가장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활동을 가지며 전직 승무원분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승무원 분께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이 승객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승무원이 되었을 때 승객들이 믿고 편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CPR과 같은 과목을 배우는 항공 안전 과목이 가장 배우고 싶습니다.

**Q : 강점과 장점의 차이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말해주세요.**

A : 저의 강점은 체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줄넘기부터 복싱까지 다양한 운동을 해오면서 체력을 길러왔습니다. 또한 학교의 육상부로 활동하면서 대회에 나가 끼를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들의 자세 등을 도와주면서 체육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뿌듯했습니다. 만약 승무원이 된다면 장시간 비행하기 때문에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것을 저의 체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이번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말씀해주세요.**

A :

**Q : 가장 중요하게 여긴 활동이랑 그 이유, 활동의 결과까지 말씀해주세요.**

A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한국교통대학교는 학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외운 답변, 딱딱한 말투를 안 좋아함.
- ◆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배웠고 느꼈는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답변할 것.
- ◆ 나는 답변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길게 한 편이었지만 면접관들께서 끝까지 집중해주셨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부 하고 나오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면접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 ◆ 의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조금 힘들지만 면접에 집중하다보면 50분 정말 금방 지나가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 ◆ 한국교통대학교 1단계 서류에서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거니 당당하게 면접 보고 오세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외대 러시아학과]

대 학 / 학 과	한국외대 러시아학과	전 형 명	학생부 종합전형				
면 접 시 간	7분 제한[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공통질문 없이 바로 서류질문 함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할 말 최대한 간결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주의 ◆ 시간문제로 인사나 마지막 할 말 같은 거 할 시간 안 줬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내 진로)가 AI의 발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 아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p> <p>A :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더라도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함.</p> <p>Q : 봉사활동으로 아동지역센터에서 활동했는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p> <p>A : 봉사활동의 근본적인 목표가 나눔과 배려인 만큼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함.</p> <p>Q : (내 진로)를 직업으로 가지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p> <p>Q : 독서기록사항 기반 질문 하나 있음.</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대기실이 정말 조용함. 읽을 책을 가져가던지 자소서/생기부 외우면 될 듯. ◆ 공부 열심히 해서 편하게 교과나 정시로 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 캠퍼스가 생각보다 시골 지역에 있으니 당황하지 말 것.(그래도 나름 대학가는 있음)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대 학 / 학 과	한국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7분~8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가번호 수락→순서확인→대기실에서 대기→면접장으로 이동해서 앞에서 5분 대기→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외국어 사용금지 ◆ 4~5가지의 질문밖에 하지 않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본인이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본인에게 영향을 준 관련 사건이 있나요?</b></p> <p>A :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조치를 시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시위와 외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국제법 변호사를 꿈꾸는 저는 변호사로서 강제추방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은 무엇인지, 과연 강제추방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b>Q : 본인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강제추방보다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b></p> <p>A :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p> <p><b>Q :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왜 마인어과에 지원하셨나요?</b></p> <p>A : 모의UN, 모의 국회, 글로벌저널리스트 등의 활동을 통해 말레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관련 책을 읽으며 말레이 지역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인어과에 지원하였습니다.</p> <p><b>Q : 변호사를 희망하는 계기가 있나요?</b></p> <p>A : TED라는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특기를 살리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 변호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p> <p><b>Q : 3학년에 올라와서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었는데 계기가 있나요?</b></p> <p>A : 2학년까지는 내신에도 정성을 기울였으나 활동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수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학교 인 만큼 3학년에 올라와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행사도 줄었고 성적에도 더 큰 정성을 들였습니다. 또한 3학년에 올라오며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마인어과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고, 2학년 성적으로는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이를 계기로 꼭 합격하기 위해 성적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돌발 질문은 특별히 없었고, 준비한 대로 거의 나와서 잘 대답할 수 있었다 ◆ 외국어는 절대 사용금지이니, 영어나 해당학과의 특수 언어로 자기소개나 인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외대 수학과]

대 학 / 학 과	한국외대 수학과	전 형 명	종합 전형				
면 접 시 간	7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2시간) → 문 앞에서 대기(3분) →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공격적인 질문 많이 함.(압박면접) ◆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많이 함. ◆ 면접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바나나 봉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학생부 관련 질문)</b>							
A : 공동 교육 과정인 생명과학 실험에서 한 것인데, 인체에 수술하기 전에 모의로 하는 것이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체의 신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생명과학과 관련된 것이라 준비 안 해 갔던 것이라 조금 당황했었음)							
<b>Q : 수학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 2학년, 3학년 때의 공부 할 내용이 많다 보니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흥미를 갖고 노력했습니다.							
<b>Q :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해 보세요.</b>							
A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서 나온 것으로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팅의 발달이 바탕으로 되는데 컴퓨팅의 근본이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b>Q : 수학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b>							
A : 4차 산업혁명에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나 이런 모든 것의 분석이 모두 수학의 언어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b>Q : 수학과에서 와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b>							
A : 저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2030년 프로젝트라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거기 수학자로서 일해 보고 싶습니다.							
<b>Q : 자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나에게 그래프란?</b>							
A : 판별식으로 이차방정식 근의 개수 삼차방정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Q : 동부타임즈(동아리)와 아랍어통역사의 관계가 무엇인가요?</b>							
A : 동부타임즈에서 제가 그 당시 아랍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랍문화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b>Q : 2학년 자율 동아리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b>							
A : 친구들에게 확률과 통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b>Q : 어떤 단원인가요?</b>							
A : 경우의 수입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도 생기부와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전에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 말을 묻지 않으셔서 저는 그걸 너무 열심히 준비한 탓에 너무 아쉬웠어요.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과]

대 학 / 학 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7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실 대기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면접 보기 전에 짐 다 챙겨서 가야함. ◆ 대기 시간이 순번에 따라 엄청 길어짐. (본인의 경우 2시간) 자료 볼 수 있음. ◆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다 꺼야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b>Q :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일본 경제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근데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랑 무슨 상관인가?</b>							
A : 우선, 각 나라들의 경제에 따라 무역 상황의 흐름이 결정되고 그 과정 속에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적 상황 등 각 나라의 접근은 절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지원동기)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b>Q : 그럼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의 현 상황과 전망은 어떠한가?</b>							
A :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수입해서 제조업체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수출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관세목과와 같이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 엔화는 달러를 뒤이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b>Q :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유로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b>							
A : 엔화가 유로에 비해 더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로는 여러 나라에 걸쳐있어 각 나라에 상황에 따라 독일과 같이 유로를 통한 간접적 이득을 보는 나라도 있지만, 그에 비해 손해를 보는 나라도 있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엔화는 한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단일화폐이며 달러에 이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됨으로 상대적 가치가 높습니다.							
<b>Q :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무역 상황에 대해 적었는데 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는데 엔화 가치가 높은 이유는?</b>							
A : 아베노믹스 정책 자체의 목표가 엔화의 대량 발급과 이를 통한 엔저유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저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에 있던 일본 자금이 자국에 들어올 때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이 되고 이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무역 적자는 엔화의 상승현상이므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Q : 그럼 한국의 IMF 때 통용된 SDR 화폐의 종류를 아는가?</b>							
A : 그 부분까지는 경제 과목을 배우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b>Q : 쿠릴 열도에 대해 탐구하며 세계 갈등에 접근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b>							
A : 일본은 인접국과 전부 영토분쟁 중... 센카쿠열도~ 독도~, 무엇보다 이 학과에 입학해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기소개서만으로 질문하지만 대비는 필수 ◆ 예상 질문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탄탄해야 함. (미리 준비한 대답을 토대로 답하면 도움 됨.) ◆ 그 학과의, 관련 학과의 이슈나 배경지식은 사전에 조사해야 함. ◆ 면접 시간이 매우 짧다. 합격하고 싶다는 걸 짧은 시간 안에 어필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필할지 생각할 것.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과]

대 학 / 학 과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과	전 형 명	고른기회 I 전형				
면 접 시 간	7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 → 면접 고사장 앞 대기(10분)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면접 중 외국어 사용 금지 ◆ 대기실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 면접관께서 직접 타이머 재고있으며, 시간되면 면접 바로 끊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TPUN 동아리 소개와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b></p> <p>A : 국내의 이슈에 관심 있는 애들이 모여 시사에 대해 토론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동아리 반장으로서 주제 선정, 의견 수렴, 토론 진행 등의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p> <p><b>Q :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하고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b></p> <p>A : ‘외교는 갈등이다.’ 라는 책입니다. 외교관의 자세와 자질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p><b>Q :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b></p> <p>A : TPUN입니다. 2년 간 직접 운영한 동아리였고, 전공과 가장 관련이 많아 애착을 많이 갖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p><b>Q : 공동교육과정에서 학생 주도 세미나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b></p> <p>A :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p> <p><b>Q : 그게 쉽게 가능한 일인가?</b></p> <p>A :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사정을 맞춰가면서 하면 언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 : 아동센터 봉사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b></p> <p>A :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점차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자기소개, 지원동기, 하고 싶은 말 등은 질문하지 않고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만 질문함. 서류기반으로 준비할 것. ◆ 동아리, 독서활동 위주 질문을 세부적으로 질문하심. ◆ 면접관 분들과 아이컨택이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하면 면접관 분들이 많이 웃어주셔서 마음이 편해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서대 항공관광학과]

대 학 / 학 과	한서대 항공관광학과	전 형 명	교과전형+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0~15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면접고사장 앞에서 슬리퍼 갈아신고 대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유 의 사 항]	◆ 대기할 때 핸드폰 꺼두기. ◆ 각 면접방마다 면접관님 성향이 모두 다름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교과전형>

**Q :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 향수. 친구가 향수를 선물로 주며 상큼하고 따뜻한 느낌의 향기에 내가 생각났다고 말했음.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면서 진심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에 크게 감동을 느꼈음.(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지만, 당황한 티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어조로 발표하였음.)

**Q : 받았던 상중에 생활 속 걷기 활동 우수학생 표창상이 있는데 무엇인지?**

A :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등산 및 운동장 돌기 등의 활동을 권유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20분 일찍 등교해서 운동장을 돌며 산뜻하게 하루일과를 시작했다.

**Q : 그러면 활동체크는 누가 하는지?**

A :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에 나와서 학생들을 관리하신다. ->면접관: (웃으시면서) 그럼 체육선생님도 30분 먼저 나오셔야겠다. 수고가 많으시다.(다른 면접관님들도 웃으심. 이때다 싶어 나도 같이 활짝 웃으면서 면접관님들께 눈 맞춤 시도)

**Q : 그럼 만보기로 측정하는 건지?**

A : (앞에 웃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보기로 측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며 영상을 찍어 선생님께 보여드리곤 했다.

**Q : 소통 중요-> 소통에 관한 질문.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음.**

A : 저는 지난 2년간 동아리를 이끌며 항상 부원들의 생각을 우선시했다. 매 동아리시간마다 부원들과 회의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고 후배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세심하게 챙겼다. 또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도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일반전형>

**Q : 고등학교 때 토론한적 있죠?**

A : 네. 있습니다. (생각나는 토론 경험은 없었지만 그냥 있다고 했음. 부정적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서)

**Q : 그럼 어떤 주제로 토론을 어떻게 했는지?**

A :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를 개인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인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등 잠재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런 토론한 적 없음. 다른 준비답변에서 노령화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 있는데 거기서 소스 따와서 답변함. 꼭 준비답변이 아니더라도 당황하지만 않고 다른 답변에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음)

**Q : 동아리 활동**

A : 저는 플래너라는 항공동아리에서 2년간 부장을 도맡아 활동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승무원 골든벨, 롤플레이 등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학교축제기간에는 대표 동아리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스를 체험하시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한 서비스 직종인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Q :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인지?**

A : 고등학생 1학년 때 문과는 과학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후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들어 중요한 부분은 그림을 그려가며 공부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질문했더니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교과우수상도 받을 수 있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답변을 써서 그대로 외우기보단 키워드를 정해서 말하는 연습하기
- ◆ 편한 미소가 중요! 인위적이지 않은 밝은 미소+말할 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화하듯 말하기.
- ◆ 조의 분위기도 중요함. 대기실에서 먼저 친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훨씬 덜 떨림.
- ◆ 아이컨택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눈 마주치면 활짝 웃기. 이때 인위적이면 안 됨.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서대 항공관광학과]

대 학 / 학 과	한서대 항공관광학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5~20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에서 다 같이 대기하다가 정해진 순서대로 5명씩 면접장으로 이동함 1번이 인사하고 1번부터 차례대로 질문하심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항공과 중 유일하게 학생부 기반 면접 형태 ◆ 학생부 기반 질문 2개 중 예상 질문에서 질문 1개가 주어짐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다문화 사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b></p> <p>A :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점과 단점 모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대답함).</p> <p><b>Q : 원더풀 사이언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죠?</b></p> <p>A : 1학년 때 발명품 제작에 참여할 만큼 과학 과목에 흥미가 있어 원더풀 사이언스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꽃 관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 주변의 동식물들을 관찰하여 친구들과 함께 발표를 하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같이 대답</p> <p><b>Q : 꽃동네 봉사활동을 개인으로 간 건가요? 학교에서 간 건가요?</b></p> <p>A : 고등학교 2학년때 학교에서 2박3일간 봉사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참여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리며 평소 관심 있던 수화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꽃동네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가 눈이 나빠 안경을 쓰 듯 그 분들이 앓고 계신 아픔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학생부 기반 질문을 위한 분석이 필요함. 특히 앞면을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음(수상경력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음) ◆ 다른 친구들이 대답을 할 때에도 쳐다보시니 대기미소를 유지해야 할 것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키지 않으신다면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같은 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했으나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하지 말라고 함.) ◆ 한서대학교는 대기할 때나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니 대기할 때 학생부를 챙겨서 면접 전에 한번 보는 것이 좋을 듯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한서대 항공운항과]

대 학 / 학 과	한서대 항공운항과	전 형 명	일반전형				
면 접 시 간	10분 ~ 15분 [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중 미
			★				
면 접 절 차	대기실 → 고사장(대기) → 면접 → 퇴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긴장 늦추기 말기 ◆ 전자기기 제출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리더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것은? (리더의 자질)</b></p> <p>A : 창의성 ~, 민감성(변화에 빨리 적응), 나머지는 기억 안 남.</p> <p><b>Q : 수상 경력에 수학경시대회 최우수상이 있던데~, 방법은?</b></p> <p>A :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수학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교내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공부한 방식을 살짝 넣어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p> <p><b>Q : 3년 동안 비행기 조종사 꿈이 확고한데, 정한 계기는?</b></p> <p>A : 저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많은 승객을 태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누구 일까 존경심에 불탔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게 비행기 관련 지식과 영상을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엔 항공시장이 팽창하고 저가 항공사의 증가, 신규 노선 개발 등으로 인해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해졌다고 해서 꿈이 한층 더 커지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p> <p><b>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p> <p>A : 지원동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1학년에 다니는 선배 이야기를 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인성 질문 대답 준비가 아쉬웠다. ◆ 한서대 엄청 엄격하니까 준비 많이 할 것. (학과 소개, 교수, 비행기) ◆ 긴장해서 인상이 굳었는데 연습 많이 해서 조금 웃으면 좋을 것 같다.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호서대 항공서비스학과]

대 학 / 학 과	호서대 항공서비스학과	전 형 명	면접전형				
면 접 시 간	10분~15분 (면접관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 대기장소 대기 → 수험번호 부르면 대기 → 입장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면접복 착용 (슬리퍼 제공) , 교복 금지 ◆ 블라인드 면접 ◆ 일어서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호서대 항공서비스학과 지원동기</b></p> <p>A : -</p> <p><b>Q : 4가지 역량 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b></p> <p>A : 저는 협업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급 임원을 맡으면서 친구들과 잘 소통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키웠습니다.</p> <p><b>Q : 승무원이 필요한 자질 2가지</b></p> <p>A : 첫 번째로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내 안에서 한 승무원이 몇 십 명의 승객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업무를 잘 수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날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내 안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마인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p> <p><b>Q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승무원 자질은? (꼬리질문)</b></p> <p>A :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면접 예상 질문이 나오고, 호서대학교 4대 역량에 대해 알아가기 ◆ 일어서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무릎 붙는 거, 대기 미소 중요 ◆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하세요. 면접자 5명에서 들어감.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호서대 환경공학과]

대 학 / 학 과	호서대 환경공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5분~10분[면접위원 3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공 통	제시문 기반	집단 토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면접대기실→1순서 전에 면접 대기실 밖에서 대기→ 면접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3명이 질문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 환경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수행했던 교과 외 활동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p> <p>A :</p> <p>Q :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p> <p>A :</p> <p>Q : 환경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을 설명해보세요</p> <p>A :</p> <p>Q : [추가질문(지문에없음)] 체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하였습니다니까</p> <p>A :</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 ◆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홍익대(세종) 게임그래픽디자인학과]

대 학 / 학 과	홍익대(세종) 게임그래픽디자인학과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24분+10분 [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문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		★		
면 접 절 차	대기 면접						
면 접 특 징 [유의사항]	◆ 24분 동안 2개 유형의 문제를 풀 (비교설명+드로잉). ◆ 1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며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두 번째 드로잉을 설명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 : 게임그래픽디자인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b></p> <p>A : 고등학교 재학 중 친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게임에 있어서 디자인이 플레이어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p> <p><b>Q : 좋아하는 게임 그래픽 디자인은?</b></p> <p>A : 평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겨하는데, 캐릭터 디자인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 캐릭터의 특징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음. 따라서 사실적인 묘사를 좋아함.</p>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질문의 핵심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음.							
◆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정리한 뒤 대답했으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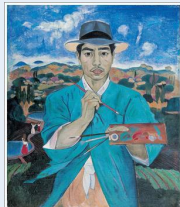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홍익대 디자인학부]

대 학 / 학 과	홍익대 디자인학부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 접 시 간	약 10분[면접위원 2명]	면 접 유 형	서류 기반	단 공 통	제시문 기반	집 단 토 론	다 중 미 니
					★		
면 접 절 차	대기실 대기→답변 준비실에서 24분 동안 문제풀이/그림 그리기→면접→퇴실						
면 접 특 징 [ 유 의 사 항 ]	◆ 대기하는 동안 자료 볼 수 없음 ◆ 대기실 구석에 답변 준비실 있음. 4B연필, 지우개주고 준비시간 끝나기 5분전에 시간 알려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 [지문]

1. 아래 제시된 세 작품을 보고 비교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십시오.



(가)David hockney, Mother 1

(나)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다)Jean michel Basquiat, Self portrait as heel

2.다음은 숲을 폐에 비유한 작품이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하나 선정하고 비유를 사용한 이미지를 그리시오 (정확히 기억 안남..)



## ■ [질문1]

A1. 먼저 가와 나는 다에 비해 사실적인 색을 사용했습니다. 가의 경우 사진을 찍고 분할한 다음 그걸 다시 콜라주처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스티커를 붙인 느낌도 나고 인물의 내면을 궁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보면서 보통 생각하는 여성 노인이 아니라 깊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그림은 인물이 뭘 하고 있는지 제일 잘 드러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화가의 자화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중에 눈의 초점이 제일 잘 알아볼 수 있어서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색다른 배경을 결합해서 작가의 가치관, 이상향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다의 경우는 제일 추상적이고, 중앙이 아니라 치우쳐지게 배치해서 불안정한 느낌도 납니다. 또 원색을 사용했고, 선이 면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감상자에게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 ■ [추가질문]

Q. 아까 두 번째 그림 설명할 때 의지적인 태도? 그게 어떻게 보여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묻는 질문이었음. )

A. 이 인물을 처음 딱 봤을 때 눈도 정면을 보고 있고 감상자를 강하게 쏘아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Q. 배경이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 얘기해볼래요?

A. 아 보통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화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면접위원1: 화실이요? /면접위원2: 작업실 같은 데서 그리

니까 보통) 네, 근데 배경이 자연이고 그것도 실제로 보고 그린 자연 같지는 않아서 작가가 가고 싶은 곳, 추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 ■ [질문2]

A2. 저는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게 양육자는 사랑이라고 생각 하지만 아이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코끼리로 나타내고, 아이를 계란으로 표현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알을 품으려고 하지만? 아이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나타냈습니다.

#### ■ [추가질문]

**Q. 근데 알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A. 음 저는 계란을 시점에 안 맞게 표현한 게 아쉬웠는데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계란 크기도 좀 키우고 제일 사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면접위원1: 코끼리는 줄이고요?) 아뇨 줄이지는 않고 여기 배경도 어두운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코끼리 윗부분을 밝기를 낮춰서 계란을 강조하겠습니다.

**Q.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A. 제목은 제가 그리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데 (면접위원2: 제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목은 '품기 전에 생각했나요?' 로 하겠습니다.

**Q**

**. 책을 되게 많이 읽었네요? 논어도 읽었네? 이거..82년생 김지영도 읽었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우선, 논어는 2학년 때 관련 방과후학교가 개설되어서 호기심에 들어보며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저에게 처음 접하는 페미니즘소설이었습니다...(기억안남) 그리고 제가 결혼생활은 안 해봤지만 부모님이랑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 부조리를 다루면서도 그렇게 감정적인 소설이 아니어서 공감하기 쉬웠습니다.

**Q. 그래서 이 소설의 주장을 동의하는 편이에요?**

A. 네 동의하는 편입니다.

**Q. 우키요에 책도 읽었네?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제목임)**

A. 네 제가 동아시야사 공부하면서 서민문화파트 때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화 같은 경우엔 개인이 취미로 그린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책에서는 공장처럼 그림을 찍어내는 과정을 보여줘서 '아 이때부터 상업적인 그림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우키요에가 퍼진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은 잘 기억 안남..)

**Q. 서양에 퍼져서 어떻게 됐는데?(대충 더 설명해보라는 뜻)**

A. 우키요에가 서양에 퍼져서 고흐나 여러 화가들이 자기 그림에 우키요에를 넣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A.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한국인이 썼는데 이 작가가 우키요에가 서양에서 유행을 타긴 했지만 깊이 있는 작품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얘기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 [본인이 느꼈던 잘한 점, 아쉬운 점, 준비해야 할 것 /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 문제 2번 드로잉은 제목 꼭 생각해 가야함!
- ◆ 면접위원과 거리가 있으니 크고 확실하게 그리고, 선 굵기 정도 다듬어서 신경 썼다는 느낌 주면 좋을 듯함!
- ◆ 미술교과서 2~3권 정독하면서 미술사 훑어보기, 작품에 대해 나름 해석해보기, 조형원리 익히기(말로 나올 만큼)

### 자료 출처 및 제작 관련 사항

이 자료집은 2021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 대비하여 고3 진로·진학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면접 후기는 86개 대학 400건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Ⅰ. 대구·경북과 Ⅱ. 수도권 및 대구·경북외 지역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면접 후기 작성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자료 제작에 협조해주신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진학부장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20학년도 대입면접후기 자료집 편집위원(가나다순)

발간 위원	편집 위원	권상규(능인고) 김정애(경북여고) 남영희(대구과고) 류동형(화원고) 문연식(현풍고) 백윤용(다사고) 이재은(성산고) 차혜련(보건고) 현계욱(성서고) 홍성관(원화여고) 홍준연(경일여고) 황양자(대구여고)
	검토 위원	장은길(포산고)
발 행 일		2020년 7월
발 행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발 행 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